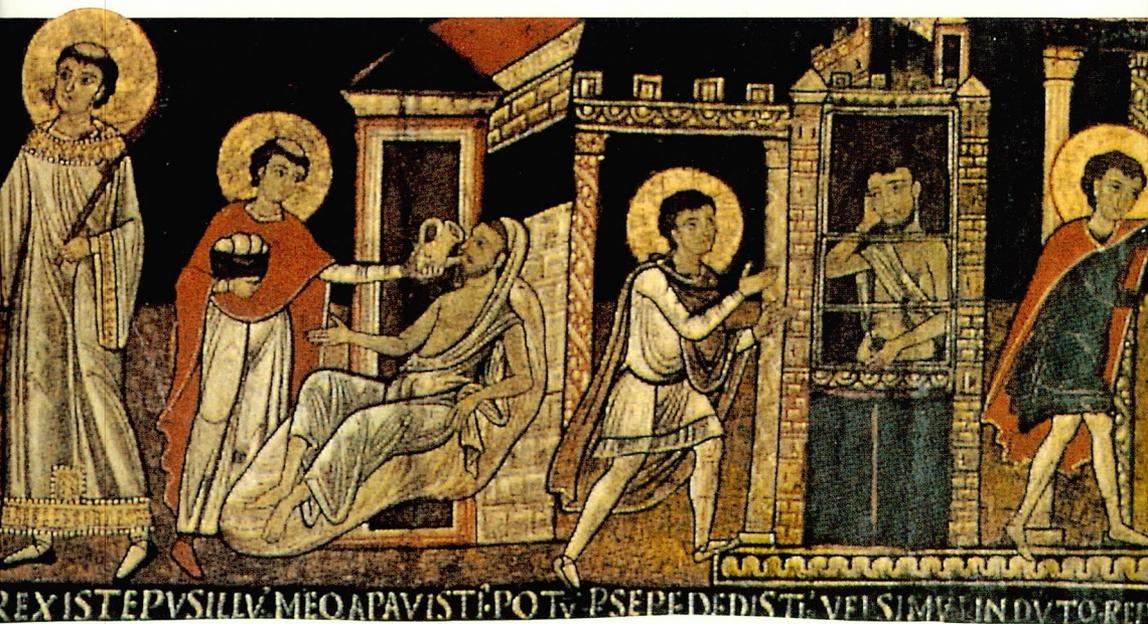


신약교회사관에 의한
새교회사 I

정수영 목사지음



도서출판 **명현**



정수영 (鄭秀永)

1940년생

■ 저자소개 ■

『학력』

한국신학대학 졸업(신학사. Th.B)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M.A)

리버티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기독교 교육학 석사. M.R.A. 신학석사 Th.M)

인터내셔널 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 박사. D.Min)

웨이스 신학대학원 졸업 (신학박사. Th.D)

『목회』

충남 장항교회 목사

공군 군목(소령예편)

반포 침례교회 목사

벤엘 침례교회 목사

『교수』

수도침례신학교 및 목회 대학원

성서 침례 신학교

성결교 신학 대학원

서울 고려신학교

그리스도 신학대학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명지대학교

현재 대전 침례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사회』

기독교 실업인회 성경 공부 인도

사모, 햇불회 성경공부 인도

극동 방송국 고정 설교

건설 교통부 신우회 성경공부 인도

『저술』

새 교회사 I. II. (규장)

현대 신학(절판) (규장)

기독교 교리사(절판) (규장)

기독교 교리 (규장)

베드로 전, 후서 강해 (바울)

히브리서 강해 (규장)

마태복음 강해 (임마누엘)

재 침례교도의 역사 (요단)

신학의 역사 (명현)

부흥의 역사 (명현)

에베소서 강해 (명현)

빌립보서 강해 (명현)

신약교회서관에 의한
새교회사 I

정수영 목사지음

도서 **명현**
출판

CHURCH HISTORY
ON THE BASIS OF THE NEW TESTAMENT

by SOO YOUNG, CHUNG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새 교회사 I

“나의 교회사 연구의

첫 열매인 이 책을

나를 위해

23년간 순종과 희생의 사랑만 쏟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의 아내 고 박숙자 사모에게

드립니다.”

교회사 연구의 새 차원 전개

역사를 사건의 나열이나 연대표, 또는 인명록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하는 사람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는 눈(사관)이다.

참으로 많은 사관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도 이 사관, 저 사관이 우열을 재고 있다. 식민지사관, 민족사관, 선교사관, 민족교회사관, 민중교회사관…

정수영 목사님의 이 책은 '신약교회사관'에 의해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추천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에 의한 교회사 연구의 새 차원 전개라고 확신한다. 교회의 역사는 마땅히 이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초대교회를 본받으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선교도 기교나 세부적인 방법보다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려는 '능력선교'가 큰 흐름이 되고 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정수영 목사님을 택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사 연구를 이끄는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다.

정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이다. 본 추천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 역저(力著)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젖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책은 정수영 목사님의 칼날같이 날카로운 예지, 선명한 신앙자세, 외길을 걸어온 학문연구와 일선목회의 값진 결정이다.

한국교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추천한다.

1991. 6. 1.

김 장 환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극동방송 사장

새로운 신약교회 사관을 제언하면서

오늘 내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는 두 분의 영향이 컸다. 한분은 나를 미국 침례신학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선하고 협조해주신 김장환 목사님이요, 다른 한 분은 미국 신학교에서 침례교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김창엽 박사님이시다.

나는 1978년 미국 Virginia주 Lynchburg에 있는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김박사님 지도로 역사신학을 공부하였다. 이때 나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새로운 사관을 배웠다. 내가 신약교회 중심의 사관으로 신학이 달라지자 나의 신앙도 달라졌다. 그 뒤 나는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서 작은 봉사라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졌다.

1982년에 귀국하여 목회와 함께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가서 교회사 강의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도침례신학교, 목회대학원, 성서신학교, 성서침례신학교 등에 강의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는 중에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첫째, 역사가 무엇이나 하는 데 대하여 다소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학교 강의를 위해 여러 역사에 관한 책들을 섭렵하였다. 이런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역사란 역사를 보는 이의 마음가짐과 눈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나는 195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우리나라 구한말에 일어난 동학(東學)사건을 통칭하여 동학난(東學亂)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1970년대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현금에 와서는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왜 다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느 때는 난(亂)이라고 보고 이제 와서는 혁명이라고 보는가?

이것은 사건을 보는 마음가짐과 눈(이것을 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는 한 예에 불과하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가, 우리의 지식 또는 견해들은 거의가 서구 유럽인들 또

는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물론 이것은 내가 공부해 오면서 느낀 학문적 호기심과 상상에 불과하지만 잘 알다시피 최초의 신약교회는 중동의 팔레스틴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한 곳은 먼 바다 건너 이태리,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주 무대가 된다. 그에 반해서 팔레스틴과 가장 가까운 애굽과 시리아 지역 등에서는 교회가 크게 자라지 못한다.

이들 애굽교회나 시리아교회들은 회교도의 강압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교회들이 대륙으로 건너간 유럽 교회들보다는 좀 더 신약교회의 이상에 가깝지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같은 상상은 중동을 여행하고 나서 유럽과 미국의 신학을 비교해 보면 가능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것에서 다소 진전을 하려고 노력한 유럽의 개혁 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신대륙에서 마음껏 자란 자유의 풍토 속에서 생겨진 신학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고 또 그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아무 비판없이 수용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요청된다. 과거의 무비판적이고 무방비적인 상태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 음미하고 재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이해이다. 여기서 나의 학문이 시작되었다.

둘째,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확고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을 나는 신약교회의 원리에 근거한 신약교회 중심의 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본다.

즉, 2천년 교회 역사 안에는 너무도 많은 각종 종파나 교파들이 생겨졌다. 이들 각종 종파나 교파는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자기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저 모든 목소리를 판단할 규범으로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 유일한 판단의 척도는 신약교회의 원리가 가장 완전무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교회가 자기들 교리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파문하고 극형을 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이 옳은 일이고 극형을 당한 자는 이단이었다고 기록해 놓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모든 견해는 이들의 견해에 의존하여 설명되고 있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정열을 가진 개혁자들에게 기왕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철저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핍박하였다.

영국 국교회는 자기들 국교회 기준에 맞지 않는 비 국교도들을 탄압하고 추방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범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이 그 당시 주도적 세력을 가진 자(尺)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이단이라는 누명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연연하게 전해온다. 그런데 과연 이단은 누가 이단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약 교회의 원리로써만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재 침례교도들의 역사」라는 책을 번역하였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정말 이단으로 정죄될 사람은 자신이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종파적, 교파적, 교리적 편견과 아집 때문에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을 크게 확대하여 엄청난 만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같은 우행이 반복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가 아무리 큰 세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세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가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했느냐, 벗어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원리의 기준으로 보아 틀린 자는 잠잠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동기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셋째,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관의 혼란이다. 필자가 교회가 무엇이나 라는 항목에서 잠시 언급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교회관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너무도 변질된 착각 속에 오염당하고 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중에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에는 그 시대의 등대로 빛의 기능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크게 치부하고 성공하여 대중 위에 군림할 때에는 그 사회는 병들고 그 시대 문화와 정치는 부패하였다.

나는 이 교회사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밝히 보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 도전을 위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 교회사를 통하여 오늘날 만연되어가는 성공 우상시대의 잠에서 깨어나 엄위하신 주님이 당신의 하신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터득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바라기는 나의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하여 교회사 제2부를 속히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작은 거둠을 통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바라고 원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

1991. 6. 1.

저자 행당동 일우에서 정수영

■ 차례

헌사

추천사/교회사 연구의 새 차원 전개-김장환

머리말/새로운 사관을 제언하면서-정수영

제1장 서론

1. 역사란 무엇인가? · 19
2.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견해 · 20
(1) 순환사관(윤회적 사관) (2) 진행사관(수직적 역사관)
3. 교회도 역사가 있는가? · 20

제2장 초대교회의 배경

1. 정치적·사회적 배경 · 22
(1) 애굽시대 (2) 바벨론시대 (3) 메대·바사시대 (4) 그리스(헬라)시대
(5) 로마시대
2. 문화적·종교적 배경 · 24
(1) 회당 (2) 디아스포라 (3) 바리새인 (4) 사두개인 (5) 공회 (6) 옛세네파

제3장 교회의 시작

1. 교회는 어느 때 시작되었는가? · 28
 2. 신약교회의 공통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 · 30
(1)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
(2) 믿는 자의 만인제사장권의 보장
(3) 독립 개교회 중심의 행정정치
(4) 두 가지(목사와 집사)만의 직분
(5) 두 가지(침례와 주의만찬)만의 의식
(6) 믿는 자(영접한 자)에게만 실시하는 침례의식
(7) 핍박받는 신약교회
(8) 선교와 복음이 팽창되는 교회
(9) 중생한 자로 회원이 구성되는 신약교회
(10) 형제애로 다져지는 신약교회
(11) 제자가 양육되는 신약교회
(12)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신약교회
-

3.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 51

제4장 사도들이 남긴 공적과 결과

1. 사도들이 남긴 공적 · 55

(1) 선교의 확장 (2) 신약성서의 기록

2. 사도들이 남긴 결과 · 64

(1) 핍박 (2) 핍박의 과정 (3) 핍박의 원인 (4) 핍박의 결과 (5) 예루살렘 함락

제5장 초기의 문서들

1. 사도신경 · 78

2. 12사도 교훈집 · 82

3. 외경 · 84

제6장 교부들 연구

1. 사도적 교부들(속칭속사도) · 89

(1) 로마의 클레멘트 (2) 이그나시우스 (3) 헬마스 (4) 폴리갑 (5) 파피어스 (6) 바나바 (7) 디오그네투스의 편지

2.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 · 94

(1) 변증가 (2) 헬라 교부들 (3) 라틴 교부들 (4) 결론적 고찰

제7장 신자들의 생활

1. 예배 · 111

2. 절기와 행사 · 113

3. 교회의 정치 · 114

4. 기독교인의 일반생활 · 114

제8장 교회회의(교리 논쟁)

1. 대대적 박해 후에 온 승리 · 116

2. 콘스탄틴 대제의 인물 · 118

3. 교회회의 · 123

(1) 니케아회의 (2) 콘스탄티노플 회의 (3) 에베소 회의 (4) 칼케돈 회의 (5) 제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6)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제9장 수도원 운동

1. 안토니 · 134
2. 파코미우스 · 135
3. 기둥 성자 시므온 · 136
4. 제롬 · 136
5. 베네딕트 · 137

제10장 이단사상의 발생

1. 영지주의 · 139
2. 에비온주의 · 142
3. 말시온파 · 143
4. 네오 플라톤주의 · 145

제11장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

1. 신약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 · 147
 - (1) 혹독한 박해 때문이었다.
 - (2) 이교사상과 철학의 영향이 컸다.
 - (3) 의식의 남용이 교회를 부패시켰다.
 - (4) 교회 행정상의 난맥이 교회를 부패시켰다.
 - (5)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부패를 가져왔다.
2. 분파주의자 · 150
 - (1) 몬타니스트
 - (2) 노바티안파
 - (3) 도나티스트파

제12장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1. 어거스틴 이전의 지도자 · 160
 - (1) 카파도키아인들
 - (2) 밀란의 암브로즈
 - (3) 크리소스톰
 2. 어거스틴의 출현 · 166
 - (1) 어거스틴의 회개
 - (2) 어거스틴의 사역
 - (3) 어거스틴의 공적
 3.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 175
-

제13장 교황권 제도의 발전사

1.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 · 180
(1) 성경적 기초 (2) 역사적 기초 (3) 결론
2. 성경에 의한 증명 · 182
3. 교황권의 기초자들 · 184
(1) 역대의 교부들 (2) 레오 1세 (3) 그레고리 1세 (4) 그레고리 7세 (5) 이노센트 3세

제14장 이시도리안 교령집

1. 교령집의 종류 · 195
(1) 디오니시우스의 교령집 (2) 이시도루스 세빌레의 교령집 (3) 위-이시도레 교령집
2. 교령집의 내용 · 196
3. 이시도리안 교령집의 평가 · 197

제15장 마호메트교(이슬람교)

1. 이슬람교는 무엇인가? · 200
2. 예언자 마호메트 · 201
3. 코란 · 203
4. 이슬람교의 확장 · 211
(1) 수니파 또는 순나파 (2) 시아파
5.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 · 215

제16장 동서교회의 분리

1. 로마제국의 쇠퇴 · 217
2. 교황청의 부상 · 218
3. 동서교회의 분리 · 220

제17장 십자군 전쟁

1. 제1회 십자군(1096-1099) · 224
 2. 제2회 십자군(1147-1149) · 226
 3. 제3회 십자군(1189-1192) · 226
-

- 4. 제4회 십자군(1202-1204) · 228
- 5. 제5회 십자군(1212-1221) · 229
- 6. 제6회 십자군(1227-1229) · 239
- 7. 제7회 십자군(1248-1250) · 231
- 8. 제8회 십자군(1270) · 232
- 9. 십자군 전쟁의 결과 · 232
 - (1) 긍정적 요소 (2) 부정적 요소

제18장 교황권의 타락

- 1. 교황들의 부패 · 235
 - (1) 하드리아누스 1세 (2) 파스칼리스 1세 (3) 하드리아누스 2세
- 2. 바벨론 포로기 · 237
 - (1) 교황 보니페이스 8세 (2) 교황 베네딕트 11세 (3) 클레멘트 5세 (4) 요한 22세
 - (5) 베네딕트 12세 (6) 클레멘트 6세 (7) 이노센트 6세 (8) 우르반 5세 (9) 그레고리 11세
- 3. 두 개의 교황청 · 245
 - (1) 이탈리아인 교황 우르반 6세 (2) 프랑스인 클레멘트 7세 (3) 두 개의 교황청

제19장 중세기의 미신 사상

- 1. 천사예배 · 248
 - (1) 초대교회로부터 칼케돈회의(451년)까지
 - (2) 칼케돈회의(451년)로부터 800년대까지
- 2. 성모예배 · 251
 - (1) 초기 3세기까지 (2) 니케아회의에서부터(325년) 서 로마제국 멸망기(476년)까지
 - (3) 중세기(1500년까지)
- 3. 성자들 예배 · 255
- 4. 그림(성화) 성물의 숭배 · 257
- 5. 성례전 중 미신사상 · 258
 - (1) 세례 (2) 견진 (3) 성체미사 (4) 신품 (5) 고백 (6) 결혼 (7) 중부성사

제20장 신약교회 고수주의자

1. 프리스킬리안 · 265
2. 바울파 · 269
3. 보고밀 · 273
4. 알비파 · 280
5. 아놀드파 · 286
6. 왈도파 · 288

제21장 중세기 교회의 두 기둥

1. 수도원의 개혁운동 · 296
 - (1) 도미니크 (2) 프랜시스
2. 스콜라신학 · 303
 - (1) 제1기(8-10세기) (2) 제2기(11-12세기)
 - (3) 제3기(13세기-스콜라신학의 전성기)
 - (4) 제4기(14-15세기)-스콜라신학의 쇠퇴기
 - (5) 스콜라주의의 공헌 (6) 스콜라주의의 위험요소

제22장 대학의 발전

1. 대학이 생기게 되는 원인 · 317
 - (1) 연구기능 (2) 교수기능 (3) 봉사기능
2. 최초의 대학 · 319
3. 교과과정 · 320
4. 평가 · 321

제23장 개혁의 열망

1. 신비주의 운동 · 322
 - (1) 엑카르트 (2) 타울러 (3) 다른 신비주의 활동
 2. 종교회의의 운동 · 326
 - (1) 종교회의의 운동의 발전 (2) 제1차 피사회의 (3) 제2차 콘스탄틴회의 (4) 바젤회의
 - (5) 종교회의의 운동의 결과
 3. 개혁 전의 개혁자들 · 335
 - (1) 존 위클리프 (2) 존 후쓰 (3)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

제24장 문예부흥과 인문주의

1. 문예부흥 · 349

(1) 이탈리아에서의 문예 활동가 (2) 독일에서의 문예 활동 (3) 예술에서의 새로운 활동

2. 인문주의 · 253

· 교회사 제1부를 마치면서 · 356

· 참고문헌 · 357

· 색인 · 359

제 1 장 서론

1.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라는 말에 대한 다양한 증언

- (1) 역사란 실레로써 가르치는 철학이다. (로마 유적의 비문)

History is Philosophy teaching by examples.

- (2) 역사는 인류의 범죄와 우행과 재난들의 기록 이상의 것이 아니다. (Edward Gibbon. 로마 제국의 흥망사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History is, indeed, little more than the register of the crimes, follies, and misfortunes of mankind.

- (3)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Karl Marx. 공산당 선언, 1848)

The History of all hitherto existing society is the history of class struggles.

- (4)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Thomas Jefferson)

History by apprising(men) of past, will enable them to judge of the future.

- (5) 역사가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의 주관에 따라 기술한다. (Benjamin Franklin)

Historians relate, not so much what is done, as what they would have believed.

- (6) 역사란 인간들이 걸어온 삶의 자취이다. 정확히 말해서 역사란 없고, 전기가

있을 따름이다. (Emerson)

There is properly, not history, only biography.

(7)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특정한 사관에 따라 해석한 것을 가지고 미래사에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정수영)

2.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견해

앞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현재까지 정립되어 있는 역사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순환사관(윤회적 사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사건들은 모두가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고 믿는 사관이다. 예컨대 불교, 힌두교, Hellenism에서는 똑같은 원리가 무한히 반복되고 되풀이 되어 전개된다고 믿는다.

현생은 반드시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삶은 전생에서 다시 현생으로 이어지는 반복이라고 본다.

이 사관의 단점은 위기의식이 없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므로 추진력 보다는 적응력을 선호한다.

(2) 진행사관(수직적 역사관)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Hebraism과 기독교는 시작과 종말을 반드시 믿는다. 이 사관의 장점으로서는 추진력이 있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혁명을 통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적극성이 그 특징이다.

3. 교회도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님의 주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의 역사처럼 교회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교회'(보이는 교회)는 2천년 동안 인간들의 역사처럼 계속되어 왔으나 '참된 교회'(보이지 않는 교회)는 인간 역사 위에서 항상 존재해왔다. 그

러므로 교회도 역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인간들에 의해 수난당하고 짓밟히고 부패하는 등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산 교회의 역사를 따로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 두 사이(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알 때에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배운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장 초대교회의 배경

1. 정치적·사회적 배경

초대교회는 유대나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유대나라는 로마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였다. 그리고 유대나라의 국민들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타 민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갔다.

이같은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나라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유대나라는 5개의 변방국가들과의 관계가 있다.

- ① 애굽(출애굽과 해방)
- ② 바벨론(나라의 멸망과 포로)
- ③ 페르시아(포로의 석방과 귀환)
- ④ 그리스(헬라문화와 언어생활)
- ⑤ 로마(정치적 예속)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자.

(1) 애굽시대(BC1600-1200) Egyptian Empire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여년 동안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다.

400년 후에 저들은 모세의 지도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로 다시 4-500년 동안에 강대한 왕국을 세운다. 그 후 솔로몬왕의 말년에 왕

국은 남북으로 분열된다.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으며 이 나라는 BC721년에 앓수르(Assyria)에 의해 무너지고, 남쪽의 2지파는 '유대'라 하여 조금 더 존속되다가 BC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

(2) 바벨론시대 (BC606-536) Babylonian Empire

BC586년에 완전히 포로되기 이전에 (BC606) 포로되어 갔던 이 민족은 포로 생활 70여년을 보낸다. 그 후 BC536년에 포로들이 본국에 돌아와 성전 재건과 함께 국민생활을 하게 된다.

(3) 매대·바사시대 (BC536-330) Persian Empire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풀려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재건과 신앙운동을 회복하려고 진력한다. 이 무렵에 구약성경이 모두 완성된다.

(4) 그리스(헬라)시대 (BC330-167) Greek Empire

헬라의 역사는 신화로 가득차 있다. 헬라의 시작은 사사시대인 BC12세기로 추정된다. BC1000년경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트로이 전쟁과 호머시인이 살았던 때이다.

헬라의 본격적인 역사는 첫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BC776년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BC500-331년에 바사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제국이 되었으며, 490년에는 '마라톤'의 유래가 된 마라톤 전쟁, 480년에는 델모팔레, 살라미전쟁이 있었다. 페라클레스는 465-429년, 소크라테스는 469-399년에 활동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336년에 20세의 나이로 애굽, 앓수르, 바벨론, 바사의 지배아래 있던 동쪽 나라를 모두 장악한다. 그가 BC332년에 팔레스틴을 침략하여 유대인들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거주케 하고, 자기가 정복한 영토마다 헬라 성읍을 건설한다. 그리고 헬라문화와 헬라어를 보급시켰다.

알렉산더가 BC323년에 죽자 제국은 넷으로 분열된다. 동쪽인 시리아는 Seleucus가, 애굽은 Ptolemy가 차지한다. 시리아와 애굽의 중간인 팔레스틴은 애굽에 속하여 BC301-198년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는다. 이 무렵 유대인들은 대체로 평화롭게 살았고, 알렉산드리아는 유대교의 중심지가 된다.

BC19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이 다시 팔레스틴을 정복하여 팔레스틴은 수리아 왕조 지배로 되돌아간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 BC175-164)는 유대교 박멸정책을 썼다. (BC168)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서 제단에 돼지를 바치고, Jupiter제단을 만들고, 할례를 금하고, 성서의 사본을 없애고, 성경을 가진 자를 살해하는 등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였다.

이것이 자극되어 '마카비' 반란을 가져오게 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분격하여 충성스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제사장이며 애국자였던 Mattathias는 그의 다섯 아들(유다, 요나단, 시몬, 요한, 엘리아살)과 함께 에피파네스에게 항전하여 BC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회복하였다.

이것이 '수전절'(Feast of Dedication)의 기원이 된다. '맛다디아'가 죽고 그 아들 '유다'가 계승하여 제사와 정치를 관할한다. 이때로부터 100년간은 독립된 유다를 다스리는 독립시대, 또는 마카비시대 (Maccabee, BC167-163)라고 한다.

(5) 로마시대 (BC63-AD476) Roman Empire

BC63년에 팔레스틴의 유대국은 로마의 '폼페이'장군에 의해 정복된다. 로마는 팔레스틴을 에돔(에서 후손) 자손인 '안티파텔'에게 통치자로 임명하자 그는 그 아들 '헤롯'에게 유다의 왕을 계승시킨다. (BC37-3)

'대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이려고 성전을 수축, 재건한다. 그러나 그는 잔인하여 베들레헴 어린이들을 살해했으며(마 2:16), 부인을 10명이나 두어 많은 아들과 손자들이 신약교회시대 때 활약한다.

이상이 유대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의 줄거리이다. 그리고 이들 각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의 귀한 사건들이 생겨진다. 예컨대 애굽과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와 유대교 회당, 그리고 환국하지 않고 산재한 '디아스포라' 또, 그리스 헬라시대에 생긴 '코이네'라는 신약의 원어, 그리고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파 등 모든 것들이 위의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씩 생겨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정치사와 함께 형성된 유대의 각계각층의 성격과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적 · 종교적 배경

앞서 언급한 대로 유대인은 각 제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

게 된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자.

(1) 회당 (Synagog)

유대인의 회당제도는 바벨론 포로기간(BC606-536)중에 생겼다.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정상적으로 살 때는 성전에서 제사행위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었고, 민족은 각처로 흩어져서 제사가 불가능했다.

이 무렵 포로중인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했고, 시편을 낭독하였다. 이 무렵이 유대교의 틀을 갖추는 시기이며, 포로 후 환국해서도 성전과 함께 회당제도가 각 동리마다 보편화된다.

이 회당제도가 생긴 후에 새로이 생긴 직제가 있다. 그것은 소위 '서기관'(Scribe) 또는 '율법사'라는 랍비들이다. 이들이 처음에는 성서를 복사하는 일을 하였으나, 차츰 성서 연구와 해석을 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2) 디아스포라 (Diaspora)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 때 다 귀환하지를 앓았다. 그들은 바벨론, 앗수르, 시리아, 베니게, 소아시아, 헬라, 애굽, 북쪽 아프리카, 로마 등(행 2: 9-10) 각처에서 흩어져 살게 된다. 이들은 각 나라에 살면서 회당을 중심한 종교생활을 했는데 후에 그것이 바울의 세계선교의 디딤돌이 된다.

(3) 바리새인 (Pharisee)

바리새파는 BC3세기경 마카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생긴다. 즉, 헬라가 유대를 점령하여 유대 국민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할 때 국민들 간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즉, 모든 유대인들이 시세조류에 맞게 헬라화에 적응하고 헬라문화를 포용하지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유대나라의 모국정신은 모세의 율법 준수에 있다고 믿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된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었다. 여기에서 후자가 바리새파의 기원이 된다.

이들 바리새인들의 처음 동기는 순수하고 신앙적이었으나 차츰 세월이 흐르는 동안 후에는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당한다. (마 23장 참조)

(4) 사두개인 (Sadducee)

사두개인도 바리새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긴 것 같다. 이들은 제사장을 돕는 종교적 관리인이면서도 다분히 비종교적이었다. 이들은 자진하여 헬라문화

를 받아들이고 마카비 종교전쟁에도 참가하지 않고, 소수이긴 하나 부유하여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산헤드린'(Sanhedrin) 공회를 어느 정도 지배했다.

(5) 공회 (Sanhedrin) -막 15 : 1, 아랍말로 산헤드린

BC3세기경에 시작된 유대인의 최고기관이다.

이 구성은 71명으로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족장 혹은 가장) 3계파로 구성되었고, 대제사장이 사회를 했다. 그래서 71명이 되었다. 산헤드린의 기능은 종교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일까지 하였다. 종교기능으로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고(행 9 : 2),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되(마 26 : 3, 행 4 : 5, 6 : 12, 22 : 30), 로마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만 집행할 수 있었다.

산헤드린의 행정기능으로는 세금 받는 일이 포함되었다. 로마제국은 황제 아래 각 식민지 국가들 위에 총독이 있었다. 총독은 지방관이나 성읍의 원로들에게 세금징수를 위임하였다. 이렇게 되자 총독의 위임을 받은 산헤드린은 그 일을 세금 청부인인 세리에게 맡겼다. 따라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직접 걷어내는 임무 수행상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게 되었다.

(6) 옛세네파 (Essenes)

옛세네 수도단의 기원은 마카비전쟁 약 50년 전부터 시작된다. 이때는 바사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헬라제국이 한참 전성기 때였다. '실루신' 왕조는 희랍문화를 조직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저들은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의 압력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종교가 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은 왕권이 무너졌고, 국민이 전 세계로 흩어진 때라 종교와 정치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 '에스라'가 이방 족속들과의 분리를 주장하고(에 10 : 11) 모세의 율법 준수를 더 철저히 도모하며 외래문화에 반기를 들었다. 여기에 대한 헬라의 강력한 탄압이 안티오크스에 의해 자행되자 이것이 결국 마카비 전쟁으로 비화된다.

에세네 수도단은 마카비 전쟁 직후에 일어난다. 주전 1세기 경에는 사해 근처 '엔게디'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노동을 하여 삶을 영위하고, 유무상 통하며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소박한 단벌 옷으로 만족하였다.

모세 숭배가 극심했고 육식 거절, 혼인 부정, 노예제도 반대, 맹세를 중히 여기고 영생을 믿었다. 회원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누구나 다 받았다. 침례 요한도 여기 출신인 듯하다. 이것이 2세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로 흡수된다.

제 3 장 교회의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최대의 축복이다.

1. 교회는 어느 때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시작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어떤 이는 교회의 정신적 기원을 추리하여 에덴동산 때부터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하고, 또 모세의 회막 때부터라고도 하는 이도 있다.

그와 달리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시작을 주장하여 그리스도 탄생 때부터, 또는 그리스도 부활 때부터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 위에서 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마 16:18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각종 추리는 모두 공론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엡 1:22에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He gave him)고 하셨다. 여기에 보면 그가 이미 교회를 주셨던 것으로 말씀되고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고백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를 쓰기 이전 사이에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때일까?

② 하나님의 전체 인류 섭리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신 성부시대가 구약시대였다면

그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친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복음서 시대가 성자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성자께서 자기 대신 다른 보혜사(요 14:16)를 보내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은혜시대가 있다.

이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듯이 성부시대와 성자시대를 구분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함께 하는 시대였지 이들 중 어느 분만 따로 역사한 시대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시기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요 7:39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제자들과 성도들)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한 말씀은 성자시대에 아직도 보편적 성령은 없는 것으로 말씀되었다.

또 요 20:22에서 “저희를 행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행 1:5)하고 행 1:8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행 2:1-4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기록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과 2장 이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절 이후가 신약 교회의 탄생으로 믿어진다.

③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오순절이 기점이 된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구약시대 천지창조 때(창 1:26), 인간 창조 때(창 1:26)에도 성령은 역사하였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특수한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왕(삼상 16:14), 제사장(삼하 12:7), 선지자(삿 6:12이하, 삼하 12장), 예언자(미 3:8) 등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전혀 다르다.

즉, 행 2:17-18 말씀대로 모든 육체, 즉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등 구분하지 않고 다 주어진다.

또 구약 때 성령은 한 번 주어졌다가 그가 범죄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성령은 곧 떠나고 말았다. 그 예로 사울왕도 성령으로 예언을 하였다(삼상 10:10, 19:20 참조). 그러나 그 사울왕이 악신이 작용하여(삼상 19:19) 평생동안 다윗을 추격하다 죽게 된다.

또 다윗은 그가 범죄한 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 11) 라고 기도하여 성신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신약 때는 전혀 다르다.

사도행전 2: 38에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성령은 계속하여 충만해서(행 4: 8)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된다.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바울도 그러하였고, 모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가 전혀 다르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을 시발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신약교회의 공통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

신약교회의 모델을 살펴보자.

여기서 신약교회의 모델이라 함은 신약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공통점을 말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날 신약교회 이후에 생겨진 역사적 산물로서의 교회들은 모두가 왜곡되고 굴절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자기들이 모 교회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신약교회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또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개혁교회들이 자기들이 가장 원시적 교회의 이상을 접근했다고 주장해도 그들 역시 신약교회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오늘날의 수많은 현실 교회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대 원칙에 바로 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약교회의 틀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여기서 신약교회의 모델로 12가지를 제시한다. 미리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신약교회가 오늘날도 필요하냐 하는 문제와 또 오늘날에도 신약교회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신약교회의 정신대로 사는 교회라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1)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실상을 살펴보자.

1) 로마 카톨릭교회

이들은 신앙과 행위의 근거 규범으로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 저들은 성경도 믿고 전통(Isdorian 교령집에 비롯된 각종 교회의 회의 결정, 교황들의 지시문서, 성자들의 가르침)을 믿는다. 또한 아울러 그리스도 대리자인 교황의 지시를 성경과 동등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일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전체 신앙 중 30%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뿐이다.

2) 개척교회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기타 모든 교회들을 보라. 저들은 성경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신조, 신앙고백, 그리고 또한 총회정관, 규약, 회칙, 헌법 등 성경에 의한 정신을 반영하려고 했다가 보다는 다수가 모인 인간들의 편리에 근거하여 관찰하고 통솔을 위한 행동지침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다.

이같은 규약이나 회칙들이 다양한 의견들의 난립을 억제하고 질서유지상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간사한 인간들의 심성은 현실적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적 필요성 인식보다는 근본적으로 신약교회처럼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처리하던 그 관행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신약교회가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던 실례를 보자.

행 13: 1-3의 안디옥 교회의 회무처리

행 15: 6-29의 예루살렘 교회의 안건처리

마 19: 15-17의 교회에서의 문제처리

요 8: 3-11의 간음한 여인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 오늘날 모든 것을 상부에서 지시를 하는 조직체계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음흉한 저의를 갖고 조직과 지시계통을 만들어 놓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관습적 사고방식의 추종일 뿐이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같은 회칙 및 규정의 맹종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성경의 정신에 피차를 존중하는 양보 중심의 세계였다. 오늘날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만 지켜진다면 회칙이 무슨 소용있겠는가?

(2) 믿는 자의 만인제사장권의 보장

이것은 종교개혁자 Martin Luther가 내세운 주장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

은 성서 안에 이미 이 사실이 밝히 제시되고 있다.

마 23 : 8-10에는 '형제라고 하라'고 했고,

벧전 2 : 9에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왕이며 또 제사장'이라고 했고,

히 13 : 11-15에는 '찬미의 제사로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성서적 근거 위에서 믿는 성도가 다같은 평등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숙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다 평등하지가 않다.

카톨릭 : 사제는 신부 (fathers)라고 해서 신과 인간과의 중간존재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 또 미사 때마다 신자에게 배찬은 금지하고 있으며 고해 때 사죄를 선언하고 교황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교회 : 목회자는 성직자이며 목회만이 성직으로 고집하는 것도 과거 교권주의 또는 교회주의의 유물이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떤 이가 지도자이고 또 다른 이는 교사로 일하였으되 그들이 모두가 한 형제자매의 원리에서 유지되었다. 오늘날 교직계급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일반 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신도들 사이에도 완전하게 계급과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

신약교회는 목사이든 신자이든 모두가 다 동일한 평등성을 실천하였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으로 본다.

(3) 독립 개교회 중심의 행정정치

신약교회는 예루살렘교회(행 2장), 사마리아교회(행 8장), 안디옥교회(행 13장), 빌립보교회(행 16장), 데살로니가교회(행 17장), 고린도교회(행 18장), 에베소교회(행 19장)가 있다.

기타 모든 교회들은 개 교회가 독립해서 자치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독립교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교회가 사마리아교회 일에 협조는 하나 간섭은 하지 않았고, 안디옥교회가 모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을 다스리지 않았다.

오늘날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개혁교회들은 총회, 노회, 시찰회 등으로 각종 제도적 간섭 기관들이 있다. 저들이 상회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한은 독립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방회, 총회도 협력기구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4) 두 가지(목사와 집사)만의 직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거의 모든 교회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전도사, 강도사, 준목, 감독 등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목사(감독)와 집사만의 두 직분을 갖고 있었다고 할 때 오늘날의 현실 교회들이 모두가 반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같은 원칙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적용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금 고려해 볼 문제이다. 오늘날의 현실이 다양한 직분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것이 옳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원형은 어떠했었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감독(목사)직

현재 오늘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호칭이 크게 일반화 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부터이다. 성경에 보면 목사란 관용어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엡 4:11). 그러면 목사, 또는 감독, 또는 장로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직분의 어원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바로 알아야 한다.

우선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명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고찰할 여유가 없고 오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목사의 원형은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구약에는 모세가 활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 장로들이 있었다(창 50:7). 모세는 애굽에 있었던 장로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장로제도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된다(출 3:16, 18).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모세를 돕는 조력자를 삼는다(출 18:21).

모세는 그 뒤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의논한다(출 19:7, 레 4:15, 신 5:23, 21:2, 22:15-18, 25:7-9, 29:10, 31:28). 모세 후에 여호수아 때도 장로들이 지도자 노릇을 한다(수 8:33, 9:11, 23:2).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왕 때도(삼상 30:26), 아합왕 때도(왕상 20:7), 예레미야 때도(렘 26:17), 에스겔 때도(겔 8:1, 11-12) 계속하여 지도자 노릇을 행사한다.

이같은 장로들은 신약에도 그대로 계승한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장로들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첫째는, 과거 구약시대와 같은 맥락에서의 장로가 존속한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3장까지에는 분명히 구약적인 장로들이 그대로 존속된다. 이 무렵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일에 열심한 장로들이었다.

다음 성경들을 참조해 보라.

마 26 : 3, 57에는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이바와 함께 예수 죽이기를 모의함.

마 27 : 1, 3, 12, 20, 41에는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함.

막 14 : 53, 15 : 1, 눅 22 : 52, 행 6 : 12등 참조

이 모든 성경을 종합해보면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나 초대교회 시작 때에나 사도들이 활약하던 때의 장로들은 예수를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었다.

둘째는, 사도행전 14장 23절 이후에 나타나는 장로들은 전혀 다르다. 행 15 : 2, 16 : 4, 20 : 17, 21 : 18 등에는 장로들이 사도들과 동역하는 장로들로 설명되고, 행 23 : 14에는 과거 구약적 장로도 그대로 존속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행 24 : 1, 25 : 15 등에도 구약의 장로가 존속함).

그러나 사도들은 과거 구약의 장로 제도를 사도들이 전혀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서신서들에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경을 차례로 읽어보자.

행 20 : 17절과 28절에는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한다.

바울 사도는 딤후전 5 : 17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말한다. 그는 누구인가? 그들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는 감독을 뜻한다.

베드로 사도는 약 5 : 14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한다.

야고보 사도도 약 5 : 14에서 '장로'가 병문안 때 청할 자라 한다.

요한 사도도 요이 1 : 1과 요삼 1 : 1에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 한다.

또 계시록 24장로(계 4 : 4)는 5 : 5, 8, 11 : 16, 19 : 4, 12지파와 12사도(계 21 : 12-14)인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 행 14장 이후의 '장로'들은 과거 구약의 장로가 아니다. 이들은 곧 사도들 자신이었고, 사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탁하도록 맡긴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 장로들은 다른 이름이 '감독'이었다.

장로와 감독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다음 성경이 증명한다.

행 29 : 17절과 28절에는 장로와 감독이 다같은 사람들이었다.

딤후 1 : 5절과 7절에는 장로와 감독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다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

딤편 3: 1-7에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다.

빌 1: 1에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임을 말하고 있다.

뵤뵤 2: 25에 감독직을 말한다.

여기에 보면 장로와 감독은 다같은 한 직분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목사란 말은 단 한 번(엡 4: 11)밖에 언급된 게 없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장로'란 호칭은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전승되어 오던 직분이기는 하나 사도들은 과거의 좋지 못한 개념을 사도들이 자신들과 복음전하는 자의 의미로 그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고로 장로는 어디까지나 구약적 전승을 살린 새 개념이다.

b. 감독은 유대인이 헬라문화권에 젖어살면서 헬라문명의 개념에서 다스리고 관장하는 개념으로 감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c. 목사란 영적 개념으로 어디까지나 섬기고 봉사하는 목자의 정신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아울러 신약성서에서의 '장로' '감독' '목사'는 한 사람이 갖는 직분이였다. 그런데 이것이 2세기 때 조금 달라지고 3세기 때 조금 더 달라진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정신을 따르려면 16세기에 와서 목사와 장로를 따로 구분한 장로교 창시자 Calvin의 해석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Calvin 자신은 옛날 구약에 있었던 장로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약의 개념이 아닌 구약의 제도로 후퇴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장로제도는 신약정신이 아닌 구약의 계승인 것이다.

2) 집사직

성경에 '집사'란 말이 나온 곳은 다음뿐이다(롬 16: 1, 빌 1: 1, 딤편 3: 8, 10, 12, 13).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은 전부가 남자들만이나? 여자들도 포함되느냐? 여기에 관해도 다수의 견해는 남자들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롬 16: 1에는 '교회 집사(우리말 성경은 '일꾼'으로 번역됨)로 있는 우리 자매 비비'라는 말씀을 따라 여집사 인정론을 주장하는 소수의 견해도 있다.

우리는 신약교회(가 두 가지(목사 곧 감독과 집사)만의 직분을 가졌었다는 데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갈라놓는 현행 제도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541년 11월 20일 장로교 창

시자 John Calvin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제 4~500년의 전통을 세운 Calvin의 해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며 기록한 사도들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그에 대한 결단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교회에서의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하나였다. 이제 이와 같은 성경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이같은 사실을 예전에 미처 몰랐던 사람은 이제부터는 과거와 달리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타협한 이들은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워도 잘 견뎌낸 사람들은 계속하여 용기와 긍지를 갖고 신실한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두 가지(침례와 주의만찬)만의 의식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회 의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로마 카톨릭교회 : 영세 (세례라고도 함), 견진, 고해, 미사, 결혼, 도유, 서품 등 7가지 의식
- 루터교회 : 세례, 성찬식, 고해
- 개척교회 : 세례, 성찬식

그런데 어떤 것이 과연 성서적인가?

여기에 관해 신약성서에는 침례와 주의만찬뿐이었다는 게 사실이다. 지금 침례나 세례나 하는 문제가 가끔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세례와 침례의 구분

a. 먼저 신약성경 중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침례 준 사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마 3: 16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 보면 세례는 방 안에서 가능하므로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셨음을 뜻한다.

또 행 8: 38-39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물 속에서 침례를 주었다. 요 3: 23에는 애논에서 침례를 주는데 그 이유

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 19:5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신약성경의 의식은 분명히 침례였다. 다음 성경을 참조하라.

마 21:35, 막 10:38, 눅 12:50, 행 1:21, 13:24, 골 2:12, 마 3:11(요 1:26, 31, 33), 행 1:5, 10:47, 11:16, 행 10:48, 16:15, 고전 10:2, 12:13, 갈 3:27

b. 침례의 정신과 의식이 성경에 선명하다.

롬 6:1-11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물 속에 잠그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는 것의 상징이고, 잠겼던 몸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롬 6:8).

오늘날의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갈 2:20참조). 고로 성경의 의식은 침례가 맞다.

c. 침례의 어원을 추적할 때 침례가 성서적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Baptism’이라고 되어 있고, 일어 성경도 ‘바티스마’라고 되어 있다.

영어나 일어는 헬라이어 원문 ‘βαπτισμα’로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 이 말은 ‘βαπτισειν’ (동사형), 명사형으로는 ‘βαπτισμα’ 또는 ‘βαπτισμος’에서 왔다.

모든 고전 헬라이어 사전에 보면 ‘잠그다’(immersion)라고 설명되어 있다. ‘βαπτισμα’를 ‘씻는다’(Wash)거나 ‘뿌린다’(Sprinkle)로 설명한 사전은 한 곳도 없다.

그런데 ‘침례’(immersion)가 펄박 때문에 기피현상이 생길 때(고전 15:29-34 참조) 그 다음으로 변형된 것이 ‘관수’(灌水)법이다. 관수(affusion)란 수세자를 물 가운데 세워두고 시세자가 그릇으로 물을 수세자의 머리 위에 세번 붓는 방법이다.

그같은 축소된 의식이 그 다음에는 ‘살수’(撒水)법으로 발전한다. ‘살수’(Sprinkling or Aspersion)란 시세자가 물을 짚어가지고 수세자의 머리, 또는 이마에 뿌리는 것을 뜻한다.

d. 침례와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자.

성경말씀	세례의식	침례의식
마 3 : 16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세례는 전혀 물에 들어가지 않음	반드시 물 안으로 가야 함
요 3 : 23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물이 많이 필요치 않음	많은 물이 필요함
행 8 : 36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을 특정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물 있는 곳으로 가야 함
행 8 : 38 “둘 다 물에 내려가”	물로 내려가지 않는다	물로 내려가야만 한다
행 8 : 39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결코 물에서 올라오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물 밖으로 올라와야 한다
골 2 : 12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장사지냄의 상징도 다시 부활되는 상징도 전혀 없다	침례는 물 속에 장사지냄과 물 밖의 부활의 뜻이 있다.
갈 3 :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세례는 머리 부분만 전달되고 몸 전체 옷을 입었다는 상징이 없다.	침례는 전신이 새 옷을 입는다는 상징이 있다.
벧전 3 : 20-21 “물로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세례의식은 무덤 저편에 있는 부활을 보장하는 상징적 의미가 없다. 단지 죄를 씻는다는 뜻만 있다.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생의 상징이 있다.
마 28 : 19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최대 명령을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변형시킨 것이라 기쁨이 없다.	침례는 100% 순종이란 증거가 있다.

이상 여러 가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오늘의 세례는 신약교회의 의식이 아닙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세례는 신약교회에서 타락한 카톨릭교회가 변형시킨 것이고, 개혁자들도 이 점에서는 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따르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자 자신들(Calvin이나 Wesley 등)은 '침례'가 성서적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시정을 못한 채 그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제 신약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워도 성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 주의 만찬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성만찬'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 만찬이라고 했다(고전 11:20). 그런데 성만찬(Sacrament)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교회의 산물이다. 저들은 무엇이든지 신령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큰 권위의 근거를 만들려는 교권주의적 산물로 '성만찬'이라고 하였다.

주의 만찬에 관한 각 교파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a. 로마 카톨릭교회: 화체설(Transubstantiation)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고전 11:24)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떡과 포도주는 성령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 루터교회: 동체설(Consubstantiation)

동체설은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물질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이다.

c. Calvinism: 영적 현현설

칼빈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여기 나타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d. Zwinglian: 상징설

쾰빙글리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 Anabaptists: 기념설

재침례교도들은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살도, 피도 아니고 다만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다양한 주장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성서적인 견해일까? 내가 믿기에는 고전 11:24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념설'이 가장 성서

적이라고 본다.

(6) 믿는 자(영접한 자)에게만 실시하는 침례의식

무슨 말이나 하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준다든가, 또는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신앙고백이 없다면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잘못은 ‘유아세례’(Infant Baptism)이다. 유아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으나 3세기에 북아프리카 구브로인이 최초로 시작했고, 5세기 때 Augustine에 의해 카톨릭의 의전으로 실천된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서의 기록을 살펴보자.

1) 우선 유아세례를 실시했다는 주장들을 내세우는 근거들을 점검해보자.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사들을 예로 든다면,

a. 행 10: 44-48에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군대의 백 부장이었다. 베드로가 이 집에 초청을 받았으나 이방인이어서 거북하게 여기다가 환상을 보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해오고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침례를 준다.

여기서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고넬료의 가족에는 어린 아이들도 끼어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상상론을 펼친다.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침례받기 전에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은 갓난 어린애는 설교를 들을 수도 없거니와 저들은 성령의 체험도 없었고, 또 성경은 어린 아이의 침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b. 행 16: 31-34에는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이 회개하여 그와 온 집안이 다 침례받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특히 33절에 ‘권속’(all his house)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근거해서 그 집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바울이 그 가족에게 침례를 실시하기 전에 32절에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하였다. 고로 침례 이전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을만한 성인들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 영아나 유아가 끼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상일 뿐이다.

c. 행 18: 8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 식구들에게 침례를 준 기록이 있다.

여기서도 ‘온 집’(all his house)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본문도 그렇다(행 10:8).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고 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으니까 침례를 주었다.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영아나 유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유아세례 반대론자들의 주장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어린 아이들에게도 침례를 베푸신 일이 없다(막 10:13-16, 요 4:2).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받기 전에 교훈을 명하셨고(마 28:19-20),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막 16:16).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변경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불순종의 행위라고 말씀하셨다(요 14:15).

b. 침례 요한은 어떤 어린이도 침례를 준 일이 없었다. 그는 침례에 앞서 죄의 자백과 회개할 것을 주장했다(마 3:6,8).

c. 제자들은 어떤 어린이에게도 침례를 베푸는 일이 없다(행 2:41). 신약에서 침례 받은 자는 침례 전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d. 유아세례는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 개인적으로 침례의 뜻깊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미리 박탈하는 행위이다(행 2:41).

e. 유아세례는 성서적 근거도 없이 중생을 약속하는 우행을 하며, 중생되지도 않은 자에게 중생의 거짓 약속으로 훗날 본인 자신이 회개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만든다.

f. 유아세례는 순수한 성서적 의식을 의식중심주의로 오도하는 나쁜 관행을 만든다.

g. 유아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순수한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손으로 된 의식을 믿음으로 사람을 믿도록 오도한다.

h. 유아세례는 중생의 체험 대신에 형식적인 신앙고백으로서 교회 회원이 되므로 실상은 불신자 회원으로 교회 회원을 구성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교회 회원의 표준의 저하를 가져온다(엡 4:1).

i. 유아세례를 실시할 때 후견인들에게 대하여 성취불가능한 비성서적 서약을 하게 된다. 신약성서는 결코 대부(代父)나 대모(代母), 그리고 세례명 등이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의식에 의한 신앙고백을 하는 자에게만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같은 관행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다.

(7) 핍박받는 신약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핍박을 당한다. 우선 예수님 자신도 핍박을 받으셨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여 예수를 핍박하였고(마 22: 23 참조),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파괴자라 하여 핍박을 받으셨다(요 5: 18).

예수님은 또 로마정부와 관리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19: 16), 형제들과(요 7: 3-5)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으셨다. 이같은 핍박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야고보 사도는 AD44년경 순교를 당했으며(행 12: 1-2참조), 빌립(요 12: 20-22, 행 1: 13)도 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순교(AD67년경), 안드레는 에렛사에서, 바돌로매는 인도에서, 마태는 이집트에서, 맛디아나 유다 역시 모두 순교당했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Domitian황제 때 밋모섬으로 유배당하는 핍박을 당하였다(계 1: 9). 또 바울 사도 역시 수많은 핍박 속에서 험난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산 사람이었다(고후 11: 23-27 참조).

신약성경 전체를 펼쳐볼 때 고난당하지 않은 성도가 없으며, 핍박당하지 않은 제자가 없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 14)고 하셨다. 오늘날도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대교회 중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핍박의 길을 빼버리고 번영과 축복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심각한 변질화이다. 신약교회를 정상적으로 이는 이는 핍박받는 교회상을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이다.

신약교회는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핍박을 받아왔다. AD63-313년까지는 세속 정치인 로마 정부의 관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고, AD313-1500년대까지는 교권 정치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했다.

그 후 1600년대는 앵글리칸 교회가 한동안 핍박을 가했고, 근대에 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순수교회를 핍박하였고, 현대에는 사회복음과 신학이 복합된

단체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빼버린 변영 신학자들, 또 편파적 성령운동가들이 순수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 신약교회는 옛날이나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다.

(8) 선교와 복음이 팽창되는 교회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저들의 모인 숫자는 120명정도 되었다(행 1:14). 그런데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후 숫자는 3천명으로 늘어난다(행 2:41).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남자만 5천명이 된다(행 4:4).

이때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는 계수하지 않고 남자만 계산한 게 5천명이니까 모르긴 해도 남녀 합치면 1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 때에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큰 무리'(행 5:14)라고만 한다.

이렇게 번져가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행 8장), 그리고 '안디옥'(행 11장), '빌립보'(행 16장), '데살로니가'(행 17장), '베뢰아'(행 17장), '아덴'(행 17장), '고린도'(행 18장), '에베소'(행 19장), '로마'(행 28장), '서반아'(롬 15:18) 등 계속 복음이 팽창되어졌다.

신약교회는 복음이 파급되는 영역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이었고(롬 1:8), 또 저들이 미치는 곳에 모여진 사람 수도 엄청난 수였다. 이로 보면 신약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순교가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복음은 더욱 더 팽창되었다. 아울러 오늘날에도 순수한 신약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지역적으로, 수적으로 팽창되어야 한다.

복음의 진수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9) 중생한 자로 회원이 구성되는 신약교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는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출석 몇 주일 한 다음에 등록카드에 신청서를 써 넣으로써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더러는 교회 출석을 잘 하고 헌금을 잘 하거나, 타 교회에 다녔던 전력만 가지고 곧바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주 심한 곳은 처음 출석한 날 곧바로 회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일까?

여기에 대해 신약교회에서는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했다. 즉,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받았고, 침례를 순종한 자들에게 제자들 수에 가입시켜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자들이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세례'가 아닌 '침례'가 성서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침례는 단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이고 구원을 얻는 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지 않은 강도(눅 23: 43), 니고데모(요 19: 3), 아리마대 요셉(마 27: 57-61, 눅 23: 50-56, 요 19: 38-42) 등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니고데모의 경우(요 3: 1-11)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3: 1), 유대의 관원이며(요 3: 1, 7: 50 참조), 백성의 선생 즉 랍비였다(요 3: 10).

바리새인이란 율법 준수에 최대의 모범을 보이는 특수 열심파였고, 관원이라면 70인 공회, 즉 산헤드린의 회원을 뜻한다(요 7: 50-52).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할 줄 아는 랍비로 존경을 받는 자였다.

니고데모가 이같은 행운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면 나이도 상당히 많이 든 원숙한 인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토록 성경을 잘 알고, 남을 가르칠 줄 아는 지성인데다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전 국민적 소망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교양이 있고 사려깊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생활을 평생동안 잘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 현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직분도 높고 교회생활 풍습에 익숙해서 고도의 전문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가 제 아무리 종교생활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닫고 반성해야 될 점은 구원은 오랜 세월의 경륜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만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2) 가롯 유다의 경우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다. 그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배신을 하였다.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었으니까 그가 이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는 타락이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가 12사도 중 하나이긴 했으나 저가 구원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준다.

막 26: 14-16에는 제자인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기회를 노린다.

눅 22: 3-6에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요 6: 70에는 유다를 마귀라 했다(요 13: 2, 26-27).

요 12: 4-6에는 유다를 도적이라고 했다.

이상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 하나로 활약은 하면서도 사도다운 인정을 받기 보다는 같은 다른 동료 사도들에게서 백안시 당하는 존재였다. 이것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도 이미 그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유다는 3년 동안 제자의 생활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활을 하다가 종래에는 사탄의 도구로 예수를 팔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행 1: 18)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

우리는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으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순전히 인간적인 착각이다. 유다는 물론이고, 80평생을 목사로 주의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엄청난 실수를 함으로 많은 오해가 따른다.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께서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었다(마 26: 69-75, 막 14: 66-72, 눅 22: 55-62, 요 18: 16-18, 25-27).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서신에서 보면 ‘생각’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벧후 1: 12-13, 15 등).

그러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큰 실수를 했으니까 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가룟 유다는 그가 제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계속했고, 드디어는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끝내 자살을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생활에 굴곡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보편적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실수한 후에 다시 뉘우쳐서 새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으나(마 16: 16-19 참조)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여러 단면들이 어떤 것은 실수로 보이고, 어떤 것은 뉘우침으로 보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는 신약교회 안에도 실수가 많고 또 단점이 많은 인물들이 있다.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약점들은 있으나 그러나 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같았던 점은 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오늘날의 현대교회들도 각 교회의 교회 회원이 되는 기준이 과연 성서적 기준과 같은가를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10) 형제애로 다져지는 신약교회

신약교회 전체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 어느 교회든지 사랑이 넘치는 뜨거운 교회였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교회를 보라(행 2: 43-47 참조).

저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였다. 인류가 생긴 최초의 지상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다음으로 사마리아교회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모습으로 나타남을 본다(행 8: 8). 그 다음 안디옥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쁨과 찬송과 믿음”(행 13: 48)이 충만하였다.

빌립보교회도(행 16: 11-40) 고난 중에서 개척되었으나 그 교회의 성격을 보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빌 1: 25, 2: 17-19, 28-29, 4: 1, 4, 10, 18 등).

데살로니가교회도 큰 기쁨의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간 교회였다(살전 1: 8). 에베소교회 역시 바울 사도가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행 20: 27).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분쟁이 심한 고린도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고전 1: 2)라고 하였다.

신약교회는 그 어느 교회든지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계 1: 11) 2천여년간 지속되는 교회시대의 각 교회들의 특징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일곱 개의 교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받지만 몇 교회가 예외인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계 3: 7-13)이다.

빌라델비아란 그 말의 뜻이 ‘형제의 사랑’(Brotherly love)이란 뜻이다.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는가? 그 간단한 대답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2천년 교회 역사에 보면, 교권수호에 정열을 쏟거나 교리나 신학을 위해 투쟁하거나 교파나 자기 계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교파나 신학, 그리고 교리를 뛰어 넘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다.

오늘날도 각 종파마다 각기 다른 교리, 그리고 각 신학교마다 각기 서로 다른 신학의 주장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다(요 1: 14, 17).

그런데 오늘날 보수 교회들 속에는 ‘진리’는 있을지 모르나 ‘은혜’가 약하고, 자유론 교회들 속에는 ‘진리’도 ‘은혜’도 약하다. 이제 새로운 신약교회 모습을 되찾으려면 진리만 아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은혜운동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11) 제자가 양육되는 신약교회

신약성경 안에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250여회 반복되고 있다. 성경에 많이 쓰였으니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여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룩하였다(행 1:26).

그런데 12제자는 또다시 계속하여 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한다. 모르긴 해도 12제자가 핵심이 되어 120명(행 1:15)의 열심 당원을 만들었고, 이들의 영향으로 500여 형제(고전 1:15)로 번져갔고, 그 다음에는 3,000명으로 늘어났다(행 2:41).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남자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행 4:4).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전부 훈련받은 제자들인가? 여기에 대해 네비게이토의 창시자인 Dawson Trotman은 예수님의 초기 관심은 대중이었으나 대중을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했었다고 했다. 따라서 수많은 군중의 숫자는 제자들을 양육한 현상적 결과라는 것이다.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희생이 따라야만 한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하기 어렵고 또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성공의 모범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그의 평생에 예배당을 짓는 일도 없고, 학교를 세운 일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써놓은 책 한 권도 없다.

그가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있다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일 뿐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말았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수사도 역할을 한 베드로는 그의 제자가 마가였다(벧전 5:13).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골 4:10) 한 때는 바울과도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이다(행 15:36-41).

베드로의 영향도 많이 받고, 바울의 영향도 많이 받은 마가 요한은 그 후에 마가복음서를 썼다고 믿는다. 역시 베드로의 제자다운 열매였다.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다. 바울의 제자 중 대표자는 디모데이다(딤후 1:2).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딤후 1:18, 6:20, 딤후 1:2, 몬 1).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의 제자라는 기록은 없어도 빌레몬, 에바브라디도, 오네시모 등 많은 제자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자라고 본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프(Polycarp)은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지내다 순교를 하였고, 폴리카프의 제자인 '이그나투스'(Ignatius)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지내다 순교당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제자양육'의 길은 농도와 형태가 다를 뿐 기독교 2천년사에 계속되어 왔다. 이제 현대교회가 너무 수적인 물량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자양육의 모범을 기피하려고 하면 이 교회는 주인의식이 없는 구경꾼들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현대교회들이 제자훈련의 의미를 알고 각 교회마다 다양한 제자양육을 시도하나, 제자양육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라 믿는다.

(12)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신약교회

기독교가 세계에 번져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이나? 하는 문제는 많은 신학적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는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종교인 유대교도들과 강한 반발을 계속한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유대교도들은 종교라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인 관행을 따를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바 율법의 기준과 그 율법을 해석하여 전해 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남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의 자구나 조문보다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주신 분의 의지를 살리는 데 그의 관심을 모았다. 그랬기 때문에 기존 종교의 틀을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닥침이 있었다.

오늘날도 자기들이 만들어온 신학과 교리, 또는 견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종교주의자들이 있다. 이들 종교주의자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왜 행해지는가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검증을 도외시한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순서나 내용이나 방법들이 과연 성서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증은 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전통적으로 해 내려온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주려고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종교심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기존 종교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라는 신앙 대상에 깊은 내면적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셨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절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마 22 : 21).

또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 : 36)고 하면서도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니라”(요 18 : 37)고 하신다.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이었으나 유대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나 로마를 초월한 우주의 왕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예측당하지 않으셨다.

이같은 삶의 자세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이다. 베드로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같은 일을 하느냐”(행 4 : 7)고 위협하고, 더이상 이런 일을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다.

이때 베드로는 저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위나 관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세상 정치적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 : 19-20)고 항변한다(행 5 : 29 참조).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 : 14-16).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와 구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신약교회는 유대교나 기타의 종교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였다. 또 신약교회는 세상과는 분리되어 세상을 초월하되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타 종교화의 대화라는 명분으로 종교화 되어가는 것은 신약교회의 변질을 의미한다. 오히려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한 관심에 대해 그 진의를 찾으려고 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사 형식, 또는 순서, 내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는 율법의 조문과 장로들의 전통을 존중한 나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이나 외형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셨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전 시민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안디옥교회에는 너무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리스도쟁이'(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쟁이란 뜻이었다)가 생기게 되었다(행 11: 26).

에베소교회에는 복음으로 인해 우상 장사업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났다(행 19: 27).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의 복음으로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고(행 17: 5), 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행 28: 16, 24).

신약교회는 종교성도 탈피하고 세상으로부터서도 분리되는 교회였다. 이 원리가 오늘날도 지켜질 때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3.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약 안에는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112회나 나온다. 그 중 90%가 바울서신과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hurch'란 말은 '큐리아콘'(κυριακον)으로 그 뜻은 '주께 속한 자'라는 뜻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란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집회'라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존재 들이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을 닮은 표현이면서도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갖가지 표현들이 있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함축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이제 그 용어들 중 가장 많이 쓰는 10개의 용어를 살펴보자.

①성도(성화된 자들)-롬 15: 16-31, 고전 1: 2, 14: 33, 고후 1: 1, 엡 2: 19, 히 13: 12, 벧전 2: 5, 계 20: 19,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윤리적 개념이 아닌 성별의 개념이다.

② 신자들(신앙 응답에 따라 나선 자들)-마 28: 19, 요 10: 4, 행 11: 26, 14: 22, 28, 18: 23, 계 14: 4

③ 종(주의 종, 의의 종)-롬 1: 1, 6: 17-22, 빌 1: 1, 약 1: 1, 벧후 1: 1, 계 1: 1

- ④ 하나님의 백성-고후 6: 16, 뵤전 2: 9, 계 21: 3
- ⑤ 하나님의 성전-고전 3: 16, 19, 고후 6: 16, 계 17: 15
- ⑥ 하나님 집의 가족-마 21: 13, 요 2: 16-17, 히 8: 9-10, 뵤전 2: 5
- ⑦ 그리스도 안에 한 몸-고전 6: 15, 12: 4-11
- ⑧ 포도원과 양떼-막 12: 1-12, 마 20: 1-16, 요 15: 1-6
- ⑨ 새 출애굽-약 1: 1, 뵤전 1: 1, 계 16: 12, 18: 24
- ⑩ 새 피조물-고후 5: 17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나 그 모든 뜻에는 역시 '에클레시아'란 말이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약간씩 새로운 뉘앙스를 풍기는 다른 용어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함축된 뜻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지 고정된 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카톨릭이란 말의 뜻도 '보편성'이란 뜻으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 진리의 보존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믿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카톨릭은 외적 존재형태의 통일성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교회의 통일성은 세 가지 기본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즉 신조(일정한 신앙조문), 직제, 경전 등이다.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적 신앙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이상 세 가지의 기본요소가 갖추졌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카톨릭이 말하는 직제란 주교직의 연속성이 베드로까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주교직에 입각한 교회조직이 곧 교황 정치제도이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회 위에 있는 존재이다.

중세기 카톨릭에 반기를 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관'이 무엇인가?

M. Luther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파악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숨어있는 동시에 또한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소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이 나온다.

쯔빙글리는 교회의 보편성(카톨릭성)과 교회의 영성을 동일시하였고, 진정한 교회는 '선택된 무리' '예정된 무리'라고 하였다. 쯔빙글리는 주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에 역점을 주었다.

칼빈 역시 '선택된 무리'가 곧 교회이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가 그의 지도자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곧 그리스도와 공동체적 의식을 갖는 무리라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와 같은 제직이 필요하고 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상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관이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큰 부흥을 가져온 R. Schuller는 말하기를 '교회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몰라 길을 잃어 방황했던 이웃 영혼들에게 저들의 거룩한 믿음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희락에 가득찬 크리스천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술러 목사는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교회관은 전통이나 기존 관습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려고 한다.

또 현대 '교회성장학'의 창시자인 McGavran은 교회에는 이중구조가 있다고 했다.

즉, 형태(교파, 조직, 단체 등)로 구성된 Modality교회가 있고, 형태는 없으나 선교운동으로 교회 기능을 감당하는 Sodality가 있다. 이 Sodality를 Para-Church(준교회)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면 그 뜻이 다 동일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대로 카톨릭이나 개혁신교회나 현대교회들이 각기 다르다. 이들 다른 교회관들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들 중에서 특수한 어느 한 가지를 용어를 바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본다. 따라서 성경 개념 중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기 보다는 성경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종합적 개념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각 종파와 각 교파와 각 신학자들이 서로 제각기 다른 교회론을 주장함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건물을 교회로 본다든가, 또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조직된 외적 형태를 교회로 여긴다든가, 또는 특수한 장소나 무리를 교회로 보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생명체이다. 이같은 생명체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교파에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고로 교회를 공간개념으로 볼 때에 어떤 외형적 건물이나 제도적인 조직의 틀 속에서 보려는 것은 카톨릭적 사고이고, 또 교회는 어떤 직분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만이 교회라는 것은 칼빈적 사고방식이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생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라고 말씀하였다(골 2:16). 교회의 본거지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는 다함께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자라가는 생명체들이다. 고로 교회는 계속 자라고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산 무리들이어야 한다.

제 4 장 사도들이 남긴 공적과 결과

1. 사도들이 남긴 공적

(1) 선교의 확장

이 항목에 관해서는 앞서 신약교회의 모델을 설명하는 중 8항(p.43)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사도행전을 내용별로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주로 베드로의 활동기사라고 하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의 활동기사이다.

그런데 상당히 보수적이고 유대적인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을 하지만 바울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방 선교에 주력한다(롬 11:13, 15:16). 그래서 선교지가 넓게 확장된 것은 주로 바울에 의해서였다. 그렇지만 반드시 바울에 의해서만 선교지가 확장된 것은 아니다.

베드로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벧전 5:13)에 관계한 흔적이 있다. 이 '바벨론 교회'가 어느 교회나에 대해서는 갈대아의 바벨론(Calvin), 로마의 상징(Luther와 카톨릭)으로 해석을 한다.

그곳이 어디든 베드로도 예루살렘만이 아닌 사마리아(행 8:14-24), 가이사랴(행 10:1-48), 그리고 안디옥(갈 2:11)에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전 1:12).

또 사도 요한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밧모 섬에 유배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계 1:4,9). 야고보 사도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며 관심을 갖는다(약 1:1).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가장 많은 선교를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170여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실로 바울의 생애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생애였다. 이같은 사도들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모체가 되어 전 세계 교회가 선교되었다.

(2) 신약성서의 기록

사도들이 남긴 공적 중에 가장 큰 공적은 신약성서의 기록이다.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서의 연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주장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소신은 다음과 같다. 즉 신약성서 중 최초로 기록된 성경은 무엇인가?

1) 여기에 대해 나는 야고보서를 든다.

야고보서는 AD44-45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행 12: 1-2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그는 세베대의 두 아들(요한과 야고보로서) 둘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었다.

야고보는 성격이 과격하여 '보아너게'(우뢰의 아들)란 별명을 들던 자로 이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다. 만일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면 AD44-45년이 되는 것이고, '주의 형제 야고보'(예수님의 바로 밑동생-마 13: 55)로 본다면 더 늦은 AD62-63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했는데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헤롯은 헤롯 Agrippa 1세(AD37-44)로 대 헤롯의 손자이다. 이 사람은 Aristobulus의 아들이며, 헤로디아의 동복 오라비이다. 이 헤롯 Agrippa가 죽던 때가 AD44년이다. 고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죽은 때 AD44년 이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약성서 최초의 성경은 야고보서로 본다.

2) 다음으로 마태복음이 AD45-50년에 쓰인 것으로 믿는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다른 주장도 있다. 즉, 마태 기록연대를 AD60-70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AD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Titus장군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마태 23: 37-39에는 예루살렘 함락을 미래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 기록연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인 AD60-70년경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AD150년경에 활약한 요한의 제자 Hierapoli(골 4: 13)의 감독이었다가 버가모서 순교한 Papias가 전해주는 기록에 의하면 마태는 히브리어(아람어)로 '교훈집'(Ta logia)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파피아스 말에 의하면 마태는 팔레스틴에서 15년간을 전도했고 그 이후에는 이방으로 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서 안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인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예컨대 27: 8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 밭이라 일컫느니라”, 또 28: 15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 지니라” 이같은 내용을 참조한다면 마태가 이방으로 가기 전 팔레스틴에서 활약 한 때인 AD45-50년경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나는 조기설을 따른다.

3) 그 다음에 바울서신 중 가장 먼저 써진 책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든다.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살전·후를 기록한 것으로 믿는다(행 17: 1-10, 살전 1: 1, 2: 1-2, 3: 1-2).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3주간이었다(행 17: 2). 그러나 그 후에 또 상당기간 2개월-7, 8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고린도에 머문 때가 어느 때냐에 따라 살전의 기록연대가 밝혀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는 48년, 50년, 52년, 53년 등으로 추측들을 한다. 그런데 행 18: 12-17에 보면 고린도의 총독인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한 기록이 나온다. 그러면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어느 때 사람인가? 그는 글라우디우스(Claudius) 황제(AD41-54)의 서한에 의하면 AD52-53년간 아가야의 총독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살전의 기록연대를 52년설로 본다.

4) 그리고 살후는 53년경으로 본다.

5) 그 외에도 바울이 쓴 성경은 많이 있다.

바울이 쓴 성경이 많지만 그 중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간 일이 없으나(롬 1: 10-13) 기록한 성경이다. 그가 에베소 전도를 다 마치고 로마로 갈 열망에 가득차 있었다(행 19: 21). 그같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달을 머문 후(행 20: 3)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석달을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 일까?

여기에 대해 AD55-59년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래서 대략 56-59년 사이로 본다.

6) 신약성경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취급한 고린도전·후서는 어떤가?

고린도전·후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록하였다.

고전 16: 8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러 함이라”고 하면서 16: 19에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베소를 비롯한)이 너희들(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한다”고 한 것을 보면 고린도전·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언제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하였는가? 그것은 바

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을 전도했다(행 20 : 31)는 것을 참고한다면 바울의 에베소 체류기간 중이 될 것이다. 바울의 에베소 체류기간을 AD53-57년으로 보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므로 아마도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한 때는 55-57년 사이가 될 것이다.

7) 작은 로마서요 또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너무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다(행 13 : 13-52). 그 다음 제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지를 방문하고 디모데라는 조수를 택하게 된다(행 16 : 1).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활동을 한다(행 18 : 19). 이 무렵에 앞서 말한 고린도서를 기록하였고, 갈라디아서도 기록했으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55-57년 사이로 본다.



▲시내사본의 이 페이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여주고 있다.

8)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믿는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서 그의 서신을 기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뵤전 5:13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란 말씀의 바벨론이 어디냐 하는데 따라서 그 연대가 가려진다. 여기에 대해 앗수리아의 바벨론(Calvin, Bengel, Thiessen), 애굽의 바벨론(현재 카이로에 멀지 않은 곳), 로마(Origen, Dionysius, Tertullian, Lightfoot),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전설과 함께 이 주장은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전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므로 이 설은 믿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증명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베드로서는 AD64-68년간으로 추정된다. 내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에 교황권에 관한 설명 때 좀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록한 곳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바벨론으로 본다.

9)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마가라고도(행 15:39, 골 4:10, 딤후 4:11, 몬 24장, 뵤전 5:13), 요한이라고도(행 13:5, 13), 또 요한 마가라고도 한다(행 12:25, 15:36).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며(행 12:12), 그의 아버지는 언급이 없다. 그의 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명이 모여 기도한 곳이다(행 1:15).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뵤전 5:13) 바나바의 생질(골 4:10)이었다.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다가 도중 하차함으로(행 13:13) 제2차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다(행 15:36-39). 이렇게 되어 마가는 바울을 떠나 있다가 약 10여년 후 다시 바울과 화해하고 로마 옥중생활에 있는 바울을 섬긴다(골 4:10, 몬 24장).

마가의 최후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그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애굽으로 건너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립하고 거기서 감독으로 지내다가 순교하였다고 본다.

마가는 주님의 행적을 조직적으로 남길 필요에 의해서 본서를 쓰게 되었는데 쓴 시기는 베드로 순교 후(65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70년) 그 어느 중간시기로 본다. 그래서 67-68년경으로 추정한다. 그가 기록한 장소는 로마이

며, 로마인을 위해 쓴 것이 마가복음이다.

10)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다.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누가이다(눅 1: 1-3과 행 1: 1-2에 보면 같은 수신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주어졌다). 누가는 헬라인이며 고향은 안디옥(행 11: 19-26, 13: 1이하)이며, 직업은 의사였다고 알고 있다(골 4: 14 참조)

누가는 바울의 직 제자는 아니나 충실한 동역자요 조수였다. 그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중 드로이에서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여(행 16: 10) 빌립보에 따라가서 몇 년 머물면서 전도한다(행 16: 40).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의 귀로에 다시 그를 따라(행 20: 6) 예루살렘으로 갔다(행 21: 17). 그 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줄곧 동행하였고(행 27: 1-28: 16) 바울이 옥중생활을 할 때에도 끝까지 있었다(몬 24장, 딤후 4: 11).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누가는 헬라 경건주의적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 증거는 그의 두 책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기도생활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누가의 후사에 대해서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며, 알렉산드리아 혹은 라오디게아에서 감독생활을 하다가 순교했다는 설과 또 그의 말년은 에베소나 비두니아에서 74세 고령으로 평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설이 있다.

▶ 현대의 데살로니키는 그리스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다. 로마의 에그나티안 도로는 이 그림의 갈레리우스 아치 아래로 지나갔다.



그러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언제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해 63-65년설, 70년 이후설, 90년 이후설이 있다. 여기서 나는 조기설을 따른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라 옥중생활을 할 때 (AD59-61) 누가복음의 초고를 갖추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로마 옥중생활을 할 때에 바울의 순교 (AD63-65) 이전에 누가복음을 완성하고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집필하였을 것이다.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순교 (AD63-65) 이전에 기록된 듯하며, 또 행전의 내용에는 네로의 박해 (AD64)가 시작된 것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AD63-65년설로 본다. 그리고 누가가 두 책을 쓴 장소는 로마로 믿어진다.

11) 옥중서신이라 불리우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바울의 작품이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가 끝날 무렵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 19: 21)던 그 소원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다. 로마에서 죄수의 몸인 바울은 가이사 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빌 4: 22),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에게도(빌 1: 13) 또 그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전도한다(행 28: 23-31).

다른 한편, 바울은 로마 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성경을 기록한다. 이 무렵 바울이 쓴 편지는 모두 일곱 통이 된다. 그 중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이같은 옥중서신을 쓴 때가 어느 때일까? 엡 6: 21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골 4: 7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라고 했다. 이 두 곳을 보면 바울 사도가 두 책(에베소, 골로새)을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 편으로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골 4: 9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두기고와 오네시모)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편지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두기고와 오네시모

가 같이 갔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전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로서 바울의 전도로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바울이 써 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갈 때에 두기고와 동행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도착한 얼마 후에 에바브라가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 찾아온다(골 4: 12).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단사상이 흐르는 것을 엿듣게 되고,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골로새서를 쓴다.

또 자기가 3년간이나 전력을 다해 전도했던 에베소교회에 관해서도 신앙지도를 위해 에베소서를 쓴다. 그래서 이 두 권은 두기고에게 주어서 전달하도록 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개한 오네시모에게는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레몬서를 써서 보낸다.

그렇다면 이들 서한이 쓰인 시기는 어느 때인가? 이 때는 바울의 로마 옥중생활의 초기로 본다. 그래서 이 세 책은 AD62년경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앞서 3권의 책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이 로마 옥중생활이 상당기간 지난 후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의 저작동기가 다른 책과 다르다. 즉, 바울이 투옥하여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빌립보교회에 전해졌다. 이 소식을 안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 사도를 위해 전 교인이 헌금을 해서 에바브라디도를 대표자로 삼아 로마까지 보내게 된다(빌 4: 18).

그런데 바울을 위문하러 갔던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어서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만 아닌 에바브라디도 때문에도 더 크게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에바브라디도가 회복이 되자 그를 빨리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야 함을 안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라디도를 되돌려 보낸다(빌 2: 27). 빌립보서는 이같은 시간상 앞서 세 권의 책보다는 다소 뒤에 쓰여졌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록연대는 AD63-64년경으로 본다.

12) 목회서신(The Pastoral Epistles)이라고 하는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말한다.

목회서신은 서신이면서도 교회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중 가장 신임을 받던 인물이다(딤후 1:2).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으로 혼혈자였다(행 16:1).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딤후 1:5) 밑에서 경건된 종교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딤후 3:15). 디모데가 개종한 것은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 때였다(딤후 1:2, 18, 행 14:6-23).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전도의 조수로 삼고(제 2차 때)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행 16:3). 그리고 당시 임직의 관습을 따라 자신이 안수하고(딤후 1:6), 그 후에 장로들의 안수도 받게 하였다(딤후 3:14).

디모데는 바울의 생애 중 여러 면에서 충실한 제자로 활약하다가 자기 스승인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에 가서 스승의 뒤를 계승하여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자기 아들같은 디모데에게(딤후 1:2) 보낸 디모데전서의 기록 시기는 알 길이 없고, 디도서는 아가야 지방에서 쓴 듯하며(AD62-63년경으로 추정), 디모데후서는 두번째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었을 때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 최후의 글은 디모데후서로 AD65-66년경일 것이다.

13) 공동서신으로 알려진 뱀전·후,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살펴보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나온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마 10:2, 막 3:17, 눅 6:14)로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이다.

둘째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 10:3, 막 3:18, 행 1:13)로 이도 역시 제자였다.

셋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마 13:55, 갈 1:19)로 작은 야고보라고도 했다.

넷째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요세의 형제인 야고보(막 15:40, 마 27:56, 눅 24:10).

다섯째는 사도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눅 6:16, 행 1:13)가 있는데 이중에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는 동일인인 것 같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썼는가? 아니면 알패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썼는가? 아니면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는가?

여기에 대해 이미 앞서 언급했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AD62-63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설을 따르므로 야고보서는 AD4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약 2:1에 ‘영광의 주’란 말씀이 벵후 1:16-18에 기록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함을 볼 때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모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한 자의 기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벵전·후의 저자는 베드로라는 데 이견이 없다. 베드로가 본서의 수신자인 아시아 교회들을 위해 순방하며 노력하였고, 그의 순교는 AD68년경으로 본다.

그런데 베드로가 AD42-68년, 26년간을 로마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는 카톨릭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 유다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책이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외경(에녹서)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2서·3서 등 5권의 책을 경전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을 했을 정도이다.

그러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유다가 예수의 초상(눅 3:30), 갈릴리 사람(행 5:37), 가룟 유다(막 3:19), 사울이 다메섹에 유한 집(행 9:11), 밧사바(행 15:22), 야고보의 아들(눅 6:16), 예수의 아우(막 6:3) 등이 있다

이중에서 예수의 동생이며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마 13:55). 그는 예수 부활 전에는 믿지 않다가(요 7:3-8) 주님 승천 이후에는 교회 지도인물로 활약한다(행 1:14).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중 나이 어린 동생으로 그가 유다서를 쓴 때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인 AD75년인 듯하다. 그리고 그가 유다서를 쓴 곳 역시 예루살렘으로 추측된다.

14) 요한복음, 요한1·2·3서, 그리고 계시록은 모두가 사도 요한의 작품으로 믿어진다.

신약에 요한이 5명 정도 나온다. 침례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그는 요나라고도 불려졌다)(요 1:42, 21:15-17), 요한 마가(행 12:12, 25), 공회의원 요한(행 4:5-6),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다.

요한의 아버지 세배대는 많은 삼군을 가진 부유한 사람으로 보이며(막 1:20) 거주지는 벧세대였다(요 1:44).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이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을 것으로 본다. 요한이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따른다(요 1:35-40).

예수의 제자로 있는 동안 가장 가까이 모셨었고 최후만찬 때에는 주님 품에 의지할 정도였으며(요 13:23),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문받을 때 제사장 집 뜰안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요 18:15). 그가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성모 마리아의 돌봄을 부탁받는다(요 19:26-27).

오순절 이후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 설립에 중심적인 인물이었다(행 3:1, 4:19, 8:14). 바울은 그를 '교회의 기둥'(갈 2:9)이라고 불렀다. 그의 만년은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AD95) 때 밧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다(계 1:9). 그 뒤 Nerva 황제(AD96)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Trajan 황제 때(AD98)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은 언제 쓰였는가? 이 모든 책들(요한복음, 요한 1·2·3서, 계시록 등)은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AD90-98년 사이로 본다.

15)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은 없다. 그러나 바울설, 바나바설, 아볼로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중세기까지는 바울설을 신봉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그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기록된 연대도, 장소도 모른다.

이상으로 사도들이 신약성서를 기록한 경위들을 대략 살펴보았다. 이제 앞서 설명한 모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약(AD44-45), 마(AD45-50), 살전(AD52), 살후(AD53), 롬(AD56-59), 고전·후(AD55-57), 갈(AD55-57), 벧전·후(AD64-68), 막(AD67-68), 눅(AD63-65), 행(AD63-65), 엡·골·몬(AD62), 빌(AD63-64), 딤후(AD65-66), 딤펴(AD62-63), 딤후(AD65-66), 약(AD62-63), 벧전(AD68), 벧후(AD68), 유(AD75), 요·요일·요이·요삼·계(AD90-98) 등으로 열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도들이 남긴 신약성경은 2천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천이 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새 삶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2. 사도들이 남긴 결과

(1) 핍박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폭발적인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설립한 후 계속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다. 사도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세계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가는 영향에 대해 처음에는 국부적이고 제한적이던 반대가 드디어 세계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로 확산된다. 여기서는 그 핍박의 과정과 그 주된 원인,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핍박의 과정

핍박은 예수님 자신도 받으셨다(마 22: 23, 요 5: 18). 그런데 사도들도 역시 핍박을 받았다. 야고보는 순교로(행 12: 1-2), 빌립도 순교로(행 12: 20-22, 행 1: 13), 베드로도(네로황제 때 AD64), 바울도 순교했으며(AD67), 안드레는 러시아 남방 카스피해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죽었고, 바돌로매는 아라비아에서 전도하다가 후에 인도에 이르러 가죽 벗김을 당하여 순교당했다. 마태는 페르샤 전도 후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했고, 맛디아는 돌로 맞고 목베여 죽임을 당했고, 유다는 수리아에서 전도하였고, 주님 동생 야고보도 62년에 순교하였으며, 도마는 수리아에서 전도하다 인도에 가서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핍박을 당하다 못해 순교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런데 사도들이 받은 핍박은 국부적이고 제한적인 상태의 핍박이었다. 이것이 좀 더 지나서 황제가 정치권력으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핍박으로 확대되는 것은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도들에게 핍박을 받는 정도였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로마의 총독이 개입을 한다. 그런데 사도들 때에는 유대의 헤롯왕은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들까지도 핍박을 세차게 해 나간다.

우리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에 핍박을 한 과정을 살펴보자.

1) Octavianus Augustus Caesar (BC30-AD14)

이 사람의 이름은 눅 2: 1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온다. 이 사람은 '시저'(영어로 Caesar)의 후예로 이 사람이 재임 중에 천하(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유대의 다윗 지파의 후손이어서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었다고 했다(눅 2: 3-4참조).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 출생 전에

박해를 가했으나 그같은 박해는 그리 큰 박해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2) Tiberius Caesar (AD14-37)

이 사람 이름은 눅 3:1에 나온다. 이 황제가 재임기간 중에 Pontius Pilate (AD26-36)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유죄판결하고 십자가에 처형케 했다.

3) Caligula (AD37-41)

이 황제는 황제 예배를 강요한 자(마 24:15)로 알려지고 있다.

4) Claudius (AD41-54)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령을 내렸다(행 18:2). 그래서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는 고린도로 피신을 하게 된다. 이 무렵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교회 설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5) Nero (AD54-68)

이 황제 때 로마에 불이 나고(AD64) 네로는 그 불의 책임을 기독교도들에 전가시키면서 온갖 핍박을 다하기 시작한다. 네로의 초기 때 바울은 자기의 죄목에 관한 재판권을 유대에 파견된 총독에게 맡기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상소한다(행 25:11-12). 그러나 바울은 네로의 박해로 순교당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기타 많은 사도들이 이 무렵에 순교를 당한다.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AD64년부터는 네로황제의 칙령으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때이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AD313년까지는 멈추지 않는 핍박에 따른 순교와 피나는 고난의 역사였다.

네로는 Claudius의 배 다른 아들이고, Caligula의 조카이다. 16세 때 작곡을 할 정도여서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리고 그는 운동에도 조예가 있었다. 그런데 커가면서 헛소리를 잘하는 광기를 드러냈다. 54년에 황제에 즉위하자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55년에는 자기 동생들 절반을 독살케 했다. 60년에는 모친과 두 아내도 독살시켰다. 그리고 곡예와 동물 경기로 국고를 낭비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사람을 경기의 이용물로 삼아 죽이는 것을 쾌락으로 삼았다.

네로는 64년(7월 18-19일)에 인구 150-200만의 로마 시를 새 로마건설이란 명분으로 불을 질렀다. 이 불은 국부적 불이 아닌 조직적 불로 6일간 진화를 못 했다. 이때 로마 전 행정구가 14구였는데 그중 2구는 전소되고, 7구는 대부분 거의 파괴되었다. 그런데 화재를 모면한 두 구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다. 불이 진화된 후 로마인의 원성이 드높아지자 그 불을 지른 책임자를 기독교도들에게 전가시켰다.

로마인은 가뜩이나 증오의 대상이었던 기독교도들이었으므로 쉽게 공명되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게 일어난다. 이때의 박해는 정치력을 앞세우고 능동적이고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공개적인 박해였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방화범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 무렵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정치적 박해를 시작한 네로는 동생의 처를 세번째 부인으로 얻게 되었고 이 일이 원로원에서 황제 축출 결의안으로 통과된다. 네로는 이 일로 스스로 자살하고 만다.

6) Vespasianus (AD69-79)

네로는 재임기간 중 Vespasianus장군에게 명하여 유대를 정복하려고 나섰다. 그래서 68년 유월절 무렵에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본국에서는 네로 황제가 자살하자 자기보다 수하의 다른 장군들이 황제 쟁탈전을 벌인다. 이것을 안 Vespasianus는 즉시 회군하여 저들 장군들의 쟁탈을 물리치고 스스로 황제가 된다. 그래서 AD69년을 '네 황제의 해'(the year of four emperors)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의 장군 4명이 쟁탈을 하다가 결국 Vespasianus가 등극했기 때문이다.

Vespasianus는 황제가 되자(AD69) 자기 아들 Titus장군으로 하여금 전에 정복하려던 유대 예루살렘 정복을 명한다. 그래서 Titus장군은 AD70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파괴함으로 예루살렘 유대인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만다. 그래서 AD70년의 예루살렘 함락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정치역사에 새로운 선을 긋게 해준다.

7) Titus (AD79-81)

Titus는 Vespasianus 황제의 아들이다. 이 두 황제들은 자기들 정권욕에 급급하여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는 크게 가해지지 않음으로 기독교인들은 잠시나마 쉼을 얻으며 계속 발전한다.

8) Domitian (AD81-96)

Titus의 뒤를 이은 Domitian은 로마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하여 로마의 많은 제신들의 경배를 중용하였다. 그런데 기독교도들은 유일신 신앙 아래 황제숭배는 물론 로마의 우상숭배를 거부하였다. 이에 비위가 거슬려 유대교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로 하

여금 매년 예루살렘 성전세를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Domitian은 로마 관리들에게 유대교적 풍습을 좇는 모든 자들에게 가혹한 박해 명령을 내렸다. 특히 로마 시 안에 황제와 인척관계가 있는 Flavius Clemens와 그의 아내 Domitilla가 유대인 풍습을 따른 죄목으로 처형된다. 이들은 분명 기독교 신자로서 순교당한 자들이다. 이 무렵에 지하동굴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으로 유배를 당한다(계 1:9). 이 무렵에는 비단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은 물론 고린도 등 마게도냐 지방과 로마 본국 등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박해였다. 이 박해로 원성이 심해져갔고, 또 그가 참혹한 독재자라는 악명을 듣다가 끝내는 정적들에 의해 궁전 안에서 암살당한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로마의 모든 기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9) Trajan (AD98-117)

Trajan의 통치하에서 안디옥 감독 Ignatius는 원형극장에서 처형되어 맹수의 밥이 되었다.

10) Hadrian (AD117-137)

그는 예수 묘지라는 곳에다 여 신당을 건축하고 기독교도에게 벌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11) Antonius Pius (AD137-161)

그의 통치하에서 서머나교회 감독 Polycarp 순교했다.

12) Marcus Aurelius (AD161-180)

저스틴을 순교시켜 분살 후 강에 뿌렸고, 경찰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13) Septimus Severus (AD193-211)

그의 통치 때에 안디옥의 클레멘트, 오리겐의 부친, 이레니우스 등이 순교했다.

14) Decius (AD249-251)

오리겐을 투옥했고, 키프리아노를 추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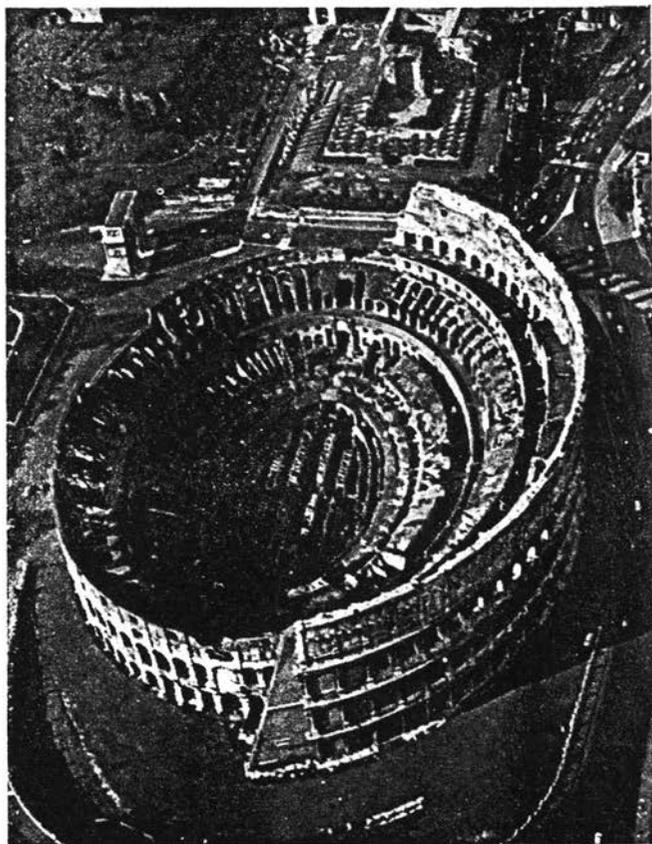
15) Valerian (AD253-260)

그의 통치 때에 키프리아인이 순교했다.

16) Diocletian (AD303-311)

기독교의 박멸을 위해 4회의 칙령(교회당 파괴, 성경 소각, 신자 분살 등)을 내렸다.

이들 모든 황제는 계속적으로 기독교도들을 핍박한 황제들이다. 중간에 뻘 연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잠정적으로 잠잠하던 때이다.



▲로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형극장은 로마의 콜로세움이었다. 주후 80년에 개장하였으며 약 4만 5천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원형극장은 검투사의 싸움을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모의 해전을 위해 많은 물이 넘치게 했다. 죄수들(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투기장 안의 사자나 곰에게 던져졌다.

(3) 핍박의 원인

그렇다면 AD64-313년까지 길고도 긴 세월 동안 황제들이 계속하여 기독교도들에 대한 핍박을 멈추지 않았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에 관해 살펴보자.

1) 기독교가 무신론 (atheism)으로 인정받았다.

로마제국은 헬라, 로마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신을 다 거부하고 오직 유일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저들은 그들을 볼 때 무신론자라고 보았다.

2) 국가 종교정책에 배치되었다.

로마는 수많은 이민족들을 점령한 후 식민정책을 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각 민족의 고유종교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저들 각 민족의 고유종교 인정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하에서의 인정이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각 민족의 종교는 물론 황제숭배도 거부하였다.

3) 사회생활의 부조화가 나쁜 여론을 조성했다.

즉 로마제국은 검투와 무용술로 강인한 군인정신을 영웅시하였다. 그래서 검투나 싸움이 사람과만이 아니라 맹수까지라도 싸워 이기는 자에게 큰 영광을 주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싸움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감화를 주려고 했다. 아울러 생명의 애호정신이 사회생활의 부조화를 가져왔다.

4) 자신과 돈에 무관심했다.

로마인은 모든 삶의 목표가 출세지향적이었다. 그래서 무사로 승리하여 출세를 하든가 운동으로 다른 이보다 출중하여 명예를 얻는 등 그들의 삶은 자신의 출세가 큰 목표였다. 그래야 돈을 벌고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출세보다는 이웃에 관한 관심을 강조했고 또 돈같은 것에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이같은 병은 로마의 시민정신에 마약같은 요소였다.

5)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부정의 미덕이 용납되지 않았다.

로마에는 한 남자가 27회 결혼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여자로 만족하였다(딤후 3:2). 또 고린도의 산당에는 여사제가 성녀의 이름으로 1천여 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숙한 가정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노예들이 있어서 생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

지만 기독교는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갈 3:28) 만인평등사상을 주장했다. 이런 점들로 인하여 로마인에게는 거북스런 가시같은 기독교도들이었다.

6) 무지와 오해

기독교도들은 옛날에 몰로 심판했으나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는 불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또 기독교도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주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식인종같은 교리를 갖고 있고, 또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라고 하며 쉽게 친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이같은 호칭을 하며 근친상간과 혼음을 즐기는 자들이라고 상상하였다.

또 매 주일 예배 후에는 사랑의 애찬(love feast)을 나누었는데 기독교는 허구한 날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방탕한 무리라고 했다. 이런 저런 많은 소문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인식되게 했으며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기독교도들은 계속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기들 입장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변증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사실은 다음에 살피도록 하자.

(4) 핍박의 결과

사도들 때부터 시작된 핍박은 수백년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핍박으로 인해 좋은 점도 있었었지만, 나쁜 점도 생겼다.

1) 좋은 결과

① 영적 영웅주의

핍박이 아무리 거세게 밀어닥친다 해도 주의 이름으로 순교당하면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영적 영웅주의가 크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사도들 대부분이 담담하게 순교당한 것처럼 그 뒤로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영웅주의가 크게 꽃을 피웠다.

② 교회의 팽창

우리들 생각에 정부가 강한 핍박을 가하면 교회가 약화될 것으로 상상하나 오히려 교회는 핍박 때문에 더 크게 팽창하고 넓게 퍼져나갔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만으로 안주할 때 문제만 생겼으나 핍박으로 인해 퍼져나갈 때 교회는 더 크게 되었다.

③ 교회의 정화

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떤 핍박으로 어떤 운명이 될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에서 도 삶으로 그들의 생활은 깨끗하고 청결함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교회의 정화는 핍박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었으나 교회가 안정되고 평온할 때부터는 분쟁과 함께 부패가 시작되었다.

④ 교리의 구성

밖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교리를 구성하되 통일된 교리를 만들려고 했다. 이 무렵 교파나 신학이나 교리가 다를 수가 없었다. 오로지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신학만 있었다.

2) 나쁜 결과

① 기독교를 변증하려다 보니까 세상 철학이 도입되었다.

기독교 자체의 순수한 복음과 생활의 모범으로 저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나 용어들을 기독교 용어로 번안해서 사용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것이 후에는 신학이 되고 또 각기 다른 신학의 파벌이 되다가 끝내는 종파로 확대되고 만다.

② 교회의식이 성례화 되어갔다.

주의만찬이나 침례식은 의식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의식 자체가 무슨 신령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양 성례화 되어갔으며, 결국 그것은 의례적인 의식으로 타락했다.

② 지도자의 손실

핍박으로 유능한 지도자들을 많이 잃게 되었다.

③ 지나친 성직자 존중제도

지도자가 귀하다보니 있는 지도자를 크게 성직자로 추앙하는 제도가 생겨졌다.

⑤ 금욕주의

핍박이 멈추자 주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영웅적인 순교의 길을 택한 선배들에 비해 너무 안일한 종교적 생활을 한다고 느껴 심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학함으로 선배들 신앙과 견주어보려는 금욕주의가 생겨진다. 그 결과 금식행위, 수도원생활, 독신생활, 기부금 제도 등 갖가지 금욕주의가 생겨진다.

(5) 예루살렘 함락

1)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상태

① 예루살렘 함락은 예수께서 친히 예언하셨다(마 23 : 37-39, 눅 13 : 34-35, 19 : 41-44).

② 로마 관리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다.

행 24 : 26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심문할 때에 돈을 바라면서 그를 가이사랴에 억류시키다가 후임자인 베스도에게 인계한다(행 25 : 9).

③ 대제사장의 타락(행 4 : 6)

원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하나이고 종신직이며 그 직은 또한 세습제였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 나온다.

a. 대제사장 안나스 : 이 이름은 Hanan, Ananias, Ananus라고 불리우는 신약시대 당시 가장 유명한 자였다. 그는 AD7-14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하였으나 전직 대제사장이나 관례에 따라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다. 그 후임으로 아들 '엘르아살'이 계승했으나 1년간의 공백이 생기고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다.

b. 요셉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AD18-36년까지 최장수 대제사장이 된다. 가야바 이후에는 안나스의 남은 네 아들이 차례로 계승한다.

요나단(AD36-37), 데오필루스(AD37-41), 맛디아스(AD42), 안나스(AD61), 그 다음에는 안나스의 손자 맛디아스(데오필루스의 아들)가 1년간(AD65-66) 대제사장이 된다.

c.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AD36-37)으로 여겨진다.

d. 알렉산더는 신원을 알 수 없으나 역시 안나스의 가문일 것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러 명으로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로마 정부가 임명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종교계의 타락이 어느 정도 심각했을 것인가는 상상할 만하지 않은가!

④ 인민들의 폭동

a. 행 5 : 36에 나오는 '드다'의 폭동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드다는 자칭 선지자라 하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을 모았다. 그는 자기가 명령하면 요단강 강물이 갈라져서 여호수아 때처럼(수 3 : 13)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고 선동하였다. 그때 로마 총독 파두스(Cuspius Fadus)가 기마병을 보내어 일당을 진멸하고 드다는 목베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b. 행 5: 37의 '갈릴리 유다'의 난

역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다는 갈릴리 지방의 가말라(Gamala)라는 한 고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AD6년경 유대 땅의 일부가 수리아의 관할로 넘어갔다. 그때 수리아에 파견된 로마총독 퀴리니우스(Quirinius)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과세를 목적으로 호적등록을 시켰다. 이때 유다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제물을 바쳐야 하고, 이방의 세상 통치자들에게 납세할 수 없다고 반항하였다. 이 유다 역시 처형당하고 만다.

c. 행 21: 38의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자칭 선지자로 활동한 이 애굽인은 AD54년경 3만 명의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에서 웅거하였다고 한다. 이 애굽인은 자기가 명령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성 안을 쳐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행 23: 24) 군대에 의해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가 되자 나머지는 흩어지고 도망쳤다.

'4천의 자객'이란 이들 3만명 중의 열십당원이었을 것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 외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억압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쉬지 않고 반란과 폭동을 계속하였다. 그렇게 되자 로마 본국에서도 큰 골치거리였다.

2) 직접적인 원인

① 가이사라의 소란

로마 정부는 유대인에 대한 식민정책으로 예루살렘에는 천부장(행 25: 23)이 파견근무를 하였고, 총독은 그의 새 근무지로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에다 새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었고 단지 관광객들의 유적지로 남아있다.

지금도 이곳은 벤히에 나오는 마차 경주장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로마가 이 가이사라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본토인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특혜를 주지 않고 이방인인 헬라인들만 우대하였다. 이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반항하자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을 수만명에 이르도록 가차없이 처형하였다. 이로써 유대인의 반항은 전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되었다.

② 수리아 총독의 개입

유대인의 반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유대 총독의 힘이 모자라자 수리아 총독에게 원정을 요청한다. 수리아 총독은 네로황제에게 건의하여 로마로부터 원군을 요청받게 되는데 그때의 장군이 Vespasianus였다.

Vespasianus는 AD68년에 예루살렘까지 접근해 왔다. 그런데 그 무렵 본국에서 네로황제가 자살한 후 네 장군들이 황제 재탈전을 벌인다. 이것을 안 Vespasianus는 본국으로 회군하여 자신이 황제가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Titus에게 유대정벌을 명한다.

③ Titus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Titus장군은 부친의 사업을 완성하려고 69년 후반기에 발군하여 70년 유월절 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조국의 위기를 깨닫고 전국에서 200만 이상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기도운동을 펼친다.

Titus는 70년 4월부터 7월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외곽을 포위하고 밖에서의 모든 공급로를 차단한다. 성 안의 2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은 식량부족, 식수부족으로 아사상태로까지 치닫게 된다.

성 안의 주민들이 땅굴로 탈출작전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난 그 현장이 지금도 유대인의 교육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굶주리고 지쳐다 못해 로마군에게 함락되고 만다.

3) 함락의 결과

AD70년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엄청난 결과들이 뒤따른다.

① 우선 인명피해가 100만명 이상이 참살당하고 10만명 가량이 포로가 된다.

②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윗왕 때 수축되어 전래해오는 것이 3면이 다 무너져 파괴되고 유일하게 서쪽 벽 하나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이 서쪽벽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지금까지 전래해 오므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대로이다.

③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의 지도력을 상실하고 만다.

이 때에 점령당한 예루살렘은 로마권에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고 터키권으로 갔다가 다시 이슬람권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1천여년간 정치 중심지로서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슬람의 사원을 지어는 황금사원(Dome of the Rock)이 있어서 회교도들의 3대 성지(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더이상 유대교의 종교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타 종교의 이용터가 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한때 오순절 성령강림과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모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상한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정치, 종교, 기타 모든 영향력을 잃게 된다. 다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정치력을 회복하려고 하나 아랍인의 거센 반발로 제한된 힘 이상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과거 옛 세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바이다(계 21: 2).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종말의 역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함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관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초기의 문서들

1.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

우선 사도신경에 관해 알려고 하면 사도신경의 정체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고 또한 내용상 신학적 견지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1) 사도신경의 정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가? 우리가 가진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요 표준인 사도신경이 성경상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든 개독교회들에는 사도신경이 마치 우리들 신앙의 모든 핵심을 요약한 것처럼 중요시 한다. 도대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들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인가?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긴다.

1) 사도신경에 관한 전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설을 소개하도록 한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AD55년에 12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독교의 요약을 마련하기 위해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가 처음 한 귀절을 기록하자 차례차례 한 귀절씩 더하여 오늘의 사도신경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또다른 말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도들의 신앙이 요약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사도신경은 수백년 후에 로마 카

톨릭교회가 수차례 걸친 편집과 보완을 거듭해서 만들어진 카톨릭교회의 작품이다.

2) 사도신경의 역사

사도신경이 AD300년경 이전에는 전혀 생긴 일이 없다. 앞서 초기 신약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 확인한 바이지만 신약교회가 생긴 AD33년부터 100년 경까지는 사도들이 존재했으므로 사도신경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을 목격한 사도들과 다른 목격자들의 상대수가 남아있었으므로 저들에게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떠나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 사도, 또는 교부들 때에는 침례 문답 때 간단한 문답서같은 안내서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AD100-125년 사이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앙의 규율(Rules of Faith)이란 것이 오늘날의 요리문답서 비슷한 것이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170-180년경에 현재와 같은 사도신경의 형태가 있었다고 하나 그같은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 아무도 증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신조는 4세기인 AD325년에 나타난 니케아 신조이다. 이때의 신조 내용을 보면 Arius의 신학사상을 공격한 Athanasius의 주장이 강력하게 반영되고 사도신경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그 후 교회 회의는 계속 거듭되어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전의 니케아신조를 확인했고, 431년의 에베소회의에서는 펠라기우스 주장이 부정되었다. 451년에는 칼케돈신조로 삼위일체론의 결정을 보며, 553년과 680년에 2, 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런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제정했거나 합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정직한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AD400년경에 활약한 Ambrose와 Rufinus에 의해서 사도신경이 사도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 후에 AD650년경에 '거룩한 카톨릭교회'(Holy Catholic Church)란 말이 삽입되고, 또 '성도의 교제'란 말은 650년 이후에 다시 삽입되었다. 그리고 AD750년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삽입되었다.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AD325년의 니케아신조가 한 시발점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해서 역사 속에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보완과 삽입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은 AD750년대에 완성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작품이라는 결론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 혹자는 사도신경이 너무 늦게 제작된 것을 호도하기 위해 AD150-180년경 또는 381년이나 아주 고대적인 작품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지할 역사적 증거가 없다. 한국내 몇 학자의 책에 의하면 AD381년경에 사도신경이 완성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381년의 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같은 일을 결정했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사도들 작품이 아니고 교회가 많은 세월동안 발전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던 것을 AD750년경에 로마 카톨릭교회가 제정했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여기에 관한 자료는 Philip Schaff의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2권, 528-537페이지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2) 사도신경의 검토

우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다. 고로 사도신경이란 말이 맞지 않는다. 혹자는 사도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해도 사도들의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사도신경이 꼭 사도들의 신앙을 종합한 것도 아니다.

그 내용상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1) 사도신경의 제작연대가 AD55년이라는 전설이 맞지 않는다. 그 이유로 AD45년경에는 야고보가 순교했었고(행 12:1), 또 신약성경 중 절반 가량을 쓴 바울 사도가 배제된 사도신경은 그 이름이 전혀 걸맞지 않는다.

2) 앞서도 말했지만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보완되고 참가되었으므로 사도들 신앙의 요약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다.

3)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케 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하여 분한 감정을 품고 있다. 그러나 동방 희랍정교회나 시리아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인 Claudia Procla를 마 27:19에 근거하여 성녀의 반열에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사용치 않는다.

그리고 애굽의 Coptic교회도 사도신경을 사용치 않는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에서 분리해 나온 개척교회들만 사용한다. 이것은 세계적 교회 입장에 볼 때 한 편견에 불과하다.

4)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다.



▲ 콥트 교회는 예술과 예배의 다른 전통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콥트 수도원에서 나온 이 성당(icon)은 그리스도와 성메나스(Sr. Menas)를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후광 사이에 키로(Chirho)가 그려져 있다.

죽 원문 대로 하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카톨릭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하였다. 물론 카톨릭이란 말이 공회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든 카톨릭교회에서는 자기들만이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이므로 자기들 교회의 결정대로 믿고 따르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 개혁교회들이 기만당하고 있다.

5)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교회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교적 기능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단지 전통적 교회 유산을 그대로 순복하겠다는 ‘암전한 신자 훈련용’으로 쓰여져 오고 있다.

6)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면은 많이 강조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능력 등은 말하고 있으나 이웃사랑은 물론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은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는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에 제약받는 모습이 역력하게 강조되고 있다.

7) 사도신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의 동질성을 찾으려고 하는 현대교회의 동향은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냐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관습적 암기와 동의가 신앙인 양 착각으로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경을 수없이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 속에 변화가 없는 한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다.

(3) 결론

사도신경은 전혀 불필요하다. 개혁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요식행위라면 그것은 전혀 착각이다. 사도신경을 제이무리 많이 암송한다 해도 그의 인격에 변화가 없는 한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사도신경 때문에 신앙이 자랐다는 사람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도신경 속에서 신앙의 덕이 될 요소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건덕상 이해는 되나 신앙과 구원에는 결코 도움이 못되는 카톨릭 교회의 산물이다.

2. 12사도 교훈집(Didache)

(1) 디다케의 유래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이 책은 신약 외경에 수록되어 있다. 원 제목은 「12사도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준 주의 교훈」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1873년 히랍정교회 주교인 필로테우스 브리에니우스(Philotheus Bryennius)가 콘스탄티노플의 예루살렘도서관에서 발견하여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출간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가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책명과는 달리 그 내용이 사도들의 교훈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고, 또 이 책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탈선 등이 생겨난 것이다.

(2) 디다케의 내용

전편이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1-6장 : 주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취급하였으며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을 설명한다. 그 내용이 유대교의 교리문답 형식과 비슷하고, 초기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들 교육을 위해 이 문서가 사용된 것 같다.
- 2) 7장 : 주로 침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즉 물이 없는 지방에서 침례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물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세 번 붓거나 세 번 뿌리라고 한다. 그 외에 금식, 주의 만찬도 다루었다.
- 3) 9-10장 : 공동식사 전과 끝난 후의 감사의 절차와 형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유대교의 축복형식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변경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 11-13장 :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관한 논의로 설명되고 있다.
- 5) 14-15장 : 주일, 감독, 집사 장립에 관한 교훈이 수록되어 있다.
- 6) 16장 : 종말론을 다루었다.

(3) 디다케의 영향

1) 이 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한다면 물이 없는 지방(애굽이나 기타 사막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기록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물이 없는 지방에서는 침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저자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2사도 교훈집이라는 책명과는 달리 12사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의 작품이다. 이것은 12사도 이름을 빙자한 위조작품이다.

- 2) 디다케는 내용도 사도들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 '70계명은 하지 말라', '40계명은 지키라' 등 계명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적이 아닌 율법적인 것이다.
- 3) 디다케는 기독교 의식의 잘못된 관행을 열어놓게 했다. 침례는 분명히 물에

잡그는 의식이었다. 유대나라도 물이 귀한 나라지만 물이 많은 먼 곳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침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물이 귀하다는 이유로 물을 붓거나 뿌리도록 한 것은 기독교 의식을 변질시키는 기초역할을 한 것이다.

4) 신약성경 중 교훈이라는 말이 'διδασκη'이다. 신약 안에도 이 용어가 30여회나 나온다. 기독교가 전도해서 교육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상과 전혀 다른 위장된 사도교훈집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기틀을 만든 셈이다.

5) 이 문서의 연대를 대략 AD125-165년으로 추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일찍부터 사탄의 침공을 받고 있었다. 이 문서는 초대교회의 예배 모범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가는가를 알게 해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경(Apocrypha)

외경은 성서의 정경 편집시에 제외된 여러 가지 문서를 가리킨다. 외경은 구약 외경 15권이 있다.

에스드라 제1서, 에스드라 제2서, 토비트, 유딧서, 에스터서의 후기(남은 부분), 솔로몬의 지혜, 벤시락의 지혜, 바룩서, 예레미야의 서간, 용광로 가운데서의 아사리아의 기도과 세 아이의 노래, 스잔나 이야기, 벨과 용, 므나세의 기도,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등이 있다.

이들 구약외경은 전부가 중간기(BC400-AD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구약성경이 39권으로 정경화 될 때 (AD90) 이 책들은 제외되었다. 그런데 1546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들 외경 중 11권을 추가로 구약성경에다 첨가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구약의 외경이나 위경(거짓 문서)은 모두 주전시대 작품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친다.

신약의 외경은 수십 권이 있다(신약의 위경은 없다). 즉 복음서가 40권, 사도행전이 7권, 서간이 4권, 묵시록이 10권, 시가가 2권이 있다.

이들 외경을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진 정경으로서의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1) 복음서 외경

1) 아그라파(Agrapha) : 4복음서에 전승되지 않은 예수의 어록을 모은 것인데 이것은 4복음서를 모방하여 개작한 것으로 본다.

- 2)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840 : Grenfell과 Hunt가 1905년에 옥시린쿠스에서 발견한 한 장의 양피지 사본인데 4, 5세기경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용은 예수와 대제사장 사이의 문답을 기록하고 있다.
- 3) 에게르톤 파피루스 (Papyrus Egerton 2)
150년경에 애굽에서 기록한 것이다.
- 4)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654 : 그렌펠과 힌트가 1903년에 발견한 3세기 초의 것으로서 내용은 예수의 말씀 다섯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 5)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1 : 1897년에 발견되었다.
- 6)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655 : 1908년 발견되었다.
- 7)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1224 : 학자와 예수의 대화가 수록되었다.
- 8) 카이로 파피루스 10735 : 예수의 탄생과 애굽 피난에 관한 내용이 취급되었다.
- 9) 피아움 단편 : G. Bickell이 1885년에 발견했다.
- 10) 프리이 로기온 : 5세기 와싱턴 사본의 한 단편이다.
- 11) 사도들의 서간 : 카이로 고고학 연구소에서 발견했으며 11제자가 교도들에게 보낸 서간이다.
- 12) 스트라스부르크 파피루스 : 5, 6세기의 것이다.
- 13) 나사렛 사람 복음서
- 14) 에비온파 복음서
- 15) 히브리인 복음서 : 유대적 그리스도교 복음서 (2세기 전반)
- 16) 애굽인 복음서 : 애굽의 이방인 그리스도교 복음서
- 17) 베드로 복음서 : 2세기 중엽에 시리아에서 기록된 것이다.
- 18) 진리의 복음 : 콥트어로 된 시리아나 애굽에서 3세기경 성립된 것이다.
- 19) 예수 그리스도의 소피아 :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 20) 파스티스 소피아 : 영지주의적 계시서
- 21) 예우 (Jeu)의 두 책
- 22) 빌립보 복음서
- 23) 도마스 복음서
- 24) 마티아의 복음서
- 25) 유다의 복음서
- 26) 요한의 아포크리폰 (Apocryphon) :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의를 소개했다.

- 27) 예수와 요한과의 대화
- 28) 마리아의 질문
- 29) 마리아의 복음서
- 30) 마리아의 겐나 (Genna of Mary)
- 31) 케린토스의 복음서 (Gospel of Cerinthos)
- 32) 말시온의 복음서 (Gospel of Marcion)
- 33) 아펠레스의 복음서 (Gospel of Apelles)
- 34) 바르테사네스의 복음서 (Gospel of Bardesanes)
- 35) 마니의 복음서 (Gospel of Mani)
- 36) 야곱의 원 복음서
- 37) 도마스에 의한 유년 예수의 이야기
- 38) 아부가루스 전설
- 39) 콥트어 애굽인의 복음서III
- 40) 콥트어 애굽인의 복음서VII

이렇게 많은 복음서들을 제쳐놓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복음서만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가를 알 수 있다.

(3) 사도행전

- 1) 베드로의 선교 : 회람의 다신교와 유대교의 예배와 대비한 기독교의 단일성을 기록했다.
- 2) 요한행전 : 요한과 그리스도가 계시를 이야기한 것을 기록했다.
- 3) 베드로 행전 : 베드로와 미술사 시몬과의 논쟁을 기록했다.
- 4) 바울행전 : 금욕, 부활, 내세구원의 희망을 제시했다.
- 5) 안드레행전 : 일시적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을 기록했다.
- 6) 도마스행전 : 도마스의 남인도 전도여행기
- 7) 위 클레멘스 문서

(4)서간

- 1)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낸 편지
- 2) 세네카와 바울의 왕복 서간
- 3) 위 디도의 편지
- 4) 콥트어 야곱의 편지

(5) 목시록

- 1) 이사야의 승천 : 전반은 이사야의 순교, 후반은 그가 본 환상을 기록했다.
- 2) 베드로의 목시록 : 천국과 지옥을 묘사했다.
- 3) 신탁집
- 4) 엘케사이의 서 (Book of Elkesai)
- 5) 바울의 목시록
- 6) 도마스의 목시록
- 7) 콥트어 바울의 목시록
- 8) 야곱의 목시록 I
- 9) 야곱의 목시록 II
- 10) 아담의 목시록

(6) 시가서

나세네 시편, 솔로몬의 송가 등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초기 문서로 전해져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 왜 하필이면 27권만이 신약성경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정경의 기준은,

첫째, 사도성 (Apostolicity) : 사도가 직접 썼거나 저자가 사도와의 관계를 뒷받침 될만한 동일 수준이나?

둘째, 내용 (Contents) : 내용이 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보편성 (Universality) :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 용납되었는가?

넷째, 영감성 (Inspiration) : 그 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증거를 내보이고 있는가?

이같은 4대 원칙을 놓고 AD397년 칼타고의 제3차 회의에서 Augustine의 주장으로 오늘날의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할 점이 신약성경은 모두 AD10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왜 AD397년에서야 정경 형성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자신들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험란한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너무도 많은 각종 외경, 위경들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동안 많은 시련을 거치고 난 뒤 찬란한 보석같은 진주를 갈고 닦은 후에 정경을 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현재의 27권의 성경을 규정지어는 선배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제 6 장 교부들 연구

신약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교회였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AD70)된 다음에는 안디옥교회가 중심이 된다.

안디옥교회는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인도대륙까지 뻗치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로, 헬라지방에서는 고린도와 아덴 등으로 확산되었다.

다음으로 교회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된다. 여기서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BC150년의 70인역) 되기도 한다. 그리고 로마교회가 또 교회의 중심지가 되어 중세교회까지 지속한다. 여기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리용, 비엔나, 파리, 그리고 영국과 독일 등으로 번져나간다.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갈 때 이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이 바로 '교부'(Church Fathers)들이었다. 교부란 사도들 뒤를 이어 교회 건설과 교리 발달에 크게 활약하여 후세에 중요한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교부들은 시대에 따라서 사도적 교부, 니케아회의 이전의 교부, 니케아회의 이후의 교부로 나눈다.

사도적 교부에는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 서머나교회의 감독 폴리갑,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어스, 바나바(Barnabas), 헬마스(Hermas), 디오그네투스(Diognetus)가 있었다.

니케아 이전의 교부는 변증가, 헬라교부, 라틴교부로 분류되는데, 변증가로서는 저스틴(AD125-166),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가 있으며, 헬라교부로는 이레니우스, 클레멘트(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 있고, 라틴교부로는 터툴리안, 키프리안이 있다.

니케아 이후의 교부는 Augustine까지 교회 회의에 활약한 여러 신학자들을 말한다.

1. 사도적 교부들(속칭 속사도)-Apostolic Fathers

이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들이 사도들과 교분이 있었던 교부라는 뜻이다. 그러나 저들 모두가 반드시 사도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사도들 뒤를 이은 교부들 중에 가장 오래된 교부라는 뜻이다. 저들 중에는 이름과 함께 글이 전해져오는 사람도 있고, 글은 있지만 이름이 전해져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들 사도적 교부들이 개종 이전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를 전혀 알길이 없다. 이들이 남긴 글을 모두 합쳐도 신약성경의 배가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의 글을 보면 주님을 영접한 뒤 변화된 삶을 살았고 영광스런 최후를 마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글의 내용이 목회적 동기에서 쓰여지긴 했으나 사도들의 사상과는 배치되는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시대적(그 당시 윤리적 경향성) 상황에 대한 초점 강조가 신약 교회의 변질이 시작되는 시발이 되기 시작한다. 이제 저들이 사도들 가르침과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가를 주의깊게 관찰해 보기 바란다.

(1) 로마의 클레멘트(AD 92-101, Clement of Rome)

이 사람의 신원은 잘 알 수 없으나 빌 4:3에 나오는 클레멘트가 이 사람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 사람이 AD92-101년까지 로마교회의 장로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당해 밧모섬에 있는 동안 클레멘트는 로마교회의 감독 일을 하였다.

이 사람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두 장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을 대답하는 형태의 서신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교회의 분쟁을 치료하는 길은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도자들(장로, 집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감독, 장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평신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클레멘트가 목회적 관점에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중에 감독을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고 여긴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실제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등을 많이 인용했고 바울서신은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클레멘트가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율법적으로 구약을 동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라고 간과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초기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의 영향은 그 뒤로 엄청나게 더 큰 문제들을 가져오게 된다.

(2) 이그나시우스(AD30-110, Ignatius)

이그나티우스라고도 하고 이그나시우스라고도 하는 이 속사도는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봉직하다 Trajan황제 때(AD125) 로마의 대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순교당하였다.

이그나시우스는 안디옥교회의 감독으로 재임 시 그를 체포하려는 군인들을 피해 잠시 피신하였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은 교인들에게 벌을 가했다. 참다 못한 그는 자원해서 자수하고 순교당하기로 한다. 그는 열명의 군인들에게 포박된 채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를 당한다.

그가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일곱 통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 편지는 서머나에서 에베소, 마그네시아(Magenesian), 트랄레(Tralle), 그리고 로마교회에다 보낸 편지였으며, 드로아에서 쓴 것은 빌라델비아교회, 서머나교회, 그리고 폴리카에게 보낸 편지였다.

여기 이 7통의 편지를 통해 나타난 그의 사상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교회에 대한 충성, 이단경계 및 증오, 감독의 권위에 대한 순복, 순교자의 영광 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그는 교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Catholic Church'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감독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강조하기 위해 감독직을 너무 고조함으로 전능한 감독직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감독이 한다. 고로 감독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고 장로의 마음은 사도와 같다.'

여기서 그는 최초로 감독의 직과 장로의 직이 약간 다른 것같은 암시를 담은 주장을 하였다. 이것이 다음 단계에 가서 감독과 장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로보다는 감독이 더 높은 직급으로 통용되는 시대의 서장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또 이그나시우스는 '주의 만찬은 죽을 사람을 해독하는 약효와 같고 침례는 거룩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여기 그의 주장은 침례를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엉뚱하게 침례로 중생이 가능하다는 '침례중생론'으로

비약하게 된다.

우리는 이그나시우스의 정열적 순교의 미담과 함께 그로 인해 뒤따라 생겨진 단점들을 보게 된다. 즉 순교를 너무 지나치게 찬양함으로 평범한 삶에서 신앙을 구현하는 생활 속의 신앙을 과소평가하도록 비교의식을 심었고, 감독직을 성경의 도를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행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의식들을 과도히 주장함으로 '성례주의'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이그나시우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그가 남겨준 7통의 편지들은 간사한 인간들이 선용하기 보다는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놓았다. 따라서 그의 공과로 인하여 교회사에 어둔 암운을 던져준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헬마스 (AD97-140, Her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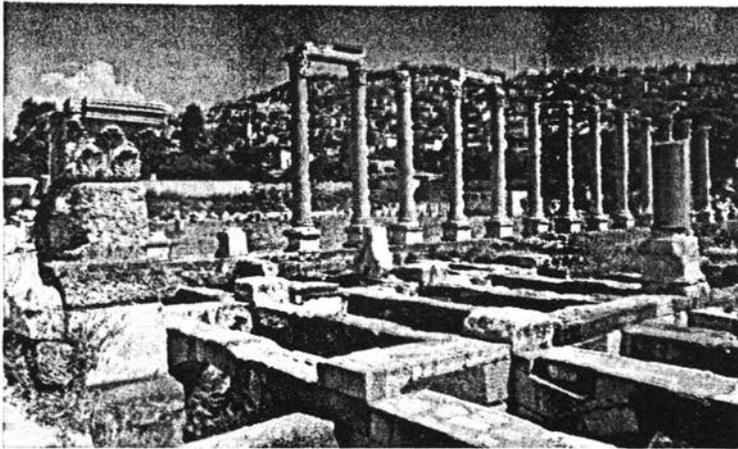
이 사람의 신원은 잘 알 수 없으나 롬 16: 14에 나오는 '히메'가 이 사람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헬마스'는 바울의 연하 친구이며, 로마의 파피어스 감독의 형제라고 전해온다. 이 사람의 과거는 불행한 가정 출신으로 한 때 노예로서 고생하다가 로마의 기독교인인 '로다'라는 여인의 가정에 팔려왔다가 복음을 듣고 개종한 듯하다.

헬마스가 쓴 「목양자」(Shepherd)라는 책이 전해져 온다. 그가 쓴 이 목양자의 내용에는 5개의 환상, 12계명, 10비유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사상을 보면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덕적인 계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공로의 신앙을 강조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보다는 교회의 의무준수와 도덕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히 '10비유'중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훗날에 '연옥'의 교리를 만드는 기초를 놓게 하였다. 또 '침례'를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침례수 위에도 서있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재혼이 가능한 것처럼 재 회개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의 사상이 이교도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초기 속사도들이라는 사도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한 것들이 곧 신약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이다.



▲폴리카프는 서머나에서 순교하였다. 서머나 장터의 이 유적은 일찍이 웅장한 공공건물로 유명했던 한 도시를 상기시켜 준다.

(4) 폴리카프 (AD69-155, Polycarp)

폴리카프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이그나시우스하고는 친구지간이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1통이 있다(속칭 ‘빌립보 서신’이라고 함). 이 빌립보 서신은 14장으로 나누어 쓰여졌고, 1633년에 활자화해서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단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의 친구 이그나시우스는 이교도들을 증오하라고 했으나 폴리카프는 원수의 박해와 핍박에도 사랑과 겸손과 인내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였다.

폴리카프는 그의 마지막 순교 장면이 감동적으로 전해져 온다. 때는 Antonius Pius (AD137-161) 황제 때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서머나의 지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때 지사는 그리스도를 욕하면 방면하겠다고 권유했으나 폴리카프는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였으나 그는 나를 해롭게 한 일이 없거늘 어찌 내가 나의 왕 나의 주를 모독하겠느냐’고 끝내 거절하였다.

지사는 그에게 화형을 선고하였더니 ‘금세의 일시적 불보다는 내세의 영원한 불이 두려우니 지체말고 결행하라’고 했다. 폴리카프는 결국 관헌의 칼로 베임을 당하고 분소당하고 말았다.

(5) 파피어스(AD? -150, Papius)

골 4: 13에 나오는 '히에라볼리'교회 감독이었던 파피어스는 요한의 제자이다. 전설에 의하면 벵가모에서 순교하였다고 한다. 그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의 구전을 모아서 5권으로 된 「주의 가르침의 설명」을 썼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은 지금 전해져 오지 않으나 그의 글을 인용한 이레니우스의 글과 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에 전해져 온다. 파피어스의 글이 유세비우스에게 인용됨으로 역사적 고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파피어스의 사상은 초대교회와 2세기 교회가 전반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6) 바나바(AD70-130, Barnabas)

이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행 11: 24)는 아니다. 이 사람의 편지가 전해져오는데 그 내용은 유대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잘못됨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즉, 안식일 준수나 할례 시행이나 율법 준수 등으로 기독교 신앙에 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격한다.

그리고 주의 날, 즉 주일을 지켜야 되는 점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천년왕국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최초의 전천년설 주창자로 손꼽힌다.

또 이 바나바는, 인류의 역사가 6천년동안 전개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므로 7천년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바나바가 누구였는지 모르나 반 유대적 성격이 강한 점과 사상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 저자는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으로 AD70-130년 동안 활약했던 사람으로 본다.

(7) 디오그네투스(Diognetus)의 편지

디오그네투스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 편지는 1592년에 Henry Stephan이 출판하여 일반에게 보급되었다. 이 편지는 전체가 12장으로 된 것으로 기독교 진리를 이교도 철인에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2장: 서론 후 기독교의 교리 및 예배를 헬라 종교와 유대의 것과 비교하여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3-4장: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의식과 미신적 요소를 배격한다.

5-6장: 기독교의 산 진리를 소개한다.

7장 :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한다.

8-10장 :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과 성도의 축복을 소개한다.

11-12장 : 낙원에 이르는 열쇠로 믿음을 소개한다.

이 편지의 내용에는 구약의 인용이 별로 없고 사도들의 건전한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와 폭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가 드물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존하였던가를 고후 10:3, 5:16, 롬 8:4, 요 8:3,6,37, 17:13-19, 빌 3:20, 엡 2:19-22, 벧전 2:9-17, 고후 6:4-10 등을 인용하여 바울신학의 건전함과 다른 사도들 신앙을 그대로 설명한다.

그는 성경뿐 아니라 헬라철학에도 해박하였다. 그래서 헬라 철인들이 신을 불, 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잘 설명함으로 이교철학에도 큰 변증을 하였다.

이 편지의 절정은 9장 속에 담겨져 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죄악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폭군적 지배와 두려움과 공포로 다스리지 않고 자비와 온유를 가지신 한 임금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피끓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보내신 것과 같이 보내셨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쾌락과 육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길이 참으신 것은 우리 죄를 무관심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를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남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이웃의 짐을 지며 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2.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은 변증가, 헬라 교부들, 라틴 교부들로 분류된다.

(1) 변증가

교회에 대한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발전해졌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는 로마의 황제들이었고, 또 시민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이들은 이교도나 철인들이었다. 이같은 공격 앞에서 기독교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저들의 공격을 이론적으로 반격하거나 변호하는

교부들을 변증가라고 했다.

변증가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변증의 글을 써서 황제나 고위 관리에게 바침으로 기독교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사상을 비방하는 이교 철인들에게 기독교와 이교철학을 비교시킴으로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글이었다.

황제에게 글을 보낸 교부로는 Hadrina황제 (AD117-137)에게 '기독교 신앙에 관한 변증'을 바친 아덴교회 감독 '콰드라투스'(Quadratus) '아리스티데스'(Aristides)가 있고 Marcus Antonus황제 (AD137-161)에게 글을 보낸 아덴의 철학자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가 있고, 또 Aurelius(AD161-180) 황제에게 글을 바친 사데교회 감독 '멜리토'(Melito)와 히에라폴리스 감독 '아폴리나리스'(Apollinaris) 등이 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교도들에게 변증의 글을 쓴 사람은 앞서 설명한 무명의 저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주는 편지가 있고, 가장 유명한 순교자인 Justin과 그의 제자인 앗시리아 사람인 타티안(Tatianus; AD110-172)이 있다.

이 타티안이 쓴 「디아테사론」(Diatessaron; 전기)은 4복음서를 종합하여 속어로 만든 최고의 그리스도 전기이다.

1) Justin Martyr (AD114-165)

Justin은 사마리아의 수가 세겜에서 출생하였다. 그 부모는 헬라인으로, 사마리아 지방에다 헬라인들을 강제로 이민케 한 식민지시대 때 이주해서 살던 가족이었다.

Justin이 처음에는 스토아철학을 배우다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피타고라스 등의 학파로 옮겼다가 나중에 플라톤 철학을 배우게 된다.

그가 자기 스스로 철학 연구의 극치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무렵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는 노인과 만났다. 그 노인은 Justin에게 구약에 약속된 것과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설명해줌으로써 기독교의 계시성을 깨우쳐 주었다.

이때부터 Justin의 생애는 바꾸어져서 계속 성경을 연구한 후에 신자가 되어 철학자의 복장으로 각처를 돌아다니며 죽는 날까지 지성인들에게 전도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는 두 번 로마에 상경하여 '진정한 철학'이란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Aurelius 황제 때 순교를 당한다.

그가 쓴 작품으로는 세 가지의 변증서가 있다.

대변증서 : Antonius Pius황제에게 보내는 글 (68장)

소변증서 : 로마의 원로원에게 보내는 글 (15장)

트리포 (Trypho)와의 대화 : 트리포는 에베소에서 살던 유대인으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한다 (142장). 이 변증서는 불신자인 Trypho와의 담론형식으로 쓴 것으로, 기독교가 고대 예언을 성취한 것과 기독교윤리의 고상함과 기독교는 박해 중에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Justin의 변증서에 나타난 그의 사상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① 침례는 영적 할례와 같다고 하였다.

구약의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의 기호로 영이에게 실시하였고, 신약의 침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성인 (成人)들이 실시하는 의식이였다. 그런데 Justin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가 같은 것처럼 말한 후에 Augustine과 Calvin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유아세례 찬성자들이 이같은 비 성서적 주장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② 예수 그리스도가 독신생활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독신생활을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자신이 성 (性)을 제거하고 고자가 되어서 독신생활을 하였다. 이것이 중세기의 수도원 생활과 금욕주의로 발전하도록 하는 구실이 된다.

③ 그의 사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Logos 사상이다.

Justin은 기독교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 당시 철학의 옷을 입혀 기독교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변증을 목적으로 성경보다는 플라톤의 사상을 더 이용함으로써 결국에는 기독교와 철학이 유사한 것처럼 기독교를 격하시키고 말았다.

그의 변증 중 Logos사상은 BC150년경에 활약했던 유대인 철학자요 또 성경 학자였던 Philo의 Logos사상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Logos 개념과의 차이를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자 (the first begotten)로 창조품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격인 '산출적 Logos' (Generative Logos)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산출적 Logos라는 말은 스토아철학의 용어이다.

이 산출적 Logos는 또다시 성령을 산출하고, 성령은 또다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하여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여 모든 인류들은 자기를 낳은 Logos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Logos에 따라

사는 한 플라톤이든 기독교이든 모두가 같다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Justin은 순교까지 하면서도 기독교를 철학으로 변증하는 과정에 서 복음을 철학과 비슷한 것으로 격하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논란되는 토착화 신학에 대한 불확실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 별한 주의를 배워야 할 것이다.

(2) 헬라 교부들

변증가의 시대는 끝나고 신학을 건설하는 시대가 접어든다. 이 무렵에는 지역과 언어의 차이로 헬라 교부들, 라틴 교부들로 분리된다. 헬라 교부들도 두 파가 된다.

소아시아파 : 사도 요한의 뒤를 이은 사람들로 성서주의를 표방하며 사색이나 철학보다는 단순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여기 대표자는 '이레니우스'(Irenaeus)와 '히폴리투스'(Hippolytus)가 있다.

알렉산드리아파 :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전과 철학을 이용하여 신학을 연구하려 했다. 대표자로는 Clement와 Origen이 있다.

1) 이레니우스 (AD115-202, Irenaeus)

이레니우스는 소아시아에서 출생하여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제자였으리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사도 요한에서 폴리갑으로, 폴리갑에서 이레니우스로 연결되며,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손자에 해당된다.

이레니우스는 헬라 고전과 신·구약성경에 정통하였다. 그가 블란서 '리용'(Lyon)지방의 선교사로 가서 일을 하던 중 177년에 리용에 박해가 일어나 로마로 옮겨 난을 피했다. 그 뒤 리용의 노 감독 '폰티너스'(Pontinus)가 박해로 순교하자 그 뒤를 이어 리용의 감독으로 지낸다.

그는 리용의 전 시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갈리아 지방 등 타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년경).

이레니우스는 헬라 사상에 익숙하면서도 활동은 서방에서 함으로 라틴신학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

그가 쓴 작품은 그노시스 이단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서 「사도적 증명」(Proof of the Apostolic Preaching)과 「이단설에 대한 철학적 논박」과 「성서

적 비판], 「말시온 사상 비판」, 「부활의 논증」 5권이 있다. 이중 사도적 증명과 이단설에 대한 철학적 논박만 전해지고 있다. 이 책들은 그노시스 연구 및 고대 교회 사상 연구에 크게 가치있는 자료이다.

이레니우스의 사상을 살펴보자.

① Gnosticism에 대한 성서적인 비판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믿는 것 위에서 이레니우스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에 불과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저급한 종교의 주장이라고 하여 성육신을 부정하였다. 여기서 이레니우스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한신학으로 성육신과 부활체에 관해 잘 설명하였다.

② Irenaeus의 전통에 관한 이해

이교도들은 기독교가 갖 생겨난 분파의 하나로 전통이 없다고 공격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오래동안 기록된 전승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의 전승'(the paradosis of the truth) 혹은 '파라도시스의 규칙'(the rule of the paradosis)이 저들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어서 전통 이전에 존재하는 성령으로 전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성경이 없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진리는 성경 이전에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이레네우스의 충정과는 정 반대로 훗날 카톨릭교회에서는 성경 이전에 존재하는 성령의 전통은 곧 성경과 같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성경과 전통은 같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레니우스 사상과 전혀 관계없는 악의 산물이 되고 말았다.

③ 총괄 갱신의 교리(Recapitulation)

이 말은 엡 1: 10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란 말인데 원문으로는 'ανακεφαλαιωσις'이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포괄된다는 뜻이다. 이 사상이 롬 5: 12-21, 고전 15: 20-22에도 나타난다. 즉,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성육신해 오심으로 아담 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총괄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레네우스의 '총괄 갱신'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잃었던 인류를 갱신하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AD160-211, Clement of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철학과 고전에 있어서 소양이 풍부하였다. 이곳 알렉산드리아에는 신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판테이누스'(Pantaenus), 클레멘트, 오리겐 등은 모두 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자이다.

클레멘트는 아덴에서 출생하여 (AD160년경)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는 그의 스승 판테이누스의 뒤를 이어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교에서 12년간을 가르쳤다. 그 후 세베리우스 황제의 박해 때문에 안디옥으로 피신하여 목회와 저술활동을 하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다.

클레멘트는 큰 설교가이기 보다는 교양이 넓고 문학 취미가 깊던 학자였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이교의 공허성을 설명한 「이방인 또는 헬라인에 대한 권면」(Exhortation to the Greeks), 기독교의 도덕을 설명한 「지도서」(Paedagogue), 그리고 「이단에 대한 반박문」 등이 있다.

3) 오리겐(AD185-254, Origen)

① 생애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레오니다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로마의 극장. 알렉산드리아의 중요한 신학적 전통이 있는 도시였다.

(Leonidas)로 셀베루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였다. 오리겐도 부친을 따라 순교하려 했으나 모친의 명을 좇아 형제자매 봉양을 책임맡기 위해 순교를 포기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와 돈독한 신앙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교에 입학하여 클레멘테에게서 배운다.

그런데 교수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지자 학교를 인수받아 학교 책임을 지고 배우며 가르치는 학교장이 된다. 이때 그의 나이는 18세였다. 그는 당시 철학의 권위자인 암모니아스 삭카스(Ammonius Saccas)에게서 철학도 배웠다.

그의 학문과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그를 시기하고 적대하는 반대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는 6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일생을 거세한 독신으로 지내며 극한 가난과 금욕주의로 살아간다. 그는 맨발에 두 벌 옷이 전부였고, 잠은 맨바닥에서 잔 세월이 더 많았다. 또 여자 교인들의 유혹을 이기려고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마 19:12).

211년에는 로마를 방문하고, 215년에는 카라칼라 황제의 축출명령으로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했으며,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감독 '데메트리오'로부터 시기와 모함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추방을 당하자(230년경)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간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로 돌아가 신학교를 개설하고 후배양성에 힘썼다. 이 무렵 그의 학문이 최고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244년 Decius황제의 박해로 악형과 고문을 받고 두로감옥에 갇혀있다가 석방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69세의 나이로 254년에 숨을 거둔다.

② 작품

오리겐의 작품은 대단히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2천부까지 된다고 하나 서한까지 합하면 6천부에 달한다. 오리겐의 작품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 성경 주석류의 책이 있다.

그중에 Hexapla(헥사플라는 6 Volume Bible이란 뜻)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한 책이 있다. 이 책은 27년 동안 각 번역본을 참고하여 본문을 해석하였는데 그 방법은 우화적, 신비적인 해석방법이었다. 그런데 이 명저가 7세기 때 아라비아인 병사들 방화로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다.

b.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책이 있다.

'원리'(De Principis)는 기독교 교리를 계통적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서 그

의 해박한 신학지식과 헬라철학 등이 고루 활용된 것이 드러난다.

c. 변증적인 작품이 있다.

그 당시 이교도 지성인인 ‘셀서스’(Celsus)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다. 그는 신 플라톤철학과 스토아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변증하였다. 이 변증서는 8권이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③ 사상

오리겐은 그의 스승인 클레멘트와 같은 로고스 철학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성경에 밝혀진 부분과 인간이 사색을 통해 추리하여 독창적인 신학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은 성경을 존중하고 그의 독창적인 추리력으로 평생동안 저술활동을 하였다.

a. 오리겐의 성경 해석법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육체와 심령과 정신으로 구성된 것처럼 성경에도 문외적, 도덕적, 영적 3종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의미란 사실에 포함된 교훈을 말하고, 영적 의미라는 것은 철학에 속한 의미로 그 의미는 문자 이상의 정신을 뜻한다. 그리고 문외적, 또는 우화적(Alegorical) 의미란 성경 글자 하나 하나에서 신령한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b. 창조론

오리겐의 창조론은 전혀 그의 상상적인 이론이다. 먼저 그는 창세기 두 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해 두 가지 창조설을 주장한다. 즉, 창 1: 26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비로 하와를 만드신 기사가 나온다.

이 사실을 오리겐은 창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창조하다’(barah)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가 차이를 설명한 것을 보면, 처음 1장의 ‘창조한다’라는 원문의 뜻은 영어로 ‘to create’이고, 2장에 나오는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행동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영어로 ‘to form’(형성하다), ‘to shape’(형태를 주다)라는 뜻이다.

이것을 오리겐은 두 개의 창조로 본다. 최초의 창조는 육체를 갖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만의 창조였고, 그때 인간은 성별이 없는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2장의 창조는 물질적인, 현재의 인간을 형성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인간을 다시 형성하셨는가? 그에 의하면 처음 창조된 영들이 모두가 다 동등하고 다 영광이 같았다. 그런데 어떤 영들은 자유의지를 악용함으

로 악령이 되었고, 어떤 영들은 자유의지를 악용도, 선용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악용도, 선용도 안 한 제3의 영들이 곧 인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악령을 위해서는 지옥을 만드셨고, 인간을 위해서는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다.

c. 삼위일체론

오리겐은 인간 영혼에 대한 기원에 선재설을 주장한다.

여기에 반해 어거스틴은 유전설을, 펠라기우스는 창조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다른 것으로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하시고 다만 모든 이성적 피조물보다 우월하실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다음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더 못하시어서 다만 성도들 안에 거하실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출생'(the eternal generation)의 교리로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영원한 출생이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셔서 떼어내 보낸 것이 아니고, 항상 출생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d. 종말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사탄과 귀신들이 포로로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시기 위해 오셔서 인간들의 진정한 영적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 역시 인간과 같은 영적 존재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사탄도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순수했던 원래의 상태로 귀환될 것이다.

범죄한 인간은 죽은 다음에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적은 소수만이 천국으로 직행하며 거의 모든 인간들은 깨끗케 하는 불로 연단하는 '연단장'(Training school)으로 간다.

그 연단장에서 고난과 참회로 죄의 해결을 본 후, 한 계단씩 승격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다. 모든 죄인은 물론 악령까지도 로고스의 깨끗케 하는 능력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인간들의 영적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물의 회복(Universal Restoration)이 따른다.

e. 구원론=속량설(Ransom Theory)

인간이 범죄한 후 인간의 존재는 악마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다. 이때 하나

넘게서는 강제로 인류를 탈환치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악마의 손에 붙여 보혈의 대가를 치루게 하고 그 대가로 인류를 해방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인 죽음의 세력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탈출하신 것임으로 악마는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④ 오리겐 사상의 비판

a. 오리겐의 저술활동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그의 성경 해석법은 히브리 원어, 헬리어, 그리고 네 가지의 다른 번역판을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저술 활동을 위해 식음도 수면도 잊어버리고 정력적으로 책을 썼다. 그런데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신령한 뜻을 찾는 우화적 해석방법은 성령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맥락을 놓치고 말았다. 그의 과도한 집착이 성경 전체를 잃고 좁은 골짜기에서 평생을 방황한 모습을 보여준다.

b. 그의 창조론은 그가 비록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명은 할지라도 그의 주장은 플라톤 학파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 학파가 바로 오리겐이 말한 그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c.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제2의 하나님으로 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못하다는 주장이나 영원한 출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다는 종속설(Subordinationism)을 말하였다.

d. 인간 영혼의 기원에 관해서 선재설을 말한 것도 그 당시 헬라철학의 경향을 따른 것이다.

e. 종말론에 있어서 모든 존재 및 사탄까지도 구원받는다든 '만물회복설'은 전혀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이고, 또 모든 인간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닌 '연단장'에 가서 승급해 올라간다는 것은 훗날 카톨릭의 연옥교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f. 예수 그리스도가 자진해서 죽으심으로 인류구원의 성업을 완성하신 사실을 속량설에는 사탄과 대결하다 참패한 그리스도로 묘사함으로써 주님의 귀한 죽음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이상으로 오리겐 사상을 검토해 보면 그는 평생동안 성경과 씨름하며 주석도 쓰고 조직신학적 교리도 쓰고, 이단들과의 공격을 위해 변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자라기 보다는 플라톤 철학자로서 성경을 요리한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오리겐은 그의 많은 노력의 결과, 기독교를 나쁜 길로 오도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그릇된 지도자였다.

(3) 라틴 교부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BC356-323)은 전 지중해 세계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동방세계까지도 헬라문화 도시를 세웠다.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는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의 가이사라, 안디옥교회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 교회였다.

후에 로마,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교회는 콘스탄틴 황제 후에 대교구로 부상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교회를 합쳐 5대 대감독 교구라고 일컫게 된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정치적, 문화적 정복에서 서부 지중해 연안의 칼타고 지역은 제외되었다. 다같은 아프리카이지만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중심교회가 되었으나, 서부 지중해 연안인 칼타고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 기독교권이 형성된다. 이 칼타고는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위주였기 때문에 자연히 라틴어를 중심한 기독교회가 된 것이다.

여기 칼타고에서 유명한 교부들이 터툴리안, 키프ريان, 어거스틴 등의 유명한 교부들이 배출된다.

1) 터툴리안(AD150-220, Tertullian)

① 생애

터툴리안은 150년(혹은 160년경) 북아프리카의 칼타고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어서 강한 교육열이 있었다. 그러나 모친이 이교도였기 때문에 청년시대의 소양은 잘 닦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친 덕으로 법률, 문학 등 많은 공부는 했으나 40대가 되어서야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도덕적 생활을 하게 된다.

터툴리안이 후에는 몬타니즘에 합류하여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터툴리안이 몬타니즘 분파에 가담한 것을 모든 사가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몬타니즘 운동은 그당시 세속화되어 힘을 잃어가는 무기력한 교회에 각성운동을 일으킨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겠다.

② 작품

터툴리안은 신학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준만한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는 철학, 법률, 헬라문학, 라틴학문 등 다방면으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30여편의 작품을 남겨놓았다. 터툴리안의 저서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기독교의 변증에 관한 작품들 : 「여러 민족에게」(Ad Nationes), 「변증서」(Apologeticum), 「영혼의 증거」(De Testimonio Animae), 「프락세아스에 대항하여」(Against Praxeas)

-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작품들 : 「기도에 관하여」, 「침례에 관하여」, 「인내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삼위일체에 관하여」

- 기독교의 윤리에 관한 작품 : 「여자의 옷에 관하여」, 「일부일처주의」, 「성적 순결」(정절 권고), 「금식에 관하여」, 「박해를 회피하는 일에 관하여」

③ 사상

이렇게 많은 작품 속에 나타난 그의 사상은 어떤 것인가?

a. 전에 변증가나 Alexandria의 Clement에 있어서 Logos는 헬라철학에서의 로고스와 같은 Logos였다.

다시 말하면 본래 Logos는 다 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히브리인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또 헬라의 소크라테스나 헤라클레토스에게도 나타났다. 그래서 클레멘트같은 이는 Logos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인 몽학선생이나 복음의 사전 준비로 보았다.

여기에 관해 터툴리안의 사상은 완전히 달랐다. 즉 「아덴이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나?」라는 글에서 철학자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만들어내는 자로 완전히 다른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헬라철학을 맹렬히 공격하고 기독교는 일체의 공상적 사변을 정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순되는 고로 나는 믿는다'(Credo quia absurdum est.)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b. 그의 독특한 사상으로 '취득시효'(取得時效, Prescription)가 있다.

2~3세기에 기독교를 가장 곤혹스럽게 공략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전통이 전혀 없는 하나의 이단에 불과하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영지주의나 이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기독교의 우수성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터툴리안의 주장은 좀 달랐다.

터툴리안은 이단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반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 그들에게는 돼지 앞의 진주를 던지는 격으로 보았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전승에 의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전승은 예수나 사도들이 가졌던 그때의 전승과 효력이 다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교회는 그 신앙의 모체가 사도들로부터 기원되었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승되었기에 효력이 다 같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결과로 카톨릭에서는 계시 외에도 전승이 동일하다는 극단적인 전통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터툴리안의 사상과는 별 관계가 없는 로마교회의 교황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남용의 유물이 된다.

c. 터툴리안이 '프락세아스에 대항'이라는 논문 중에서 삼위일체론을 최초로 언급한다.

즉 '프락세아스'라는 그 당시 로마교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의 말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다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 양식(mode)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부로, 어느 때는 성자로, 또 어느 때는 성령으로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양태론' 또는 '양식론'(modalism)이다. 그래서 '성부가 고난을 당했다'는 '성부 고난설'(Patripassianism)이 나왔다.

그러나 터툴리안은 양식론의 잘못을 공격하였다.

그는 '하나의 본체에 세 개의 위격'(One Substance and three persons)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왔으나 성부와 본질에 있어서 같으며, '두가지 본체'(two substance)와 '한 위격'(one persons)이라는 법적 용어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터툴리안은 최초의 '삼위일체' 용어 사용자이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에 성 삼위간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economic relationship of the Trinity)로 설명하였다. 이 말은 성부가 가장 큰 원천이고 거기서 성자가 분리되어 나왔으나 여전히 성자는 성부를 지원(support)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중속설'임은 두말할 것 없다.

d. 터툴리안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의 관계는 원죄에 의한 유전설을 주장하였다.

e. 또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노여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 만족(Satisfaction)은 회개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훗날 카톨릭의 '교해신학'으로 발전한다.

터툴리안은 라틴어로 신학을 전개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라틴신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라틴신학은 로마 카톨릭 교회신학의 기초가 된다.

2) 키프리안(AD200-258, Cyprian)

① 생애와 작품

키프리안은 칼타고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 덕으로 문학, 법학, 수사학 등을 배워 수사학의 교사와 변호사로 활약했다. 그가 45세 되던 해에 터툴리안 저서를 연구하다가 개종을 한다. 그가 교회에 헌신하여 열심히 봉사할 때 칼타고 시민들의 추천을 얻어서 감독으로 인수를 받는다.

그가 아주 일찍 감독에 오른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과 데키우스(Decius) 황제의 박해 때문에 사막지대로 피신하여 서신으로 교회를 지도한다. 이때 많은 사람은 그가 비겁하다고 비난하였으나 258년에 순교함으로 그의 참뜻을 보여주었다.

키프리안은 그의 서신 81통을 포함하여 「교회일치론」(De Unitate Ecclesiae)을 251년 초에, 「타락자에 관하여」(251년), 「죽음에 대하여」(252년), 「선한 인내에 대하여」(256년), 「질투와 악의에 관하여」(256년), 「포르투나투스에게」(257년) 등이 있다.

② 사상

키프리안의 대표적 주장은 그의 교회론이다.

키프리안이 교회론을 강력하게 주장 한데는 그가 처한 입장이 그렇게 만들었다. 즉, 그가 249년에 감독이 되었는데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250년 1월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명대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가, 또는 로마 종교인이라는 증거를 매입하여 박해를 피하려고 했다.

여기서 교인들을 잘 지켜야 하는 문제와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관심이 그의 교회론을 발전하게 한다.

그가 이같은 상황하에서 교인들을 관리할 목적을 갖고 쓴 「교회일치론」은 상당히 그의 개인적 주장으로 흘렀다.

a.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

교회를 버린 자는 외인이고 속인이며 적이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b. 교회는 보이는 한 단체로 사도 때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다.

감독은 사도의 전승을 계승한 자로 감독은 신앙 진리의 수호자일 뿐 아니라 교회 질서의 수호자이다. 교회는 영적 일체성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가건적인 구체성이 감독직의 전승을 통해 계속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감독의 계승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감독에 의해 전승되었고,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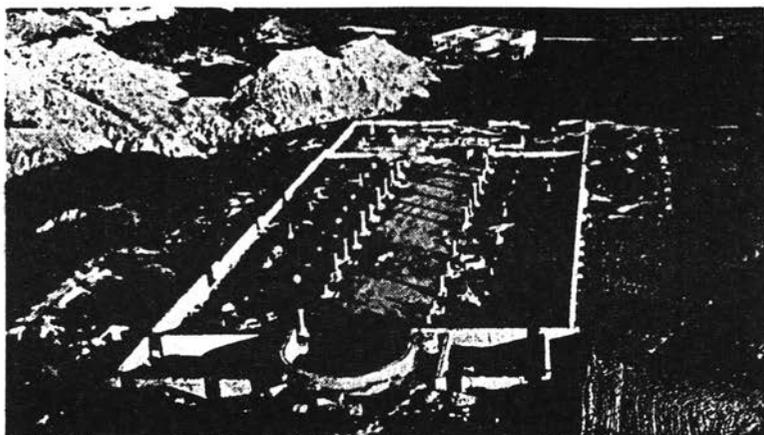
c. 모든 교회들은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계승적 신앙이 있어야 한다.

보이는 가건적 교회의 근원은 로마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근원(전체 카톨릭교회)의 전승을 계승받아야 하며, 로마 교구의 베드로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특이성을 갖는다.

d. 한 번 침례를 받은 자가 타락하여 변절했을 때 그 침례는 유효한가?

여기에 관해 로마, 팔레스타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한 번 시행한 침례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실시했으므로 계속 유효하다고 하였고, 라틴 아프리카, 안디옥, 카파도기아, 길리기아 등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양 견해가 서로 논쟁될 때 키프리안은 256년에 칼타코에서 71명의 감독회의를 열고 다시 주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키프리안은 가



▲칼타고의 유명한 키프리안 기념교회. 후진(後陣, 예배당 동쪽 끝의 반원형 부분)이 있는 예배당(basilica)의 도면을 이 사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이곳에서 설교 하였을 것이다.

전적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예식이나 의전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프리안에게 있어서 제도적 교회는 절대적 의미를 가졌다고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a. 키프리안 자신은 보이는 교회의 일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중에 로마교회가 모든 교회의 뿌리이며, 또 사도적 전승을 받은 모 교회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

신약교회의 기원은 예루살렘교회였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을 중심한 세계교회로 번져갔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롬 1:11, 15:20 참고) 예루살렘교회 이후에 형성된 여러 교회 중 한 교회였지 로마교회가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될 수는 없다.

b. 교회는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 따라 이 말도 이해될 수 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생명체이니 감독, 장로, 신도로 구성되는 외적 조직이 곧 교회라는 그릇된 교회관을 주장하였다.

c. 키프리안 자신이 의도했는지는 잘 모를 일이나 그의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우월성을 터닥게 만들어 주었고, 베드로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 교황제도의 길을 터놓았고, 오늘날 카톨릭교회의 교회론을 발전케 하는 데 기여하였다.

(4) 결론적 고찰

나는 이상에서 속사도, 변증가, 교부들의 생애와 사상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만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신약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을 생명을 걸고 잘 지켜서 넘겨주었다.

그런데 사도들 이후의 지도자들은 왜 변질된 자기 주장과 성경을 떠난 잘못된 지도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원인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핍박이 가져온 결과가 컸다.

황제들이 권력의 힘으로 조직력을 갖고 기독교도들을 핍박하였다. 이때 지도자들은 우선 자기에게 닥친 현실문제 수습에 급급하다 보니 성경의 뜻을 따르지 않는 상황 적응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께서 전해준 의식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의식 자체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성례전 신학을 만
들게 되었다.

또한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으로 희생되므로 지도력이 결핍되는 문제에서 오는
난점을 해결하려다 보니 성직자 존중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이고 교회는 구원받
은 무리들의 자발적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핍박에 따르는 공포로 인해 교회
안에는 형식주의가 도입되게 된다.

2) 교부들시대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구약만 존재
했으므로 성경의 원칙대로 따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신약의 정경화는
AD397년에 완성).

3) 초기 교부들의 작품들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즉 Didache에서 물을 뿌리라고 가르친 것이나 Hermas가 중간지대인 연옥개
념을 말한 것이나 Origen의 우화적 해석이나 Cyprian의 독특한 교회론 등은
모두 성경에 없는 주장인데도 저들이 지도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

4) 철학이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기독교를 세인들에게 변증하기 위해 세인들이 아는 철학을 인용하다 보니 성
경은 멀어지고 철학이 교회에 자리잡게 되는 오류를 초래하게 되었다.

5) 각종 파벌들의 난립으로 불필요한 힘을 낭비케 만들고 진리수호보다는 결길
에다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말았다.

이같은 요인들이 결국 순수한 신약교회를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하였고, 변질
의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각도가 더 커져나갔다.

제 7 장 신자들의 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라는 것들은 대체로 교회 지도자들의 생애와 사상들을 배우게 되거나 혹은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나 관리들과의 대결관계 등을 취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더 공정한 사실을 알려고 하면 지도자는 물론이고 그 밑에서 지도를 받던 일반 신자들 전체의 상황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 물론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하면 정보가 매우 제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이들도 아는 것이 정당한 역사이해의 바탕이 될 것이다.

1. 예배

기독교는 유대교 배경에서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처음 3세기까지는 유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최초의 예배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을 사용했다(행 13: 14, 42, 44, 16: 13, 17: 2 참조).

그러다 사도들이 '안식후 첫날'(행 20: 7)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같은 행습은 고린도 교회에도 지켜진다(고전 16: 2).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계 1: 10)이라고 부르고 그 뒤로는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주일예배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설교에다 예배의 초점을 맞추는 것하고 전혀 달랐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다같이 빠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행 2: 43-47에 나타난 것처럼 즐거운 만찬을 통해서 예배의 정수를 찾았다. 이 초대교회의 만찬은 슬프고 우울하고 회개를 유도하는 그런 만찬이 아니었다.

저들에게 그 시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려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처음 1세기 때는 만찬이 보통 식사의 일부분이었다. 신자들은 자기들 성의껏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공동식사를 하였다(고전 11:21 참조). 그러나 제2세기 때부터는 공동식사가 폐지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도들은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이며 또한 매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방탕자들이라는 로마인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제2세기 때부터 예배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별된다.

제1부: 성경봉독과 간단한 해석(설교 형식),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제1부를 이룬다. 이 당시에는 신자들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신자들의 성경지식은 여기서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제2부: 평화의 입맞춤으로 시작되는 주의 만찬이 시작된다. 이 주의 만찬의 참석자는 반드시 침례받은 자라야만 했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1부 순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평화의 키스가 끝나면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사회자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사회자는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한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주신 은총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 후 빵을 쪼개어 분배하였고, 포도주는 한 그릇에 담은 채 돌려가면서 마셨다.

현대교회가 성찬기라는 돌 깎쟁이같은 플라스틱 컵에다 담아 돌리는 것은 중세 카톨릭교회의 잔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만찬을 다 마치면 축도로써 그날 예배가 끝이 났다. 이같은 예배 내용이 좀 더 치밀해지는 것은 후대의 일이다. 적어도 4세기 이전(니케아 회의 이전)까지는 시편과 찬송 제창, (신·구약) 성경낭독과 기도(회중이 기립하여), 그리고 감독의 설교를 실시했다.

찬송의 주 내용은 구약의 시편이 위주였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사6장, 눅 1:46-2:29, 마 21:9, 계 1:6 등) 사용한 것도 있었다. 그리고 Alexandria의 Clement가 만든 가장 오래된 찬송이 있고(우리 찬송가 103장에 수록됨) 교호창(Antiphony)을 사용한 이는 이그나티우스였다.

2. 절기와 행사

(1) 부활절 (Easter)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Easter란 말은 게르만족이 만든 말이고, 본래는 Pascha(파스카)라고 했다. 그리고 부활절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이 AD325년 니케아회의 전까지는 통일되지 않았다.

즉,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는 동방교회와 주일을 지키는 서방교회가 각기 다르게 지켰다. 그러다가 니케아회의에서부터 춘분이 지난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오고 있다.

(2) 사순절 (Lent)

오늘날 사순절의 기원은 부활절 전 1주일 동안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뜻으로 단식하는 풍습이 있었다. 여기서 발전하여 부활절 전 40일을 '쿠아드라게시마'(Quadragesima)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고행과 금식을 하며 침례를 준비하던 것이 '사순절'이 되었다.

(3) 주현절 (Epiphany)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키던 축일이 1월 6일이었다. Epiphania란 말은 '출현'이란 뜻이다. 그 후 라틴계 서방교회에서 이교도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Christmas라고 대체한 것이 콘스탄틴 황제 때였다.

(4) 승천일과 오순절 (Pentecost)

부활 후 50일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이며,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날을 환희의 만찬으로 기념하였다.

(5) 예배 장소

초대교회 때는 개인의 집(롬 16: 5, 고전 1: 16), 셋 집(행 28: 30), 회당(행 15: 21, 18: 4)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뒤 박해 때는 무덤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자기들이 존경하던 신앙 선배들의 무덤(Catacomb)에서 예배드림으로 고인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교인들의 증가로 주택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3세기경(AD256년경)에는 개인주택이 교회 전용건물로 사용되게 된다.

(6) 침례식

침례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부활절날에 행해졌다. 그 뒤 3세기 초부터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금식한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각인 주일아침에 침례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침례는 남여가 구분되어서 완전 나체 위에 새 생명을 상징하는 흰 옷(골 3: 9-12, 계 3: 4)을 걸쳤다.

이들에게는 마실 물이 주어지는데 그 물은 겉과 속이 정화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침례 후에는 기름을 발라 제사장 신분이 되었음을 표시했고, 또 우유와 꿀을 발라 약속의 땅(Promised land)에 들어갔음을 표하였다.

그리고 4세기 이전까지는 유아세례를 실시한 일이 전혀 없고, 4세기가 지난 5세기 때부터 유아세례를 실시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3. 교회의 정치

신약교회 때 교회직분은 오직 두 가지 뿐이었다. 즉 감독(장로, 목사)과 집사 뿐이었다(딤후 3: 1-13). 그런데 제2세기부터는 세 가지 지도자 직분이 생겼다. 그것은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

그러면 왜 2세기 때 감독직이 더 우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앞서 교부들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 것처럼 '키프리안'(Cyprian)이 '교회는 감독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니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한 것이 시발이 되었다. 이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내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단의 위협을 방어하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적 책임자가 필요했다.

그 책임이 곧 감독이었으며, 장로는 보좌역을 맡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변화가 세 가지 직분으로 나뉘었다. 감독은 30세를 넘어야 했으며, 교회정치의 수반이고 교회재정을 관리하며, 침례와 설교를 하고 종교회의에 참석하였다.

장로는 통상적인 예배 때 관리를 하고 안수례와 신도교육을 맡았고, 종교회의 때도 감독의 상담역할을 하였다.

목사라는 호칭은 AD200년 이후부터 사용된다. 목사는 집사 위에 있는 직분자로 안수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중개자 역할을 하였다.

집사는 성직이 아니라 교회재정과 성찬식 때 보좌역할을 했다. 그리고 2세기 말까지는 모든 직분을 남자들만 하였다.

4. 기독교인의 일반 생활

(1) 가정생활

독신생활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였다. 그래서 이혼은 반대하였고, 재혼도 기

피하였다. 죽은 후 망인을 위해 과도히 통곡하지 않았고 깨끗한 묘지는 잡자는 곳으로 알아 묘지관리와 단장을 열심히 하였다. 노예제도가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은 완전히 폐쇄되지 않고 있었다.

(2) 사회생활

신자들끼리는 가능한 인접하여 살려고 했다. 그리고 극장, 곡예장, 검투, 종교제전 등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상과 관계된 일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또 전쟁과 사형을 반대하였다.

(3) 학교와 교육

기독교주의적 학교는 없었고, 이교도 학교만 있었다. 교회 안에는 교리문답학교 같은 것이 있었다.

(4) 종교 훈련

주일예배 외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였다. 매일 기도하는 것, 밤에 기도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행위 등을 하였다.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

침례 준비기간을 '카테큐멘'(Catechumenate)라고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침례 준비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관한 교훈을 받았으며 교육중 자기들의 신앙을 생활 속에서 증명해야만 하였다.

침례 지원자들을 3등분해서, 청자(Audtentet)는 성경과목과 설교만 듣는 것, 제자(Genuflectentes)는 기도할 능력이 있는 자, 진자(Competentes)는 주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시험을 통과한 후 침례를 받고 침례자는 침례자 명부에다 그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침례받는 자는 침례와 함께 모든 죄가 제거된다고 하였다.

침례 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는 사할 수 있는 죄(회개, 감독의 안수), 사할 수 없는 죄(살인, 배신, 간통, 이단, 분파)가 있다고 했다. 또 죄에 따라 1년, 혹은 15~20년 동안 회개를 거듭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죄도 있고,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 이후의 신자들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규제에 의해 점차 얽매이게 되었다.

제 8 장 교회 회의(교리 논쟁)

신약교회 후 교부들 시대까지는 세계적인 기독교 회의가 없었다. 다만 한 지방에 국한된 종교회의가 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3세기에는 칼타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등 지방대회가 열렸고, 4세기 초까지 지방대회가 더 확산되었다.

그러나 AD313년 콘스탄틴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부터는 세계적인 교회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313년부터 580년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할 때까지 교회 회의는 여러 차례 거듭된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계속 박해와 핍박을 받아오다가 비로소 교회회의를 세계적으로 열 수 있게 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콘스탄틴 황제를 비롯한 모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했으나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콘스탄틴은 공적은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회의시대를 연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대대적인 박해 후에 온 승리

데키우스(AD249-251)와 발레리안(AD253-260, Valerian) 황제들의 박해 후 상당기간은 비교적 평온한 시대를 보낸다. 그런데 '디오클레티안'(AD303-311, Diocletian) 황제 때에는 가장 극심한 박해가 발생한다.

이 시기의 박해는 기독교 최대최고의 박해기간이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제국을 재 정비하고 새로운 번영을 기할 목적으로 로마 전체를 4명의 황제가 분할 통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동방에는 디오클레티안 자

신이 말고 서방에는 '막시미안'(Maximian)에게 맡겨서 이들을 '아우구스투스'(Augustus)라 하여 일종의 대제와 같은 책임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대제 밑에는 '시저'(Caesar)라 하여 부제의 일을 하였다. 그래서 동방의 디오클레티안 밑에는 '갈레리우스'(Galerius)가 부제였고, 서방 막시미안 밑에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Constantius Chlorus)가 부제였다.

'디오클레티안'황제는 제국의 분열과 내란을 권력분할로 막아보려고 이같은 일을 시도했으나 그의 소망은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 아내 '프리스카'(Prisca)와 딸 '발레리아'(Valeria)가 모두 기독교 신자였는 데도 자기 밑에 있는 '갈레리우스' 부제의 사주로 기독교들에게 엄청난 박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303년에 '디오클레티안'황제 칙령이 선포되어 교회 건물은 파괴되고, 기독교 서적들은 불탔으며, 기독교 신자들은 일체의 공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황제 명을 거부함으로 고문과 처형이 자행된다. 이 무렵 황궁에서 두 차례의 화재가 발생한다. 이 불을 지른 범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안 황제로 하여금 더 큰 박해명령을 내리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안 자신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교 제사를 명하였다.

이렇게 되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압력에 굴복하는 배교자가 생겼고, 소수는 잔인한 고문과 악독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305년에는 디오클레티안과 막시미안이 퇴위하고 부제였던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대제가 된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아들 콘스탄틴이 서방 부제가 되고, 또 갈레리우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동방 부제가 된다.

갈레리우스가 AD311년에 죽자 로마 제국은 콘스탄틴, 막센티우스의 대제와 리키니우스, 막시미누스 부제에 의해 4등분으로 분할된다. 그런데 서로가 제국을 장악하려다가 결국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의 전쟁으로 압축된다.

두 사람은 312년 10월 28일에 이탈리아의 '밀비안'(Milvian) 다리 위에서 싸우다가 막센티우스가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이로써 콘스탄틴이 제국 전체의 주인이 된다.

막센티우스를 이긴 콘스탄틴은 라키니우스와 313년에 밀란(Milan)에서 만나 전쟁을 중지할 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밀란칙령'(Edict of Milan)을 AD313년에 내려 기독교 박해의 종식을 가져온다.

황제에 의한 최초의 기독교 박해는 AD64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수백년간 계속되었고 AD313년에 가서야 끝이 난다. 이로써 기독교는 더이상 황제의 정치적 박해는 받지 않게 된다. 실로 총력적인 대 박해 후에 온 승리였다.

2. 콘스탄틴 대제의 인물

(1)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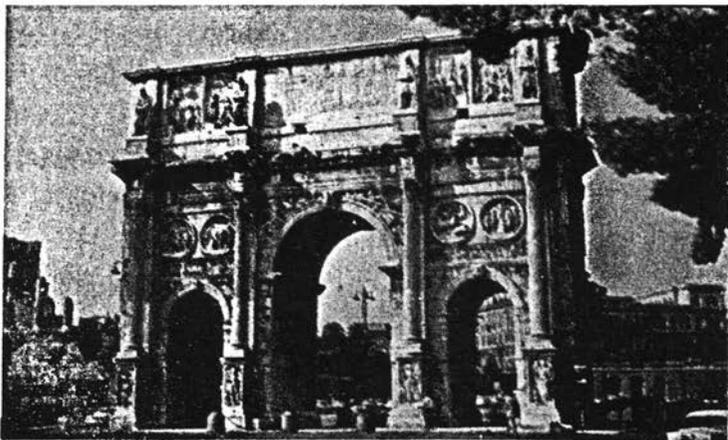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콘스탄틴 황제는 어떤 인물인가?

콘스탄틴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Constantius Chlorus)는 앞서 언급한대로 서방 대제인 막시미안(Maximian) 밑의 부제였다.

클로루스는 헬라 여인이며 여관집 딸인 헬레나(Helena)와의 사이에서 아들 콘스탄틴(Constantin)을 AD272년에 얻게 된다.

콘스탄틴은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소년기를 보낸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장성했을 때 아버지 클로루스는 정치적 목적으로 헬레나와 이혼을 한다. 그리고 클로루스는 대제 막시미안의 딸인 데오도렛(Theodoret)과 재혼한다. 그런데 그녀 역시 기독교 신자였다.

콘스탄틴 자신은 모친들의 신앙적 감화보다는 부친의 영향으로 막강한 군인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차후에 대권을 장악하면 기독교를 통한 국가발전



▲밀비안 다리에서의 콘스탄틴의 대단한 승리는 로마의 개선문 건축에 의해 기념되었다.

에 도움 받을 생각을 할 정도로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정직한 무리이고 균형잡힌 삶을 사는 이들이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하므로 그것을 황제를 향한 충성심으로 선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가 밀비안 다리(Milvian Bridge)에서 적장 막센티우스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즉, 콘스탄틴이 꿈 속에서 기독교 상징을 병사들이 방패와 군기에 부착하면 승리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콘스탄틴의 회심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상상하지만 그는 평생동안 태양신도 섬기고 기독교도 이용한 것을 보면 그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는 평생동안 침례를 받지 않다가 드디어 화급한 나머지 죽기 직전에 임종 세례를 받게 된다(AD337). 그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장자를 죽이고 그의 처도 죽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등 단점도 많았으나, 정치적 역량은 대단하여 놀라운 공적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

(2)업적

콘스탄틴 황제가 과연 신앙인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가 끼친 영향력이 너무 심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그의 업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기독교에 끼친 공헌

콘스탄틴 자신은 스스로 기독교 보호자로 자인하였다. 그러나 그가 평생동안 이교신을 버리지 않고 이교의 대사제로서 기능을 다 한 것을 보면 그가 꼭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독교에 호의적 정책을 펼 것은 사실이다.

콘스탄틴 입장에서 보면 크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큰 사건들이 많았다.

먼저 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교회 재산을 몰수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도록 하였고, 스페인의 코르스도바(Corsdova) 감독인 '호시우스'(Hosius)를 황제 자문역으로 삼아 황제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성직자들에게는 세금 감면과 군대 징집면제 등으로 우대하였다. 이

때문에 콘스탄틴은 원로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다. 그러나 전능한 권위로 원로원을 억누르고 나갔다.

그리고 로마 화폐에다 기독교의 그리스도 이름을 상징하는 표시와 아울러 로마의 옛 신들의 상징을 함께 주화하였으며 (320년), 태양숭배신이 '지존의 존재' (The Supreme)에게 경배하듯 일요일을 기독교의 예배일로 정하도록 했다. 전에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일과 주일에 드리는 이중 관행을 콘스탄틴이 하나로 일원화시켰다 (324년).

콘스탄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12월 25일의 태양신 예배날로 정했다. 그 이전에는 주현절로 1월 6일을 지키던 것을 이교도의 축하날로 옮기자 이교도들 역시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제1차 세계 종교회의 (The First Ecumenical Council)를 니케아에서 열도록 했으며, 그 회의는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다. 또한 그는 그의 생모인 헬레나가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수의 처형지를 발견했다고 하여 베들레헴에 '성탄교회' (The Church of the Nativity)와 감람산 교회에 두 개의 기념교회를 국고금 지원하에 건립하기도 했다 (AD325-329년).

그가 330년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그리이스의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할 때 아내의 소유였던 로마의 '라테랑궁' (Lateran Palace)을 교회에 기증한다. 이것을 'Donation of Constantin'이라고 하는데 이 궁은 오늘날 교황청 바티칸 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교황들에게 서방 전체를 다스리도록 권한도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저들의 이와같은 주장은 '로렌조 발라' (Lorenzo Valla)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기독교에게 여러 면으로 선심을 썼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 황제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교활한 정치가로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한 정치가였다. 그것은 그가 로마제국의 수장으로서 대사제의 칭호와 임무를 다했으며, 또한 그의 사후를 계승할 세 아들들을 신(이교의 신)으로 선포한 원로원의 소행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콘스탄틴은 그가 대권을 장악한 후 이교도의 쇠퇴를 가져오고 기독교에 선심을 쓰는 황제이긴 했으나 콘스탄틴 그 자신이 로마제국 국교였던 이교 (Paganism)도의 대 사제행위를 평생동안 수행한 것이나 그의 자식들에게 신의 호칭을 받게 한 것은 그가 기독 신자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2) 황제로서의 업적

콘스탄틴 황제는 여러 면에서 업적이 다양하다.

① 콘스탄티노플의 건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330년에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를 옮겨 그리스 비잔틴에 다 '새로운 로마'(New Rome)인 '콘스탄틴의 도시' 즉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한 일이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될만한 곳이고,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해역의 요충지였다 그의 사령부를 설치할 필요를 느꼈다. 그 당시 상황은 이같은 그의 꿈을 실현하기에 너무 좁은 장소였다. 그렇지만 새 평야에 성벽을 쌓아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였다.

콘스탄틴은 새 수도를 장식할 자원과 물자조달을 위해 제국 산하의 전 지역을 뒤져서 모든 것들을 운반하였다. 아폴로상, 전차 경주장, 공동목욕장, 광장 등을 설치해놓고 이곳에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납세와 국방의무를 면제해 주고 콘스탄티노플 시민에게는 기름, 식량, 포도주를 무상으로 배급해 주었다. 이로써 콘스탄티노플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로마제국의 정치,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동로마제국은 비잔틴 제국(Byzantium Empire)이라 불리며, 1천여년 동안 동로마의 중심지가 된다.

그와 반대로 서로마제국의 수도 로마는 야만족들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약화되다가 드디어 476년에 망하고 만다. 서로마제국의 수도 로마는 정치적 핵심이 빠져나가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은 종교적 중심부가 되어 중세 카톨릭교회의 중심지로 발전된다.

② 각종 악법의 개정

고대로부터 전해오던 십자가형 제도를 폐지하고 검투제도를 금하였다. 또 축첩과 간음을 엄금하고 이혼권을 제한시켰다. 또 부인에게도 재산소유권을 부여하며 각종 여성보호법도 제정했다. 그리고 죄인 이마에다 인두로 낙인하는 법을 없앴다.

③ 일요일의 제정

일요일을 정하여 농부 외에는 모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일요일에는 군대훈련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교회재산 감리법을 정하여 교회에서의 기부금을 공인하도록 하였다.

④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박멸정책은 쓰지 않았다. 타 종교에서 실시하는 제사 중에 불결하거나 잔혹한 것은 금하였다. 그리고 우상들은 산당에서 옮겨다 박물관이나 공원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⑤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이거나 또는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려고 독특하게 지은 교회 건물들이 남아있다. 소위 '바실리카'(Basilica)라 불리는 직사각형 건물양식이 있었다. 이 바실리카 건물의 특징은 기독교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모자이크'(Mosaic) 양식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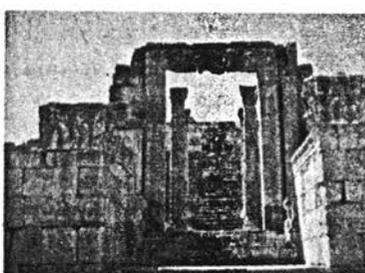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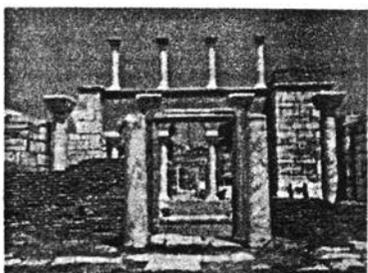
3) 콘스탄틴 황제의 후계자

콘스탄틴이 AD337년에 65세로 세상을 떠나자 콘스탄티노플에 안장되었다. 콘스탄틴 황제가 죽은 후 로마는 그의 세 아들에 의해 3등분으로 분배된다. 큰 아들 '콘스탄틴 2세'(AD337-340)는 전사하고, 둘째 아들 '콘스탄스'(AD337-350, Constance)는 자객에게 암살당한다. 그래서 셋째인 '콘스탄티우스'(AD337-361, Constantius)가 천하를 다 소유하게 된다.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그의 사촌 아우 '줄리아누스'(AD361-363, Julianus)가, 그 다음에는 '주비아누스'(AD363-364, Juvianus)가 계승한다.



◀콘스탄틴 상의 커다란 머리 부분. 이것은 일찍이 로마의 콘스탄틴 교회당에 세워져 있었다. 이 머리의 높이는 2.46미터이며 무게는 약 9톤이다.



▲콘스탄틴 이후 각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를 건축하였다. 이 건물들은 사데와 빌립보와 에베소, 그리고 제라슈(거라사)에 있는 교회들이다.

3. 교회회의

(1) 니케아회의의 (AD325, Nicea)

1) 니케아 회의가 소집된 원인

니케아대회는 기독교 세계대회의 효시가 된다. 이 대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대회이다. 그러면 니케아회의는 왜 열리게 되었는가?

교회 안에서 생겨진 교리적 논쟁이 크게 확대되어서 이 문제 수습을 위한 것이 그 원인이 된다.

최초의 문제는 기독교론에 관한 문제였다. 과거 교부들 때에 이미 기독교론에 관한 문제성있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저스틴(Justin)은 말하기를 '성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며 성자인 로고스(Logos)는 단지 제2급에 속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여 성부와 성자간에 차별이 있다고 했다.

그후 터툴리안(Tertullian)도 '3위는 본질이 셋이 아니라 양식이 셋이며, 능력이 셋이 아니라 표현이 셋'이라는 기묘한 법적 용어로 설명했으나 이 주장 역시 불분명한 설명이었다.

다음에 오리겐(Origen)은 아들은 '성부로부터 산출된 제2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성자는 성부에게 산출되었으나 계속하여 성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종속설(Subordinationism)을 설명해왔었다.

이와 같은 교부들 주장은 안디옥의 신학자요 감독인 '사모사타의 바울'(AD260-272, Samosata)의 영향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장로가 된 '아리우스'(Arius)에게서 비롯된다. 아리우스는 안디옥에서 사모사타의 바울과 유명한 신학자인 루시아누스(Lucianus)에게서 배운 대로 자기 주장을 하였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예수가 다른 선지자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여 로고스가 되었다고 보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신성을 부여하였다고 했다. 바울의 이같은 주장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런 영향을 받은 아리우스는 안디옥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바울의 주장을 답습하였다.

아리우스는 키가 육척이 되고 변설이 명쾌하여 논리가 정연하였고, 또 정열적 인데다가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므로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다. 아리우스는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하였다. 즉, 예수는 본래 신의 본질로 처음부터 있는 분이 아니고 창조함을 받은 장자이므로 영원치 못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시작이 없으나 아들은 시작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제2의 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는 인간의 육체는 가졌으나 인간의 영혼은 갖지 않았다. 예수는 인간들의 영혼이 아닌 로고스를 가졌다. 따라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중간적 존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아리우스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인 '알렉산더'(Alexander)의 예수의 신성 주장에 반대되므로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 대회를 소집하여 아리우스의 이단설을 정죄하였다(AD320-321). 그리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파문하였다.

그렇지만 아리우스와 같은 안디옥 학교 동문인 니코메디아(Nicomedia)감독 유세비우스(Eusebius)가 동방교회에서 막강한 힘으로 아리우스를 지원하였다.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의 측근자로 그 세력이 대단하였다. 여기에 힘입은 아리우스는 「탈리아」(Thalia; 잔치라는 뜻)라는 책을 통해

대중노래로 자기 주장을 보급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자유로운 새 사상을 주장하는 안디옥 교회 출신자들 사이에 심한 논쟁과 함께 반목이 증폭되어 갔다.

교회가 이렇게 대립되어 가는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크게 염려하여 국가통일의 성업을 위해서는 국론이 하나되어야 한다고 믿고 두 파간의 분쟁을 종식하도록 노 감독 호시우스(Hosius)로 하여금 칙서를 내려 조정을 시도했으나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콘스탄틴 황제는 최후 수단으로 전 로마제국 안에 있는 모든 감독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교회가 다 하나라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세계 교회대회에서 결정하도록 국가가 그 힘을 미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아시아의 니케이에서 AD325년 5월 20일에 전 로마제국 안의 감독회의가 황제에 의하여 소집된다. 황제는 안내장을 각 감독에게 보내서 장로 2인과 수행자 3인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왕복 여비와 체재비를 부담하여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때 모인 감독의 수는 약 300명 정도였고, 서방교회에서는 겨우 6명만 왔다. 그 이유는 먼 길에다 헬라어를 몰랐고, 또 박해 때 불구가 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로마교회는 감독이 연로하여 2명의 장로로 대리케 하였다.

2) 회의 결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주장자들이 모였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교회파의 감독 약 20명 중 수석 책임자는 알렉산더 감독이고, 수행자 대표로 아다나시우스, 그리고 아리우스파 감독 약 20명 중 수석 책임자는 니코메디아 감독 유세비우스, 수행자 대표는 아리우스, 또 거의 대다수였던 중간파 중 수석 책임자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로 유명한 역사가였고, 어용신학자라고 혹평을 받던 자였다.

개회날이 되자 콘스탄틴 황제가 회의장에 참석하였다. 사회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맡았고, 황제가 라틴어로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의 의사진행은 호시우스와 유세비우스가 하였다.

먼저 아리우스파에 속하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18인의 감독과 함께 기초한 그들의 주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피조물로서 다만 최고의 존재일 뿐 영원성은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비슷할 뿐(Homo

ousios= like substance) 본질이 동일한 것(Homo ousion= like substance)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Arius의 주장은 즉각 반대에 부딪히고 회의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절충안을 제출하였다. 이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유세비우스는 교회가 분쟁으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제의하고 적당한 절충안을 제출한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니 아버지와 비슷한 본질을 가졌을 뿐이다'(Homoiouisios)고 했다.

회의가 한창일 무렵 정통신학의 수호자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로 '아다나시우스'(Athanasius)가 책임을 계승하게 된다. 아다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이며,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심사는 만일 아들이 피조물이라면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신과 인이 결합되는 '성육신'(Incarnation)한 분 이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 회의의 대세를 판정하였다. 그래서 결국 아다나시우스의 동질론이 다수의 동조로 가결된다. 그 결과 유세비우스가 제출한 것을 수정하여 니케아신조가 채택된다. 이 신조에 참석한 회원들이 전부 서명을 하는데 아리우스와 애굽의 두 감독이 서명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일루기아 지방으로 유형판결을 받는다.

그리고 니케아회의는 교회정치에 관한 22개조를 결정하고 또 부활절을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한 대로 춘분 후 만월 다음의 일요일로 정한다. 그리하여 7월 29일, 황제 즉위 20주년 기념축연을 갖고 폐회된다.

그런데 그후, 대회를 승리로 이끈 아다나시우스는 체구가 왜소하고 젊은 대집사(27세)여서 황제의 번의로 계속 핍박을 받았다. 그는 황제에 의해 다섯 번에 걸친 추방이 있을 후 아다나시우스의 정통입장은 전체적 지지를 얻게 된다.

(2) 콘스탄티노플회의 (AD381, Constantinople)

1) 회의가 소집된 원인

역사의 흐름은 항상 양 극단에서 오가게 된다. 앞서 니케아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

스의 주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것을 확정하였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실한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못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여기에 대표자는 라오디게아(Laodicea) 감독인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였다. 아폴리나리우스는 그 부친이 정통 신학자로 아다나시우스가 감독으로 있던 알렉산드리아교회의 장로였다.

아폴리나리우스도 아다나시우스 못지않은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인이었다. 그는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인간이면서 범죄할 수 없는 인간 예수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는 살전 5:23을 인용하여 인간의 구성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죄인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성이 로고스와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니케아(오늘날의 이즈니크)로 향하는 로마의 문. 니케아는 큰 교회회의가 소집된 장소였다.

여기에 대해 카파도키아(Cappadocians) 교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사람의 영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가 담겨 있는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또,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 오심으로 그는 인간적 행위와 감정의 인격체를 이루셨는데 그가 우리와 다른 인간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느냐고 반론하였다.

이와 같은 양대 진영의 엇갈린 주장이 오가는 것을 본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는 동서 로마제국의 통일과 국론통일과 선친이 건설한 콘스탄티노플을 과시하려고 회의를 소집한다. 실로 모든 회의는 황제들의 정치놀음에 교회가 놀아나는 정치판이 되고 만다.

2) 회의 결과

이 제2차 세계 기독교대회에서는 전에 있었던 니케아신조에 대한 재 확인과 함께 아폴리나리우스 주장은 인성을 부인한 것으로 정죄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 결론은 다음에 두 격(신격, 인격)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는 문제로 또다시 논쟁이 생기게 된다.

(3) 에베소회의(AD431, Ephesus)

1) 회의가 소집된 원인

문제의 시발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네스토리우스'(Nestorius)에게서 시작이 된다. 그는 수리아의 게르마니에서 출생한 후 안디옥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엄격한 생활과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제2의 크리스소스톰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그가 42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어 신인양성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양성의 교통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인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고 신을 운반하는 것(Theo-phorus)인 로고스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가 수난당한 것은 인성뿐이고 신성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했다. 예수가 수난당한 것이 단지 인성뿐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사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감독 '시릴'(AD376-444, Cyril)이 극력히 반대하였다. 시릴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 양성이 연합되었으며,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은 마리아가 사람이신 신을 낳은 것이라고 하였다.

시릴은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 것을 질투하는 감정과 함께

사적 감정이 얽혀 상호 저주하는 악폐로까지 치달려 갔다. 이에 데오도시우스 2세가 431년에 에베소에서 3차 세계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2) 회의 결과

시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네스토리우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여 출교 결정을 내린다. 뒤늦게 도착한 네스토리우스는 그들 대로 대회를 따로 소집하고 시릴을 이단으로 결정한다.

양쪽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자 황제는 시릴의 결정을 인준한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수도원으로 은퇴하고 그를 따르는 네스토리안들은 황제의 핍박을 받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쪽으로 옮겨갔다.

이들 네스토리안들은 계속 동양 중국까지 옮겨와서 7세기 경에는 중국에서 '경교'(景敎)라는 이름으로 크게 활약한다. 이 경교 교인이 나당연합군으로 신라에 와서 활약했던 흔적이 최근 경주 고분에서 발굴되었다.

(4) 칼케돈 회의 (AD451, Chalcedon)

1) 회의 소집 원인

에베소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것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이라고 배척한 시릴당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콘스탄티노플 근교의 수도원 원장인 유티케스(Eutyches)가 신인양성의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양성의 구별을 어렵게 만든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즉, 유티케스에 의하면 성육신 때 그리스도의 양성(신성, 인성)은 하나의 신인단성(Monophysitism)으로 연합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성론은 쉽게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즉, 무소부재한 것이 신의 속성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소부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른 신체를 가졌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유티케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인성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이 주장 때문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충동하여 449년에 에베소대회를 열고 심한 몸싸움을 하다가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플라비안'(Flavian)이 맞아 죽는다.

이같은 극렬한 싸움을 중재하려고 로마 감독으로 있던 '레오'(Leo I)의 주선

으로 451년에 데오도시우스 후임인 매제 ‘마크리누스’(Macrinus)의 명으로 ‘칼케돈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칼케돈회의에는 630명의 감독이 참석했다.

2) 회의 결과

이 칼케돈회의에서는 레오가 보낸 서한(Leo of Tome)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공히 인정한 소위 말하는 ‘칼케돈신조’(Chalcedon Creed)가 채택된다. 이 칼케돈신조는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을 위한 결정적 신조로 전해지고 있다.

칼케돈신조의 전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도 완전하시고 인성에도 완전하시어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를 구비하셨고 신성은 아버지와 동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질이시며 죄를 제외하고는 전혀 우리와 같으시며 신성으로 말하면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후세에 와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모 마리아에게서 인성으로 나셨다’고 했다.

여기 칼케돈회의에서 교리논쟁을 하나의 신조로 채택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로마교회 감독인 ‘레오’(Leo)의 힘이었다. 그동안 동방 교회들끼리 교리 논쟁으로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서방교회인 로마교회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칼케돈신조가 완전한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로마교회의 힘을 크게 드러내는 데 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5) 제2차 콘스탄티노플회의 (AD553, II Constantinople)

1) 회의 소집 원인

앞서 칼케돈회의에서 교리논쟁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칼케돈신조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틴과 애굽에 있었다. 이 무렵 ‘유스티니아누스’(AD527-565, Justinianus) 황제가 처음에는 칼케돈신조를 옹호하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을 핍박하였다. 그런데 황후가 반대파를 선대하므로 황제의 입장이 난처했다. 그래서 황제는 양 파를 화해시키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 소위 ‘3장령’(Three Chapters)이 등장하게 된다. 이 3장령이란 안다옥 파에서 존경을 받던 세 신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칼케돈신조에 반대되는 주장이다.

그 세 신학자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몁수에스타의 데오도어(Theodore of Mopsuesta), 시릴의 반대파(anti Cyrillian)였던 데오도렛(Theodoret

of Cyrus), 그리고 Nestorian 입장으로 그리스도는 신도 인간도 아닌 단지 구세주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에데사의 이바(Ibas of Edessa)를 말한다.

이같은 세 신학자의 입장은 모두가 칼케돈신조에 위배되는 반대 입장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3장령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교회는 계속 분란이 거듭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 5차 세계대회를 5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소집하게 된다.

2) 회의 결과

이 대회에서 3장령을 발표한 세 신학자 모두를 정죄한다. 그리고 칼케돈신조를 재 확인한다. 그러나 대회 후 후유증은 더 크게 번져진다. 전에 칼케돈 신조를 반대하던 애굽과 수리아 지방의 교회들은 끝내 분리하여 독립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콥트교회(Coptic Church), 애굽교회, 동방의 알미니아 교회, 마로나이트교회, 그리고 수리아교회 등으로 분리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실로 교회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너무도 엉뚱한 결과들을 낳게되는 것을 보게 된다.

(6) 제 3차 콘스탄티노플회의 (AD680, III Constantinople)

1) 회의 소집 원인

앞서 제 2차 콘스탄티노플회의가 열려 '단성론'(Monophysitism)을 더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논쟁이 종식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곧이어 '단의론'(Monothelitism)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단의론이란 예수께서 한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두 개의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논쟁이었다. 이같은 논쟁이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가 두 의지, 즉 인간적 의지와 신적 의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인간적 의지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의지, 곧 신적 의지만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로마감독 '호노리우스'(Honorius)와 콘스탄티노플 감독 '세르기우스'(Sergius)에 의해 창도되었다.

단의론 주창자들은 칼케돈신조를 단성론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가 성(性)은 둘이나 의지는 하나라고 하였다. 여기에 단의론을 반대하는 양의론(兩意論)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일어났다.

이같은 분쟁을 막아보려고 '헤라클리어스'(Heraclius) 황제가 638년에, 콘스탄스 2세가 648년에 힘을 썼으나 양론은 도무지 수습되지 않았다(단의론, 양의론을 금지시켜 봄). 그리하여 680년에 '콘스탄틴 4세'(AD668-685)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제6차 세계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2) 회의 결과

여기서 단의론(그리스도는 신적 의지만 가졌다)은 거부되고, 양의론(그리스도는 신적, 인적 의지가 복합되어 있다)이 채택된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신적 의지에 종속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붙여놓았다.

이렇게 하여 칼케돈신조에서 채택된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된 양의론으로 기독교 논쟁은 종식된다. 기독교 논쟁은 AD325년 니케아회의에서 시작하여 68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결되기까지 수백년 동안 처절한 싸움 끝에 막을 내렸다.

그 후에도 787년의 니케아회의, 869, 879년의 콘스탄티노플회의 등 교회회의는 계속되면서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회의에서 결정하는 관행이 중세교회까지 계속되게 된다.

과연 교회회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제 9 장 수도원 운동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나서 기독교 안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 즉,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시작해 근 300여년 동안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관리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기독교를 배교하고 이방종교를 따르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국교가 되고나서 핍박이 사라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며, 새로운 경륜이라고 경하해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위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부터 권력의 보호 아래 세속화 되어가는 모습으로 판단했다.

과거의 교회는 너무 좁은 문에다가 찾는 이가 적었다. 그러나 국교화 된 후의 교회는 너무 넓은 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감독들은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고, 교회 내에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보다는 부유하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모임처가 되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세상 정치와 야합해야 되는가? 교인들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사치와 허영을 용납해야 하는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치스런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는 것과 과거 신앙선배들의 수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같은 당면한 현실 앞에 차츰 새로운 각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교회 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보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고전 7:8)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여 금욕주의 현상이 나타났다. 또 독신주의에 대한 충동은 주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더 크게 작

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영지주의나 스토아학파의 영향도 컸다. 저들은 육체야말로 영혼의 감옥이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정욕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내·외부적 영향으로 박해 중에 순교가 미덕이던 것처럼 평화시에는 순교 대신 금욕주의가 크게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영향으로 독신생활은 물론이고 금식과 금욕을 예찬하는 수도원 운동이 새로운 영적 유토피아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독신 성직자들, 결혼을 멀리하는 구별된 처녀들, 인가가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속에서 은둔자의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도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monk' 즉 고독(Solitary)을 의미하는 '모나코스'(monachos)에서 유래되었다. 처음 수도사들은 인간들을 떠나 고독을 찾았다. 그 후에 혼자 거주하는 수도사로 '은자'(anchorite)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도망자'(fugitive), 혹은 '퇴신한 사람'(withdrawn) 등을 의미한다.

1. 안토니(Anthony)

최초의 수도사 또는 은자가 누구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롬이 쓴 「폴」이라는 사람의 전기와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 전기가 있다.

폴의 이야기는 거의 전설과 같고, 안토니가 비교적 소상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안토니는 250년경에 애굽의 나일강변 작은 촌락인 '코마'(Koma)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가 일찍 죽으면서 남겨 놓은 유산을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있었다.

그는 교회에서 복음서 강해를 듣는 중에 “만약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마 19: 21)는 말씀 대로 안토니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의 여동생을 위해 약간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후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마 6: 34)는 말씀을 듣고 여동생 몫의 재산도 처분해버리고 그녀를 교회에다 맡긴 후 사막을 향해 떠났다.

안토니의 초기생활은 동리를 떠나 수도생활을 하는 노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다음에는 무덤에서 생활을 한다. 이 무렵 그는 처분한 재산과 옛날의 쾌락을 즐기는 마음 때문에 악마의 환상에 많이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다시 깊은 사막의 버려진 성채에서 생활하며 기도와 명상,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생활을 한다. 그런데 그에게서 수도생활에 관한 지식과 호기심으로 그를 찾는 방문객들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방문객에게 시달리지 않으려고 여러 번 거처를 옮겼으나 방문객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안토니는 두 차례 대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여 신자들을 격려한다. 그는 결국 356년, 106세의 장수를 누리고 자기 매장지를 비밀로 한 채 세상을 떠난다.

이 안토니의 전기에 의하면 이 무렵 사막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의 남녀였다. 저들은 바구니와 멍석을 짜서 빵과 기름을 바꾸어 생활해 나갔다. 이들의 재산은 최소한의 의복과 깔고 잘 거적에 불과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교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서적의 소유를 배격하였다. 이들은 기억에만 의존하여 성경 전체를 가르쳤다.

이와 같은 안토니의 전기는 당시뿐 아니라 후세에도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킴으로 수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거스틴도 그가 쓴 참회록에 보면 안토니의 전기로 감동받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

2. 파코미우스(Pachomius)

파코미우스는 AD286년경 애굽 이집트의 조그마한 촌락 '테바이드'(Thebaid)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교도 부모 밑에서 신앙이 없이 성장해 군대에 들어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다. 제대 후 침례를 받고 그 당시 은둔 성자 '팔레몬'(Palemon)을 찾아가 수도생활의 기초를 7년동안 닦는다.

그는 은둔생활에서 떠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생활의 수도운동을 시작한다. 몇 차례의 실패 끝에 325년 나일강 '타베내'(Tabenhisi) 섬에다 큰 수도원을 세웠다. 이 수도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상사에게 절대 복종을 서약하며,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육체노동을 해야 하고, 주어진 일에는 그 어떤 사역도 거부할 수가 없다. 또한 명령자라도 하급자들을 섬긴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이들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하는 일이고, 또다른 하나는 예배하는 일이었다. 이들 생활의 이상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였다. 이에 따라 작업 중에도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구절을 암송하였으며 소리를 내거나 침묵으로 기도하였다.

하루에 두 번씩은 공동기도의 시간이었다. 아침에는 전체 수도사들이 다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봉독을 경청하였다. 저녁에는 소그룹이 자기들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들에게는 조직력이 있어서 수도원 원장, 혹은 대원장이 있고, 그 밑에는 각 숙소마다 사감이 있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수도원의 규칙을 최초로 제정한 파코미우스는 그가 348년에 죽을 때까지 10개 가까운 수도원을 세웠다.

3. 기둥 성자 시므온(Symeon)

고행을 하며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들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일생을 사는 주상 성자들이 있었다.

시므온은 수리아 사람이었다. 그가 원래는 목동이였으나 수도사들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 수도사가 될 것을 결심한다. 그는 수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여러번 시도하다가 건강을 해친다. 그의 극단적인 금욕생활은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추방을 당한다.

시므온은 산 속 깊숙이 가서 쇠줄로 발을 묶고 고행을 계속하였다. 그것으로 만족을 못 얻은 그는 423년부터 안디옥 동쪽 16마일에 있는 들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30여년간을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는 짐승가죽으로 옷을 삼고 쇠줄로 목을 감았다.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며 날마다 순교적 각오로 고행을 계속하였다.

그는 기둥가에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구경하러 찾아가서 보고 그의 초인적인 금욕생활을 감탄하였다.

시므온이 올라선 기둥의 높이가 처음에는 한 자 남짓 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여섯 자 이상의 높은 기둥 위에서 살았다. 이같은 시므온의 고행에 감동된 콘스탄틴의 다니엘, 시리아의 제2의 시므온 등의 제자가 뒤따르기도 하였다.

저들은 기독교를 전혀 오해하여 동방의 고행 종교와 유사한 것처럼 여긴 변형된 이기적 영웅주의자들이었다.

4. 제롬(Jerome)

제롬은 신구약 성경의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Vulgate)의 주인공

이다. 그는 340년경 아드리해의 동쪽 '스트리도'(Strido) 마을에서 부자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360년경 로마에 유학을 가서 침례를 받는다.

법률 공부를 마친 그는 고을(Gaul) 지방의 도시들을 방문하며 전문을 넓힌다. 안디옥 여행 중 성경연구의 중대성을 깨닫고 히브리어 연구를 수년간 계속한다(AD373-379).

AD379년에 안디옥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382년에는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감독(교황이라고 후에 칭함) '다마스스'(Damasus)의 인정으로 신학 고문이 된다.

자기와 친한 다마스스가 죽자 385년에 안디옥을 거쳐 386년에 베들레헴에 정착한다. 여기서 그는 420년에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성경 번역과 교행의 생애를 보낸다.

제품은 성경 주석에 주력하였고, 교회사, 교리사도 저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헌은 역시 성경번역이었다. 388년에 신약을, 405년에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이 제품의 라틴어역이 Vulgate로 오늘날까지 카톨릭의 공인 성경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그 외에도 「은자 폴의 생애」(Life of Paul the Hermit)를 집필하였고, 또 파코미우스의 「규율집」(Rules)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제품은 스스로 수도사가 되어 평생동안 금욕생활을 강조하며 수도원 생활의 장점을 전파하였다.

그는 많은 부유층을 향해 통렬히 비난하고 부자들의 별장을 수도원으로 바꾸라고 주장함으로써 상류층과 로마의 성직자들의 비위를 거슬렀다.

그는 학구에 전념하는 한편 교회 갱신을 위해 수도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그는 그의 서신과 논문으로 독신생활의 유익점과 수도원 생활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기를 힘썼다.

제품은 그의 평생을 신학연구와 교행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징은 매우 우월한 그림들이다. 그가 많은 연구와 교행으로 평생을 살았는데도 왜 그에 대해서는 영적 감화력을 얻을 수가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교행과 연구가 신앙의 전부는 아님을 알 수 있다.

5. 베네딕트(Benedict)

서방교회 안에서 수도원을 개척한 이는 베네딕트(AD480-543)이다. 그는 480년경에 중부 이태리에 있는 '누르시아'(Nursia)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그는

로마에 진출하여 공부하는 중에 로마 시민의 타락상을 보고 크게 실망한다.

그는 로마의 동쪽에 있는 '수비아코'(Subiaco)라는 고산동굴 속에 들어가 3년간 고생과 명상에 힘썼다. 그러나 단독 수양의 많은 어려운 점을 깨닫고 수도원 건설에 뜻을 둔다.

베네딕트는 자기를 따르는 동지들을 모아 아폴로 사원의 옛 터인 '몬테 캣시노'(Monte Cassino) 언덕에다 수도원을 지었다. 그는 이 외에도 12개의 수도원을 세운다. 그런데 베네딕트의 수도원 규칙은 이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이하였다. 즉, 이전에 수도사들은 주로 자기의 개인적 수도와 경건생활에 주력하는 것이 그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베네딕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경건생활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힘쓰게 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베네딕트가 실시한 수도원 규칙은 여러 가지로 특이하였다. 즉, 수도원의 모든 운영은 원칙적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들의 생활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 나가도록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과 또 수도사들에게 고행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들은 사회봉사, 교육활동, 선교사업 등에도 여력을 쏟도록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수도원 제도는 중세 로마 사회의 정신적 요람지로 발전한다. 이 수도원에서 목사, 감독, 선교사, 교황은 물론 학자, 저술가, 성자, 예술가, 추기경 등이 탄생된다.

제 10 장 이단사상의 발생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다. 그 옛날 신약교회시대는 물론 계속해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기독교 2천년 역사에 생겨진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 여기서는 신약교회 때는 물론 초기 교부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웠던 대표적인 이단사상 몇 개만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지주의(Gnosticism)

초대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이단사상 중 하나가 영지주의이다. 영지주의가 생기게 된 원인은 고대 정신적 세계가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깊은 불안이 팽배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무렵 유대교에 뿌리를 둔 영지주의는 동방의 신비종교와 헬라의 플라톤 철학 등을 혼합하고 기독교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시켜 강력한 혼합주의로 등장하였다.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에도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을 경계하는 언급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다(골 2: 18-20의 '초등학문', 딤후 1: 3-7에 나오는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딤후 2: 16의 '망령되고 헛된 말', 딤후 1: 14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베후 2: 1의 '거짓선생과 이단' 등 많이 있다).

이같은 영지주의는 2세기 때에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지주의가 무엇이었길래 사도들이 그토록 신경을 썼던가?

우선 '영지'(靈知)란 말은 '신령한 지식'이란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 '그노시스', 즉 '지식'이란 말에서 '그노시스'(Gnostic)란 말이 나왔다. 영지주의는 유대교적인 요소, 헬라철학적인 요소, 동양 배화교(Zoroastrianism)에다

기독교 교리까지 절충한 사상이다.

영지주의의 대표적 주장은 이원론(Dualism)과 유출설(Emanations), 가현설(Docetism), 구원을 얻기 위해 신령한 지식을 터득하는 일들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 이원론 사상(Dualism)

모든 것의 기원을 두 개로 본다. 하나님도 악한 하나님과 선한 하나님이 있는데 악한 하나님은 물질계를 지배하고, 선한 하나님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2) 유출설(Emanations)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Valentinus의 이론) 천지개벽 후에 하나님에게서 많은 신들이 떨어져 유출되었다.

최초 최고의 선한 하나님이 긴 세대(아이온)를 거치는 동안 신이 떨어져나와 또다른 신이 되고, 그 신은 또 긴 세대 후에 또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거듭된 유출에 의해 맨 마지막 신은 맨 처음 신보다는 저급한 신이 된다.

그리하여 맨 마지막 신의 이름은 '데미울고스'(Demiurge)이다. 이 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야웨와 같은 신이다. 이 야웨는 조물주와 같고, 창조주보다 못한 신이다. 이 데미울고스는 물질계를 지배하고, 창조주는 정신계를 지배한다. 따라서 신령한 정신계를 지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속한 물질에 불과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고 부정한다.

(3) 가현설(Docet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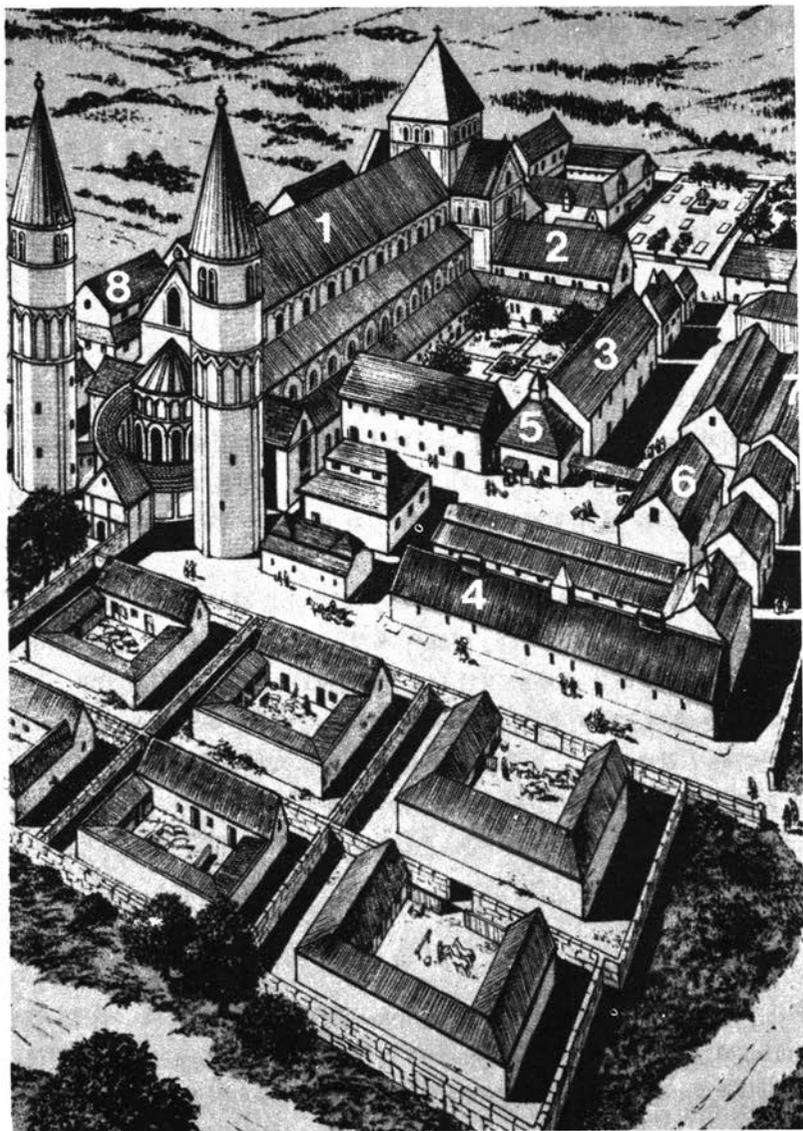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그가 진짜 인간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다만 인간처럼 보였다가 사라진 것뿐이다.

(4) 구원

창조주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창조주는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인간은 창조주가 창조했을 당시에 영적 요소가 담긴 채 창조되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원리를 신령한 지식으로 터득하게 되면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점은 그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완전한 해탈을 통해

미술가의 복원도는 820년경 성갈(Sr. Gall)에
 세워진 수도원에 근거하고 있다. 1.교회 2.공동침실
 ▼ 3.식당 4.마굿간 5.취사장 6.제빵소 7.작업장 8.숙소(손님을 위한)



인간 스스로 구원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물질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통찰력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전해준 통찰력은 신비한 마법에 의하여 세속의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인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5) 인간의 분류

인간은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영적 계급 : 참된 기독교인, 혹은 영지자들로 극소수
- ② 심령적 계급 :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신앙은 가졌으나 아직 영지를 갖지 못한 자들로 상당히 많음, 이들은 신앙과 선행으로 구원이 가능
- ③ 육욕적 계급 : 이교도들로 완전히 물질뿐이어서 구원이 불가능

(6) 저들의 결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지식을 터득하면 된다. 인간이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과 반대되는 물질적 요소인 육욕을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하고 괴롭혀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따른다. 또 정반대 현상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따라서 육체는 이러나 저러나 소멸될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생겼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이후 여러 면에서 잘못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지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교회가 철학을 사용하다보니 성경보다 철학이 더 우위에 오르게 되는 점과 영지주의자들의 금욕사상이 중세기까지 금욕주의로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타 종교와 혼합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곧 영지주의였다.

2. 에비온주의(Ebionism)

에비온주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 일파를 뜻한다.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ebjonim'이고, 희랍어로는 'πτωχοι' 즉 '가난한 자'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대체로 AD67년경에 발생하여 79년경에는 요르단 동쪽에서 번성했다고 한다.

당시의 에비온주의자들은 세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 ① 나사렛파 : 유대 정통파
- ② 바리새적 에비온파 : 정통 에비온파
- ③ 혼합적 에비온파 : 영지주의적 에비온파 또는 옛세네적 에비온파

이들이 믿는 바는 예수를 믿되 영지주의적 요소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격하고 인간 예수를 믿는 점과 유대교 요소인 율법의 필요성을 믿는다는 점이었다.

즉, 이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메시아적 사명도 부정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행한 일들은 예언자중 하나와 같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가 행한 기적들도 과거의 예언자나 선지자가 행한 그같은 기적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수의 교훈이 엄격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의 제도는 불필요하나(희생제도 등) 그대신 정결한 생활, 금욕, 절제가 율법처럼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율법을 성취하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에비온주의자들의 영향은 5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라진다. 그러나 초대 교회 구성원들의 거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전에 믿던 유대교적 요소를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준 것이 에비온주의였다. 에비온주의자들이 이같은 공격 때문에 교회는 올바른 기독교론을 수립 형성하는 데 촉진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3. 말시온파(Marcionism)

말시온은 소아시아 본도(Pontus)지방의 시노페(Sinope) 감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와 물질세계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뜻을 발전시키고자 144년경 대도시 로마로 진출한다. 로마에 가서 평소 자기의 소신을 주장할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서 로마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그러자 말시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따로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한다. 이같은 그의 운동은 로마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 각처에서 그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말시온의 주장은 독특한 면이 있다. 그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약의 여호와(Jehovah)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구약

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민족만을 선택하였던 독선적인 하나님이였다.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수하고 마는 독한 하나님이였다. 구약의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보복적이고, 정의만 내세우는 심판의 하나님이였다.

그러나 신약의 성부 하나님은 복수심이 전혀 없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신약의 성부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단지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신약의 성부 하나님은 오직 영적 세계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계와 물질과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는 이 세계 속에다 인간들을 배치해 놓으셨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물질세계와 여호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 신약의 선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간이 아니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그는 성부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말시온은 구약의 경전들을 부인하였다. 구약성경은 신약 성경을 주신 좋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열등한 여호와가 준 말씀이므로 교회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구약적 냄새가 나는 유대적 요소들은 되도록 배제하려고 하였다. 물론 말시온이 이처럼 구약적 요소를 배제하려고 한 것은 초대교회가 구약성경을 너무 중요시하여 율법주의가 득세하기 때문에 온 반동이었다.

말시온은 헬라철학에서 온 사색주의 경향도 배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의 경향도 배격하였다. 이때 말시온은 철학과 율법을 동시에 배격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만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그는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도 바울서신 10편과 누가복음만이 복음적 경전이라 하여 많은 유대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은 사상이해나 율법제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금욕생활의 실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말시온이 활약할 당시에는 신약성경

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때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때는 AD397년 카르타고회의에서였다.

그러므로 말시온이 바울서신만 좋아한 것이 이단이 아니라, 그의 주장이 지나쳐 예수의 죽보도 유대적이라고 해서 빼버린 것을 비롯하여 예수의 탄생, 육체적 생활, 그의 죽음 등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말시온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도 영적 부활로만 믿게 되었다.

말시온은 영지주의자들보다 더 큰 위험을 교회에 가져왔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대로 구약의 창조설을 다르게 설명했고, 성육신 교리도 부정해야만 했으며, 부활도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등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자기들 주장이 일반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교회에서 분리하여 독자적 교회와 독자적 감독과 독자적 성경을 갖는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같은 운동은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방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교회는 이같은 말시온의 영향으로 정경을 조속히 매듭짓는 데 커다란 자극을 받게 되었다.

4. 네오 플라톤주의(Neo Platonism)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BC427-347).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가 스승이 별세하자(AD399) 그의 후계자가 된다. 그는 BC387년에 아테네에다 아카데미 학원을 창설하여 20여년 동안 가르치는 일과 저술활동을 한다.

이 플라톤의 사상은 13세기까지 기독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플라톤 사상은 기독교 교부나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겐은 물론이고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에는 플라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면 플라톤의 사상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그것은 플라톤의 사상 중 2원적 세계관과 영혼불멸 사상이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있다고 했다.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그것의 정점은 곧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 모든 사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선제적이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은 어거스틴은 영혼의 기원을 전이설로 주장하였고, 펠라기우스는 창조설을 주장하였다. 하여간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선제적(先在的)인데 범죄로 인하여 현상세계인 육체와 결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혼 자체는 본래 아이디어의 선한 것이므로 그것은 영원히 멸할 수가 없다. 영혼은 비물질적이며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죽어 소멸되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아이디어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초대교회는 많은 혼동을 가져왔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영혼”(눅 24: 39 참조)만이 구원된다고 믿지 않고 영과 함께 부활되는 영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전인적 구원을 믿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에비온주의와 반 유대적 배경을 가진 말시온주의와 헬라철학의 배경을 가진 네오 플라톤주의와 모든 것을 섞어 혼합하려는 영지주의의 사상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시련 속에서도 당시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연연하게 자라게 하셨다.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당신 뜻대로 섭리해오시고 계신다.

제 11 장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

1. 신약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

나는 이 대목에 와서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록된 대개의 많은 교회사가들은 신약교회가 타락했거나 변질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의 많은 교회사 기록에 의하면 교회는 역사적 발전의 법칙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다고 본다.

그렇지만 나는 신약교회는 속 사도들과 교부들에 의해서 약간씩 변질이 되고 그 변질은 훗날 큰 타락으로 연결되었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하에서 나 나름대로 몇 가지 원인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혹독한 박해 때문이었다.

AD64년경 네로황제가 로마시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도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가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90년경 도미티안 황제도 요한을 유배시키는 등 갖가지 박해가 계속되었고, 130년경 하드리아안 황제 때는 많은 순교자가 생겼다.

200년경 세베리우스 황제나 250년경의 데키우스, 300년경의 디오클레티안 등 멈추지 않는 박해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박해는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 내용을 그 당시 상황에 맞추는 현실 강조로 교회의 순수성을 모호하게 유도하였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현실보다는 신앙적 이상이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저항이 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대로 다 당하였다. 그러나 교부들은 자기들이 당면한 현실 타개가 이상보다 더한 급선무였다. 이같이 박해 때문에 어쩔수없는 교회의 변질을 가져왔다.

(2) 이교사상과 철학의 영향이 컸다.

기독교는 처음 수세기 동안을 이교도들을 개종시켜야만 하였다. 유대교, 헬라의 철학, 동양의 각종 종교, 헬라, 로마에 뿌리를 둔 이방 종교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이방 종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종교의식과 비슷한 것처럼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침례는 동방종교에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고, 헬라의 각종 신들의 예배가 카톨릭에서는 각종 천사들의 숭배로 발전되기도 하였고, 또 페르시아나 가나안에 있었던 여성신 사상은 성모 마리아 사상으로 대치되기도 하였다.

기독교는 타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요소가 있었다. 이같은 점들이 기독교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3) 의식의 남용이 교회를 부패시켰다.

신약교회 당시 의식은 한낱 의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는 이교도에서 개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적인 것과 이교적인 것을 혼합시켜 놓았다. 그중에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침례’가 마술적인 것처럼 남용되게 된다.

즉, 저스틴(Justin)은 말하기를 침례가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침례 중생설(Baptism by Regeneration)을 말한 것이나 이레니우스(Irenaeus)가 침례로 신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침례시 그 물이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떡과 포도주가 영혼의 자양분을 준다고 할 때 그 말이 다음에는 화체설로 발전한다. 이렇게 전에는 평범한 ‘의식’(Ordination)이었던 것이 차츰 발전을 거듭하여 ‘성례’(Sacrament)가 된다.

이렇게 하여 성례전 신앙은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서 중세 때에 카톨릭은 30여 가지까지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7가지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례들이 바로 교회를 타락시켰다. 왜냐하면 성례전은 곧바로 돈과 물질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4) 교회 행정상의 난맥이 교회를 부패시켰다.

우리가 앞서 신약교회 모델을 살필 때에 신약교회의 직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2세기로 옮겨지면서 감독직이 다른 직보다 더 크게 부상한다. 키프리안(Cyprian) 같은 이는 교회는 감독에 의해 세워짐으로 감독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례전의 효과도 감독의 집행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감독직이 장로직보다 우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초대교회는 감독이나 장로가 다 똑같은 직분이었다. 그런데 장로들 중에서 보다 뛰어나고 강력한 지도자에게 교회 운영관리를 맡기며 그를 '목자장'(벧전 5:4)으로 전문적 행정사인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머지 비전문적인 장로들을 감독과 분리하여 그냥 '장로'라고 불렀다.

이같은 분류는 3세기에 와서 더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 로마시 안에는 4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 이 40여개의 각 교회들 안에는 자기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로마시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은 한 사람의 감독이 그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하여 3세기 이후부터는 감독이란 하나의 지역적인 책임자로 부상했고, 개교회 지도자는 그냥 장로라고 했다.

이렇게 발전하여 4세기 때 세 곳(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대교구 감독이 되었고, 나머지는 각 지방 도시의 소감독이 되었다. 이같은 발전이 드디어 전체 교회의 감독자인 교황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교회 행정제도는 자동적으로 교회의 부패를 가져온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경에 없는 행정 직분의 남발은 반드시 교회의 부패를 가져올 확률이 크다. 우리는 이같은 과거를 경험삼아 미래를 잘 설계해야 할 것이다.

(5)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부패를 가져왔다.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에게"(마 22:21)라고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국가와 교회와의 구분이 분명하였고 신약교회에서도 그랬다고 본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이후 국가와 교회는 연합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황제들이 친히 교회회의를 소집했고, 교회의 결정을 황제가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교회의 향방이 달라졌다.

교회 지도자들도 영적 힘으로 지도자 역할을 다하려 하지 않고 정치권력자들

과 결탁하여 자기 세력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자 현명하고 영력있는 지도자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권위로 인정하는 관행이 생겼다. 그런데 다수가 모인 회의에는 재능있고 재치있는 자가 회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다수가 결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교회 회의를 통한 결정이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면서 교회의 부패는 점점 더 커진다. 교회 회의주의는 교권의 경쟁, 비진리가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이 외에도 기독교인의 예배와 생활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작용한다. 즉, 극단적인 금욕생활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증명하려고 한다든가, 모든 성도가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일체감을 빼버리고 성직자(Clergy)와 평신도의 사이가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세의 물결에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같은 대세 속에서도 무언가 저항을 하고 반대운동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을 이룸하여 '분파주의자'들이라고 한다.

이들 '분파주의자'들은 왜 대세의 물결 속에서 반항을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가? 그들에 대한 후세들의 평가는 이단자, 또는 분파주의자라고 낙인 찍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신앙이 없고 이교도들과 다름없는 이단들이었을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나 아니냐를 논하려고 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같은 평을 받게 됐는가? 그 사실을 있는 대로 규명하려고 한다.

2. 분파주의자

여기서 대전제로 확실히 알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분파주의자들의 오류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완성된 신앙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기독교 2천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세월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변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분파주의자들도 그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춰봐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1) 몬타니스트(Montanists)

몬타니스트에 관한 연구문헌은 꽤 많은 편이다.

교문사 발행 「기독교 대백과사전」6권 p.361-391을 비롯하여 Newman의 책 1권 p.202-207, Schaff의 책 II권 p.78-79등에 소개되고 있다.

1) 몬타니스의 기원

몬타니스(Montanus)는 그가 본래 소아시아의 브루기아(Phrygia)지방의 작은 마을인 아르타바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원래 시벨레(Cybele)에 있는 이교사원의 사제였었다. 그가 156년경 기독교로 개종하여 사제나 주교의 직위까지 오르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한다.

몬타니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성령의 대변자(요 14:16, 26)로 자처하였다. 몬타니스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자기에게 임해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처하였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황홀한 지경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의 자기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보혜사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몬타니스는 보혜사의 활동사업과 자기 자신을 보혜사로 동일시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때 소아시아의 여선지자들로 자처하는 '프리스길라'(Priscilla)와 '막시밀라'(Maximilla)가 몬타니스와 합세하였다.

이 두 여인은 이상한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예언을 하였다. 이들 두 여인의 예언적 활동은 몬타니스 교회 내에서 동정녀 지위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그러나 이들은 이미 다 결혼했던 여자들임).

이같은 두 여자들의 예언활동과 몬타니스의 성령의 활동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는 물론 서방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자 이들을 마귀의 집단으로 거부하는 층과 또 하나님께서 보낸 시대적 개혁운동으로 보려는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다.

이에 브루기아 지방의 주교들이 172년경에 회의를 열고 저들을 유죄로 판결하고 교회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한다. 이 회의는 사도들의 회의(행 15장) 이후 최초로 모인 공식회의가 된다.

몬타니스는 자기가 동방교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탄적 결정이라고 보고 서방교회에 자기들의 입장을 호소한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이레니우스'(Irenaeus)는 동서방교회의 화평을 생각하여 몬타니스의 호소를 묵살한다.

이렇게 되자 몬타니스는 모든 교회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독립교회를 형성한다. 몬타니스의 후계자인 '데오토투스'는 보다 철저한 조직을 강화한다. 그리고

자기 종파에 속한 이는 ‘프뉴마티코이’(영적인 자들)라고 하고, 일반교회 추종자로 성령을 이해못한 이들은 ‘프쉬키코이’(육적인 자들)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다.

2) 몬타너스파의 주장

① 몬타너스주의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과 사도들 신앙의 근본 진리에 대하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제정난 교리나 계율 등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리나 계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로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②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가?

경건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경건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교회주의자들은 교회의 제도나 교리에 익숙한 것을 말하나 몬타너스주의자들은 경건한 삶이 곧 신앙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금식을 많이 해야 하고 결혼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하며 재혼을 금하였다.

③ 주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교회의 결정은 다수의 주교들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제사장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일정한 형식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④ 사죄의 권한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

본래 사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막 2: 7, 시 32: 5, 43: 25).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사죄권을 성자에게 주셨다(마 9: 6, 15: 22, 24). 성자는 그 사죄권을 성령받은 사도들에게 주셨다(요 20: 23). 따라서 성부, 성자의 사죄권은 성령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죄의 권한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

⑤ 이들은 압박한 주의 재림을 믿었다.

3) 몬타너스파의 영향

이들의 운동은 교회가 무미건조한 의식주의로 흘러가는 데 반항하여 엄격하고 청순한 신앙운동을 회복하려던 청교도적 개혁운동이었다. 그래서 교부들 중 박학다능한 터툴리안(Tertullian)도 그의 마지막에는 이 운동에 가담했으므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2세기 후반기에 시작하여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동·서방까지 영향이 확대된 채 6세기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몬타너스파의 강한 주장 중 하나가 기성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 박해까지 받는다. 그리하여 콘스탄틴 황제 때는 예배 장소를 박탈당한다. 또 550년경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멸절상태에 있는 몬타너스파를 이단들과 함께 집 안에다 가두고 불질러 소멸시키기도 했다.



▲고대 로마시의 일부(모형). 왼쪽에 원형 대경기장(Circus Maximus)이 보인다. 여기에서 경기와 경주가 벌어졌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이 금지되었으므로 매장할 공간이 필요했다. 로마에서 그들은 이교도처럼 때때로 화장을 했다. 지하 통로망은 '카타콤'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몬타니스파에 대한 운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① 비판적인 시각

a. 사도의 계시가 자기들에게도 계속 주어진다고 한 것은 특수계시와 일반계시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다.

b. 참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무리들만이라고 강조함으로 스스로 영적 엘리트 의식에 도취되었다.

c. 성도가 박해 때는 순교로, 평화 때는 금욕적 생활로 성도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생활수칙을 만들어 준수토록 함으로 금욕주의적 신앙으로 기울어졌다.

d. 지나친 말세사상 강조로 현세의 의미와 사명을 강조하는 데 소홀하였다.

이같은 비판은 물론 타당한 말이다.

② 긍정적 시각

a. 몬타니스 운동은 이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교회의 개혁과 성도의 경건생활을 찾으려는 운동이었다. 이같은 교회 내 갱신운동을 같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저들을 정죄하고 파문한 것은 지나친 감이 많다.

b. 오늘날도 개 교회마다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제도와 조직의 힘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몬타니스파는 최초의 의로운 길을 찾으려고 한 성도들이었다.

c. 따라서 오늘날 몬타니스파의 부분적 요소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우리는 양면을 다 보면서 이들의 잘못된 주장이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노바티안파 (Novatians)

노바티안에 관해 기록한 문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Eusebius의 책이나 Schaff의 책 2권 (p. 196)과 기독교대백과사전 (3권 p. 570-576)에 수록되어 있다.

1) 노바티안의 기원

노바티아누스(Nopvavianus) 역시 소아시아 브루기아 출생으로 전해진다.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철학자였다. 그러나 그가 개종한 후 회개의 삶은 현저한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교회 감독인 파비아누스(Fabianus)는 노바티아누스를 로마교회의 대집사(Archdeacon)로 임명하였다.

그 후 노바티아누스는 장로가 되어 로마 교구의 주교가 공석일 때는 주교를

보좌하는 일을 할 정도로 신망을 얻었다. 그런데 노바티아누스가 이처럼 승진과 신망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노바티아누스의 적인 ‘코넬리우스’(Cornelius)가 있었다. 코넬리우스는 차기 로마교회의 주교를 바라고 있었다.

이 무렵 데키우스 황제(AD150-251)의 심한 박해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과 변절자들이 생겼다. 이 박해로 인해 로마 감독인 파비아누스가 순교당한다(250년 1월). 그리고 14개월 동안 공석이 된다. 이때 기회를 노리던 코넬리우스는 변절자로 소문난 ‘제프리누스’(Zephyrinus)의 도움으로 주교에 취임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박해 때 변절했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용납해야 하느냐, 아니면 벌을 내려야 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코넬리우스는 관용론의 입장이었고, 노바티아누스는 책벌론자였다. 그러다가 코넬리우스가 로마 감독이 되자 노바티아누스는 이 일을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노바티아누스 입장을 옹호하는 아프리카의 칼타고 ‘노바투스’(Novatus)가 이탈리아 교회의 새 감독의 추천으로 또다른 로마교회 감독으로 노바티아누스를 세운다. 이렇게 되자 로마 감독이 둘이 되었다. 이 무렵 노바티아누스는 스스로 교회 정화를 표방하고 과거에 변절한 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려면 재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맞선 코넬리우스는 60여명의 주교들 회의를 열고(251년) 노바티아누스를 정식으로 정죄하였다. 그러자 노바티아누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들 노바티안들은 몬타너스 운동과 합세하여 7세기까지 존재하다가 사라진다.

2) 노바티안의 주장

표면적으로 노바티안 운동의 시작은 로마교회 감독직을 놓고 서로 경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운동의 기원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의 주장을 한 번 비교해보자.

① 코넬리우스의 주장

- a.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관례를 제정할 수 있다(마 18: 18 참조).
- b.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를 교회 안으로 소속시켜야 한다.
- c. 교회는 믿음으로만 아닌 ‘랩시’(Lapsi: 죄를 용서한다는 대속의 속전)에 의해서라도 잃은 자를 되찾아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② 노바티아누스의 주장

a.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다.

b. 교회회의는 참작할 필요는 있으나 교회회의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참된 권위는 성령의 지도에만 따라야 한다.

c. 사람이 지은 죄가 ‘웹시’에 의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물질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우상숭배와 같은 사상이다.

이와 같은 서로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징계에 관한 문제를 놓고 교회들 간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분쟁으로 치달았다. 노바티안의 강경론이 안디옥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았고, 서방교회와 특히, 아프리카 칼타고의 키프리아안은 노바티안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노바티안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배교한 자와 같이 더럽혀진 자들을 아무 조건없이 다시 받아들임으로 합법적인 성직의 수임기구를 타락하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거룩한 그리스도와와의 연속성을 때묻히는 잘못된 선례가 된다고 보았다.

또 교회는 죄를 해결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인데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나누어 갖게 된다고 보았다.

3) 노바티안의 영향

이들 노바티안은 신앙의 정절을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들과는 교제를 멀리했다. 이같은 이들의 진의는 다른 이들에게 이해되지를 못하였다. 카톨릭교회는 이들을 자기 세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강요하였으나 끝내 고집하면서 독자적인 신앙노선을 펼쳐나갔다.

이들은 6세기 또는 7세기까지 유지되다가 자체 내 몰락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들이 역사 속에 남긴 공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저들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그토록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이것을 단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의 눈길로 봐야 할 것이다.

(3) 도나티스트파 (Donatists)

도나티스트에 관한 문헌은 많이 있다. Schaff의 책 2권(p.197), Newman 책 1권(p.208-210)의 책과 또 기독교대백과사전 4권(p.289-305)에도 기록

되어 있다.

1) 도나티스트의 기원

도나티스트파는 '디오클레티안'의 박해가 끝날 무렵에 시작된다. 교회는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다. 변절자들은 비단 신자들뿐만 아니라 감독들 중에도 있었다. 그 중에 '펠릭스'(Felix)라는 북아프리카 주교가 있었다. 펠릭스는 박해 때 성경을 버리고 성물들을 부숴버림으로 노골적인 변절자로 알려졌다.

박해가 끝났을 때 감독 중 중요한 자리인 칼타고 감독이었던 '멘수리우스'(Mensurius)가 죽자(311년) 그 후임으로 '카에킬리아누스'(Caecilianus)를 선정한다. 그런데 이 카에킬리아누스를 감독으로 안수한 안수위원 중에 하나가 변절자로 소문난 '펠릭스'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엄격파들은 '카에킬리아누스'의 임직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마조리누스'(Majorinus)를 따로 선출하였다. 그런데 마조리누스가 선출된 후 곧 사망하자 그의 후임으로 '도나투스'(Donatus)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되자 칼타고교회 안에 카에킬리아누스와 도나투스라는 두 감독이 존재하였다. 이때 다른 교회들은 누구를 감독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데 로마교회 감독은 카에킬리아누스를 지지하였다.

여기에 콘스탄틴 황제까지도 합세하였다. 즉, 제국의 통일을 위해 교회의 통일을 바랐던 콘스탄틴 황제는 다수 감독의 의견을 따라 카에킬리아누스 감독에게 특혜(면세조치)를 허락했다. 이렇게 되자 카에킬리안들은 황제의 정책을 따랐고, 도나티스트들은 "황제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항하고 나섰다. 그리고 저들은 '세상이 군주와 간음을 범한 교회' 또는 '황제의 조직망 확대에 가련하게 고용된 고위 성직자'라고 비난하고 교회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자 콘스탄틴 황제로서는 무력으로 진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330년경에는 270명의 주교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계속 세력이 확장되었다.

2) 도나티스트의 주장

도나티스트 분파운동이 걸으로 볼 때에는 칼타고 감독 자리를 놓고 서로가 경쟁하며 싸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깊은 신학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① 성례전의 효과문제

이 문제는 도나티스트와 카톨릭 주교인 '오프타투스'사이의 논쟁을 통하여 가

장 침례하게 대립되었다.

· 오프타투스: 침례는 장소나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침례의 권위는 사람이 아닌 성 삼위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이다.

· 파르메니아누스(도나티스의 후임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삼위의 무엇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 안에 어떠한 선도 지니고 있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두 사이에 서로 팽팽한 대립을 하였다. 도나티스트들은 자격이 없는 감독에 의해 실시된 인수나 성직 임명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성례전의 효과는 그것을 시행하는 감독의 자격과 가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카에킬리안은, 성례전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들은 그것을 실시하는 인간의 자격과 가치여부에 좌우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성례전을 집전하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침례나 성찬 때마다 계속 회의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침례의 효과 문제는 주는 이보다 받는 이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경우(마 15: 21-28)나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마 9: 20-22)의 경우를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침례의 효과 문제는 성삼위의 이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지도자는 성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②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 오프타투스: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국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 파르메니아누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여기에 관해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마 22: 21, 롬 13: 7, 고후 6: 15-16). 그렇지만 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성경적인 태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나티스트들은 자기들의 순수성만을 주장하고 남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독선적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정부의 지시에도 거절하는 일을 큰 영예처럼 여겼다.

이같은 결과로 국가에서는 계속 강경한 압력을 가했다. 373년에 발렌티아누

스'황제는 칙령으로 재 칙례를 받은 성직자는 파면하도록 했고, 375년과 377년에 '그라티아누스'황제 칙령은 도나티스트파가 사용하는 교회는 몰수하고 그들을 위한 선전물도 몰수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체내의 파벌 싸움으로 스스로 세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다.

③ 신자의 생활에 관한 문제

- 엄격한 교회 훈련에 의한 신앙생활
- 개인 신앙 양심의 보장
- 회중정치의 교회
- 유아세례 반대
- 선교하는 교회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주장과 신앙은 성경에 있는 주장들이었다. 이들의 삶 역시 특색있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저들의 단점은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분리하는 분파적 기질이 강했던 점이다. 이같은 분파적 기질은 현대교회들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도나티스트의 영향

이들이 처음 출발할 땐 배교했던 주교의 인수는 효력이 없다라는 교회의 규율 문제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편을 드는 국가와 황제에 대해 거부하며 싸우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처음에는 국가의 반대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반 정부운동으로 과격하게 확산된다.

그리하여 황제가 앞장서서 핍박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가세하여 괴롭히게 된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례전의 유효성 문제에 관한 너무 지나친 주장은 또다른 반대 주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도나티스트와 논쟁을 한 어거스틴은, 성례전은 예전을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마귀의 편에 선 사람이 실시하는 성례전도 거룩하다고까지 하였다.

이같은 주장이 다음에 오는 맹목적인 성례전주의로 카톨릭교회로 하여금 의식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성례전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런지 모르나 예전의 유효성(efficacy)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어거스틴의 약점이었다.

제 12 장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1. 어거스틴 이전의 지도자

(1) 카파도키아인들 (Cappadocians)

카파도키아는 소아시아 남부에 위치하며 현재의 터키에 속해 있다. 흔히 '위대한 카파도키아인들'(The Great Cappadocians)이라고 알려진 세 사람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세 사람은 '대 바실'(The Great Basil)이라고 하는 가이사라의 신학자와 그의 동생인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그리고 이들의 친구인 시인이며 웅변가로서 고전 찬송을 많이 남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등이다.

1) 대 바실 (The Great Basil)

위대한 카파도키아인을 만들어낸 '바실'의 조부모와 부모는 모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바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가요 웅변 선생이었으며, 그의 모친은 순교자의 딸이었다. 그리고 바실의 삼촌은 감독이었다.

바실이 태어났을 때 너무 몸이 허약함으로 장성해서 살아남을지 의문일 정도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바실을 최고의 법률가로 키우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그리하여 바실은 카파도기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가이사라와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 등에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테네에까지 유학하였다.

이렇게 많은 공부를 마친 바실은 스스로 최고의 지식인 양 잔뜩 교만해져 가이사라로 돌아온다. 그는 가이사라에서 웅변학 교수로 사역했다.

이 무렵 그의 누이 '마크리나'(Macrina)가 바실의 교만과 방자함을 책망하나

바실은 그런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바실의 형제인 ‘노크라티우스’(Naucratius)가 갑자기 사망한다. 이때 바실은 크게 충격을 받고 자기의 생애를 재검점한다. 그는 누나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종교생활의 비밀을 터득하기 위해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안네시’(Annesi)로 은둔생활을 시작한다.

바실은 누나의 충고를 좇아 이집트에 가서 수도생활에 관한 것들을 배워와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다. 이 수도원은 공동생활을 하며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의 수도원 생활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타의에 의해 가이사라 교회의 장로로 선출된다. 그러나 감독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시 수도원의 공동생활로 돌아온다. 그 후 가이사라의 감독이 사망하자 또다시 바실이 감독으로 선출된다.

새로운 가이사라 감독으로 선출된 바실은 아리우스파였던 황제와 대결을 해야만 하였다. 바실은 황제가 보낸 제국의 관리들에게 굴복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바실은 황제의 재산 압류, 고문, 처형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바실은 수도생활의 조직과 확장으로 헬라 수도운동의 창시자 역할을 하였고, 여러 권의 신학 논문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가 최후 승리를 거두도록 크게 공헌하였다.

2) 닛사의 그레고리 (Gregory of Nyssa)

바실의 동생 닛사의 그레고리는 형과는 대조적인 성품의 인물이었다. 바실이 성급하고 오만했는데 반해 그레고리는 침묵과 고독을 즐기는 성격이었다.

바실이 수도생활의 지지자였는데 반해 그레고리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여 상당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가 사망함으로 수도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동정에 관하여 (On Virginity)>라는 논문을 남겼다. 여기서 그는 결혼하지 않은 자는 해산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수도생활이란 세속생활의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레고리는 명상을 통해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안내문으로 후세인을 도우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형 바실은 동생으로 하여금 소음에 지나지 않는 ‘닛사’(Nyssa)의 감독직을 맡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아리우스파들이 정통 신학자들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는 니케아회의(325년)와 콘스탄티노플(381년)회의에서 정통신앙이 승리하도록 공헌하였다. 이것이 인정되어 '데오도시우스'(Theodosius)황제는 그를 황제의 신학 고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로마제국의 전 국토를 여행해야만 하였다.

그레고리는 정통신학이 굳건히 확립된 후 또다시 수도생활로 돌아간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3)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Gregory of Nazianzus)

그레고리 역시 감독의 아들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는 학문에 전념하여 가이사라에서 수학한 후 아테네로 가서 14년 동안 머물렀다. 30세에 고향에 돌아와 바실과 함께 수도생활을 시작한다.

그레고리는 원치 않았으나 고향 나지안주스교회의 장로로 임명되어 목회 일을 한다. 이때부터 당시 신학논쟁에 말려들게 된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 투쟁을 하게 된다. 이 당시 황제의 세속 정부와 결탁된 아리우스주의의 팽창으로 정통교회는 매우 희귀하였다. 그래서 그레고리가 거리에 나서면 폭도들이 돌을 던지고 예배당에도 아리우스파 수도사들이 난입하여 제단을 더럽힘으로 자기 친척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이 무렵 소수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몇몇 찬송을 작곡한 것이 그 후 헬라의 고전 찬양으로 남게 된다.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정통신앙자로 등극하면서부터는 조류가 달라진다. 그레고리는 군중들의 제청으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다. 그러나 그는 감독직을 크리소스톰에게 넘겨주고 고향으로 돌아와 찬송 작곡과 교회를 돌보는 데 전력한다.

그는 약 6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속적 욕망도 버리고, 종교적 화려함도 다 멀리하며 조용하고 명상을 즐기는 삶으로 일생을 마친다.

(2) 밀란의 암브로즈 (Ambrose of Milan)

제4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가 암브로즈이다. AD373년에 이탈리아 북부의 가장 큰 도시인 '밀란'교회의 감독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그의 후임자를 놓고 도시 안에는 큰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왜냐하면 밀란의 감독의 위치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당시 교회는 서로가 자기들 편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하려고 필사적으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사망한 전임 감독 '아욱센티우스'(Auxentius)는 아리우스파 황제에 의해 임명된 자였다. 여기에 맞서 정통파는 참신한 새 사람을 감독으로 내세웠고, 전에 아리우스파도 계속 자기들 편 사람으로 감독을 계승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 격렬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에 감독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밀란 도시의 총독으로 있던 '암브로즈'는 유능하고 공정한 행정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

암브로즈는 선거 현장에 나가 선거 전에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뛰어난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어린 아이 하나가 "암브로즈를 감독으로"라고 외쳤다. 군중들은 이에 호응하여 암브로즈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암브로즈 자신은 감독직을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곧 고위관직으로 임명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회유시키다 못해 그 도시를 탈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암브로즈가 감독으로 선출된 것을 황제가 기뻐하였고, 만약 이를 어기면 황제의 분노를 살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373년 12월 1일에 밀란 감독이 되었다.

암브로즈는 감독이 된 후 사제의 도움을 받아 신학을 탐구한다. 그는 원래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교회 중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된다.

암브로즈가 감독이 된 후 얼마 안 되어 야만족인 고트(Gots)족이 밀란을 쳐들어와 많은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 포로들의 몸값을 요구한다. 이때 암브로즈는 교회 소유의 금은 기명과 기타 장식품들을 녹여 피난민들과 포로들의 몸값을 마련한다.

이때 그의 약점을 노리던 아리우스파들은 감독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비난을 하였다. 이에 비해 암브로즈는 "주님을 위해 황금보다는 영혼들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 교회는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황금을 소유하고 있다... 금그릇보다는 살아있는 질그릇이 더 소중하다."고 하였다.

암브로즈의 뛰어난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찾아 모여들었다. 그중에 젊은 청년인 어거스틴이 있었다.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여러 종교와 철학으로 영적 순례를 거치다가 암브로즈의 설교를 듣고(387년) 회개와 동시에 암브로즈에 의해 침례를 받는다.

암브로즈가 감독으로 재직하던 중 황제들과 미묘한 관계가 많았다. 당시 서방

제국의 황제는 '발렌티니안 2세'(Valentinian II)였다. 그 황후가 아리우스파라 아리우스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암브로즈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암브로즈는 황후의 비호하에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후는 암브로즈를 계속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암브로즈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숙명적 대결을 하였다. 한 번은 암브로즈와 그의 추종자들이 황제의 병사들에 의해 예배당 속에 포위된 채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병사들은 무기를 휘두르며 감독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암브로즈는 그가 작곡했던 찬송들을 교인들과 함께 부르면서 용기를 북돋우며 저항해 나간다.

또 정통신앙을 가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데살로니가시의 폭동으로 인해 그곳 경비 사령관이 군중들에게 살해되었다. 이에 분노한 황제는 데살로니가 시민들 7천명 가량을 학살하였다. 그 후 황제가 교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암브로즈는 황제를 가로막고 "그 자리에 멈춰라. 양 손에는 불의의 피가 가득한 자, 죄로 더럽혀진 너같은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았다.

이때 경호대원들은 칼을 뽑아 들고 암브로즈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암브로즈의 인격과 권위 앞에 황제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다. 그리고 황제는 명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라도 30일 동안은 집행을 유예하도록 지시하였다.

위대한 밀란의 감독이며 신학자요, 성자였던 암브로즈는 397년 4월 4일, 부활주일날 숨을 거두었다.

(3) 크리소스톰 (Chrysostom)

존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존은 법률가로 안디옥에서 출생하였다.

존이 20세 때 세례를 지원하고 3년간의 훈련을 거친 뒤 안디옥 감독 '멜레티우스'(Meletius)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가 법률가의 길을 가지 않고 수도사의 길을 가려고 할때 신앙이 좋은 그의 어머니 '안투스'(Anthusa)는 그녀가 살아있는 한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시켰다. 존은 수도사의 소명과 어머니의 요청을 둘 다 만족시키려고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고쳐서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 임종시까지 함께 생활을 한다.

그 후 시리아 산악지대의 수도사들과 합류하여 4년동안 수도생활의 규율을 배

은 후 다시 2년 동안 혼자서 금욕생활을 한다. 이같은 6년간의 은둔생활 후 고향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집사가 되고 곧 감독이 된다. 그런데 그의 명실교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 그리하여 398년에는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다.

콘스탄티노플은 사치와 향락에 젖은 도시로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었다.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어 성직자들의 생활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독신이던 일부 사제들은 소위 '영적 자매'(Spiritual Sisters)를 두는 일이나, 성직자들이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나, 교회 재정이 공개되지 않고 사용되는 일을 개혁하였다. 이같은 개혁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일부 소수에게는 증오를 유발시켰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개혁의 운동을 성직자들에게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촉구하였다. 그렇게 되자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교회당은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계속 운집한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은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랐으나 도시의 부자유 유력자들은 교회 강단에서 쏟아지는 예언자의 목소리에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처음에 시민을 향해, 다음에는 군인에 대항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황제까지도 적수로 알고 대항하였다.

여기서 황제의 아내 '유독시아'가 크리소스톰 제거 음모를 꾸며 도시를 떠나도록 한다. 그러자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 부패한 음모 가담자 색출을 부르짖고 교회를 점령한다.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지고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 않고 황제의 명을 따라 조그마한 촌락인 '쿠쿠수스'(Cucusus)로 정배되어 간다. 그는 그곳에서 강단이 없어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대신 펜을 들고 글로써 세계를 감동시킨다.

크리소스톰에 대한 황제의 처사를 비난하고 방방곡곡에서 크리소스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크게 확산되자 크리소스톰은 쿠쿠수스보다 더 궁벽한 흑해의 해변으로 옮겼다.

그는 새로운 귀양지로 향해서 가던 중 중병에 걸리고 만다. 크리소스톰은 임종이 가까왔음을 감지했다. 그는 곧 조그마한 교회당으로 옮겨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마지막 명언을 남기고 운명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밀란의 암브로즈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존 크리소스톰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할 것은 같은 시기에 황제에 대항하여 승리한 암브로즈가 일한 서방교회는 그 후로 라틴어 사용과 함께 크게 강성해졌고, 심각한 황제에 순응하여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배의 길을 따른 크리스소스톰의 동방교회는 그 뒤로 계속 약화되고 말았다.

2. 어거스틴의 출현

(1) 어거스틴의 회개

어거스틴은 사도 이후 고대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절정에 이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서방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보다 더 크게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실로 그는 중세 로마교회의 아버지이고 근대 종교와 신학의 조상이 되었다.

1) 그의 출생

그는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Numidia)의 히포(Hippo) 근처에 있는 '타가스테'(Tagaste)에서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 '패티릭'(Patricus)은 로마제국의 하급 관리로서 전통적 이교신자였다. 그러나 그의 모친 '모니카'(Monica)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함은 물론이고, 그의 남편을 말년에 기독교 신자로 변화시킨 신앙의 여성이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성격은 열정적이고 민감하였으며, 고상함을 탐구하는 면이 있었다. 이것을 알아차린 부모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대도시 칼타고(Carthago)에 유학을 시킨 것이 17살 때였다.

어거스틴은 대도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한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쾌락도 추구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심보다는 도회지풍에 물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8세(372년)때 노예 신분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데오다투스'(Adeodatus)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아들을 많이 사랑하였다.

그는 당시 별물가나 혹은 고급관리가 되고자 웅변학을 배웠다. 당시 웅변술을 배우는 중에 고대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이던 '키케로'(Cicero)를 배우게 되었다. 키케로는 언어 구사에 뛰어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철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웅변술은 언변 스타일뿐 아니라 그 속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마니교인 시절

어거스틴은 진리탐구를 위한 목적으로 '마니교'(Manicheism)를 찾게 된다. 이 마니교는 3세기경 페르시아의 '마니'(215-275)에 의해 창설된 2원론적 종교였다. 마니에 의하면 인간들은 그 속에 존재하는 두가지 원칙의 동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 두 가지란 '빛'(light)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것과 '어둠'(darkness)이라 부르는 물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신학적 사건을 통해 혼합된 것이 현재의 인간 상황이다. 따라서 구원이란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다시 분리시켜 인간의 영혼(혹은 정신)이 순수한 빛의 광명의 영역으로 귀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혼합되어서 혼란스러운 것도 악한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혼합시키려는 행위는 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라면 양 극단의 혼합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남녀의 결혼도 악한 행위이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 또한 악의 계승 산물이다.

마니교는 이처럼 철두철미한 금욕주의에 기초했다. 그래서 '3봉', 즉 입을 봉



▲튀니지 케이프 본(Cape Bon, Tunisia) 근처에 있는 고대 칼타고의 유적들.

함(육식과 금주), 손을 봉함(악을 제거), 가슴을 봉함(정욕과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같은 금욕을 실천하기 위한 10계 명도 가르쳤다.

어거스틴이 진리를 탐구할 목적으로 마니교에 들어갔으나 자기의 가정생활과 마니교의 교리와 상반된 생활 속에서 갈등을 느끼며 9년간의 고뇌의 생활을 보낸다. 그래도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못 떠나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마니교에서 해결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란 첫째, 성경 전체는 세련되지 못한 문체와 표현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았는데 마니교는 논리가 정연하였다. 또 한 가지는 악의 근원에 관한 문제였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현실 세상은 악이 참만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악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으나 마니교에서는 분명하게 선의 기원과 악의 기원이 따로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9년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

그렇지만 마니교 신자인 그에게도 항상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계속되는 진리추구에 대해 마니교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니교를 떠나 다시 신 플라톤 철학으로 자리를 옮긴다.

3) 신 플라톤 철학도의 생활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떠나 새로운 사상에 접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의 밀란으로 자리를 옮긴다(384년). 밀란에서는 그가 가르칠 수 있는 웅변술 교사직이 주어졌다. 거기서 그는 웅변술 교수를 하면서 새 철학에 심취한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신 플라톤주의(Neo-Platonism)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철학이었다. 신 플라톤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의 원칙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가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한 가운데서 무수한 동심원을 그려 나가듯이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인데 계속 퍼져나온 것들이 오늘날의 현상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심원에 보다 가까울수록 궁극적 존재에 가까운 실재들(realities)

이고 보다 우수한 것들이다. 그리고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것일수록 열등한 것이며, 악이란 것도 사실은 궁극적 존재에서부터 멀리 벗어난 존재들이다. 도덕적 악이란 것도 궁극적 존재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보다 잡다하고 열등한 것들에 사로잡혔을 때 생기는 힘이다. 이렇게 볼 때 악이라는 것은 비록 실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물이 아니라 궁극적 존재의 선으로부터 어긋나버린 하나의 방향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궁극적 실재에 접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신 플라톤주의에서는 많은 연구와 훈련과 신비적 명상을 통하여 인간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the ineffable one)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 사상에서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음으로 이 철학에 머물러 있다.

4) 밀란에서의 갈등의 생활

어거스틴이 밀란에서 수사학 교수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 온 절호의 기회로 여겨 아들을 찾아온다. 모니카는 아들을 밀란의 대 설교가 '암브로즈'의 설교를 듣도록 권유한다.

이때 어거스틴은 당시 웅변술 교수로서 밀란의 대 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즈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었던 참이었기에 허락했다. 이때 어거스틴의 관심은 설교의 내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암브로즈의 설교를 차츰 듣는 중에 어거스틴은 웅변술 교사로서의 관찰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과거 어거스틴이 성경에 관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귀절들이 암브로즈의 풍유적 해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그의 변화는 그가 성경의 모든 의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또다른 난제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미지근한 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전 생애를 헌신하여 결국은 웅변술 교수로서의 직업을 버려야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욕과 야망도 끊어야만 하였다. 이같은 자아에 대한 갈등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다.

이 무렵 그는, 「성 안토니의 생애」(Life of Saint Anthony)란 책을 읽고 감명된 고급 관리들이 명예를 버리고 은둔생활을 택했다는 소문을 듣는다. 또 신

플라톤 철학의 대가였던 ‘마리우스 빅토리누스’(Marius Victorinus)도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사실도 알게 된다. 어거스틴은 여기서 자아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된다.

5) 탕자의 회개

어거스틴은 암브로즈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설교와 함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는 감화력있는 설교로 그의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거스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겸손을 배우려고 했다. 이 무렵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온 ‘폰티티아누스’(Pontitianus)에게서 이집트의 수도원 생활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성결한 생활을 동경한다. 어거스틴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수도생활을 통해 귀한 성경의 진리를 안 사실에 대해 자신이 몹시 부끄러움을 깨닫고 정원으로 뛰쳐나간다.

그때 옆집 아이들이 담 넘어서 노래부르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성경을 펴서 찾아 읽었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다. 즉,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 펼쳐 읽은 성경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과 같은 감동을 어거스틴에게 주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즉시 기독교 신자가 될 것을 결심했고, 자기 아들과 함께 387년 부활절, 즉 34세 되던 해에 암브로즈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웅변학 교수직을 사임한다.

이제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밀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들 셋은 고향을 향해 가던 중 어머니 모니카가 병에 걸려 ‘오스티아’(Ostia)항구에서 사망한다.

이 때문에 깊이 상심한 어거스틴은 수개월간 마음 정리를 위해 로마에 머무른다. 그 후 고향 타가스테에 도착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정리하여 일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도원 건립을 위해 ‘카시키아쿰’(Cassiciacum)에 정착한다. 얼마 안 되어 아들 아데오타스도 죽고만다.

홀로 남은 어거스틴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비적 명상과 경건생활을 위한 학문연구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차츰 널리 퍼져나가자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차츰 목회자와 신학자로 크게 쓰임받게 된다.

(2) 어거스틴의 사역

어거스틴의 사역 중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한 것은 ‘힙포’(Hippo)에서의 목회 사역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391년에서부터 430년 8월 28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한 교회를 봉사했다.

1) 힙포의 감독

어거스틴은 자기가 세운 카시키아쿰의 수도원 공동체에 다른 친구를 가입시키려고 힙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힙포의 감독 ‘발레리우스’(Valerius)는 어거스틴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어거스틴을 힙포의 감독으로 임명한다(391년).

이에 장로로 4년간 일한 후 공동 감독직을 맡게 되고, 곧이어 발레리우스의 후임으로 감독이 된다(395년).

어거스틴은 목회자이자 감독으로 있으면서 가능한한 카시키아쿰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그는 신약시대 이후 전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있는 저술활동과 행정가와 목회자로 활약한다.

2) 마니교를 반박하는 초기의 저술활동

자기 자신의 인도로 마니교에 빠진 친구들을 위해서 마니교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그는 성경의 권위, 악의 근원, 자유의지 문제 등을 취급한다.

3) 도나티스트에 대항하는 각종 논문

어거스틴이 목회하고 있던 북아프리카가 도나티스트(Donatist)가 발생한 지역이었으므로 어거스틴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이 도나티스트와 대항한 각종 논문들을 쓰게 된다.

이때 그는 성례전의 효과가 의식 집전자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식 자체로 효력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이 서방교회의 입장이 된다.

또 ‘정당한 전쟁’(Just War)에 관한 이론도 전개시킨다. 이것 역시 도나티스트 중 과격파인 ‘써쿰겔리온’(Circumcelions; 순수한 신앙을 더럽히는 적을 위한 전쟁에서 죽는 것이 순교와 같다는 과격파)은 폭력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쟁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 조건이란 전쟁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올바르게 구성된 권위있는 조직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전쟁 중에서도 사랑의 동기로 폭력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어거스틴의 가장 중대한 신학 작품은 펠라기우스자들과의 논쟁을 다룬 것이었다. 이 문제는 별도 항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5) 어거스틴의 참회록 (Confessions)

이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의 형식으로 쓰여진 영적 자서전이다. 여기서 그의 심오한 심리적, 지성적 통찰력을 증언해주고 있다.

6)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 작품은 413년에 시작해 426년에 완성하였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기독교 역사철학을 제시하였다. 이 사상도 따로 살펴보자.

7) 삼위일체론 (On the Trinity)

과거 저스틴 (Justin), 터툴리안 (Tertullian), 오리겐 (Origen) 등의 종속설이 어거스틴 때 와서 완전하고 온전한 신론으로 귀결된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같은 한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다. 3위께서는 다 동등하셔서 먼저와 나중에 구별없으시고 더 높고 낮음도 없으시다”고 하였다. 이 세 분의 활동에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요, 아들은 사랑을 받는 자요, 성령은 이 두 사이를 잇는 사랑이시라고 하였다.

(3) 어거스틴의 공적

어거스틴의 공적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작품 ‘하나님의 도성’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 전개된 인간론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 책은 「신국」 또는 「신의 도성」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 AD410년에 위대한 대 로마제국이 북방의 무명 야만족인 고트(Gots)족에 의해 크게 유린당한다. 로마는 그 뒤 455년에 다시 ‘반달’(Vandal)족에게도 짓밟히고, 476년에는 ‘도이취’족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다(서로마). 그렇지만 동로마는 1453년에야 터키족에게 멸망당한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412년부터 426년까지 이 작품을 쓴다. 어거스틴이 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10년에 위대한 로마가 무명의 코트족에게 함락당한 후에 국민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불리한 소문이 늘어났다. 즉, 로마는 다신을 섬기는 다신국가였는데

AD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후 과거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제신들이 진노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새로운 기독교 역사철학으로 무지한 시민들의 여론을 잠식 시키려고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다. 우선 어거스틴은 로마제국의 유린이 기독교의 국교화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로마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무수한 재앙들이 있었다.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나 기독교가 들어온 후는 로마가 큰 유익을 얻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두 개의 도성에 관한 이론을 전제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들의 자기애에 의한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 사실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타난다. 가인이라는 인물은 지상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세상 백성' (The City of Man)의 조상이며, 그의 후예들이 만든 것이 국가라는 존재로 나타났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에 집착되어 있는 것으로, 참된 정의나 공의가 있을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아벨의 후예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한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아벨의 후예는 하늘나라를 향한 천상의 순례자들로 오늘날 교회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늘나라를 실현해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가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이 결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로마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위대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로마가 제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위대함이나 업적 역시도 불멸의 것이 아니다. 비록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제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좌절은 아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만이 영원한 것이다. 교회는 지상 위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도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성을 여전히 건설하신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한 자만이 그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인간의 나라, 악의 도성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의 멸망도 그와 같은 역사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영원한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일 뿐이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생겨졌다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사랑'위에 근거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 역시 하나님께서는 로마제국을 통해 세계의 복음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다른 인간들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왕국과 같은 운명으로 건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고 참신한 설명으로 그 당시 로마의 여론들을 잠재우고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철학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점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의 대상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 이 지상에 있는 땅 위의 교회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대단히 큰 실수였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래 지상의 교회가 곧 하늘나라의 실현이라고 보는 소위 '무천년왕국' 사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종말론 사상을 따로 배워야 할 것이다.

2) 인간론 (펠라기우스의 문제제기)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 그의 인간론을 펼쳐나간다.

그러면 펠라기우스(350-445, Pelagius)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영국(Britain)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헬라어 이름이 '뮤르즈' 즉 '바다의 아들'인 것에서도 그것을 추측케 한다.

그는 평신도였으나 라틴어, 성서, 교부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았고, 희랍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 당시인들은 그를 승려라고 불렀다.

펠라기우스는 로마에서 20여년 동안 머물면서 법률연구를 많이 하여 법학도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는 교황 '다마스스 1세'(Damasus I)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 학문을 그만둔다. 그 후 펠라기우스는 삼위일체론을 포함하여 많은 바울서신 주석을 낸다.

그의 초기 작품은 아리아니즘(Arianism)이 신성을 거부했던 점과 마니교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점을 들어 이 모두를 배격하였다. 여기서 그는 인성성의 본질 문제와 자유의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다.

그는 로마가 고트(Gots)족에 의해 침략당했을 때(410년) 위험을 느끼고 그의 법률학 제자인 '셀레스티우스'(Cellestius)를 대동하고 북아프리카로 간다.

펠라기우스는 아프리카의 어거스틴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남겨놓고 팔레스티나로 간다.

한편 펠라기우스의 제자인 '셀레스티우스'는 칼타고에 남아서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한다. 그러자 칼타고에서는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대회를 열었다. 이때 '셀레스티우스'는 다소 문제성있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 아담이 타락한 것은 오직 그에게만 적용된다.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새로 출생하는 신생아는 아담의 최초의 상태, 즉 무죄와 같은 상태로 출생한다.
-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영생의 길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 율법과 복음은 다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힘이다.

이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위험한 사상자라는 경원을 당하자 에베소로 가서 장로가 된다.

한편 예루살렘으로 간 펠라기우스는 그곳에서 장로가 되어 감독 요한과 교제 하며 베들레헴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제롬(Jerome)과 논쟁을 벌인다. 여기서도 펠라기우스는 그의 제자 셀레스티우스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자 AD418년에 칼타고대회를 열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펠라기우스는 성격이 온순하고 품행이 엄정했으며 지력이 명석한 자였으므로 그를 따르는 자도 많았기 때문에 논쟁으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다.

3.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1) 펠라기우스의 주장

1)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 26).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그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다. 아담은 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였다.

2)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그에게 자유의지는 계속 있었으며, 그에게는 죄의 경향성(tendency)만이 남아있을 뿐 원죄는 없다.

3)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죄의 경향성은 있으나 죄의 유전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2) 어거스틴의 주장

1)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2)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은 출생부터 부패된 존재이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3)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의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3)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차이점

1) 영혼의 기원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창조론(Creationism), 하나님이 개개의 영혼을 계속해서 창조하신다.

· 어거스틴 : 유전설(Traducianism), 사람의 영혼은 신체와 같이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 헬라철학 : 선재설(Preexistence),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인간의 영혼은 존재했다.

2)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이다.

· 어거스틴 : 인간의 본성은 부도덕하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 부단히 신께 복종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은 있으나 본성은 악하다.

3)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는 악의 기질과 버릇이 있을 뿐이다. 정신적인 죽음은 아담이 준 것이로되 인류에게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 어거스틴 : 정신적, 육체적 죽음은 모두가 아담의 타락으로 얻은 것이며, 전

인류는 그의 유전에 의하여 타락된 존재다.

4) 타락 후의 인류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전과 같이 무죄한 존재요,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후에 죄를 배워 타락하였다.

· 어거스틴 : 모든 인간은 부정한 죄의 성질을 가진 채 유전되어 나왔으므로 진정으로 고결함은 불가능하다.

5)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인간의 의지는 늘 자유롭다. 인간은 타락 전이나 후나 언제든지 선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어거스틴 : 타락 전의 자유의지는 타락 후 의지와 전혀 다르다. 인간은 타락 후 자유의지는 상실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다.

6) 죄의 유전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아담의 죄는 유전될 수가 없다. 인간 개개인은 유전된 죄가 없으므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다.

· 어거스틴 : 죄는 유전이어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성 중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7) 은혜 또는 구원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인간은 의지, 지혜, 의 등에 의하여 각 개인에게 자연스럽게 부여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 어거스틴 : 인간의 은혜는 신의 진리와 성령의 활동이시다. 이 은혜가 곧 인간에게 예정의 움직임이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에게만 은혜로 주어진다.

8) 신의 예정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절대적인 신의 선택은 있을 수 없다.

· 어거스틴 : 신의 예정은 개인적이어서 영원 또는 절대적이다.

9) 유아세례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유아세례는 좋은 일이나 유아의 구원에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유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 어거스틴 : 유아는 나면서부터 죄인인고로 유아의 구원에 유아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칼타고회의 이전에 펠라기우스는 415년에 팔레스틴에서, 416년에는 북아프리카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거스틴과의 논쟁 후로는 그의 주장이 계속 설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431년 에베소대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설과 함께 펠라기우스 주장도 이단으로 결정한다.

(4) 반 펠라기우스설 (Semi-pelagianism)

반 펠라기우스설은 서방의 중심 수도원을 건립한 '카시아누스'와 레이(Reii)의 감독 '파우스투스'(Paustus)가 주장하였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의 은혜에 대해 인간은 자기 의사대로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도 교황 벨리 4세가 529년에 오렌지종교회의에서 펠라기안주의나 반 펠라기안주의를 모두 부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에 관한 평을 하도록 하자.

1) 긍정적인 면에서 그는 삼위일체를 비롯한 몇 가지 신학적 결론은 과거 교부들의 모호함을 종식시킨 큰 공헌을 하였다.

2) 그는 중세기 전체를 통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인용됨으로 인해서 카톨릭교회의 위대한 박사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16세기 개혁자들조차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낸 것 때문에 개혁교회들조차 어거스틴 신학에 예속되고 말았다.

3) 어거스틴의 신학은 헬라의 신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헬라철학에서 사용하는 골격 위에도 기독교적인 용어로 각색 변안해 놓은 감이 현저하다.

4) 그는 교회관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다. 그가 도나티스트와의 논쟁에서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에도 나타난다. 즉, 그는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신령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소멸시키고 말았다.

5) 그의 예정론과 교회론간에는 서로 모순을 발견하게 한다. 즉 그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주실 자에게 예정으로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또 그의 성례전에서는 구원은 보이는 지상의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 모순된 논리는 그 자신이 제약된 인간이며 한계들 가진 유한한 존재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제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13 장 교황권 제도의 발전사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교황의 호칭은 언제부터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역사 발전의 과정을 잘 배우도록 해야 하겠다.

1.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황권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었다고 하는가? 여기에는 성경적 기초와 역사적 기초를 말하고 있다.

(1) 성경적 기초

1) 마 16: 18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준다고 했고, 또 베드로의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건설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사도 베드로가 세운 로마교회가 모든 교회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2) 행 12: 17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다른 곳이 곧 로마를 뜻한다. 베드로는 AD42년부터 67년까지 로마 교회를 건설하고 제1대 교황으로 지내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당하였다.

3) 뵈전 5: 13에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바벨론교회에서 문안을 전하는데 바벨론교회란 바로 로마교회를 뜻한다.

4) 요 21: 18-19에는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이 예언되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AD67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의 광장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이상과 같은 성경 인용으로 베드로의 로마지역은 확실하며, 주님이 그에게 천국열쇠를 맡겼으므로 베드로의 후임자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권한이 계승된다고 믿는다.

(2) 역사적 기초

이것은 사도 이후 역대 교부들의 말을 근거로 삼는다.

1) 로마의 클레멘트 (AD96~? 로마감독, Clement of Rome)

클레멘트가 에베소와 고린도교회에 보낸 몇 통의 서한이 있다. “베드로는 순교와 같은 사역을 하였다.”

2) 이그나티우스 (AD30-110, 안디옥의 감독, Ignatius)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하였다. 그리고 후에는 함께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3) 고린도의 데니스 (AD171년경, Denis of Corinth)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함께 사역하였다. 그같은 사실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4) 이레니우스 (AD190년경)

베드로는 로마에서 살았다는 것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5) 터툴리안 (AD202, Tertullian)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다면 그는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죽었을 것이다.

6) 오리겐 (AD255, Origen)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을 것이다.

7) 유세비우스 (AD339, Eusebius)

베드로는 로마의 대형경기장에서 만인이 보는 데서 순교당하였다.

8) 제롬 (AD430, Jerom)

베드로는 AD42년부터 67년까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대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였다. 이것이 폴란드 소설가 H. Sienkeevicz(1846-1916)에 의해 “Quo Vadis?”(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란 작품이 되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이 사실을 의심하려 하지 않는다.

(3) 결론

- 1) 베드로는 분명히 제1대 로마교회 감독이었다.
- 2) 마 16: 18-19에는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다.
- 3) 따라서 로마교회의 감독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특권을 행사할 자격이 계승되고 있다.

2. 성경에 의한 증명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이 없다.

(1) 소극적인 증명

- 1) 행 12: 17에 ‘다른 장소’라고 한 것이 로마라는 것은 다소 비약된 감이 많다.
- 2) 갈 2: 7-11에 보면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기록연대가 AD50-55년간으로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끝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이 무렵에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과 카톨릭에서 AD42-67년에 로마에 있었다는 것은 상반된 사실이다.
- 3) 고전 1: 12에 보면 고린도교회의 파벌 중에 게바파가 있었다. 또 고전 9: 5에 게바는 아내된 자매와 함께 여행을 다녔다. 고린도서 기록연대가 AD55-57년경으로 본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왜 이같은 기록이 생겼을까?
- 4) 뻔전 5: 13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말이 반드시 로마교회를 뜻하는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는 BC605-535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 이후 유대인은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전 유럽으로 분산되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이 바벨론교회일 수도 있다.
- 5) 골 4: 10에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해서 마가가 바울의 심부름으로 아시아에 간 기록이 있다. 골로새서는 엽,

빌, 골, 몬과 함께 옥중서신이다. 이 서신은 AD63-64년경 로마 옥중에서 쓴 글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왜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을 돕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바 대로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벧전 5:13)로 가까운 관계가 아닌가?

6) 딤후 4:11에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바울은 로마 옥에서 에베소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여기서도 보면 마가는 그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에게서 일을 했으나 후에는 바울의 로마 사역에 계속 동조하고 있음을 본다. 과연 베드로가 로마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마가가 그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2) 적극적인 증명

1) 행 12:15-19절에 보면 AD45년경 예루살렘에서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에는 베드로나 바울이 다 함께 참석하였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AD42-67년의 베드로의 로마 사역을 주장한다.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일까?

2) 롬 16:12-16에 보면 바울이 AD56-59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십여명에게 문안의 글을 전하고 있다. 카톨릭의 주장대로 AD42-67년 사이에 베드로가 로마에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왜 바울은 베드로에 대한 문안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과 베드로가 숙명적 라이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3) 롬 15:20에는 바울이 자기 목회소신을 밝히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하였다. 만약 카톨릭 주장대로 베드로가 AD42-67년 사이에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거짓말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성경의 명확한 기록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부들이 차츰 말을 보탠 전승을 믿어야 되는가?

4) 골 4:10-14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채 AD63-64년경에 자기를 찾아준 많은 방문객들의 이름을 아시아의 골로새교회에 전하고 있다. 만일 카톨릭의 주장대로 베드로가 AD42-67년간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면 왜 바울은 방문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로마 사역은 전혀 거짓말 같다.

5) 몬 23-24에도 바울이 함께 갇힌 자들과 자기를 도와주는 인물들을 말하고 있고, 빌 4:21-22에도 역시 같은 문안이 있다. 이 두세 가지 서신이 모두 로

마 옥중에서 쓰여진 기록들인데 여기에는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바울이 착각을 한 것도 아닐 것이고, 한 번도 아니고 각기 다른 서신들에서도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 베드로는 로마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이 전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베드로의 로마 순교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역사의 전설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다는 진실에 부닥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로마 사역설과 그를 제1대 교황으로 모시는 카톨릭의 교황권 제도가 생겨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이제까지 알아왔던 모든 선입관을 멀리하고 열린 마음으로 역사적 진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카톨릭의 주장에 그대로 맹신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같은 사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미처 몰랐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

3. 교황권의 기초자들

(1) 역대의 교부들

앞서 교부들을 연구하는 항목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 지도자들은 각인각색으로 그들의 주장이 달랐다. 그들 중에는 감독직의 우위성을 주장한 이그나티우스(Ignatius) 같은 이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한 키프리안(AD195-258, Cyprian)이 있었다.

키프리안은,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는 다 같지만 그중에도 로마의 교회만은 베드로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로마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요 뿌리라고 하였다. 이 이후부터 로마교회의 감독들은 키프리안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로마교회의 우위성을 주장하려 했으나 전체교회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사의 상황은 점차 기묘하게 발전되어 갔다. 콘스탄틴 황제가 AD330년에 로마제국의 수도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이렇게 되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황제가 수백년 정착해 있던 로마는 황제가 없으므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약화되었으나 그대신 종교적 중심지로 더 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AD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교회는 다른 지역의 감독들보다는 좀 더 높은 '대감독'(Patriachs)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그 뒤 381년의 콘스탄티노플회의 때는 콘스탄티노플교회 감독도 대감독의 호

칭이 주어졌고, 451년 칼케돈회의 때는 예루살렘교회 감독에게도 대감독이 주어졌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로마교회에서 170년경 고린도인이었던 '데니스'(Denis)가 베드로의 로마사역을 전설로 전하기 시작했고, 로마감독 '다마스' I'(AD366-384, Damasus I)는 최초로 로마교회가 사도적 전승교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서로 수종들던 유대인 학자 제롬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번역을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성경에다가 로마교회는 베드로가 기초한 교회이며 로마의 감독들은 베드로의 후계권이 계승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nry Betterson교수가 쓴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판, 1963), pp.32-33에 잘 소개되어 있다. 카톨릭은 교회 역사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도 꺼리지 않는 일을 하였다.

(2) 레오 1세 (AD440-461, Leo I)

1) 레오의 정치력 발휘

앞서 말한 대로 330년에 로마 황제궁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된 이후 로마시에는 정치적 공백 및 약화를 가져왔다. 이 무렵 서 로마는 계속 외적들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다.

410년에 고트(Gots)족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훈(Hun)족과 반달(Vandal)족의 침입이 또 있었다(455년). 이같은 민족들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동로마의 황제들은 군사적으로 서 로마제국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 로마제국은 실패하였다.

이무렵 로마의 감독 '레오'는 북아프리카의 '아틸라'(AD452, Attila)왕의 반항을 무마시키고 또 '가이스릭'(AD455, Geisric)의 불만도 외교적 설득으로 무마시켰다. 이렇게 되자 동 로마의 황제들 입장에서 보면 레오 감독이야말로 서 로마를 견재하게 한 구국 공신이었다.

2) 레오의 서한이 칼케돈에서 채택되다.

우리는 앞서 교회회의를 배우는 중에 451년 칼케돈회의 때에 레오가 보낸 편지(Leo of Tom)가 칼케돈신조로 채택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배웠다. 레오는 정치적으로 제왕들의 신임을 얻었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얻는데다 교회적으로도 기여하였다.

3) 레오가 로마교회는 수사도 베드로가 세운 으뜸 교회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레오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으나 황제들은 레오의 공로로 봐서 그같은 주장쯤은 능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인하였다. 이것이 로마교회가 베드로 수사도를 계승한 교회라는 주장을 하게 된 공식적인 시발이었다.

(3) 그레고리 1세 (AD590-604, Gregory I)

레오 1세가 로마교회가 수사도의 계승교회라는 주장으로 공헌한 다음, 그 후에 그레고리 1세는 로마교회 감독은 곧 교황이며,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이론을 수립한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마지막 교부요, 최초의 교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의 시작을 59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타당한 관찰이라고 본다.

1) 그레고리 1세의 배경

그레고리는 540년경 로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원로원의 의전관이었고, 모친 실비아(Sylvia) 역시 돈독한 신앙을 가져 전 가족이 성자 호칭을 받을 정도의 좋은 집안이었다. 그레고리는 573년에 로마의 지사 물망에 오를 정도로 출세의 길이 보였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정치적 출세보다는 종교적 헌신을 택한다. 부친이 물려준 유산을 많이 정리하여 자선비용과 수도원 건립기금으로 바친다. 그리고 그 자신은 574년에 성 안드레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된다.

그레고리의 헌신과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교황 '베네딕트'(Benedict I) 1세는 그레고리를 콘스탄티노플의 특사로 파견한다. 해를 넘긴 뒤 다시 586년에 로마로 돌아와 성 안드레수도원 원장이 되었다가 교황의 비서가 된다.

교황 펠라기오 2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 교황이 되니 590년 9월이었다. 그로부터 604년까지 눈부신 활동을 한다.

2) 그레고리의 신앙

그레고리는 극심한 고행을 즐겼다. 그의 성격은 야심이 많았고, 의협심이 대단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겸손하지 않았다. 그의 신앙관은 첫째, 로마교회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는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제는 반드시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1139년에 사제의 독신법으로 제정된다. 그는 또한 연속설을 신앙의 한 요목으로 삼았다.

전에 '아렐레이트'(Arelate)의 가이사리우스는 죄에는 대죄와 소죄가 있다고

해서 소죄는 생전의 선행과 사후의 불로써 소멸된다고 하였다. 그레고리는, 적은 허물은 심판을 받기 전에 연옥의 불로써 다 소멸되고(고전 3: 11-115),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의하여 연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3) 그레고리의 공적

① 교회의 우선순위 중에서 로마교회를 제1위로 올려놓았다.

② 로마교회 감독은 모든 감독 중 으뜸이 되는 대사교로서 펠름(Pallium; 양털로 짠 흰 띠)을 띠어야 한다.

③ 정치 지도력을 확장했다.

그레고리는 롬 바르트족과 협상하여 이탈리아는 물론 남부 프랑스와 북부 아프리카까지 교회령을 넓혔다. 그는 또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영국을 그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고을과 독일을 교황청 산하로 두었다.

④ 저작으로 성경 주해들을 썼다.

「요기 해설」, 「목회자의 임무」, 「이탈리아 교부들의 생애와 기적」 및 설교집 등이 있다.

⑤ 성례전 신학을 수립했다

인간은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구원을 받고, 세례 후에 지은 죄는 회개와 함께 보상을 치뤄야 한다. 세례 후에 지은 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보상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성찬은 주님의 희생의 반복이라는 화체설 수립의 기초를 닦았다.

⑥ 예배 모범과 교회 음악을 개혁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예배의식이 행해졌었다. 그레고리는 예배 의식을 일반화시켰고, 성가와 시편송을 만들어 교회음악을 증진시켰다. 그레고리가 만든 성가는 지금까지도 서방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⑦ 가장 큰 공헌은 그 자신이 교황(Universal Father)이라고 칭하였다.

이와 같이 교황이란 호칭은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권한 행사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4) 그레고리 7세(1073-1085, Gregory VII)

그레고리 7세의 본명은 '힐데브란트'이다. 그는 12년 동안 교황으로 있으면서 많은 치적과 에피소드를 남겼다.

1) 그레고리 7세의 배경

그레고리 7세는 1015년 '투스카니'(Tuscany)의 소 도읍 소아나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년 때 로마 아웬디노에 있는 마리아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원장이 그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힐데브란트의 외모는 보잘것 없었으나 굳은 의지와 많은 지략을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

당시 독일 황제 헨리 3세가 교황권을 개혁하려는 것에 협력하여 그레고리 6세 후에 레오 9세(1048-1054)를 교황으로 세우는데 협력한 것이 인정되어 교황청의 집사장이 된다.

레오 9세는 교황청 내에 새로운 추기경(Cardinal)원을 설치하고 교회의 대표 인물을 뽑게 된다. 이때에 힐데브란트도 대표자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 대표자들은 추기경이라고 해서 빨간 망토를 걸치게 하였으므로 이들을 소위 '홍의 주교'라고 했다.

교황 니콜라스 2세(1058-1061)는 교황 선임순서를 새로 제정했다. 과거에는 황제들이 교황을 선정하고 그 후에 로마에서 인준을 하였다. 그런데 니콜라스는 1059년에 로마대회를 열어서 교황 인선은 '홍의 주교'회에서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사실 '홍의 주교' 회원은 콘스탄틴 황제 이전부터 각 교회의 장로들을 추기경이라고 했었는데 11세기 무렵에 와서 교황의 자문역을 할 수 있는 측근을 추기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직위가 교황, 홍의 주교, 추기경, 대 감독, 감독, 대 집사, 신부(장로), 집사 등으로 정해졌다.

니콜라스가 죽고 그 후임으로 안셀무스(Anselm)라는 힐데브란트의 친구가 교황이 되었는데(1061-1073) 그가 죽자 힐데브란트는 1073년 58세 때 그레고리 7세로 교황에 오른다.

2) 그레고리 7세인 힐데브란트의 신앙

그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설명한 세계 신정국가를 지상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교황이 감독들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제왕들의 임면권도 소유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했다.

①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보이는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계승하는 대행기관이다.

② 모든 교회 중에서 로마교회는 베드로가 직접 세운 교회이므로 로마교회는 결코 실수할 수 없는 절대무오한 교회이다.

③ 절대무오한 로마교회 감독은 모든 우주적 교회의 아버지(Universal

Father)이며, 로마교회 감독 역시 절대무오하다.

④ 절대무오한 로마교회 감독은 다른 교회의 감독들을 임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왕들도 임명할 수 있다. 그는 교황의 절대무오권 주장을 위해 유명한 '태양과 달의 원리'(Sun-Moon Theory)를 주창했다.

“하나님이 하늘에 두 빛 곧 해와 달을 달아두심으로써 만물을 비치게 하시는 것처럼 땅에는 두 큰 세력을 세우심으로 만민을 다스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 이 두 세력은 교황과 국왕이다. 교황은 큰 빛(해)이고, 국왕은 작은 빛(달)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의 권력이 국왕의 권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⑤ 사제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제는 타인(비 성직자)에 비해 항상 초월적 힘이 있어야 한다. 또 사제는 모든 규율과 사회 속인들(아내, 사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한다. 사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야지 가족에 국한시킬 수가 없다.

3) 그레고리 7세의 공적

① 지금까지 묵인해오던 성직매매를 엄금하고 성직자들의 독신생활을 엄수케 하는 결의를 하는가 하면, 1075년 라테랑(Lateran)대회를 결정했다.

② 그레고리 7세와 헨리 4세 독일 황제간의 충돌이 생겼다.

독일 황제 헨리 4세(Henry IV)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때가 있었다. 그것은 독일이 스페인의 억압을 계속 당해 황제까지 스페인 사람임으로 독일 국민들과 봉건영주들이 헨리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헨리는 이같은 위기를 모면하고 교황의 호감을 사려고 교황의 사절 앞에서 고해와 순종을 약속하였다. 이때 그레고리 7세는 1075년 부활절에 세속권세가 성직을 임명할 수 없음을 물론 세속권이 감독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선포하였다.

그런데 헨리 4세는 1075년 6월에 반란을 진압한 후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고 '밀란'(Milan)의 대 감독을 자신이 임명하였다. 이에 교황 그레고리 7세는 1075년 12월에 황제에게 엄중한 항의서를 보냈다. 그러자 헨리 4세는 1076년 1월 26일에 '웜스'(Worms)에서 회의를 열고 교황의 독재를 규탄하며 황제의 권리를 옹호하는 결의를 한다.

이때 대부분의 독일 감독들은 헨리 4세에 동조하여 교황의 폐위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헨리 4세는 교황의 폐위 결정 통고서에 '지금 교황이 아니고 거짓 수도사인 힐데브란트에게' 라고 하였다.

이같은 수모를 당한 그레고리 7세는 1076년 2월 22일에 즉각적으로 로마 중



▲콘스탄틴 황제가 지은 성 베드로 교회당(바실리카 양식의 건물)은 현재의 건물을 짓기 위해 16세기에 헐렸다.



▲로마는 기독교계를 지도하기 위해 그 자격을 확립시키고 있었다.

교회의를 열고 헨리 4세의 파문을 결정하고 동시에 폐위를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헨리 4세의 신하와 노복들의 해방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는 헨리에게 더 이상 충성할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에 독일 국민들이 헨리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황편을 들기 시작하자 황제의 입장이 불리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 귀족들은 회의를 열고 “만일 황제가 1년 이내에 교황으로부터 파문해제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황제를 폐위시키겠다”고 결의한다(1076년 10월 Tribur회의에서의 결정).

헨리 4세는 화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헨리는 제후들의 제의로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한다. 이때 교황은 터스카니아 백작의 과부 마틸다(Matilda)의 별

장인 알프스의 산중 '카노싸'(Canossa)성에서 쉬고 있었다. 헨리는 겨울날 알프스산을 넘어 카노싸로 교황을 찾아갔으나 교황은 3일 동안을 만나주지 않았다.

황제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 3일을 맨발로 떨면서 기다린 효험이 있어 나흘째 되는 날 면회가 허락되었다. 황제는 교황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고, 교황은 황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파문 철회를 선언한다. 이로써 헨리는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다.

그런데 헨리의 완전 몰락을 바라던 독일의 귀족들과 감독들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궁지에 몰린 헨리의 정적들은 국회를 열고 '스와비아'(Swabia)의 공작 '루돌프'(Rudolf)를 택하여 헨리의 자리에 앉게 한다.

그리하여 독일에는 헨리와 루돌프 두 황제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교황이 누구를 황제로 인준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때 교황은 헨리를 인준하느냐, 독일 국민들이 바라는 루돌프를 선택하느냐 하는 갈등을 겪게 된다. 그동안에 독일은 내란과 혼란이 계속되었다.

1080년 3월,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로마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두번째로 헨리를 파문하고 루돌프를 인준함으로 실리를 택하였다. 두번째로 파문을 당한 헨리는 차츰 독일 민족의 동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1080년 6월에 헨리가 소집하는 종교회의를 열고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파문하고 '비벨트'(Wibert)를 택하여 '클레멘트 3세'(Clement III)로 호칭하였다.

이런 중에 루돌프가 1084년에 황사를 당한다.

헨리는 과거 카노싸의 치욕을 복수하려고 로마의 그레고리 정벌에 나선다. 3년 후 로마는 헨리에 의해 함락당한다. 그러자 천하를 호령하던 그레고리 7세인 힐데브란트는 로마에서 도망하여 슬픈 방랑길을 떠났다가 1085년 6월 25일에 객사하고 말았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가 의를 사모하고 악을 미워할 고로 이곳에 정배와서 죽는다"고 하였다.

과연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 절대무오하다는 무오성을 주장하고 강조하며 그렇게 살다가 많은 유효함과 유오성을 남기고 죽었다.

(5) 이노센트 3세 (AD1198-1216, Innocent III)

교황권의 최고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 이노센트 3세이다. 그의 지략과 신념은 그레고리 7세 못지 않았다.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이 최고 절정에 오른 권한 행

사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만한 사람이 나지 않았다.

1) 이노센트 3세의 신앙

그는 독특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그레고리 7세보다는 농도 짙은 주장을 하였다.

① 교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의 통치권은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고, 왕중의 왕인 까닭에 군왕의 심판자의 지위에 서야 한다.

②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하나님보다는 낮으나 사람보다는 높다.

③ 교회는 태양이며, 제국은 그 빛을 받아 되비추는 달이다.

2) 이노센트 3세의 공적

① 프랑스의 왕 필립 3세 (AD1180-1223, Philip III)가 본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부인을 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처와 다시 결합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엄포함으로 필립은 다시 본처와 회복한다.

② 영국왕 요한이 교황이 임명한 캔터버리 대 감독 '스데반 랭톤'(Stephen Langton)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이노센트 교황은 영국왕 요한을 파문하고 모든 영국의 교회들에게 성례와 혼배의식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에게는 프랑스 왕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영국왕 요한은 교황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교황은 영국이 매년 2차씩 1,000마르크(700마르크는 영국, 300마르크는 아일랜드)를 공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요한을 풀어준다. 이때 영국의 귀족과 승려들은 요한 왕을 강요해서 '마그나카르타'대헌장 (Magnacharta)을 제정한다(1215년).

3) 종교재판 (Inquisition)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것은 이노센트의 가장 큰 오점이다. 이노센트는 남부 프랑스에서 일어난 '알비겐스'(Albigenses)운동을 이단으로 몰아 동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 마디의 증언 끝에 군중들의 군중심리로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종교재판을 시행하였다. 공산당들이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 종교재판 제도에서 본받은 것이다. 이노센트의 치욕스런 오점이다.

4) 제4차 라테랑 종교회의의 소집 (1215. 11. 11)

앞서 우리는 교회회의를 배울 때에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680)까지를 배웠다. 그 뒤로 제7차 787년에 니케아에서, 제8차 대회는 869년과 879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다. 그리고 제9차부터는 서방교회에서만 회의가 열린다.

즉, 제9차는 1123년에 라테랑에서, 10차는 1139년에 라테랑에서 이노센트 2세가, 11차는 1179년에 라테랑에서 알렉산더 3세가, 그리고 12차는 1215년에 이노센트 3세가 대회를 연다.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대 감독 77명, 감독 412명, 수도원장 800명, 그리고 기타 참여자까지 합하여 2,283명이나 되는 최대 회의였다. 여기서 ‘화체설교리’(Transubstantiation)를 확정하고, 성찬식 때 평신도에게 잔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교황은 전 세계의 최고 통치자(Supremacy)임을 공포했는가 하면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고해는 모든 신자가 1년 1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성인, 순교자의 유물, 기념품을 예배하고 모든 이교도들을 정죄한다고 했다. 또한 제왕들은 힘을 모아서 자국 영토 안에서 이단을 소탕할 것을 서약하도록 훈령하였다.

오늘날의 교황권 제도는 이렇게 하여 발전되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자신은 과연 오늘날과 같은 교황권 사용의 기초 인물이 되기를 바랐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부패와 변질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후대인들은 베드로와 아무 상관없는 역사를 꾸며놓았고, 베드로가 바라지도 않는 독선적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분명 교황제도는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교회가 변천해오는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고, 역사가들의 말도 이용해서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큰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저 엄청난 제도적 세력 앞에 그 누가 올바른 증언을 할 것인가? 역사의 흐름은 항상 진리의 편에서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나도 이같은 맥락에서 한 증언자의 메아리 역할을 할 뿐이다.

제 14 장 이시도리안(Isidorian) 교령집

로마 카톨릭교회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세 가지 규범에서 찾는다. 첫째는 성경이고, 두번째는 교령집이고, 세번째는 교황이다. 그들이 말하는 교령집이란 무엇인가? 교령집의 책명은 「프슈도-이시도리안 교령집」(Pseudo-Isidorian Decretals)이라고 되어 있다. 카톨릭이 말하는 이 불가사의한 전통적 권위문서의 정체를 살펴보자.

1. 교령집의 종류

교령이란 말은 ‘Decretals’로 ‘교황의 서한들’이란 뜻이다. 이 서한은 곧 교회의 법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그 내용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교황청에다가 질문을 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이 문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1) 디오니시우스의 교령집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최초의 교령집은 384년에 ‘다마스’ (Damasus)가 발표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으나 근거가 없다. 그리고 최초의 교령집은 6세기 때 오늘날의 서력 기원을 제의한 ‘엑시구스 디오니시우스’ (Exiguus Dionysius)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의 교령집이라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그것은 디오니시우스 이전에는 교령집이 전혀 없었는데 디오니시우스는 사도들의 50개 법령을 비롯하여 니케아회의 결정 사항부터 안디옥교회 회의, 라오디게아 회의,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제정되었다는 모두 165개의 법령이 수록되고 있다. 또한 다마스 교황을 계승한 시리키우스 교황으로부터 시작하여 496년 겔라시우스를 계승한 아나스타시우스 2세에 이르기까지 교황들이 쓴 교령형식의 서신

들을 모아서 출판하였다. 여기에 의문이 너무 많다. 디오니시우스는 6세기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1세기 및 3-4세기의 교령집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이시도루스 세빌레 (Isidore of Seville)의 교령집

이시도레는 스페인의 세빌레에서 560년경에 출생한 사람이다. 그는 636년 4월 4일에 스페인에서 사망했다.

이시도레는 교회 최초의 교리들을 백과사전으로 편찬하였다.

- 1) 성서입문 : 성서 각 권의 내용에 관한 짧은 목록
- 2) 성서에 나오는 85명의 전기 (구약 64명, 신약 21명)
- 3) 예배의 기원, 성직자의 의무
- 4) 성서 해석 (구약 129개, 신약 121개)
- 5)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단목록
- 6)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개요

이렇게 하여 20여 항목으로 편찬된 백과사전이다. 그런데 이 '이시도레 교령집'의 특징은 단지 모든 자료들을 한 데 편집한 백과사전적이라는 점이다.

(3) 위-이시도레 교령집

그런데 또 아주 묘한 것은 「위-이시도레 교령집」이 850년경에 또 나온다. 이것은 프랑스의 어느 한 지방에서 편집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된 이시도레 교령집이란 뜻이다. 이 「위-이시도레 교령집」의 특징은 교황권의 강력한 이상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 교령집들을 한 데 묶어 「프슈도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란 문서를 만들어 카톨릭의 교령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이 교령집을 참작하여 성경 해석이나 교회 운영의 지침이나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

2. 교령집의 내용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교령집의 내용은 사도시대 때부터 시작해 무려 8세기까지의 사항을 담고 있다.

· 제1부 : 50년경 사도시대 때 정경화에 관한 기록과 101년 클레멘트 교부로부터 시작하여 314년 멜키아데스 교부까지의 행적과 어록.

· 제2부 : 325년 니케아 회의부터 시작해 680년 3차 콘스탄티노플회의까지

의 각종 회의록과 결의사항. 그리고 ‘콘스탄틴의 황제궁 기증’(Donation of Constantine), 그리스, 아프리카, 스페인 등의 교회 회의록.

· 제3부: 335년 로마 감독 실베스터(Sylvester)부터 시작해 731년 그레고리 2세 때까지의 교황들의 지시교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3. 이시도리안 교령집의 평가

(1) 이 교령집은 위조품이 아니면 거짓 문서이다.

앞서 말한 대로 최초의 교령집을 편찬했다는 디오니시우스는 6세기 사람이다. 그가 어떤 자료와 어떤 근거로 1세기부터 시작해 8세기까지의 내용을 쓸 수 있던 말인가?

(2) 교령집 내용에는 교회와 국왕간의 심각한 갈등을 취급하고 있다.

즉, 교회가 어떻게 세속권한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회역사에 보면 313년 이전까지 즉, 4세기 초 이전까지 교회는 항상 핍박과 박해로 수난만 당하였다. 교회가 세속권한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은 7세기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교령집은 7세기 이후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교령집에 인용된 성경은 5세기 때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Vulgate)이다.

이 성경은 교황의 지시로 제롬이 번역했다(390-404). 그런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원문에서의 번역이 아니고, 70인역(BC150년경 작품)을 번역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9세기 이후에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 오늘날 카톨릭의 공인 성경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교령집은 9세기 이후의 작품일 수도 있다.

(4) 콘스탄틴이 자기가 쓰던 황제궁을 330년의 천도시에 로마 감독 실베스터에게 세례받은 고마움으로 기증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콘스탄틴은 실베스터에게 세례받은 일이 없다. 그는 337년에 ‘유세비우스’(Eusebius of Nicodemia)에게서 임종세례를 받는다.

이시도리안 교령집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성직자가 세상의 권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거짓 문서이다. 이 거짓 문서는 그동안 전혀 역

사적 사실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도와 교황들의 이름을 빌림은 물론이고, 교회회의 이름까지 빌려서 권위의 소재를 삼으려고 하였다. 이같은 문서는 가히 사탄의 도구라 할 만하다.

제 15 장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자기네들은 마호메트교라는 호칭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들은 오히려 이슬람교라는 것을 좋아한다)는 종교가 시작되기 시작한 이래 100여년 만에 과거 로마제국의 전 영토는 말할 것도 없고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일부까지 세력을 펼쳤다.

로마제국이 기독교가 국교였는 데도 마호메트교가 이렇게 급속히 번져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국교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마호메트교의 세계 팽창화는 전 세계 종교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의 본포가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마호메트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석유 경제를 앞세워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랍권이다. 과거의 마호메트교 영향은 중동지방으로 제한되었으나 오늘날 상황은 국제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즉, 오랜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도 마호메트교의 영향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영국에는 200만명의 이슬람교도가 있는가 하면, 덴마크에는 매 주마다 3명씩 이 이슬람교로 개종되어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0년 전에는 아프리카인 4명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도였는데 이제는 3명 미만에 한 명이 이슬람교도로 바뀌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마호메트교 교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십만명이 아랍권에 나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저들은 아랍권의 모하메트 종교의 각종 영향과 식견을 터득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마호메트 종교에 영향을 입었으나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를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저들의 일부다처제라는 제도가 한국민의 기호에 거침돌이 되고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은 마호메트교에 대해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도전자는 이슬람교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마호메트교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이슬람교는 무엇인가?

(1) 이슬람이란 말의 뜻

이슬람이란 아랍어로 '복종, 순종, 귀의' 등의 뜻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들은 자기들의 신인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슬람이란 말은 SILM(‘시름’이라고 발음)이란 어원에서 왔다. 이 말의 첫째 의미는 행복한다는 뜻으로 ‘aslama amrahuila Alah’ 즉, ‘자기 주장을 알라에게 맡긴다’, 또는 ‘자신을 신의 의사에 맡긴다’는 뜻이다. 두번째 뜻은 ‘서로 화합하라,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슬람이란 말은 ‘ISLAMA’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 뜻은 ‘신의 의사에 자신을 맡겼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슬람’이란 말은 SILM(시름)과 ISLAMA가 합쳐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자신들은 이슬람교로 부르고, 모하메트교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신봉하는 종교이지, 예언자 모하메트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슬람교를 마호메트라고 부르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본다.

(2) 이슬람교의 입문

이슬람교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슬람은 인간이 완전하게 사는 방법이고, 인간 존재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세상만사에 걸친 것, 즉 개인생활에서부터 사회, 물질, 경제, 정치, 법률, 도덕, 문화, 국가, 국제문제에 이르는 안내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종교와 세속 쌍방에 걸쳐 전적으로 합일된 생활방식이며 신앙의 자세임과 동시에 예배의 방법이고 거대하고 완전한 법률이며 문화, 문명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제도이며, 상업의 방법이며, 정치이며, 통치의 방법이다.”

그들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용해 보았으나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의 종교는 그 어떤 영역에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금기조항과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리적, 신앙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의 교리나 신조는 아주 간단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이슬람교도가 되는 절차도 간단하다. 저들은 2명 이상의 기성 이슬람 신자 앞에서 아랍어로 된 '가리마'라는 일종의 선서만 하면 이슬람 신자가 된다. 그래서 소박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인에게는 아주 큰 호감을 주는 게 사실이다.

2. 예언자 마호메트

(1) 마호메트의 생애

마호메트(Mahommed)는 AD579년, 아라비아의 메카(Mecca)에서 아버지 '압달라'(Abdallah)와 어머니 '아미나'(Amina)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고, 6세 때 어머니까지 잃었다. 그래서 그의 유년시절은 광야의 어느 추장 아내의 손에서 자라났다. 그는 아주 병약해서 간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소년기를 보낸다.

성장을 하여 삼촌인 '아부 탈립'(Abu Talib)을 따라서 아라비아와 팔레스틴, 시리아 등지로 약대상(caravan)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목자 가운데서 예언자를 부르셨다. 모세와 다윗을 보라"고 하며 양과 염소 장사에 대한 공지를 펼쳤다.

그가 25세 되던 때 자기보다 15년 손 위인 메카의 소문난 부자 과부 '카디아'(Khadijah)와 결혼한다(595년). 그는 결혼해서 2남 4녀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이 6남매 중 딸 '파티마'(Fatima)만 남고는 모두가 일찍이 다 죽는다. 그래서 '알리'(Ali)를 사위겸 양자로 삼았는데 그가 훗날에 '시아파'(Shite) 교주가 된다.

마호메트의 첫 아내인 카디아가 죽자(619년) 그는 또다시 9세된 '아예사'(Ayesha)를 비롯하여 1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호색을 즐긴다. 마호메트는 632년에(6월 8일) 중병을 치르다가 62세로 세상을 떠난다. 그리하여 그의 포교의 중심지였던 메디나(Medina)에 묻혔다.

(2) 마호메트의 포교활동

마호메트는 부유한 과부 카디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색과 여행을 즐기게 되며, 여행 중에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을 만나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타 종교인을 따라 금식기도도 실천해 본다.

그는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그렇지만 여행 중에 귀담아 들

었던 많은 구약, 신약의 성경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40세 되던 해(610년) 히라(Hira)산의 깊은 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때 야심이 많고 남편의 출세에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카디야가 열렬하게 지원을 하였다.

마호메트는 하나님인 알라가 자기를 대 예언자로 부르셨다고 자처하고 3년 동안 열심히 포교를 하였다.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계시한 내용을 어떤 것은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종소리로 기질을 시킨 다음 가르침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마호메트 자신은 아라비아 각처로 다니면서 예언자라고 자처했다. 3년 후에는 자기 가족을 비롯한 40명의 개종자를 얻었다. 이 3년 동안에 각처로 돌아다니며 순례 설교와 우상숭배 공격과 반대자들에게 대한 토론과 더러는 기적도 행하였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반대하는 핍박이 심해져서 더이상 아라비아에서 포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을 한다.

메디나(Medina)에서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된다. 여기에 힘입어 그 해(622년 7월 15일)를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슬람의 원년 기호를 '히즈라'(아라비아어로 Hijrat, 영어로는 Hegira)라고 한다.

메디나에서 624년에는 305명의 열광적인 추종자를 얻게 된다. 그는 예언자로 환영받게 되고 추종자들을 군대로 조직하여 아랍의 이교도들을 쳐부순다. 이때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자와 가족들에게 별을 만들어 우대한다. 630년에 600여 명의 무장된 부하 신자가 유대교와 기독교 정벌을 내걸고 메카로 다시 돌아온다.

메카로 돌아온 마호메트는 300여 종류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는 전쟁을 벌인다. 여기서 승리한 그는 메카를 자기 포교의 본거지로 삼는다. 그는 계속하여 중앙 및 서부 아랍권의 전 지역으로 무력을 갖고 진출하더니 그의 말년에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이르는 북동방까지 군사적 공격으로 확산시킨다. 그리하여 632년, 그가 죽은 해에 모든 아랍제국들로 하여금 그를 예언자로 추대하도록 한다.

코란이라는 그들의 경전 21:107에는, 신약성경에서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곧 마호메트라는 것이다. 마호메트는 아라비아를 중심한 아시아의 각종 이교도들의 타락과 부정부패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힘에는 힘으로, 술책에는 술책으로, 강압과 거짓에는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아라비아 군대, 즉 이슬람 군대는 아주 열광적인 광신자들이며 약탈과 정복에 굶주려있는 무리였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진멸이 일차 목표였고,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에게도 코란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실로 결사적 투쟁으로 포교를 해나가고 있다.

3. 코란(Koran)

(1) 코란의 편집 경위

코란이란 말의 의미는 reading(독서)이라는 뜻이다. 코란은 전체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랍말로는 수라(Suras)라고 하고, 영어로는 Chapters로 되어 있고, 각 장이 가장 짧은 것은 3절이고, 가장 긴 절은 280절까지 있다. 그래서 모두 6,225절(Verses)이 된다.

코란은 마호메트가 히라(Hira)산 위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받은 내용들을 한 데 모은 것이다. 마호메트는 610년부터 630년까지 20년 동안 알라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20년 동안 천사로부터 가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계시를 받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코란의 내용은 마호메트의 생활과 교훈을 알라신의 1인칭을 써서 예언자가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호메트 자신이 글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그의 추종자들에게 기록하게 해서 후대에 완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코란은 마호메트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오늘날 코란이 완성되기까지는 마호메트가 죽은 후 12년 동안 세 차례의 편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일 처음에 코란을 쓴 사람은 '아부베크'(Abubekr)와 '자이드'(Zaid)였다. 마호메트는 글을 몰랐으므로 두 사람이 마호메트의 서기 노릇을 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죽은 다음에 제1대 '칼리프'(Calip, 이것을 우리 말로는 '교통(敎統)'이란 뜻)로 아부베크가 된다(632-634년). 제2대 칼리프는 '오마르'(634-644, Ormar), 제3대 칼리프는 '오토만'(644-656, Otman)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코란은 제3대 칼리프인 오토만 때에 완성된다.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을 알라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마호메트를 모든 예언자(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메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믿는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을 '키타브 알라'(Kitab Allah), 즉 알라의 책이요, '칼람 알라'(Kalam Allah),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코란이 아라비아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어는 알라가 사용한 '거룩한

언어'(Holy language)라고 한다. 그래서 코란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세계 모든 이가 아라비아어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개방적 포교정책에 의해 1930년에 '케말 아타튀르크'가 터키어로 번역한 것이 시발이되어 영어로도 코란이 출간되고 있다.

코란은 114 수라(Suras)인데 각 수라마다 '알라신의 이름으로 이른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In the name of the merciful and confassionate god.)라고 시작된다. 코란의 크기는 신약성경의 3분의 2정도 된다.

(2) 코란의 중요 내용

코란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7신 5행(또는 5주(五柱))'이다. 이제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

1) 7신(7 articles of faith)

① 유일신을 믿는다.

코란 1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신(알라)과 같은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며, 신만이 모든 것을 듣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라 신은 한 분, 오직 한 분뿐이시며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이시며 신은 누구의 몸에서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낳지도 않으며 신과 비교할 그 무엇도 없느니라.”

② 천사들을 믿는다.

“천사들은 지고하신 주님을 받들고 명령받은 모든 일을 하느니라 이들은 음식이 필요없으며 성이 없고 천지를 왕래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신에게 수종을 든다.” 그래서 코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천사들이 있다. 천사뿐만 아니라 악령과 극락의 미녀들 이야기도 있다.

③ 경전들을 믿는다.

이슬람교에는 104권의 경전들이 있다. 이 경전들은 모세를 통해 내려진 율법과 다윗을 통해 내려진 시가들(Psalms-Zabur),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들(Evangel-Injil), 그리고 마호메트를 통해 계시된 코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은 코란이다.

④ 예언자들을 믿는다.

이슬람은 약 20만명의 예언자를 믿는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언자는 6명이다(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메트).

인류 최초의 예언자는 아담이고, 최후의 예언자는 마호메트이다. 모든 예언자들의 목적은 알라의 복음인 ‘이슬람’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표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예언자들이 알라신의 제한된 사역을 완성했을 뿐인데 최후의 예언자 마호메트만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특수한 사명을 완수하였다.

⑤ 숙명론을 믿는다 (=정명관, Predestination of good and evil)

알라는 천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다. 그 알라의 결정은 인간 행동의 자유의지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고로 그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결정되었을 때 그것은 알라의 결정이므로 그에게 맡기라고 한다.

⑥ 최후심판을 믿는다.

모든 인간은 사후에 신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시의 행동의 선악에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

⑦ 부활(The Resurrection)을 믿는다.

모든 인간은 사후 영계에서 부활하여 악인은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남게 되며, 선지는 불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살았을 때 저지른 악행들을 정화의 불로 제거해가면서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이 말하는 지옥과 낙원에는 7층 천국과 7층 지옥이 있다.

7층 천국

- 1층: 1개월 동안 걸어야 다 다닐 수 있는 큰 강물이 넘치는 곳
- 2층: 이슬람 신자들만이 노는 곳
- 3층: 이슬람 신자를 수종하는 8만의 종들과 예언자들이 함께 사는 곳
- 4층: 제한이 없는 아내, 음식, 음악이 풍부한 곳
- 5층: 매 1천년이 지나면 향락이 더 향상 되는 곳
- 6층: 매 100년마다 22만4천의 예언자로 늘어나는 곳
- 7층: 최종적으로 313명의 사도가 최후 주인이 되는 곳

7층 지옥

- 1층: 이슬람 교도들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
- 2층: 유대인들이 가는 곳
- 3층: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
- 4층: 고대 아랍족의 하나인 사비안(Sabians)족이 가는 곳
- 5층: 고대 페르시아의 한 족인 마기(Magi)족이 가는 곳
- 6층: 위선자들이 가는 곳
- 7층: 타락자(이슬람교에서)들이 가는 곳

2) 5행 (Five Practical Duties)

전통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다섯 가지 의무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5행, 또는 5주(이슬람의 다섯 기둥들)가 있다. 그런데 카리지 파는 여섯번째로 지하드를 추가하였으나 전체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① 신앙고백 (Shahah 또는 Iman ; Witnessing)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신앙고백으로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마호메트는 그의 예언자이다' 이 말을 아랍어로 완전하게 발음되도록 암송해야 한다.

이것을 아랍말로 읊기면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만 올라술 알라'(There is no god but Allah, and Mahommed is the prophet of Allah.)

이 신앙고백이 아라비아 말의 발음대로 완전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이 진짜 이슬람교도로 간주된다.

② 예배 (Salah ; Prayer)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의 회중기도를 해야 한다. 그 다섯 번의 명칭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EAJR (05 : 20), ZOHR (13 : 00), ASR (16 : 00), MAGRIB (18 : 40), ISHA (20 : 10)

이것은 해뜨기 전에, 정오 직후에, 오후 늦게, 해가 진 후에, 자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코란에는 세 번(아침, 오후 중간, 저녁)만이 언급되어 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손과 얼굴과 발을 씻는 소정이 행해져야 한다. '무에진'(기도하라고 인도하는 사람)은 모스크의 높은 곳(첨탑과 같은 곳)에서 큰소리로 영창한다.

기도가 시작되면 이만(기도 인도자)은 메카를 바라보고 앞에 서며, 회중은 횡대로 줄을 맞추어 그의 뒤에 서게 되고, 그를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을 따라 한다.

금요일 오후 기도에는 기도 대신에 강화(Khutbah)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의 설교형태로 강화자는 코란의 한 구절을 음송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강론을 한다. 그 내용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정치적일 수도 있다. 이같은 강론은 일반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교리가 하도 엄격하여 5회 기도에는 병자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병자는 침상에서 또는 누워서 기도가 가능하다. 여행시에는 두 번의 오후 기도를 하나로, 일몰과 저녁 늦은 기도를 한 번에 드릴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단독 기도의 예배보다는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드리는 기도는 죽어서 심판 때 27배의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큰 합동기도를 실시하려고 한다.

③ 의무금(자카트, **Zakat ; Alms**)

'자카트'는 '정화'를 의미한다. 저들은 의무금을 냄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도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순수하게 정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코란에 의해 부과된 영구적 의무금이다. 그 의무금의 양은 수입에 따라 다르다.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은 10%, 인공적으로 물을 대서 농사한 것은 5%, 현금이나 귀금속으로 바칠 때는 2.5%를 낸다.

이 자카트는 국가에 의해 수납될 수 있으며, 자카트의 사용처의 기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슬람을 위한 전쟁 포로들의 몸값을 치르는 곳에, 빚진 자를 구제하는 일에, 모슬렘 모스크의 종사자, 포교 사업, 그리고 여행자의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데 쓰인다.

이 의무금이 현대에 와서는 자발적인 납부로 된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다시 의무금으로 환원하자는 나라도 있다. 저들은 자카트가 신의 숭배는 물론, 재산의 정화와 신성화를 가져오고 축재와 병환을 고쳐준다고 믿는다. 이 자카트는 '라마단'(Ramadan)의 성월이 끝나는 합동예배 전에 낸다.

④ 단식(Shamu ; Fasting)

코란 2 : 183-185에 나오는 라마단(Ramadan)월(이슬람역-Hegira)로 음력 9월은 성월이다. 이 한 달 동안은 단식을 해야 한다. 단식은 동틀 때에 시작되어 해질 때에 끝이 난다. 낮에는 먹고 마시고 흡연하는 것이 금지된다.

코란 2 : 185에는 코란이 계시된 것이 라마단월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97 : 1에는 '결정의 밤'에 계시되었다고 한다. 병든 자나 여행중인 자는 기간을 연기해서 다른 때에 동일한 기간의 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들은 이렇게 금식함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또 결단력과 의지와 인내심을 길러서 유혹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해 준다고 한다.

⑤ 순례(하즈, **Hajj ; Pilgrimage**)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일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순례의식은 매년 두 알-히자월(이슬람력의 마지막 달)의 7일에 시작하여 10

일에 끝난다. 순례자는 성도에서 반경 10km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들은 의식이 끝날 때까지 두 개의 솔기가 없는 옷을 입고 면도도 하지 않고 머리카락, 발톱도 깎지 않는다.

성소에 도착한 이들은 메카의 검은 돌(하자르 알-아스와도)에 입맞추는 일, 카바를 7번 순행하는 일, 사파산과 마르와산을 일곱 번 오르고 그 사이를 달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메카에서 메디나까지 몇 마일을 행진한다.

이같은 순례가 현대에 와서는 아랍 각 나라의 외환사정으로 순례 횟수를 제한하고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매년 150만명씩은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0만명은 아라비아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이같은 순례에 만민평등과 이슬람권의 결속을 다지는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 이슬람교의 특수 교리

1) 음식과 주류에 관한 사항

①허용된 음식(Halal) ; 해양동물은 어떤 경우든 허용된다. 또 가축(Domestic fowl)인 낙타, 소, 양, 닭 등은 조건부를 달아 정당하게 먹을 수 있다.

②금지된 음식(Haram) : 술, 마약을 강력하게 금하고 죽은 고기와 피, 돼지 고기와 알라 이름으로 금지된 동물은 먹을 수 없다.

2) 의복과 옷차림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는 신체의 특수부분(생식기)을 감추기 위함이고, 청결한 장식을 위함이다. 고로 여자들의 경우 돌출부분이 드러나는 옷은 모두 금지한다.

3) 직장 선택

이들은 매음, 댄스, 섹스류의 그림, 조각, 주류 양조업, 사기 공갈범, 매점, 매석, 보험회사, 미신 사업, 돌팔이 성직자나 학자, 요술, 고리대금업을 금지한다.

4) 결혼과 가정생활

이슬람교의 결혼관은 종족보존에 있다. 정당하지 못한 동거생활, 간음과 동성애, 색정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금한다. 또 결혼 능력이 있는 자가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금한다. 또 근친가족이나 수양가족, 인척, 이교도와의 결혼도 금한

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독교인, 유대교인은 그 종교가 빛나기진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그들과의 결혼이 허용된다.

5) 이슬람의 다처주의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밀회하거나 또는 이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내를 더 맞아들이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구약의 족장들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 교리의 합리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마 5:17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한 뜻은 신약에서조차도 일부다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완성시키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갈라진 물몬교의 일부다처주의가 곧 기독교의 일부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코란 4:3은 “만약 너희가 전쟁 고이들을 공평하게 돌볼 수 없다면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 4명까지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들을 돌보게 할지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러 아내에게 공평하게 대할 능력이 없다면 오직 한 명의 아내만을 둘 것이다.”

저들은 아내가 불임여성일 경우, 아내가 성병이 있는 경우, 아내가 남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이 제도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저들은 또 이런 논리도 전개한다.

남달리 성적욕구가 강한 남자가 그 아내가 병들었거나 불감증이거나 월경기간이 긴 여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일부다처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그들이 성실하게 그 제도를 지키는가? 그런 나라일수록 사생아와 간통과 혼외 정사, 미혼모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럴바에야 마호메트처럼 (그는 12명의 아내를 둠) 여러 명의 처를 얻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4) 이슬람교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코란 3:42-51에는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알라께서 마리아를 간택하사 깨끗이 하여 여인들 중에 모범이 되게 하셨고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예고하였다. 알라의 기적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먼 곳에 은거해 있다가 출산 후 아기와 함께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불륜의 죄로 고발하자 그는 갓난아기를 가리켰다. 그러자 아

▼오늘날의 이스탄불 (Istanbul)



기는 죽석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자기는 알라의 종이며 예언자라고 말했다.”

코란에 설명된 예수는 알라의 아들이 아니며, 아담과 다름없는 피조물이다. 예수는 단지 알라의 사자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과 같은 한 인간이며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했다.

그는 살해당하지도 아니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되지도 않았다. 그는 살아서 오직 알라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가르친 예언자이다.

코란 4: 157-158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말한다. 막상 십자가 위에 처형당한 인물은 예수를 배반했던 유대인데 이것은 알라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며 자비와 용서가 풍만하신 알라께서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인류 죄악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운명당한 소문이 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사지내려고 할 때 양 한 마리를 형상화시켜 대신 죽게 하셨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복귀했다고 한다.

4. 이슬람교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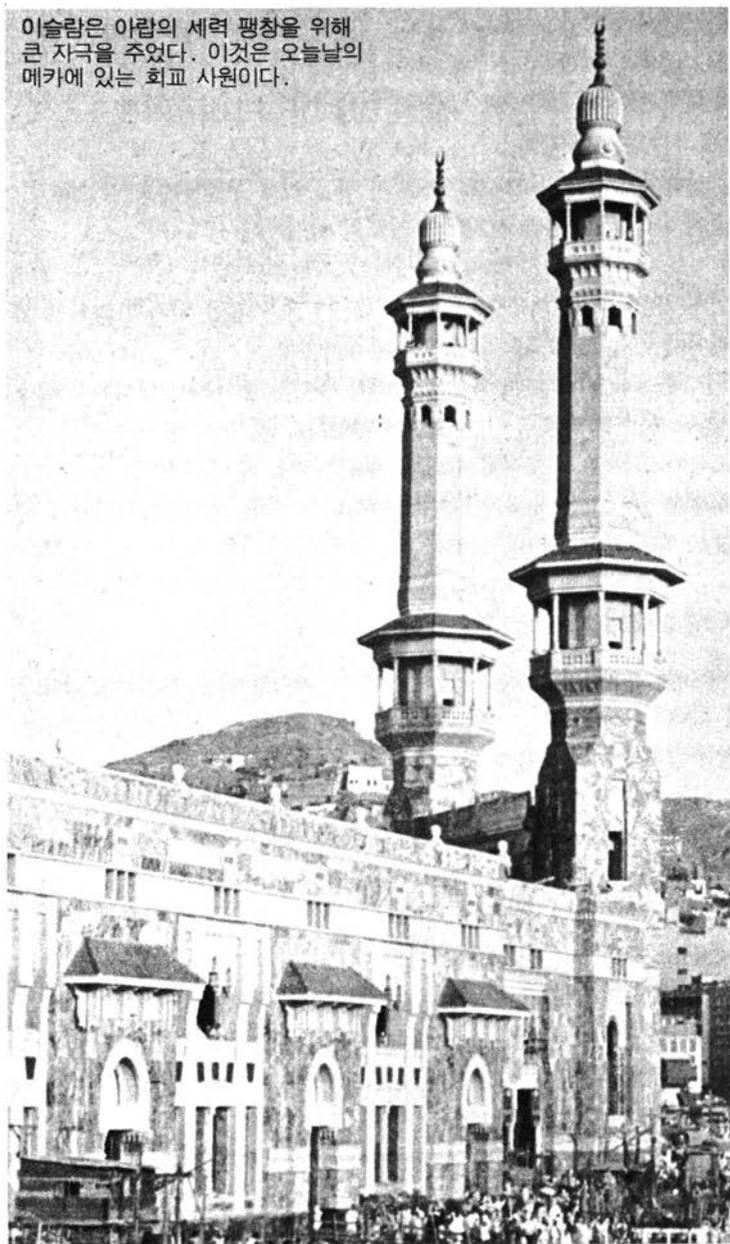
이슬람교의 분파들은 73파가 있다고 한다. 여기도 아주 복잡하고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파별이 있는가. 오늘의 중동사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파별 역사를 알아야 한다.

우선 이슬람교가 파별이 생기는 원인과 각 파별의 현황 등을 차례로 살펴볼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대로 마호메트는 632년 6월 8일에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후임자로 제1대 칼리프(Khalif; 교통)에 ‘아부베커’(Abubeker; 632-634)가 되었고, 제2대 칼리프는 ‘오마르’(Ormar; 634-6434), 그리고 제3대에는 ‘오트만’(Otman; 644-655)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3명 모두가 비 마호메트 혈통이었다. 그러자 제4대 칼리프에는 마호메트의 혈통을 이은 정통파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마호메트의 조카요, 사위이기도 한 ‘알리’(Ali)였다. 그래서 알리가 제4대 칼리프로 등장했는데 그는 6년 후에 피살당한다(655-661).

이로써 Ali를 따르는 파와 알리를 반대하는 두 세력이 생긴다. 그래서 알리를 따르는 파, 또는 알리의 당으로 일컫는 시아파(Shiah 또는 Shiite)와, 종래의 관행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알리를 반대하는 ‘수니파’(Sunni)로 갈라진다.

이슬람은 아랍의 세력 팽창을 위해
큰 자극을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메카에 있는 회교 사원이다.



(1) 수니파(Sunni) 또는 순나(Sunnah)파

이슬람 교도중 가장 최대의 파이다. 자칭 전 이슬람 교인의 약 95%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성에서 주장하나 실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수니 또는 순나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란 뜻이다. 이 말은 또 '결속된 다수'(al-jamaah)라는 부가어가 따른다. 이같은 용어가 붙게 된 것은 변덕스럽지 않고 똑똑히 보이는, 곧 규명된 길에 다수가 결속되어간다는 뜻을 말해준다.

이 수니파는 '알리'(Ali)가 4대 칼리프로 군림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뭉쳐서 하나의 대 파벌을 형성하였다. 주로 아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니파 속에는 4개의 학파가 존재한다.

1) 알-아샤리파

인간의 행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간에 의해서 습득되었으며 인간의 책임이란 이러한 획득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 행위자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알-마투리디파

신은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의 유일한 창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단독적인 행위자이다. 왜냐하면 행위와 창조는 동일한 인간행위의 다른 측면들과 관계된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의 유형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학파는 10세기에 생겨서 이슬람 교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으나 알-아샤리파는 인간의 이성이 선과 악을 구별해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알-마투리디파는 인간의 이성은 선과 악을 구별해 낼 능력이 있으며, 계시는 인간의 감정의 횡포를 막는 일에 있어서 이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3) 알 가잘리파

앞서 개의 학파 중 세월이 흐름과 함께 알-마투리디 학파는 점점 약해지고 알-아샤리파가 널리 확장된다.

4) 이븐 타미야파

14세기 신학자로 유일한 참된 존재인 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으로 되돌아가게 공헌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모슬렘 세계의 개혁정신으로 등장한다.

(2) 시아파(Shiah or Shiite)

시아파는 제4대 칼리프로 마호메트의 사촌이며 마호메트의 딸 파티마(Fatimah)의 남편이니 사위도 되는 ‘알리 이븐 아비 탈립’을 마호메트가 후계자로 선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마호메트는 알리를 유별나게 사랑한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알리의 아들이며 마호메트의 손자인 ‘하산’(Hasan)과 ‘후세인’(Husayn)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알리 입장을 무시하고, 알리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부베커’를 칼리프로 선출하였다.

이에 알리파에서는 수니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에서 알리가 전사당한다. 그러자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수니파와 전쟁을 벌이다가 바그다드 남쪽 케트발라에서 전사당한다.

이 결과 시아파는 수니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그래서 시아파에서는 후세인을 순교자로 추앙하고 그가 전사당한 케트발라를 메카 못지 않은 성지로 여기고 있다.

이들 시아파는 현재 신도수가 4천만 정도로 주로 이란의 공식적인 국교이다. 이 시아파가 생기게 된 원인은 알리와 우마야드 왕조(661-750) 사이의 적대감 때문에 생긴다. 알리가 죽은 후 알리의 가문에서는 자기들에게도 치리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학을 점차 발전시켜서 ‘이맘’(imam, 모범적인 영도자란 뜻)만이 무오하기 때문에 코란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맘을 내세워 시아파는 수니파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시아파는 수니파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우며 인간의 이성으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시아파에서는 수난 주제를 채택한 것이 크게 다르다. 수난 주제란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우마야드 왕조 군대의 손에 자발적으로 죽는다(680년). 이것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자 그 뒤부터는 무거운 쇠사슬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거나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종교 행렬을 한다.

이같은 수난 주제가 아프카니스탄, 인도에 있는 수니파 교도들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이같은 끔찍한 종교행진은 하지 않는다.

시아파에는 수십 개의 학파가 있다.

① 이스마일파 : 시아파의 주류파다. 이 시아파가 또 다시 분리하여 니자리파,

무스탈리파로 나눌 수 있다.

- ② 누사이리파
- ③ 야디지파
- ④ 드루즈파 : 가장 큰 호응을 얻는다.

이렇게 이슬람교는 수십 가지의 분파와 학파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가 자기들 목소리를 크게 하는 데 열중한다.

5.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

(1) 코란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하는 군사적 종교이다.

(2) 성서를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도 부정한다.

(3)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한다.

(4) 구속의 개념이 없고 구원에 관한 설명이 없다.

(5) 천국을 말하나 모조리 쾌락적인 곳이다.

(6) 기도를 하긴 하나 가슴에 우러난 기도가 아닌 제도적, 관습적인 기도를 한다.

(7) 양심적인 기능이 없고, 육욕적인 것들 뿐이다.

(8) 죄가 무엇인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9) 일부 다처주의의 교리는 음란한 종교성을 말한다.

(10) 보편적인 종교이다. 즉, 아무에게나 구원이 쉽게 가능하다.

(11) 기독교, 유대교를 원수 종교로 간주하여 강한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12) 각종 기독교의 교리를 표절하여 자기들 멋대로 재 조정해서 사용함으로 기독교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13)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이들은 강력한 전투 종교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적인 존재이다.

(14) 한국에도 1982년 9월에 이슬람대학이 완공되었다.

이제 저들은 이 땅의 지식층과 경제계, 그리고 농촌을 향해 공략하고 있다.

이슬람 교도를 개종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1265년까지 50년간을 이슬람권 선교에 투신했던 이슬람 선교의 개척자 Raymond Lull(1215-1315)은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설복으로 50년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그가 80

세의 노구가 되기까지 수고하였으나 별로 큰 성과도 얻지 못하고 그들에게 돌아 맞아 순교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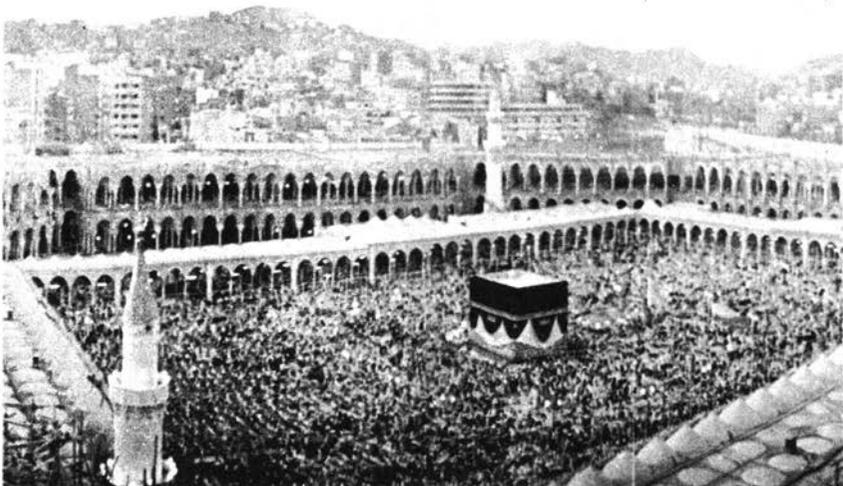
역시 이슬람권 선교사 중 하나였던 Samuel M. Zwemer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눅 5: 5)라는 말씀으로 그의 선교보고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같은 세력을 존재케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교회사를 공부해 오면서 깨달을 수 있듯이 신약교회 때 사도들은 그토록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어떠했는가? 교회는 정치와 야합을 해서 교회의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과 안일에 빠져 부패와 타락을 거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부패와 변질을 그냥 묵과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유기할 때 저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큰 채찍의 심판을 사용하신다.

마호메트, 그것은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다.



▲메카는 이슬람의 중심지이다. 회교 대사원 안에 있는 카바(Kaba, 혹은 검은 돌)

제 16 장 동서교회의 분리

오늘날 우리는 서로마 카톨릭교회와 동쪽의 회랍 정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두 개의 교회는 왜 분리하게 되었는가? 알려면 이것은 로마제국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살피기 위해 제국의 역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로마제국의 쇠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AD330년에 그의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던 얘기는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여기 황제의 천도 후에 로마는 정치적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 동로마에 가 있는 황제들은 전에 수도였던 서 로마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제한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에는 동서 로마제국이 395년에 분리하게 된다.

그런데 서 로마제국은 계속 야만족들에게 침략을 당한다. 410년에 비시고트족(Visigoths)은 발칸반도 일대를 휩쓸고 로마를 점령하였다. 415년에는 스페인까지 침공하여 8세기까지 통치하였다. 그동안 로마에는 모두 3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15명만이 자연사를 했거나 전사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암살되거나 또는 퇴위를 당하였다.

또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시를 약탈하였다.

이때 로마의 참상은 고트족의 침략 때보다 더욱 혹심하였다. 이같은 야만족의 침략은 이탈리아에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였다. 비록 명목상으로는 서 로마제국의 왕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왕은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

476년에는 게르만족의 헤룰리(Heruli)인 장군 '오다케르'(Odoacer)가 서 로마의 최후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Romulus Augustulus)를 폐위시키고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인 '제노'(Zeno)에게 통보를 하였다. 이로

써서 로마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역사의 장을 닫게 된다.

이 이후로 서 로마교회의 감독들 여러 명이 순교를 당한다. 그러나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에서도 서 로마의 멸망을 바라만 보고 그냥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동 로마의 유스티니안 황제는 ‘베리사리우스’(Belisarius) 장군을 서 로마에 보내어 이탈리아를 평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20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오스트로고트’(Orstrogoths)족을 멸망시켰다.

그러자 568년에 롬바르드족이 다시 이탈리아를 침략해 왔다. 그런데 이 때에는 동 로마의 비잔틴제국도 세력이 약화되어서 서 로마를 도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서 로마제국은 5세기부터 8세기까지 계속하여 침략자들의 침공으로 혼란이 거듭되게 되었다. 여기서 소위 교황청 사람들은 자기들 도움을 동 로마가 아닌 북쪽의 프랑크족(이들이 프랑스라는 이름이 연유된다)들과 동맹관계로 발전되게 된다.

이같은 로마제국의 쇠퇴는 교회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는 수도원 주의의 강한 등장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청의 교황제도의 등장이다.

2. 교황청의 부상

교황권 제도의 발전 과정은 앞서 제 13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교황(Pope)이란 말의 원뜻은 ‘아버지’(father)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 교부들이나 감독들이 교황이라고 불려졌었다. 예컨대 칼타고의 ‘키프리안’을 교황이라고 했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도 교황이라고 했다.

결국 서방교회에서는 단지 로마 감독만을 교황이라고 부르도록 국한시켰으나 동방교회에서는 후대까지 계속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감독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으로 군림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로마 감독만을 교황이라는 호칭을 쓰려고 시도한 사람은 ‘레오 1세’였다. 레오 1세는 그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같은 일을 친척시켜 나가는 데 크게 힘입은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으나 이탈리아 로마는 천도된 후 계속 야만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였다.

452년 흉노족인 ‘아틸라’(Attila)가 쳐들어왔을 때 그와의 담판으로 침략 위기에서 모면하였다. 또 455년 반달족이 침략했을 때 레오는 켈세릭이라는 적의 지도자와의 협상으로 로마의 방화를 저지하였다.

이 당시 로마의 관리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들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였고,

교회 감독이 국가문제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정치적 상황에 힘입은 레오는 로마교회가 예수님의 후계자인 베드로에 의해 세워졌으며, 로마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모든 교회의 뿌리이므로 감독을 ‘우주의 아버지’인 교황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에 다시 베네딕트 1세(579, **Benedict I**)는 롬바르드족 침략 때 사망하였고, 그 뒤를 계승한 펠라기우스 2세(**Pelagius II**)는 적군들에게 뇌물을 주어 도시를 구하였다.

펠라기우스 2세는 롬바르드족에 의해 짓밟힌 로마시 재건을 위해 도시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매장하고 굶주린 주민들에게 양식을 배급하는 데 노력하다가 결국 자신도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그 후 그레고리가 등장하여 교회의 감독만 아닌 로마시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처리한다. 이 그레고리가 로마 시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활용하여 로마 감독은 서방교회 전체의 통치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스페인과 잉글랜드를 자기 영향권 안에 두었다.

서 로마교회는 비잔틴 제국인 동 로마보다는 북방의 프랑코 왕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교황과 프랑코 왕국과는 밀접해진다. 이같은 때 ‘자카리아스’교황이 프랑코의 ‘칠디릭’ 3세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 ‘페핀’을 왕위에 앉히는 데 공헌한다.

그 후 자카리아스 교황이 죽고(752년) 후계자인 스테픈 2세(**Stephen II**)는 페핀 왕에게 교황청이 수고한 대가를 받아낸다.

페핀 왕은 자기를 왕으로 앉혀준 교황청에다 롬바르드족으로부터 탈환한 수개의 도시들을 교황에게 양도한다. 이때부터 교황들은 막대한 영토를 소유하는 통치자가 되게 된다.

이 무렵 8세기에 ‘콘스탄틴의 기증’(Donation of Constantine)이라는 위조 작품이 나온다. 그 내용은 콘스탄틴이 AD330년에 천도시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라테라노궁’(Laterano)과 로마의 토지와 이탈리아 전 지역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콘스탄틴이 324년에 실베스터(**Sylvester**)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라테라노 궁은 원래 로마 원로원의 의관이었던 라테라노가의 소유였다. 그런데 네로 왕제는 그를 모반죄로 몰아 죽여버리고 그 저택을 소유하였다. 그 후 황제들의 소유로 전승해오다가 330년 이후부터는 교황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이 라테라노궁은 천여년 동안 증축을 거듭하며 역대의 교황들이 주재하였다.

그러다가 137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바티칸 궁에서 교황들이 거하고 있다. 하 여간 콘스탄틴이 기증했다는 사실부터 황제가 많은 영토를 하사했다는 주장은 그 당시가 아닌 8세기 때 프랑코 왕 '페핀'이 땅을 주는 무렵부터 생겨진 거짓 문서이다. 이것은 감독의 독립과 특권을 한층 드높이려는 조작에 의한 위조작품 이다.

그리고 교황청이 결정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AD800년 성탄절에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누라'라고 불리는 프랑코족 찰스에게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우며 그를 서방제국의 황제라고 임명하였다.

이것은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최초의 역사였다. 이로부터 교황은 세속 황제 들을 자기 권한하에 두려는 교황권 지상주의가 시작된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교회는 그레고리 3세 (731-741, Gregory III) 때에 이르 기까지는 교황이 선출되면 반드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만 했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이 800년에 프랑코 왕 '샤를마뉴'를 왕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동로마와 관계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황청은 이제 프랑코 왕국과 동맹관계 가 되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렇게 교황청의 부상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된 시대적 산물이었 다.

3. 동서교회의 분리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와 희랍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로 분리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두 개의 로마제국이 분 리된 것이 큰 원인이었다. 이제 동서교회의 분리과정을 살펴보자.

(1) 정치적으로 멀리 395년에 동서 로마제국이 분리되어 힘을 잃다가 드디어 476년에 서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동서간의 관련성이 희박하게 되었다.

(2) 또 AD800년에 교황이 프랑코 왕에게 왕관을 수여함으로써 교황청과 동 로 마제국과는 정치적으로 무관함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제국간의 전쟁으로 인종들의 이동이 심해 인간성의 차이들에서 오는 정치 적, 문화적 차이가 한 요인이 되었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철학 적이어서 계속하여 많은 논쟁이 설사이 없이 벌어졌다.

그에 반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실제적이어서 실제 문제에 대한 관 심이 많았다. 그래서 니케아신조 중에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산출적 로

고스 조항 때문에 동서교회가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다.

(4)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와의 교권 쟁탈싸움 때문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콘스탄티노플교회에서 비롯된다.

콘스탄티노플의 대 감독장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가 있었다. 그는 동로마 황제 미가엘 3세의 외숙인 '바르다즈'(Bardas)의 불륜함을 들어 교회 성찬식 참예를 금지시켰다. 이에 황제는 진노하여 이그나티우스를 반역자로 몰아 투옥시켰다. 그리고 '포티우스'(Photius)라는 호위병장을 대감독으로 앉혔다.

그러자 모든 국민들은 이그나티우스의 파면에 불만을 품었고, 이에 대해 황제에 대한 격심한 반대가 일어났다. 미가엘 3세 황제는 드디어 861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지방대회를 열고 이 사건을 토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로마 교황 니콜라 1세도 이 회의에 가담하여 이그나티우스를 면직하고 프포티우스를 인정하게 된다.

이그나티우스는 자기의 억울함은 콘스탄티노플에서의 회의가 아닌 서쪽 로마 대회에서 재심할 것을 로마 교황에게 신청한다. 이에 교황 니콜레 1세는 다시 로마에서 지방대회를 소집하여 이그나티우스가 옳고 그만이 대감독이며, 포티우스가 감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를 파면하도록 가결했고, 만일 불응시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포티우스는 다시 콘스탄티노플의 지방대회를 소집하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대등한 교회임으로 로마교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포티우스는 두번에 걸쳐 대감독이 된다(850-867, 878-886).

그는 재임 중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의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대감독들과 함께 로마 교황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비리와 신학적 잘못들을 지적하여 교황의 면직과 출교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로마 교황은 동방 헬라교회의 비난을 무효라는 답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동서방 교회의 반목은 여러 해를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11세기에 와서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즉, 콘스탄티노플의 대 감독장인 미카엘 세투라리우스(1043-1058, Michael Cerularius)가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서 로마식을 따르는 라틴풍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폐쇄하고 수도사들을 축출하였다. 여기에 불가리아 대감독도 호응하여 이탈리아 교회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라틴교회의 부정을 폭로하였다.

로마교회 교황 레오 9세는 이를 반박하였고, '훔벌트'(Humbert)를 단장으로 하는 사태수습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플로 보낸다. 로마 교황을 대표한 훔벌트는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 세루라리우스와 모든 중재노력이 실패하자 1054년 7월 16일 동방교회의 대표적 교회인 소피아 교회의 상제단 위에 교황의 이름으로 파문장을 던지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세루라리우스 역시 로마 교황에게 파문장을 보냄으로 응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동서교회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오늘까지 분열의 상태에서 서로 제 갈길을 가고 있다.

그 후 1274년 리용에서 1439년 플로렌스에서 동서교회가 다시 합치려 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에게 함락된 후부터는 양 교회는 아무 노력도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동방의 회랍정교회와 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결국 서로가 자기 권위를 세우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인간 욕구의 결과로 생겨진 유산물이 되고 말았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였다. 지도자들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에게서는 전혀 이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온갖 종교적 술어로 가리워진 채 오늘까지 그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소위 교회 정치가들의 이같은 작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제 17 장 십자군 전쟁 (1096-1270)

십자군 전쟁은 유럽 전 국가들이 호응하여 동쪽의 신흥세력인 아랍인을 저지하려고 일어난 세계적 전쟁이었다. 이 십자군 전쟁에 전 유럽이 공동으로 같은 보수를 취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적으로 볼 때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11세기 유럽 각 나라들은 봉건주의로 대표되는 몇몇 왕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형태는 나라라고 하지만 완전한 국가 형태로 조직된 것이 아니고, 큰 가문의 제후였던 봉주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가가 이루어지면 사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같은 국가적 진로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대안이 곧 성지순례라는 것이었다. 성지순례는 이미 4세기 때부터 시작되어 왔었다. 그런데 AD638년에 이슬람교의 제2대 칼리프인 '오마르'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된 후 성지가 많이 파괴되고 변형되었었다. 그렇지만 성지순례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1075년 터키군이 성지를 점령하고서부터는 순례자에 대한 방해와 잔혹한 취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동방의 비잔틴 제국은 더욱 심각한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터키가 모슬렘교로 개종한 '셀주크 터키인'(Seljuk Turks)이 계속 커져서 1085년에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그들 손에 넘어갔고, 1092년에는 니케아가 역시 터키 손으로 점령당하였다. 여기에 비잔틴 제국의 위협을 느낀 황제 '알렉시우스 콤비누스'는 서방 국가들에게 원조를 청하였다.

이 무렵 서방 국가들은 다년간 흉작과 터키인의 순례 방해로 인해 동서양의 무역이 단절됨으로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동방의 비잔틴에서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때 교황청에서는, 동방의 형제 기독교를 도움으로 동서교회가 재 연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성지를 재 탈환하는 것은 기독교인 사회의 자체방어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전쟁을 통해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믿게 되었다.

이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교황 루느비누스 2세(1087-1099, Urbanus II)였다. 그는 1095년 11월 11일 ‘클레르몽’(Clermont)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는 주로 남부 프랑스의 주교들이 대부분이었고, 북부나 기타의 주교들은 드문드문 참석하였다.

여기서 교황은 교회 교령들을 처리한 후 동방의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사하는 데 특사교령을 발표하였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 말한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명령하신다. 전쟁터에서나 혹은 전쟁을 향해 가다가 육지나 해상에서 생명을 걸고 바치는 자들은 즉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에 의거하여 참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하사한다.”

교황은 이같은 하사 교령 발표 후 옥외집회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참전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평화를 깨트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자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교황의 연설 후에 군중들은 ‘데우스 볼트’(Deus Vult), 즉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화답하였다. 이같은 군중들의 호응은 그 당시 가뭄과 전염병으로 시달리면서 온갖 종말론적인 환상의 소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혜성과 천사들이 동쪽의 지평선 위에 걸려있는 ‘성스러운 도시’(the Holy City)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또 수도사였던 ‘베드로’(Peter the Hermit)가 ‘성지를 이교도의 손에서 다시 찾자’는 열광적인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거룩한 싸움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병사로 이교도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간주되어 많은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귀족들과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흉악범들도 전쟁에 지원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지 탈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세기적으로 온갖 화제를 남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다.

1. 제 1 회 십자군(1096-1099)

교황 우르바누스의 연설에 호응하여 동방에서나 서방에서 다같이 전쟁준비가 시작되었다. 동방의 '알렉시우스'(Alexius) 황제는 기사들의 대거 유입에 대비하여 군수물자 조달에 나섰다.

그런데 평민 십자군으로 영성하게 조직된 대중설교가 '피터'(Peter of Hermit)와 그의 동료 '월터'(Walter the Penniles)에 의해 소집된 소 군단이 콘스탄티노플에 선착하였다. 이 피터의 소 군단은 정열적 의욕만 갖고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터키군에 의해 거의 전멸되었다.

교황 우르바누스에 의해 원정을 나선 주력부대는 네 개였다.

첫 부대는 프랑스왕 필립 1세의 동생 베르망드와의 휴그(Hugh of Vermandois)였다. 두번째 부대는 이탈리아 남부출신 노르만족인 로버트(Robert)와 그의 아들 '보헤몽'(Bohemond)였다. 세번째는 가장 큰 부대로 툴루즈 백작의 생질인 레이몽(Raymond)에 의해 소집된 군대였다. 네번째는 불란서의 부용의 가드프리(Godfrey of Bouillon)가 인도하는 부대였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하였으며, 황제 알렉시우스의 응송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주로 프랑스 사람들로 제1차 십자군이 구성되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4천명에 달하는 기사들과 2만 5천의 보병들로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운집함은 물론이고 수십만의 군대가 형성된다. 이때 알렉시우스 황제는 비잔틴 제국의 이익을 위해 각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였다.

한 가지는 터키군대가 침략해서 빼앗아간 이전의 비잔틴 영토를 전부 회복할 것과 또 앞으로 영토를 회복하여 그곳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에게 충성을 계속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이에 4개의 주력군은 황제의 요청대로 맹세를 한다.

1097년 6월 19일에 '니케아'가 다시 회복되었다. 1098년 6월 3일에 안디옥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안디옥 탈환 때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1098년 8월에 예루살렘도 함락하였다. 그런데 1099년 6월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어렵게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켰다.

이렇게 하여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지 3년만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여기 3년 동안의 전쟁이 반드시 성지회복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모험심 때문에 싸운 것이 사실이다.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 저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보전을 위해 정복된 곳의

통치가 문제였다. 그래서 십자군에 의한 국가가 건립된다. 대부분의 십자군들이 각기 고향으로 떠나고 소수의 군사들에 의해 거룩한 도시를 계속 지키게 된다.

이때 책임자가 부용의 '가드프리'(Godfrey)가 된다. 그런데 1100년에 가드프리가 죽자 그의 동생 '볼드윈 1세'(1100-1118, Baldwin I)와 그의 생질이 '볼드윈 2세'(1118-1121)로 계승함으로 교회 국가가 아닌 봉건제도 형식의 국가가 된다.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성지탈환이 주 목적이었다. 그런데 성지를 탈환한 후에는 성지를 맡은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북방의 '에뎃사'가 또다시 마호메트 교도의 손에 장악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또다시 제2의 십자군이 생긴다.

2. 제2회 십자군(1147-1149)

에뎃사가 취약적인 도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회교도들이 에뎃사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동북부 요새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위태롭다는 소식이 서방에 전해졌다.

1145년, 교황 유게니우스 3세(Eugenius III)는 십자군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황칙서를 반포하였다. 여기에 프랑스 루이 7세가 적극 호응하고 나선다. 그래서 교황은 프랑스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를 대중 설교자로 활약하게 한다.

버나드는 독일 황제 '콘라드'(Conrad)를 설교로 감동시켜 독일에서도 십자군에 호응한다. 이렇게 하여 두 황제들의 호응으로 20만에 가까운 군대가 성지를 향해 떠났으나 저들은 터키인들에 의해 수없이 참패만 당한다. -

팔레스틴에 도착한 부대는 1148년 다마스쿠스를 침략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라틴 분국이 잔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회교도 군부의 내분 때문에 위기를 넘기게 된다.

3. 제3회 십자군(1189-1192)

제2차 십자군 이후 40여년간 예루살렘의 라틴 분 왕국이 무사했던 것은 마호메트 군부의 내분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2차 십자군 이후 25년간은 두 사람의 유능한 통치력으로 예루살렘 왕국이 유지되었다. 그 두 왕은 볼드윈 3세와 아말릭(Amalric) 1세였다.

그런데 회교도 장군인 이집트의 술탄 '살라딘'(Saladin)이 1187년 7월에 예

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체 기독교권은 크게 경악하게 된다. 교황 그레고리 8세는 십자군 정신의 부흥을 외쳤다. 그는 십자군 소집령을 내리고 단식과 참회를 요구하였다.

교황의 호소에 최초로 응답한 이는 '시실리'의 윌리엄 2세였다. 그런데 그는 전쟁준비만 해놓고 죽고 만다(1189. 11). 교황 그레고리는 신성 로마제국 황



▲십자군에 참가한 기사들은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거룩한 사명으로 생각했다.

제인 '프레데릭 바바로사'(Frederick Barbarossa)에게 사자를 보내어 십자군 참여를 호소했다.

프레데릭은 70세의 고령자였는데도 1189년 5월에 가장 큰 규모의 군대로 헝가리를 경유하여 비잔틴 영토에 들어섰다. 그런데 1190년 5월에 강물을 헤엄쳐 건너려 하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이로써 독일 군대들은 사기를 잃고 말았다.

프랑스에서는 황제 '필립 2세 아우구스투스'(Philip II Augustus)가 호응하고, 영국에서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리차드'(Richard)가 호응을 하였다. 그런데 십자군 원정에 별 뜻이 없던 프랑스 왕 필립은 영국 왕과의 의견충돌로 도중에 귀국하고 만다.

혼자 남은 영국 왕 리차드는 3년 8개월 동안 살라딘과 대결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싸움에 지친 양군은 1192년 9월 2일에 향후 5년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리차드는 철군하게 된다. 리차드는 귀국 도중에 오스트리아에서 포로가 되어 수개월 후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된다.

3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으나 리차드가 키프로스를 함락함으로써 수십년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된다.

4. 제4회 십자군(1202-1204)

제4회 십자군 전쟁은 교황 이노센트 3세(1198-1216)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교황이 된 후 최초의 십자군 전쟁을 교황 우르바누스가 주도했던 것처럼 자기도 십자군 전쟁을 주요 관심사로 삼았다. 그래서 제4차 십자군은 주로 프랑스 북방군으로 조직되었다.

이 무렵의 십자군은 교황의 주선에 의해 시작은 되었으나 실제로 군을 지휘하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의 지휘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4차 십자군의 결과는 많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들이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최초의 공격 목표는 이집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살라딘이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루살렘 장악의 원천 부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베니스의 도움을 얻어야 했다. 그런데 베니스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비잔틴 제국과 헝가리의 '사라'(Zara)라는 도시를 함락시켜 주어야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였다.

이때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딴 나라 정복을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십자군 지도자는 이를 강행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라를 정복하고(1202년 11월) 또다시 동방 비잔틴 제국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정복하였다(1203년 여름).

이노센트 교황은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휘관들로 인해 적잖게 당황했으나 그는 속으로 동서교회가 재결합되는 계기로 받아들일게 된다. 이때의 지휘관은 '보니파스'(Boniface)였다. 그는 1203년 여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동방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3세를 폐위시키고 그 이들을 알렉시우스 4세로 즉위시켰다.

그러나 알렉시우스 4세마저도 1204년 4월 13일에 폐위시키고 라틴 공화국을 건설한다. 이로써 콘스탄티노플은 1204-1261년까지 동로마의 황제는 없고, 라틴 공화국의 '볼드윈'(Baldwin)이 왕위에 앉는다.

그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값진 유물들이나 성골들이 모두 파헤쳐져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고, 대다수는 베니스로 넘어간다.

전에 330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새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건설을 위해 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종 유물들을 옮겨갔던 것이 천년 후에는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실로 역사는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히 끝난 것도 없이 계속 되풀이되고 변화무쌍한 우여곡절이 계속된다.

이노센트 3세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크게 놀라 십자군과 베니스인들을 단호하게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들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새 라틴왕국의 황제로 '볼드윈'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로 베니스 사람 '토마스 모로시니'(Thomas Morosini)를 선출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하였던 이노센트 3세도 결국은 이 모든 결과를 교회의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헬라권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이 커지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 헬라의 문물들이 유럽쪽으로 반입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서방교회의 무력적 행위는 동방교회로 하여금 더욱 더 간격을 넓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동방제국은 기나긴 저항을 하다가 1261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함으로써 라틴제국은 종말을 맞게 된다. 그렇지만 이때의 타격으로 비잔틴 제국은 불능의 상태로 약화되고 만다.

5. 제5회 십자군(1212-1221)

제4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유럽에는 십자군의 정열이 사회의 각 영역에 두

루 미쳤다. 여기서 제 5차 십자군은 어린이들로 구성된 원정대였다. 그래서 이때 십자군을 ‘소년 십자군’(Childrens Crusade)이라고 한다.

이들 소년 십자군은 프랑스의 목동 스테반과 독일의 소녀 니콜라스가 수천 명의 소년들을 모아 출전하였다. 그런데 이들 소년 십자군이 성지회복을 위해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출발하여 이집트로 향하는 도중에 악당의 배로 인해 두 척의 배가 향해도중 파선되어 몰사당하였다. 그리고 5척의 배는 아프리카에 도착하였으나 모두가 종으로 팔리고 말았다.

이같은 비보를 접하게 된 이노센트 3세는 1215년에 제4차 라테랑 공의회를 열고 또다시 십자군 원정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십자군 원정에 나설 것을 교황에게 약속해 놓고는 독일 사정을 핑계로 출전을 연기했다.

결국 1218년 5월에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십자군 원정대가 출발하였다. 이때의 지도자는 군의 지휘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끌어간 교황 사절 펠라기우스라는 추기경이었다.

1219년 2월에 십자군 원정대에게 회교도들은 예루살렘을 양보할 것을 포함한 평화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때 많은 군사 지휘관들은 흔쾌히 응락하였다. 그러나 추기경 펠라기우스는 저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1221년 7월에 카이로의 진군을 명하였다. 그러나 나일강의 범람으로 어쩔 수 없이 퇴각하게 되면서 8년간의 휴전과 포로 교환의 불리한 조건으로 물러난다.

이로 인해 교황에 대한 비난과 황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게 되었다. 이때 아시시(Assisi)의 성 프란체스코가 출현함으로 교황에 대한 화살이 다소 둔화되게 된다.

6. 제6회 십자군(1227-1229)

제5차 십자군의 실패는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 주었다. 그리하여 1227년 늦여름에 제6차 십자군 원정대가 이탈리아를 떠났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황제는 병환으로 출전이 지연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이집트의 술탄 알 카말은 사신을 보내어 프리드리히와 협상을 제의하였다. 그래서 출전을 미루고 있는 프리드리히를 비겁하다고 정죄하고 그레고리 9세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였다.

프리드리히는 1228년에 파문을 받은 채 원정을 떠나 7월 21일에 키프러스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가 파문된 황제라는 약점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협력

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알 카밀과 협상을 하였다.

1229년에 체결된 협상조약은 십자군으로서는 독특한 소득이었다. 그것은 회교도들이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황금사원'(Dome of the Rock)과 약사 모스크는 회교도들이 사용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해안지역들은 기독교국이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평화는 10년간 지속되었다.

1229년에 협정된 조약 후 귀국하는 프리드리히를 향해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서 총 대주교는 미사 금지령을 선포하였다. 프리드리히는 1230년에 교황과 화친하고 파문에서 놓여났다. 그러나 10년 평화조약이 1239년에 깨어지고 1244년에는 예루살렘이 또다시 회교도들의 소유로 넘어간다.

7. 제7회 십자군(1248-1250)

예루살렘이 다시 회교도들에게 장악되었다는(1244년) 소식을 전해들은 이노센트 교황은 1245년 6월에 리용에서 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 소집 동기는 동쪽 예루살렘이 위급하다는 긴급한 원병의 호소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했으나 보다 더 큰 원인이 내재해 있었다.

그것은 일반 국민 대중은 물론 전 세계가 교황의 성직을 남용하여 제국간의 싸움을 선동한다는 불만과 이탈리아에서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불화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회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에 관심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프랑스왕 루이 9세가 새로운 십자군을 영도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십자군 원정의 뜻을 품고 3년간을 준비한 끝에 1248년 8월에 출범을 하였다. 루이 9세는 왕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과 영국의 소견 부대를 거느리고 1만 5천의 병력으로 원정에 나섰다. 이때 프랑스 정치는 장모인 블랑쉬(Blanche)에게 맡겼다.

1249년 5월에 약 120척의 배를 이끌고 원정에 나선 이들은 카이로 근처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왕과 함께 많은 부하들이 포로가 되고 말았다. 술탄의 아들 '투란 샤'(Turan Shah)는 왕과 귀족들의 몸값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많은 귀족, 비귀족의 부하들은 살해되었다.

1250년 5월 6일날 왕은 석방되었다. 왕의 즉시 귀국을 간언하는 참모들의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포로들의 석방을 요청하며 1254년 4월까지 4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하여 루이 9세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를 자신의 희생으로 속죄하려고 하였다.

8. 제8회 십자군(1270)

이집트의 '바이바르스'(BayBars)는 그의 선왕을 살해한 후 1260년에 새 애굽의 술탄이 되었다. 그런데 전의 술탄들은 기사도 정신의 무사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새 술탄이 된 바이바르스는 잔학무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는 곳곳마다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1265년에는 가이사라, 하이파, 아르습을 점령했고, 1266년에는 갈릴리를, 1268년에는 안디옥을 점령하여 주민들 살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같은 상황들이 서방 국가들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했다.

1267년 전의 실패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던 루이 9세는 또다시 원정준비를 시작한다. 그리하여 1270년 7월에 남부 프랑스를 출발한 루이 군대는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자마자 곧 열병으로 황제와 그의 아들은 물론 많은 군대가 희생되고 만다.

그런데 뒤늦게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1271-72년 동안 아크레에 진격하여 나사렛을 재취한 후 10여년 동안 영향을 끼치고 돌아간다. 이 이후로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십자군 원정에 대한 제의를 했으나 한 사람도 실현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약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갖가지 비화와 많은 문제점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만다. 이로써 1291년부터 회교도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은 1947년 이스라엘군에 의하여 탈환되기까지 700년 동안 이교도들에 의해 짓밟히도록 버려진 도시가 되고 말았다.

9. 십자군 전쟁의 결과

십자군 전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밝은 면과 부정적인 결과를 남긴 어두운 면이 있다.

(1) 긍정적 요소

1) 교황의 세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의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호소와 주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교황의 호소는 나중에 교황의 명령으로 바뀌어졌다. 각 나라의 국왕들은 모두가 교황의 명령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십자군 원정을 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황의 막강한 세력 강화였다.

2) 교회 재산이 증대되었다. 십자군에 출정하는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떠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교회나 수도원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위탁을 하고 떠났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교회의 재산이 되었다. 이로써 교회나 수도원은 엄청난 재산 소유자가 되었다.

3) 서방 세계의 민족과 국가들을 하나의 기독교국이라는 인식을 향상시켜 주었다. 과거에는 서구 각국이 서로 고립되어 있었으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상호교류와 연합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였다.

4) 마호메트의 서방 진출을 저지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만일에 십자군 전쟁이 없었다라면 모슬렘교의 서방 진출이 훨씬 강화되었을 것이고 그 속도도 빨랐을 것이다.

5) 오랜 가문 중심의 봉건제도가 별 큰 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소시민들로 구성된 중산층의 다수가 더 큰 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봉건주의 시대의 몰락과 새로운 군주 중심의 국가 형태로 옮겨지는 큰 계기가 된다.

6) 십자군 운동으로 인하여 모슬렘 세계와의 교역을 확장시키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에 무역과 해운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7) 십자군 운동의 여파로 동양의 직물들이 늘어나고 동양의 미각들이 서방으로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부정적 요소

1) 십자군 전쟁 과정 중에 보여준 서방교회의 동방교회에 대한 태도는 동서교회의 골격을 더 크게 넓혀주었다.

2) 십자군 전쟁은 선교사업을 위한 도덕신학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무력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역사 속에 대표적 선례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십자군 전쟁이 성지를 회복한다는 신앙적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나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비신앙적 행동을 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저들이 지나간 곳은 송충이가 나무들을 좀먹고 지나간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마호메트 교도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무질서한 오합지졸들은 가는 곳마다 민폐를 일으켜 원성이 드높았다. 그리하여 4차 때에는 마호메트 교도와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

들끼리 동서로 싸우기도 하였다.

4) 교황들이 원수를 사랑으로 회개시키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마호메트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장려하였다. 그 결과 십자군의 군사적 실패뿐 아니라 성직자들에게 대한 신앙을 의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경적 타당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5) 십자군 전쟁 후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선교 자세에 있어서 보다 강경하게 선회되었다. 즉, 서방 기독교가 이슬람권에 들어와 점령군으로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는 사형으로 다스렸다. 이같은 강경정책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6) 십자군 전쟁 기간 중에는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을 다 끝낸 군왕들은 교황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종교와 국가간의 갈등이며, 결국에는 제왕들이 교황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7) 십자군 전쟁은 각 나라마다 도덕적, 윤리적 부패를 가져왔다. 저 유명한 '정조대'가 이 무렵에 생겨져서 후대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제 18 장 교황권의 타락

어떤 역사든 절대적으로 완전한 역사는 없다. 교황권이 한 때 세상의 군왕들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고자세의 강성세력은 그만큼 쉽게 꺾일 수도 있다. 이제 여기서는 로마 교황의 쇠퇴기 모습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1. 교황들의 부패

교황들이 부패했다고 하면 대단히 흥미있고 호기심이 간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절대무오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은 부패할 수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부패한 사실들이 증언되고 있다.

(1) 하드리아누스 1세 (재위 772-795, Adreanus I)

하드리아누스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은 확실하지 않으나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측된다. 그는 772년 2월 1일에 교황으로 선출될 때 그는 로마 교황청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것이 인정되어 교황이 되었다.

그가 교황이 되어 처음 한 일이 로마가 롬바르디아족에 의해 짓밟힐 때 프랑크왕 샤를마뉴(768-814)에게 지원을 요청한 일이다. 샤를마뉴는 하드리아누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알프스 산을 넘어 롬바르디아족을 정복한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는 매우 가까워졌다.

그런데 하드리아누스는 787년에 제2회 니케아공회를 소집하고 성상숭배의 합법성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샤를마뉴가 다스리는 프랑크의 주교들은 성상숭배가 우상숭배로 될 소지가 있다고 이를 배격하였다.

프랑크 샤를마뉴는 궁전 신학자들로 하여금 '카롤링 문서'(Libri Carolini)를

집필케 하여 성상숭배를 논박하였다. 그러자 하드리아안은 다시 카롤링 문서를 논박하는 긴 사연을 샤를마뉴에게 보냈다.

이 하드리아안이 교황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자기 세력을 굳게 하려고 교황청 내에 많은 요직에 자기 친인척들을 기용하였다. 이런 행동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된다. 즉 요직에 친인척을 두는 것은 자신을 차기 교황으로 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불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민들은 레오 3세라는 인물을 천거하여 차기 교황으로 추대, 선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하드리아안은 국민들 요구를 듣기는 커녕 갖은 방법으로 레오를 괴롭혔다. 그래서 레오는 교황의 핍박을 못 견디고 프랑크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교황이 친인척을 등용하려는 족벌체제의 한 단면이었다.

(2) 파스칼리스 1세 (817-824, Paschal I)

파스칼은 교황청에 근무하는 사제였다. 그런데 대 수도원장이며 교황이던 스테파누스 5세가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817년 1월 26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파스칼은 교황 재위 기간 중 프랑크 샤를마뉴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루이 1세와의 사이에 제국과 교황권에 관련된 문제로 시달렸다. 루이 1세는 단호한 교회 개혁과 수도원들과 교구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의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파스칼은 로마교구의 독립성과 국가들에 대한 교회의 종주권, 로마인들의 선출 자유권 등을 확보하였다.

이 파스칼은 823년에 루이의 아들 '로테르 1세'에게 공동 황제로서의 왕관을 씌워주었다. 다른 한편 로마에서는 파스칼 교황이 가담한 반 프랑크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프랑크 왕이 로마 교황청을 지배하기 위해 교황 파스칼을 음모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두 명의 프랑크 당 지도자를 처형하였다.

이 일로 프랑크 루이 황제도 교황을 심문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파스칼 교황은 양심선언으로 응수하고 그 어떤 인간도 교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자기를 가리웠다. 그러나 파스칼 교황은 자기 자리를 엿보는 실력자들을 허수아비를 시켜 죽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었다.

(3) 하드리아누스 2세 (867-872, Adrian II)

하드리아안 2세는 792년 로마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주교였으며 9세기

초 두 교황 스테파누스 5세와 세르기우스 3세와는 친척간이었다.

하드리안에겐 처와 딸이 있었다. 그래서 성직을 받은 후부터는 가정생활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가 교황이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의 산 마르코에 있으면서 추기경으로 있었다. 하드리안 교황은 그의 말년에 가족문제로 큰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의 아내와 딸이 그의 사위가 되려다가 거절당한 엘리테리우스에 의해 살해되었다.

하드리안 교황에게 딸이 있다는 소문이 나자 서로가 교황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다. 이 살인자는 하드리안 교황의 서신 및 도서담당 비서실장이었던 아나스타시우스의 동생이었다. 이들은 로마 부근의 오르테 교구의 주교 아르세니우스의 아들들이었는데, 교황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교황이 반대했다. 엘리테리우스는 교황의 아내와 딸을 납치하여 강요를 했다. 그런데 그가 추적을 당하자 두 사람을 살해하고 만다.

엘리테리우스는 얼마 후 체포되어 처형을 당한다. 그리고 그의 형 아나스타시우스는 동생과 공모했다며 교황으로부터 과문을 당한다.

하드리안 교황은 이뿐만 아니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연의 처들로 하여금 매춘행위를 하도록 하여 미인계를 썼다고 한다. 교황이 결혼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딸의 문제로 살인이 벌어지도록 가정문제가 복잡했다는 것은 교황의 지독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2. 바벨론 포로기(1305-1377)

바벨론 포로란 BC605-535년까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풀려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카톨릭교회도 이탈리아 로마에 상주해있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70년간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일이 있다.

카톨릭은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쳐서 '바벨론 포로시대' 또는 '아비뇽 교황시대'(Avignon Papacy)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같은 몰락을 가져왔는가? 한때 교황들이 군왕들을 떨도록 위엄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여기서 그 역사적 단면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1) 교황 보니페이스 8세 (1294-1303, Boniface VIII)

교황으로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리던 이노센트 3세 시대는 한 시대로 지나갔다. 그 후에는 그만한 인물의 교황이 나오지 못하였다. 여기 세기의 스타가 된 교황 보니페이스 8세가 있다.

이 사람은 원래 귀족 출신으로 외교관 생활을 거쳐서 누구보다도 궁중의 음모와 정치술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본명은 '베네데토 가에타니'(Benedotto Gaetani)였다. 그가 교황이 된 후 보니페이스 8세로 명명되었다.

보니페이스 8세가 교황이 된 후 그의 초기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맨 처음에는 이탈리아 국내문제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자기가 교황이 되는 것을 반대한 숙적 콜로나를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다. 교황은 콜로나의 토지와 성을 몰수하고 그를 타국으로 유배시켰다.

다음으로는 독일까지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독일 황제 '함부르크 알버트'를 전의 반란행위를 근거로 반란자요 살해자로 규정하였다. 그러자 알버트는 교황에게 협상을 임해옴으로 교황의 권위가 고양되었다.

그 다음에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의 서막이 되는 전쟁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1337-1453년까지 100여년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하여 전쟁을 하였다. 이때 프랑스의 잔 다크 소녀의 인도로 프랑스를 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같이 긴 전쟁이 계속된 원인은 황실에 대한 계승권 문제와 영토반환에 관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다.

하여간 영국과 프랑스가 이같은 전쟁 개입 직전에 있는 두 나라 왕들에게 휴전을 중재하였다. 그런데 두 나라 왕인 프랑크 필립 4세와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교황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교황은 1296년 소위 교황 칙령 '클레릭스 라이코스'(Clericis Laicos)라는 것을 반포하였다. 이것은 성직자들이 세상 군주들에게 교황의 허락이 없이 납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이었다. 이것은 교황이 왕들에게 경제적 압력으로 회유케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두 왕은 교황의 칙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며 오히려 교황청을 대적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루한 소모전만 계속되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침입에 불안해하던 스코틀랜드는 자기들 스스로 스코틀랜드가 교황의 봉토라고 선언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왕은 석연치 않게 휴전을 하고 교황의 중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교황은 그 후 1300년을 '희년'(Jubilee)이라고, 선포하고 성 베드로의 무덤을 방문하는 모든 자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로마시는 순례자들로 인하여 대 혼란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로써 교황 보니페이스 8세의 인기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

이같은 교황의 인기에 썩기를 박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프랑스 왕 필립 4세

였다. 필립은 전부터 보니페이스를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네데도 가에타나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의 희년 선포로 로마에 많은 군중이 몰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교황의 숙적인 '스키알라 콜로나'가 전에 교황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하고 국외로 추방되었을 때 필립이 망명처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콜로나에게 황제의 여동생을 출가시킴으로 교황에 대해 정면 도전하였다.

이렇게 필립 왕과 교황간의 싸움은 점점 갈수록 커져갔다. 처음에는 프랑스 왕궁과 교황청 사이에 욕설과 저주가 가득한 서신들이 오갔다. 그 다음에는 교황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를 교황이 혐오하기 시작하자 필립 왕 역시 교황청의 사절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1302년에 프랑스 왕은 궁정에서 교황의 칙령을 불살랐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황제가 개인적으로 교황을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교황을 반대하기 위해 프랑스 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의회(Estates General)에는 귀족과 성직자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들까지도 포함시켰다. 여기서 프랑스 의회는 필립의 정책을 후원하는 몇 개의 의견서를 정해 로마의 교황청으로 보냈다.

이 프랑스 의회의 의견서를 접한 교황 보니페이스 8세는 정치 분야와 종교 부분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다는 '우남 쌍담'(Unam Sanctam)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로마와 프랑스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 회의를 열고 필립 왕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프랑스 필립 왕은 자기의 승낙 없이 프랑스 주교들이 프랑스 영토를 떠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리고 만일에 자기 승낙이 없이 자기 영토를 떠난 자에게는 국왕 불복죄로 일체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립은 영국 왕 에드워드와도 화친을 맺었다.

교황은 사태가 불리함을 깨닫고 전에 반역자요 국왕 살해자로 정죄했던 독일 황제 알버트와 동맹을 맺고 독일의 모든 귀족들을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다시 의회를 열고 교황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랑스 의회의 가장 중요한 필립의 고문이었던 '윌리엄 노가렛'(William Nogaret)은 보니페이스를 이단이요, 동성연애자요, 가짜 교황이라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필립 왕의 원대로 그를 '신앙의 수호자'(guardian of the faith)라고 결정하였다.

필립은 의회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로부터 지원을 다지기 위해 '개혁 조례'(Ordinances of Reform)를 제정하여 프랑스 성직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같은 필립의 공격 앞에 교황 보니페이스는 최후의 수단방법을 쓰게 되었다. 즉, 교황은 필립을 파문조치하려고 그의 가까운 고문들을 그의 고향 '아나그니'(Anagni)로 모았다. 그런데 이같은 교황의 움직임을 프랑스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교황의 숙적인 콜로나와 의회의 고문인 노가렛은 프랑스 왕 필립의 이름으로 이탈리아 은행의 막대한 자금을 대부받아 무장한 병사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교황이 파문을 선포하려는 전날 9월 7일에 '아나그니'에 침입하였다.

이때 폭도들은 교황을 납치하고 교황의 가족과 친지들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노가렛은 보니페이스의 교황 자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노력의 교황은 굴하지 않고 항거했다. 그러자 노가렛은 교황을 구타한 후 당나귀 위에 거꾸로 앉히고 온 동네를 돌게 하는 모욕을 가하였다.

이때 아나그니에 모였던 추기경들 가운데서 오직 두 사람의 스페인 추기경(피터와 니콜라스 보카시니)만이 교황의 편을 들었다. 마침내 보카시니(Nicholas Boccasini)의 지도아래 아나그니 촌민들을 동원하여 교황을 구출하고 무도한 폭도들을 도시로부터 축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기 고향 아나그니에서 큰 상처를 받은 보니페이스 교황은 더 이상의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나그니 사건 이후 얼마 안 되어 사망하였다.

(2) 교황 베네딕트 11세 (1303-1304, Benedicti 11)

이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기경들은 '니콜라스 보카시니'를 다음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베네딕트 11세'(Benedict 11)라고 칭하였다. 베네딕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도미니칸 수도승이었다.

그는 교황이 되어 모두에게 화해정책을 썼다. 그는 우선 콜로나를 용서하고 전에 보니페이스 교황이 몰수하였던 토지와 성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교황에게 행패를 주도한 노가렛과 콜로나를 제외한 모든 폭도들의 죄도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립까지도 용서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필립의

입장은 달랐다. 필립은 이미 사망한 보니페이스 교황을 재판을 통해 그의 유죄를 따지려고 하였다. 베네딕트는 그것은 교황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거절하였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새 교황이 너무 유약해서 원수들과도 지나친 화해정책을 수행한다고 불만이였다. 이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그는 짧은 재위로 세상을 떠난다.

(3) 클레멘트 5세 (1304-1313, Clement V)

이제 교황의 자리를 놓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교황 선출은 대단히 복잡했다. 서로의 이해문제와 자기 당파 및 분파가 개입되었다.

이때 프랑스 왕 필립에 의해 크게 활동하던 친불파 사람인 보르도(Bordeau) 대 감독인 클레멘트를 교황으로 선출하도록 음모를 꾸몄다. 그리하여 추기경들은 그를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새로 교황이 된 클레멘트 5세는 완전히 필립의 사람이었다. 그는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니까 로마에서 집무를 하도록 로마 시민이 계속 주장하였으나 그는 그의 재임 기간 중 단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309년부터는 교황청 땅으로 사들인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아비뇽'(Avignon)에 거주하였다. 이때 (1309)부터 70년 동안(1377년) 법적으로는 로마의 주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프랑스 아비뇽에 활약하는 '아비뇽 교황시대'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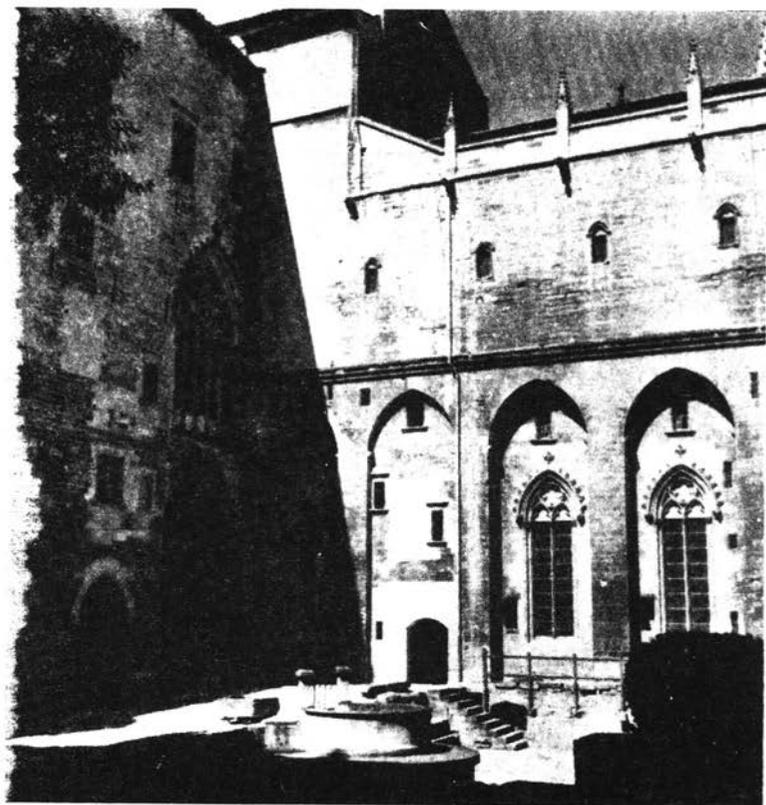
필립은 클레멘트가 로마로 가지 않고 자기 영향권 하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로 프랑스에 잡아두었다. 클레멘트 5세는 그의 재위기간 중 24명의 추기경들을 지명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프랑스 사람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의 친척들이었다. 이같은 족벌체제는 그 후 계속해서 교회의 큰 약점이 된다.

클레멘트는 계속하여 필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우선 전임자 보니페이스가 억울하게 당한 일은 전혀 손도 대지 않았고, 오히려 교황을 폭행한 노가렛과 그 일당을 사면하였다. 그리고 전에 보니페이스가 제정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철회하였다.

이같이 허약한 클레멘트 교황에게 가장 큰 약점과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템플러(Templars) 무사교단'을 체포하여 재판한 일이다. 템플러 무사

교단이란 십자군 원정 때 창립되었던 기사 수도회였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다.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쓰는 필립 왕에게 있어서 이들은 큰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필립은 저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사단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재산을 프랑스 국고에 귀속시킬 방법을 강구하도록 교황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이같은 필립의 지시를 받은 클레멘트 교황은 아무 예고도 없이 프랑스 국내에 있던 템플러 수도사들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적하는 비밀 결사로서 예배 중 우상숭배를 행하며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은 동성연애자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



▲아비뇽에 있는 교황궁의 안마당. 이 건물은 교황들의 '아비뇽 유수' 중에 건축되었다.

이때 수도사들은 자기들을 변호해줄 유일한 보루가 교황이 되기를 바랐으나, 교황은 오히려 사후 복수극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국외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 까지도 체포령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투옥되면서 필립왕에 대한 나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필립은 클레멘트 교황이 템플러들이 범한 범죄 사실들을 조장한 장본인이라고 발뺌을 하려고 하였다. 일이 이상하게 된 것을 안 클레멘트는 1311-1312년에 특별 종교회의로 비엔나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소집된 회의의 흐름은 필립과 노가렛에 대해서 예상과는 달리 클레멘트 교황보다 훨씬 더 엄격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의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할 것과 피의자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같은 회의 결정은 자기들 지도자인 교황의 허약함에 창피를 느꼈던 것 같다.

그리하여 필립과 클레멘트는 다시 화합할 수밖에 없었다. 클레멘트는 전에 거짓 고백했던 자백을 근거로 재판하는 대신 템플러 기사수도회를 교황의 행정 명령으로 해산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도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수도회로 넘어간다고 결정하였다.

이같은 재판 후에 필립은 막대한 재판 비용을 교황에게 청구하였다. 교황은 그 재판 비용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템플러의 재산 대부분을 황제에게 돌린다. 이로써 황제는 모든 재산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구차한 처신을 하며 세인의 비난을 받던 어용 교황이었던 클레멘트도 1314년에 사망함으로 끝이 나고 만다.

(4) 요한 22세 (1316-1334, John 22)

클레멘트 5세가 술한 치욕의 교황으로 지내다 죽으므로 그의 시대도 끝이 났다. 클레멘트가 죽은 다음 추기경들은 과연 누구를 차기 교황으로 선출할 것이며, 어느 누가 모든 이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런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궁여지책으로 72세의 노인을 교황으로 선출해놓고 얼마 동안의 시간 속에서 사태가 호전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요한 22세라는 이 노인은 교황에 선출된 뒤 18년이란 긴 세월을 정력적으로 활동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탈리아 내에서 교황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을 회복하려고 고심하였고, 또 아버지에게 소재한 교황청 유지를 위해 대 규모로 종교세를 거둬들였다. 그가 이같은 정책을 씀으로 불란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5) 베네딕트 12세 (1334-1342, **Benedict 12**)

영국과 불란서가 한창 100년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활약한 교황이다. 그는 교황청 서류 보존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교황청이 로마로 갈 뜻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에게 교황청의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제국은 저버리고 프랑스만 인정하려는 편협한 교황이 되고 말았다.

(6) 클레멘트 6세 (1342-1352, **Clement VI**)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중재를 하려 했으나 영국인들은 교황을 프랑스의 주교 정도로 보았으므로 그 노력은 허사였다.

클레멘트 6세는 자기 족벌들을 교황청 직원으로 채용하여 가족들이 판을 치는 부패한 교황청이 되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 교황청의 썩은 냄새가 악취를 풍기었다. 당시 페스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유는 교황청의 부패 때문이라고 소문이 났다.

(7) 이노센트 6세 (1352-1362, **Innocent VI**)

이노센트는 교황청을 아비뇽에서 로마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8) 우르반 5세 (1362-1370, **Urban V**)

우르반 5세는 자기 자신이 엄격한 내핍생활로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성직자들에게 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자기의 절제를 본받지 않은 인물들을 아비뇽에서 축출함으로써 교황청을 개혁하였다.

그는 1365년에 로마로 귀환하였다. 이때 로마 시민들은 열렬한 환영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렴결백하기는 했으나 로마 시민들의 충성심을 계속 유지시킬 능력이 없었다. 그 까닭으로 교황이 온 것을 기뻐하는 이들의 무절제가 이탈리아 전체를 무질서 상태로 빠트렸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교황은 다시금 아비뇽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하였다.

(9) 그레고리 11세 (1370-1378, **Gregory 11**)

이 사람은 그의 삼촌이 클레멘트 6세였다. 클레멘트 6세는 족벌체제로 갖추려고 이제 나이 겨우 17살밖에 안 된 자기 조카를 추기경으로 지명하였다. 그 젊은 추기경이 훗날 '그레고리 11세' 교황이 되었다.

이 그레고리 11세는 1377년 1월 17일 로마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로마로 돌아온다. 실로 1305-1377년까지 72년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로마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에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 이 기간 동안 교황들의 무능력과 무사안일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황청의 부패 또한 엄청난 상태였다.

교황청에서는 타국과의 음모를 꾸며 프랑스를 이롭게 하려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성직매매(Simony), 성직 중임 혹은 복수 성직제(Pluralism), 궤석 성직제(absenteeism), 족벌주의(nepotism) 등등 모든 부패의 표본은 다 교황들이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바벨론 포로시대가 끝날 때쯤 되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은 결국 교황청의 부패와 교황들의 비신앙적 무기력함들에 대한 반발에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속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 옛날 교황청의 부패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여러 면에서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두 개의 교황청

그레고리 11세가 로마로 돌아옴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교황청은 하나였다. 그러나 그레고리는 다시 아비뇽으로 귀환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

교황이 죽자 다음에 선출될 교황을 놓고 로마 시민들은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면 프랑스인 추기경이 압도적으로 많음으로 전과 같은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 정도의 교황을 선출할 가능성이 많은 점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비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공개 추기경 회의 장소에 로마의 폭도들이 침입하였다. 폭도들은 추기경들이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고 로마나 이탈리아인 출신의 교황을 선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같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추기경들은 교황을 선출해야만 했다.

(1) 이탈리아인 교황 우르반 6세(Urban VI)

추기경들은 오랜 회의 끝에 이탈리아인 '바리'(Bari) 대주교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하고 우르반 6세라 칭하였다. 우르반 6세는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그

리고 모든 추기경이 참석한 중에 합법적으로 1378년 부활절에 교황의 관을 받았다.

새로 교황이 된 우르반 6세는 당시 많은 이들이 간구하던 개혁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을 하려면 사치와 방탕에 빠져서 온갖 수단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된 추기경들과 자연히 충돌해야만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개혁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르반 교황은 우선 교황청 안에서 사무직으로 놓고 일하는 자들을 공격하였다. 교황은 자기 교구의 양들을 지키지 않고 교황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배반자이며 부정부패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는 또 강단에서 추기경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난하고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성직 매매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파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황청 세력은 프랑스인 추기경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그보다 많은 이탈리아인 추기경들을 임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도 전에 프랑스인들에게 누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우르반이 부르짖은 개혁의 꿈은 모든 이가 다 바라던 바였다. 그러나 이미 세상 재미를 마음껏 누리고 있던 추기경들에게는 대단히 거슬리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교황에게 불만이 있는 추기경들이 아나그니에 집결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전에 자기들이 교황을 선출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위협에 의한 협박 선출이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새 교황을 선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2) 프랑스인 클레멘트 7세 (Clement VII)

클레멘트 7세는 우르반 교황의 지나친 개혁주의에 대한 반대세력에 의해 새로 선출된 교황이었다. 클레멘트는 교황으로 선출된 후 우르반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실패하자 그는 프랑스 아비뇽에 가서 교황 노릇을 한다. 따라서 두 개의 교황청과 두 명의 교황이 동시에 있게 된다. 하나는 로마에서 우르반이, 다른 하나는 아비뇽에서 클레멘트가 서로 자기만 교황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교황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얻고자 성직매매 등 온갖 방법으로 경비를 조달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부패가 심했겠는가.

(3) 두 개의 교황청

역사 속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실이 존재하게 된다. 프랑스 아비뇰의 교황청을 따르는 나라들(클레멘트 교황)은 프랑스,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독일이고, 로마 교황청을 따르는 나라들(우르반 교황)은 영국,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 이익과 도움이 되는 교황을 선택함으로써 교황이 종교와 신앙의 상징이 아닌 이권의 상징이 되었다.

1389년 우르반이 죽자 우르반을 따르던 추기경들은 ‘보니페이스 9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한다. 아비뇰의 추기경들은 스페인 출신의 ‘페드로 데 루나’(Pedro de Luna)를 선출하여 ‘베네딕트 13세’(Benedict 13)라고 칭하였다.

이와 같은 분열은 1378-1418년까지 40여년간 계속된다. 그러다가 다음에 언급할 전체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렵게 수습이 된다.

제 19 장 중세기의 미신 사상

중세기에 미신이 있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미신이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것들을 말한다. 미신이란 전혀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다. 그럴듯 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며 어느 한면으로는 납득이 가는 요소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므로 관심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천사 예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써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배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교회는 천사에게 예배할 것을 전체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여 실시하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

(1) 초대교회로부터 칼케돈회의 (451년)까지

1) 속사도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들

로마의 클레멘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의 무리가 있다.

이그나티우스도 하늘의 존재자인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폴리잡은 순교자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헤르마스는 모든 사람은 두 명의 천사를 갖고 있다. 하나는 의의 천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악한 천사이다.

파피아스도 하나님은 일부 천사들에게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도록 명하셨다고

했다.

2) 변증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

유스티니아누스는,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과 모든 만물들을 돌볼 것을 천사들에게 맡겼으며 그는 천사에게 이들을 감독하라고 하였다. 또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고 여자들과 죄스러운 성관계를 맺어 귀신을 낳았다고 했다.

아테나고라스는 천사들의 직책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창조하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섭리하시지만 특정 부분은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레니우스는 천사가 형체가 없는 존재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인은 주문을 암기하는 것같은 어떤 것도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3) 회랍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

오리겐의 성서주석에서 보면 신명기 32:8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는 그들의 수호 영이 있다고 했다. 국가뿐 아니라 각 개인도 수호 천사를 갖고 있다. 각 개인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갈 때에 신자의 영은 천사에게 맡겨진다. 이때부터 그 수호 천사는 마귀들의 힘으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면 천사의 보호는 약해지고 악한 천사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천사들은 신실한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고, 그들의 진보를 기뻐하며,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재를 해준다. 하지만 그 천사들은 숭배를 받거나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 분명히 천사가 예배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4) 라틴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

터툴리안은 침례 때의 물은 천사로부터 치유하는 힘을 받는다고 하였다. 천사들은 영적 실체로서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한 천사로 인하여 귀신의 무리들이 생겨났으며 그 중 가장 큰 두목은 사탄이다. 이들은 모든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다. 귀신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연기와 피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도록 현혹한다.

어거스틴은 천사들은 무형적 실체인 영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감각적이며, 이성적이고, 지적이며, 불멸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떠한 천사의 숭배도 말하지 않았다. 천사들은 우리들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천사

의 직계서열이나 천사들에게 붙여진 명칭의 의미에 관해서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이상에서 보면 속사도 교부들로 시작해서 5세기 중엽까지는 천사 예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혹, 창 6:1-2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들이 천사들이 아니었는가라는 해석을 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천사들의 타락과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상상적으로 시도해 본 이들은 있으나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말한 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 미가엘 천사장에게 교회를 봉헌하면서 천사들의 서열이나 수가 언급되기 시작한다. 그것을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자.

(2) 칼케돈 회의 (451년)로부터 800년대까지

이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천사숭배와 천사에게 드리는 주문(기도문)이 발전되고, 영들의 서열에 관하여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리가 생겨진다.

1) 천사숭배의 교리

우리는 앞서 초기 교부들의 글에서 천사숭배와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모두 반대하는 이레네니우스나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의 주장을 보았다. 그래서 360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천사예배는 우상숭배라고 정죄되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 교회를 짓고는 그 교회를 천사장 미가엘에게 봉헌하였다. 그 까닭은 그곳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근원이 되어 서방교회에서는 9월 29일을 성 미가엘 기념 축제행사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천사 예배에 대한 결정은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에서 제정이 된다. 여기서서는 성상 파괴에 관한 논쟁을 다루던 중 천사들의 본질에 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의 감독인 ‘요안네스’가 천사들이란 모두 무형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천사는 얇고 가벼우며 혹은 불과 같은 몸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천사들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숭배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천사들을 묘사하고 그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허용했다. 이렇게 하여 과거까지는 천사 숭배에 관한 많은 반대가 있어 왔었으나 여기 공의회는 공식적 결정 이후 모든 교회에서는 공식적 승인이 된 셈이다. 아울러 그 이후로는 공교회의 교리로 간주되었다.

2) 천사의 서열

천사들의 계급조직이나 서열같은 것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으므로 그것은 것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과거의 태도였다. 그런데 천사들의 서열을 명확하게 만든 저술가는 '디오니시우스'(AD500년경, Pseudo Dionysius)이다.

그는 하늘의 계급을 세계의 계층으로 나누었다.

첫 계층 : 드로노이(θρονοι), 케루빔(χερουβιμ), 세라핌(σεραφιμ)

둘째 계층 : 퀴리오테테스(κυριοτες)-지배, 역수시아이(εξουσιαι)-권력, 뒤나메이스(δυναμεις)-전능

셋째 계층 : 아르카이(αρχαι)-수장, 아르칸젤로이(αρχαγγελου)-수천사, 앙겔로이(αγγελου)-일반 천사

여기서 가장 높은 첫 계층의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깝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인간에게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면 위(거짓) 디오니시우스는 무엇에다 근거하고 그같은 주장을 하였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그것도 신부도 확실치 않음)의 주관적이고 사색적인 기묘한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이같은 출처 불분명한 거짓 작품을 그레고리 1세(590-604)가 그대로 계승한다. 이로 인해 중세교회는 천사 예배나, 천사들의 서열과 이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3) 800년부터 종교개혁시대까지

중세시대의 스콜라 학자들(페트루스 롬바르드, 안셀름 등) 간에는 이전의 천사들에 관한 여러 교부들의 주장과 견해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믿는 정도로 국한하고 그들에게 기도드리는 것이나 예배 등은 금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성공회에서는 9월 29일을 모든 천사들의 축일로 지키고 있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저들의 천사숭배의 기원을 성경이 아닌 위 디오니시우스의 책에 언급된 구절을 갖고 그걸 믿고 따른다는 얘기가. 신앙도 이쯤 되고 보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너무 많다.

2. 성모예배

일반적으로 천주교라 일컫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특징은 성모 마리아를 예배한다고들 알고 있다. 사실 천주교의 특징이 마리아 예배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상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마리아 예배에 관한 사적 자취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막 3: 31, 요 2: 1-5, 6: 42).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는 동정녀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마 1: 20, 눅 1: 27, 34).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고도의 존경과 영예로운 인정을 받았다(눅 1: 30, 34). 또 사람들로부터도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눅 1: 42-45, 11: 27). 그 다음에는 이 마리아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상스럽게 발전되어 간다.

(1) 초기 3세기까지

이 시대에는 마리아에 대하여 신약성서와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요 그분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마리아 예배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다.

그런데 마리아 숭배에 관한 암시 문제가 2세기경 어느 지방에 나타난 위경문서인 'Evangelium Jacobi'라는 것이 있다. 이 정체불명의 책에서 마리아의 양친의 이름이 '요아킴'과 '안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마리아가 3-12세까지 성전에서 양육되었다는 이야기도 실려있다. 그런데 이같은 거짓된 문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것임으로 더이상 언급하지 말 것과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초기 3세기에는 대체로 신약성서의 입장을 따른다.

(2)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325년) 서로마제국 멸망기 (476년)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예배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이교적 신개념을 가진 이단론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에스파니우스'는 아라비아 등지의 어떤 여인들이 마리아를 여신으로 모시고 특정 종류의 과자를 바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 니케아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의 교회회의에서의 싸움은 기독교에 관한 싸움이였다. 그 당시 모든 이단들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입은 교회 내에서도 아리우스같은 이 역시 성육신을 부정한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배를 직접 다룬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감

독인 '시릴'(376-440년)이었다. 이 시릴은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우리와 별개의 존재인 구세주일 뿐이라고 하자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릴이 마리아에게 관한 주장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 있는 그 몸은 결코 인간의 몸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몸이다. 이런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θεοτοκος, 데오토코스)라고 해야 한다. 마리아의 숭배는 피조물에 대한 예배가 아니다. 또 마리아의 숭배는 그녀가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의 숭배사상은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하나님이며 마리아만이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분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시릴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The Mother of Gods)라는 주장을 당시 많은 다른 감독들이 반대하였다. 그 중에 이탈리아의 ‘요비니아’(Joviniah) 감독은 파문도 당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다.

(3) 중세기 (1500년까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탈선은 계속해서 더 많은 변질과 탈선을 가져온다. 이같은 움직임은 동서방교회가 다 마찬가지이다.

주상 성자로 알려진 시므온은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여 기도를 받아주소서”라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였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유스티니안 황제가 자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제국을 돌봐달라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무방함을 피력하였다.

이밖에 동방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로 발전되어 간다. 즉,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성 마가 전례 속에, 시리아의 전례 의식문 속에, 애굽 콥트의 야코부스 교회 전례 속에 마리아 숭배 조항이 들어간다.

서방교회는 8세기경에 마리아에 관한 기도문이 나와 있다. 즉, 로마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바실라카에 있는 부활절 미사에서 교황은 마리아에 관한 기도문이 발표되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경외하나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라... 우리를 구하소서 오 주여... 복되시고 영광되시고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 테오토코스(θεοτοκος)여...”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경배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리아 경배를 엄하게 금지하고 이단으로 다스리던 것을 후대에는 마리아에 대한 예배가 공식 교리로 굳어진다.

중세 카톨릭교회가 마리아에 대한 숭배사상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정한 각종 의식들이 있다.

1) 성모 마리아 동정녀 봉헌 축일 : 11월 21일

동서방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봉헌 축일로 2월 2일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봉헌 축일도 있다. 마리아 봉헌 축일의 근거를 위경인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3살 때 성전에서 봉헌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축제 행사는 처음 동방교회에서 8세기경에 시작되었다. 서방교회에서는 1585년에 교황 식스투스 5세가 매년 11월 21일을 마리아 봉헌 축일로 지키도록 선포하였다.

2) 성모 마리아 탄생제 : 9월 8일

희랍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 영국 성공회에서 지키는 마리아의 탄생제는 매년 9월 8일에 축제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왜 9월 8일이어야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3) 성모 마리아 정혼 축일 : 1월 23일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만 지키는 행사이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날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다. 이것은 1517년 교황 레오 10세가 시작하였다.

4) 마리아 성심 축일 : 8월 22일

마리아의 순결한 마음을 기념하는 축일로 1805년 교황 파우스 7세에 의해 시작되어 지켜오고 있다.

5)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제 : 9월 9일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아담의 타락 및 그 결과와는 절대 무관한 잉태를 축하하는 행사이다.

이 축제는 카톨릭교회만의 교회로 확정되었다. 마리아가 다른 모든 성자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오르자면 그에게 특별한 특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850년에 교황 피우스는 이 문제를 검토할 위원회를 소집하여 드디어 1854년 가을, 여러 명의 고위 성직자들(54명의 추기경과 140명의 주교) 회의에서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교황의 칙서로 발표하였다.

6) 마리아의 승천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그가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영광 중에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교리로 확정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눅 1:28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성경구절의 뜻이 라틴어인 벌게이트 성경에는 '케카리토메네'(κεχαριτωμενη)로 '은혜를 받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은혜가 충만한'이란 뜻이다. 여기서 카톨릭은 이 말이 곧 마리아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과 같은 불완전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할 것을 예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눅 1:42절에 "모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라는 말이 그녀의 승천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에 의하여 1950년에 교황 파우스 12세는 마리아의 승천설을 로마 카톨릭교회 교리로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리아 숭배사상은 걸잡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예배가 공식화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같은 교리에 대해 개신교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근래에는 몇 신학자가 이것을 신앙으로가 아닌 경건한 견해로 받아들여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적은 변명에 불과하다.

3. 성자들 예배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교회에서는 다 함께 성인들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적 교리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 그러면 과연 신앙의 위대한 성인들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서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약성경에서의 가르침

신약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울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는 결코 예배의 모습이 없다.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신앙의 위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보면 결코 예배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없다.

신약성경에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모습은 나타내고 있다. 마 10:17-23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눅 21:12-13에도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요 16: 1-2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계 17: 6에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계 20: 4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 하니”

이같은 성경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예전을 따로 실시해야 할 것같은 암시는 전혀 없다.

(2) 교회 역사 속에서의 발전

제2세기경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순교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뼈들을 보석보다 귀중하고 정금보다 아름다운 곳에 안치한 것을 말하였다. 여기서는 순교자의 유해에 대한 제사와 그를 위해 해마다 추념 행사를 실시할 것이 암시되었다.

이 당시 희랍인과 로마인은 생전에 유명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그들의 생일날에 실시하였었다. 그러나 기독교 순교자들에게는 그들의 순교일이 기념일이었다.

제3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교사회의 관습을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즉, 3일제, 9일제, 30일제, 1주년제 등으로 거행했다.

제4세기에는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같은 이가 순교자를 위한 기념예배가 실시된 기록이 있다. 이때 저들은 성인을 향한 기원(invocation)을 실시하였다.

5세기에는 순교자 숭배가 급속하게 확산된다. 그 이유는 순교자들의 성골이나 유물들을 나누어서 자기들 가까운 곳으로 이장하면서 수많은 묘당과 성인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성인들의 성골과 유물들을 숭배하는 관습이 차츰 생겨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인숭배와 유물예배의 관습을 본격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그레고리 1세이다. 이제 성자를 위한 예배는 단순한 기념축제가 아니었다. 성자들의 유물이나 성골을 옮겨서 이전을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효능이 있다는 전설까지 덧붙이게 되었다. 그래서 성자 예배는 비정상적으로 급속하게 발전되었다.

(3) 현재의 동서방교회

저들에게 성자들의 수효는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100여명의 성자들이 있다.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되면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100여명이 넘는 성자들도 전세계 카톨릭 교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성자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성자를 향한 경배와 우상숭배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득력있는 설명이 가능할까? 실로 저들의 신앙 행위를 알 때 가슴이 무거워진다.

4. 그림(성화) 성물의 숭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절하고 예배를 드린다. 또 이상한 물건을 조형해 만든 성상들을 앞에 걸어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예배를 드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성상에 대한 예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실 4세기 초 이전까지는 성상에 대한 숭배사상이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교적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림이나 조각물에 대한 예배는 계속 발전되었다. 그래서 338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성상 예배는 더 가속화 되었다.

교회 회의에서 금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어찌하여 성상 예배가 가속화 되었을까? 그것은 헬라인들이 예술을 사랑하고 그림을 즐겨하며 장식품에 각별한 관심을 썼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라. 예수께서는 그 당시 죽음을 몇시간 앞에 두고 심각한 고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분의 얼굴 주위에 환한 후광이 비쳤을까? 그것은 어김없는 헬라적 사고방식의 영향이다.

753년에 콘스탄티누스 5세(재위 741-775년)는 세계적 규모의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여기서 그는 영원히 성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여기 회의에 340명의 주요들이 참석하여 모든 성상들은 출 20:4절 이하 신 5:8, 롬 1:23-25 등에서 금지된 우상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6세(재위 780-797)는 성상 파괴 법률을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787년 여름, 7차 공의회(또는 제2차 니케아공의회)에서 300명의 주

교들이 참석하여 로마 카톨릭과 회랍 정교회는 성상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성전 안에 이미 성상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들(출 25: 18-22, 민 7: 8 이하, 겔 41: 18 이하, 히 9: 5)과 교부들 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상숭배가 '흠숭'(λατρεία)이 아닌 공경 또는 숭앙(προσκύνησις)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는 과거의 성상 파괴론자들을 파문하였다. 아울러 22개조의 교회법이 제정되어 모든 교회에 성상들이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공의회 결정 후에도 동서방교회에서는 황제들이 성상파괴 운동을 벌여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제 2차 니케이공의회 교령이 그대로 전래되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로 반대와 찬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성상 예배는 이제 하나의 완전한 현실로 굳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 동서방 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에 각종 화려한 그림과 조각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각 가정에도 이같은 형태는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상과 성화에 대한 예배, 이것 역시 미신 신앙의 유물이다.

5. 성례전 중 미신사상

우리가 흔히 쓰는 '성례전' 또는 '성만찬'이라는 용어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용어인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항상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관용어는 확실히 로마 카톨릭교회와 회랍 정교회가 채용한 말이다. 이제 그같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례전이란 말의 뜻과 사용 유래를 살펴보자. 성례전이란 말은 'Sacramentum'이다. 이 말은 회랍어 '무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 즉 '신비'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무스테리온'(신비)이란 말이 왜 성례에 해당되는 '세크라멘툼'이란 말로 사용되었는지 그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본래 'Sacramentum'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 ① 어떤 소송사건의 당사자들이 공공보관소에 맡긴 저당물 또는 담보물
- ②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최고 지휘관(imperator; 장군이나 황제)에게 하는 선서

그런데 공탁금이든 담보물이든 또는 선서였든지 간에 왜 이 말이 '상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Sacramentum'이 되었는가는 많은 추측이 있을 뿐이다.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로 'Sacramentum'이란 말을 사용한 이는 터툴리안(Tertullian)이다. 그는 침례를 비롯한 다른 '신적 성사'(Sacramenta divina)를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였다.

에거스틴도 표적, 또는 상징적 행위들은 신성한 것에 속해있을 때 이를 'Sacramentum'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는 Mystery와 Sacrament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는 Sacramentum을 정의하기를 '눈으로 볼 수 없는 희생제사와 볼 수 있는 희생제사가 Sacramentum, 즉 거룩한 상징이다'라고 하였다.

이같은 신학은 제롬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1907년 교황 피우스10세는 모든 '성례전'(이 속에는 7가지 성례전을 말함)은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제정하신 것임으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정죄한다고 선포하였다. 그 후로부터 성례전을 더욱 높이 격상시켜 '성만찬'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루터의 동역자 '멜랑히톤'은 다른 사람들은 '성례전'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세례'와 '주님의 식탁에의 참여'라고 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칼빈 역시도 그저 '성례전'이란 말을 그대로 썼다. 그러니까 성례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Ordinance)일 뿐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발생하는 거룩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뜻을 그대로 따른다면 '침례'와 '주의 만찬'(고전 11:20)이라고 해야 되고, '성례전' '성만찬'이라는 용어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성례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성례전이 거룩한 이름 아래 수백년동안 순진한 영혼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분부하신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각종 의식들을 자기들 멋대로 제정하여 수십가지 성례들로 온갖 돈을 각출해내는 이용물이 되었다.

12세기 파리의 Hugo of St. Victor (그가 죽은 때가 1141년)에 의하면 그 당시의 성례전은 무려 30여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성례가 필요했는가? 그 까닭은 전부 돈을 모으기 위한 도구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세기 대학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성례전이 순수하지 않고 미신성을 띤 것과 나쁘게 악용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때 성례전의 미신성을 신랄하게 공격하여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Peter Lombard (롬바드)였다(d. 1139).

이같은 지성인의 공격과 사회 모든 계층에서 성례전에 관한 비판이 드높아지자 로마 카톨릭과 회랍 정교회는 더이상 많은 성례전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무렵 전 유럽이 들끓는 빗발치는 여론의 세력 때문에 1547년 플로렌스(Florence대회)에서 성례전을 7가지로 줄이게 된다.

그 7가지 성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 (Baptism)

세례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맑은 물 속에 잠기는 것(침수)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체는 살수를 한다. 세례는 원죄와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한 면죄와 그 죄들에 대한 형벌이 파기가 된다고 한다.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불멸의 인호가 붙게 된다.

(2) 견진 (Confirmation)

세례를 받은 자는 주교의 축성을 받은 성유(기름과 향유, 그리고 연고들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를 도유받게 된다. 이때 사제는 “성신께서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아멘”하고 그 성유를 이마, 눈, 콧구멍, 입, 그리고 귀 등에 발라준다. 이렇게 견진을 받으면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고 은총이 증가되며 또 확인된다고 한다.

눅 24: 49에서 그리스도가 이것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3) 성체 미사 (Mass)

이 성체 미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가 없다. 미사는 합법적인 사제에 의해 정해진 제단과 성별된 천 위에서만 거행되어질 수 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순수한 포도주가 물과 함께 섞여서 사용된다.

빵과 포도주는 사제가 축성을 할 때 성신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체로 바뀌어진다는 것이다. 사제는 반드시 빵과 포도주가 영성체로 사용되기 전에 실체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성령의 임재를 기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실체의 변화’가 되고 빵과 포도주는 형태만 남는다.

영성체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데 이때 성직자는 빵과 포도주를 분리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에게는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빵만 준다. 그 까닭은 평신도와 성직자는 질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회랍 정교회에서는 포도주 잔은 주지 않고 빵만 주고 있다.

이같은 성체 미사로 얻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및 죽음에 대한 기억, 죄

에 대한 위로, 유혹에 대한 방어,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내재하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성체에 임하기 전에 죄의 고백, 금식,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신품 (Ordination)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것(벧전 2: 5, 9, 계 5: 10, 롬 12: 1)과 성사적인 것이 있다.

성사적인 성품이란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계승되어 온 것으로 서임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만이 서품을 줄 수 있다. 주교는 총 대주교구, 대교구의 주교들에 의해 그의 선출을 확인한 뒤 세 명의 다른 주교들에 의해 신원을 보장받아야 서임받을 수 있다. 주교만이 사제를 서품할 수 있다.

주교가 신부를 서임하는 것 외에 부제, 차부제, 독서자, 구마사, 문지기, 노래하는 자, 햇볼드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서품받은 사제는 성직의 직분들, 즉 성유 축사, 설교, 고해자들의 사면을 할 수 있다.

(5) 고백 (Penence)

흔히 '고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에게 구두로 고백하는 것으로 사제는 고백자에게 보속을 정하여 주며 아울러 사면을 선고하여 준다. 이때 사제는 자신도 죄인이며 용서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 고백에서 고해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실로 뉘우치고 있으며, 개심할 의사가 뚜렷하며, 사제가 정하여 주는 보속을 기꺼이 실행한다면 신자에게는 고해가 효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고백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는 해야 하고, 보통 1년에 4회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으로 치우치고 말았다.

(6) 결혼 (Matrimony)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호 동의하에(동의에 어떤 방해물이 없어야 됨) 두 사람이 사제 앞에서 동의를 확인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서약한다.

동방교회에서는 간통, 대역죄, 정신병, 문둥병 등을 비롯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된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

(7) 종부 성사(Uncion)

동방교회에서는 병자들을 위해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성유 성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막 6:13을 근거하여 사제만이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병자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한다. 오늘날은 부활절 바로 전 수요일에 건강한 사람에게도 성유 성사를 실시한다. 반면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병자 성사는 없고,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 마지막 기름을 바르는 종부 성사가 있다.

여기 7가지 의식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같은 의식들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사상의 맥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제 20 장 신약교회 고수주의자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라고 하면 주로 현재 커다란 대동맥을 이루어오고 있는 로마 카톨릭교회나 회람 정교회와 관계된 역사만을 취급해 왔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는 반드시 저들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다들 사라졌거나 또는 형태를 달리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극히 소수의 순수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을 이름하여 분파주의, 또는 이단이라고 명명되는 무리들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접해 온 시중에 있는 모든 교회사 책들을 수십권 수많은 자료를 접해 보면서 모두들 소수의 분파주의자를 다들 이단이라고 했다. 그들의 대부분이 이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정죄된 그 소수의 무리들이 왜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며,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정하였는가?

나는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많이 보았다.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라고 낙인찍힌 사람들 가운데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순수하고 깨끗하여 주님을 따르려는 정열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힘을 펴 나가는 데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정말 조직적인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이는 어떤 절대적 원칙도 사도들의 명백한 가르침도 따를 수가 없었다. 저들은 오로지 자기 세력 확장과 자기들 이익추구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다.

이들이야말로 타협하기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들 편리대로 왜곡시키는 진짜 이단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저들은 다수의 힘으로 승리하여 역사

에 승리자로 기록되었고, 그와 반대로 순수한 소수의 세력은 힘없이 밀려나 이단으로 낙인되고 말았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사 속에 잘못 기록된 수많은 의인들의 죽음은 결코 잊혀질 수가 없다. 아벨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억울하게 죽었으나 그의 피는 땅에서 울부짖는 호소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창 4:10).

여기 억울하게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나는 새롭게 명명하기를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다. 이들이 억울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역사 속에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저들을 이단이라고 속단했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의 기준은 자기들이 믿는 교회의 교리가 '자'(尺)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단정죄의 기준이 되는 자가 교회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 교파의 교리는 자기들 편리대로 조작해서 창안해 낸 편파적인 것임으로 가장 정확한 표준 자는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로마 카톨릭은 이미 신약교회에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성경도 66권이 아닌 77권을 믿고, 성경 해석도 교령집을 참조하는 전통(교황들)의 조명아래 해석을 한다. 또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고 현재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 절대무오한 신으로 믿고 있다.

이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신약교회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파문한 그 역사적 기록을 왜 그대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가?

이것이 역사라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고 재평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소위 개혁교회에 속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개혁은 했으나 지극히 중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개혁을 못한 채 카톨릭의 전승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에 속하는 신학자나 역사학자들 역시도 과거의 카톨릭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를 과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현실의 실상이다.

나는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 해 동안 신학교 강의실에서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공감은 하나 그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였다. 여기서 나는 새로운 역사를 설명하는 교회사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나에게 참 반가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주장하

는 신약교회의 원리에서 본 역사의 진술을 한 다른 저자를 만난 것이다.

E. H. BROADBENT로 그가 쓴 「The Pilgrim Church」(순례하는 교회)로 전도출판사에서 1990년 12월에 번역·출판되었다. 나는 이 책이 나의 주장과 생각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순례하는 교회」는 이미 1931년에 출판된 책이었다. 이 책이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빛을 보게 된 것을 보면 이제야말로 한국교회도 새로운 교회갱신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나는 이미 11장에서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이라는 항목으로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를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프리스킬리안, 바울파, 보고밀파, 알비파, 아놀드파, 왈도파 등을 살펴보겠다.

1. 프리스킬리안(Priscillian)

프리스킬리안에 관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다. 교문사가 만든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5권 pp. 1125-1127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말미에는 프리스킬리안에 관계된 참고문헌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교회사 책들에는 이들을 이단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1) 프리스킬리안의 기원

프리스킬리안은 4세기경 스페인의 '아빌라'감독이었다(AD380-385, Bishop of Avila). 그의 순수한 종교운동은 스페인 전역은 물론이고 포르투갈의 '루시타니아'(Lusitania)와 프랑스의 '아퀴타니아'(Aquitania)에까지 확산되었다.

프리스킬리안은 스페인 사람으로 부와 지위를 갖추었고, 학식과 능숙한 화술을 겸비한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가 처음부터 기독교신자는 아니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신 플라톤 철학이나 마니교같은 철학적 요소를 통해 영혼의 피난처를 찾곤 하였다. 그리고 그는 고전문학을 좋아함으로 그의 상식은 넓고 다양했다. 그의 폭넓은 지식은 그로 하여금 영지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의 성경연구를 깊이있게 하던 중에 드디어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그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곧바로 침례를 받고 생활을 통한 신앙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성경공부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는 삶이란 인격의 변화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삶을 드

러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많은 지식인 계층으로 하여금 공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프리스킬리안은 드디어 '아빌라'(Avila)의 주교가 되었다(380년).

그런데 그의 신뢰와 인기가 상승되어갈수록 그를 시기하는 다른 성직자들로 부터 반감을 사게 되었다. 프리스킬리안을 이단이라고 선동한 사람은 포르투갈 루시타니아의 대감독인 히다티우스(Hydatus)였다.

그는 380년 '캐사로구스타'(Caesaraugusta 또는 Saragossa)에서 개최된 교회 지방회에서 프리스킬리안을 마니교도요 또 영지주의자인 이단이라고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히다티우스의 중상모략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384년에 '부루디가라'(Burdigara)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 당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이타쿠스'(Ithacus)라는 한 감독이 프리스킬리안과 그의 추종자들은 '미술을 행하는 부도덕한 자들'이라고 다시 고발하였다.

이 회의에서도 성직자들 사이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막시무스'(Maximus)황제가 자신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 스페인의 다수 성직자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여 이 문제를 자신의 정치도구로 개입하였다. 그래서 다수의 부진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에 반해 소수의 진실을 추구하는 프리스킬리안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국가로 넘겨졌다.

이들은 '트라베스'(Traves)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명망있는 '뚜으르'의 감독 '마틴'(Martin of Tours)과 밀란의 암브로즈 감독은 프리스킬리안의 부당한 재판에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황제의 진노로 잠시 피신을 해야 할 정도였다.

드디어 프리스킬리안은 다른 6명과 함께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385년). 이것은 카톨릭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황제에 의해 처형당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틴'과 '암브로즈'는 프리스킬리안을 이단으로 몰아 참형시킨 일을 주동한 '히다티우스'와 그 외 '이타쿠스'와는 관계를 끊는다.

한편 황제 '막시무스'가 죽자 프리스킬리안같은 덕망있는 신앙인들을 억울한 누명으로 고문과 학살을 감행했다는 여론으로 이타쿠스는 감독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프리스킬리안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시신이 스페인으로 옮겨져서 순교자로 모셔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베스'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프리스킬리안의 처형을 취소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가 생겨났다. 이들 카톨릭교회는 박

에서 계속 일어나는 억울한 누명에 대한 여론 때문에 176년 후에 '브라가'(Braga) 회의에서 프리스킬리안 무리들은 이단이라고 다시 결정을 한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마니교도였고, 영지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악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형되었다고 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거짓된 왜곡과 편견에 의해 서술되기 시작한 프리스킬리안파는 수백년 동안 계속하여 왜곡되어 전수되어 오고 있다. 내가 접한 많은 자료와 문헌들을 보면 프리스킬리안은 이단이었고 스페인에서 일어난 분당파였다고 서술되고 있다. 그러면 저들이 참으로 이단이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결정에 의한 맹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에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리스킬리안의 주장과 신앙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단이 되었는가? 프리스킬리안은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1886년에 '게오르그 셰프스'(Georg Schepuss)가 '뵐르즈부르크'(Bürzburg)대학 도서관에서 프리스킬리안의 작품 11개를 찾아냈다. 이 내용은 11개 부분으로 처음 4개는 재판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있고, 나머지 7개 부분은 그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1)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도움을 얻기 위해 다른 글들도 읽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그의 주장은 다른 글인 위경도 정경에 삼입시키고자 한다는 고발을 당하게 된다.

2) 모든 성도들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확신과 성령충만의 감동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공부는 평신도라도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여성도 이같은 운동에 크게 쓰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그 당시 다른 감독들이 반대하기에 충분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나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하등 문제될 요소가 없는 일이었다.

3) 성도의 구원은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나 주문을 외움으로 오는 마술적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한 영적 체험이다.

교회가 만들어준 신앙고백문을 외우고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신자 개개인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영적체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이같은 영적체험이 없는 갖가지 의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평신도나 성직자나 다 똑같이 성령을 모시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주장은 오늘 우리가 볼 때 백번 지당한 말이나 그당시 교권이 가장 크게 신장되는 성직자 우선시대의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반발을 받을만한 주장이었다.

4) 금욕에 대하여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였다.

그는 금욕이란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몸이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를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경험하기 힘이 든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마니교의 금욕주의 교리와 같다는 공격을 당했다.

5) 신학 논문집이 여러 권 있다.

여기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사를 바로 깨닫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심의 전부였다. 그래서 삼위일체같은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겼다.

6)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 축복의 수단이다.

거듭난 영혼은 성경을 먹고 자라나며, 모든 성경이 계시하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운 교육을 통하여 매일의 삶을 인도받게 된다. 성경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는 교제가 가능하나, 성경을 읽는 것을 경솔히 여기고 세상적 마음을 버리지 못한 자들과는 함께 주의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프리스킬리안의 영향

프리스킬리안의 가르침은 '히다티우스'같은 교활하고 정치를 좋아하는 감독들에게는 강한 반발을 받게 되었다. 저들은 감독이 사도직을 계승받은 존재라고 감독의 직분 하나만으로 커다란 우월감을 갖고 실력을 행사해오고 있었다. 또 감독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보다는 낮으나 사람들보다는 높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런데 프리스킬리안은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성령충만과 거룩한 생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이든 평신도이든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인 영적 체험만이 구원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가져오는 방법도 성경연구라고 하였다.

이같은 프리스킬리안의 주장은 지금까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한 힘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저들은 신약성경에 명백히 밝혀진 바른 신앙을 옳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흐름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았다.

이들 프리스킬리안 추종자들은 프리스킬리안이 죽고 나서 더 많은 단체들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전임자들이 이단으로 결정했으니까 자기들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금욕주의자요 비도덕한 무리라고 공격하였다. 이들은 많은 박해와 공격으로 약 2세기 가까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라지고 만다.

2. 바울파(Paulicians)

바울파에 관한 자료로는 E. Gibbon이 쓴 「로마제국의 흥망사」 4권이나 Newman의 교회사 1권(pp. 379-386)에도 있고, 「순례하는 교회」pp. 80-87과 「기독교대백과사전 6권」pp. 1272-1276에 수록되어 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바울파의 기원

바울파의 기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하나는 바울파의 신앙과 주장이 신약교회 때 유대교의 개혁을 주도한 바울처럼 이들도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파라고 한다는 설과, 또 하나는 바울이 개혁을 내세워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파벌 활동을 조성했던 것처럼 파벌주의자에 대한 경멸적 호칭이었다는 설이었다.

하여간 기존 카톨릭 세력을 개혁하고자 했던 운동 세력을 바울파라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들 바울파의 기원은 AD640년경 '실루아노' 혹은 '실바' (Silvanus)라고 부르는 콘스탄틴 (Constantine)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콘스탄틴은 사라센 (Saracens)인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온 한 아르메니아 사람으로부터 성경의 한 사본을 얻게 된다.

콘스탄틴은 그 성경 사본을 통해 삶의 급격한 변화를 받고 그 이름을 바울의 동료였던 실루나오, 혹은 실라라고 바꾼다. 그리고 그는 곧 비잔틴 동방교회들이 성상 숭배를 하고 미신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로 인하여 비잔틴 황제인 '콘스탄틴 포코나투스'(668-685, Constantine Pogonatus)가 보낸 '시므온'(Simeon)이란 관리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데 콘스탄틴을 돌로 죽이도록 했던 관리 시므온이 콘스탄틴이 죽은 후에 그의 신앙과 삶에 너무 감동이 되어 3년 후에 그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는 자기 이름을 '티투스'(Titus)라고 개명하고 관리직을 버리고 '카브사'로 도망하여 열심히 복음전도에 힘쓴다. 그러자 '유스티니안 2세'(Justinian II) 황제는 '시므온'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이단자로 몰아 불에 태워 죽인다.

이렇게 성상과괴와 우상숭배를 배격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연결된다. 즉, 콘스탄틴, 시므온, 게네시오스(Genesios), 요셉(Joseph), 사가랴(Zacharia), 바네스(Bannes), 셴바트(Sembat), 세르기우스(Sergius)와 같은 이들은 연이은 박해를 통해 죽음으로 항거하며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상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확신 속에서 계속하여 기존 카톨릭 교회들과 싸우며 순교당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7세기 중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200여년 동안 계속하여 올바른 신앙 수호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기록은 「진리의 열쇠」(The Key of Truth; 이 책은 본래 아르메니아어로 쓰인 것으로 1891년 F.C. Conybeare에 의해 편집, 번역되었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카톨릭이 쓴 기록에는 사가랴를 '돈만 아는 목자'(Chireling Shepherd), 바네스는 '더러운 사람'(filty one)이라고 기록되어 전해져오고 있다.

842년부터 867년 사이에 '데오도라'황제의 칙령으로 열렬한 박해 때문에 10만명이 넘는 순수한 기독교 신자들이 죽게 된다. 이들이 죽는 원인은 성상, 돌, 십자가, 나무 등의 허탄한 우상숭배를 거부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이들 성상예배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소아시아 지방 북단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칭하여 '바울파'라고 한다.

이들이 계속 박해에 밀려 사라센 쪽으로 쫓겨가던 이들은 그들을 박해하던 동방교회와 카톨릭에서 마니교도 또는 바울파라고 경멸하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수세기 동안 자기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고 계속 인내로 고난을 참아나갔다.

그런데 계속 참기만 하던 이들 바울파에게 마지막이 왔다. 그것은 비잔틴 제국의 높은 지위에 있던 '카르비아'(Carbeas)가 무죄한 성도들을 죽이는 황제들의 만행에 울분을 느끼고 5,000명의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트레비존드'(Trebizond) 근교인 '테프리스'(Tephrike)에다 요새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교도인 마호메트 교도들과 손을 잡고 테오도라 황제의 아들인 '미카엘' 황제와 군사적으로 싸웠다. 그리고 에베소까지 이르는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며 성상 파괴운동을 전개하였다.

'카르비아'를 계승한 '크리소케이'(Chrysocheir)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니케아, 니코메디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하였다. 이 무렵에 모든 성상들을 닥치는대로 처부셨다. 그러자 황제 '바실 I 세'(Basil I)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크리소케이'와 대전쟁을 일으켰다.

바울파는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운동으로 박해와 죽음으로 계속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무력 항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크리소케이'는 죽임을 당하고 아울러 바울파 교도들도 로마제국 군인들에 의해 9/10가 살륙되고 말았다.

이 전쟁 이후로 바울파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 난다. 그 뒤로 나머지 1/10 정도가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발칸반도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잠식하고 만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으로 원정을 나섰을 때 시리아에서 바울파의 잔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18세기 때도 필립 포플리스 부근에서도 바울파를 발견한다.

(2) 바울파의 신앙

그러면 바울파로 호칭되는 이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만 살펴보자.

1) 이들은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미명하에 창안된 모든 인간적 산물을 모조리 배격하였다. 오직 성서만이 유일하고도 충분한 권위있는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카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전통이나 교권주의 산물인 교황제도를 가장 거세게 반대한 가장 강력한 반 카톨릭 세력이었다.

2) 성례전에서 '상징론'이나 이와 유사한 모든 주장을 거절한다.

3) 카톨릭의 성직 계급을 거부하고 비판한다. 모든 신자의 영적 개성과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했다.

4)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성인침례만 주장하였다. 이들은 예수께서 30세에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개, 침례, 주의 만찬만 인정하였다.

- 5) 마리아의 영구적 동정녀 교리, 무원죄의 탄생 교리를 반대했다.
- 6) 연옥 교리를 반대했다.
- 7) 성자들의 중보기도에 관한 교리를 거부했다.
- 8) 성화, 성상, 십자가, 고상, 향품 등 모든 우상숭배 요소를 배격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바울파의 신앙은 신약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도 이단적 요소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단으로 몰렸고 끝내는 억울한 누명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다.

(3) 바울파의 영향

이들 바울파들은 성경 이외의 것은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오늘날의 기록들은 저들이 마니교도와 같은 이단이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성자는 성부의 진정한 아들이 아닌 양자였다는 것을 주장한 양자론자였으며, 구약을 거부하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과 바울서신만 존중했던 말시온(Marcion)과 같은 이단이었다.

이같은 주장들은 카톨릭의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E. Gibbon은 「로마제국의 흥망사」를 기록하는 중에 바울파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바울파 신자들은 동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서 로마 제국을 계몽시켰던 자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640년경부터 비롯한 성상숭배의 반대자로 알려지고 있으나 보다 더 애매한 것은 이들이 마니교도와 같다고 왜곡되고 평가되어 오고 있는 점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니교도들은 성경 자체를 거부하였다. 또 성경을 변질시켜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였다.

이들은 또 괴상하고 사악한 행동을 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시대의 부패한 타협자들 보다는 보다 경건하고 행실이 훌륭한 것이 오히려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초기 회랍어 자료'가 불가리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아르메니아 고전'이 1849년과

1896년에 발견되고 있다. 여기 최근에 나오는 바울파에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수백년 동안의 역사 기록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바울파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큰 공헌을 남기거나 또는 귀한 작품을 남기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기존 국가와 타협한 교권주의적 교회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핍박과 박해를 하다 못해 이들을 역사 속에서 완전 죄인으로 매도해놓고 말았다. 이들에 대한 억울한 기록을 신약교회 실현의 이상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3. 보고밀(Bogomiles)

보고밀에 관한 참조 자료는 Schaff의 책 4권 p. 579에 언급되었고, Newman의 교회사 1권 pp. 543-545에도 있고, 기독교 대백과사전 7권 p. 828에도 수록되어 있다.

(1) 보고밀의 기원

우선 '보고밀'(Bogomile)이란 말은 슬라브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헬라이어 '데오필로스'(θεοφιλος)를 슬라브어로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Friend of God)란 뜻도 되고, 또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만한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운동의 창시자가 보고밀이란 신부였으며, 그는 가증스러운 이단 종파였다고 불가리아 신부였던 '코스마스'(972년, Cosmas)가 기록한 작품이 전해져 오고 있다. 따라서 보고밀의 운동은 그 이전인 950년경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보고밀의 운동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서만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보고밀리'(Bogomili)라는 지역이 넓게 퍼져있는 것을 보면 이 운동은 보다 광범위한 기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고밀 운동은 약 4세기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형태로 믿고 살아갔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기록이 전혀 없다.

이들에 대한 기록과 모습은 이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 그 모습을 엿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고밀에 대한 비난자들과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10세기 말엽에 저술활동을 했던 ‘코스마스’(Cosmas)는 보고밀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보고밀파들은 악마보다 더 악하고 혐오스러운 자들이다.’

그 이유는 보고밀파는 구약성경과 복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나 십자가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교회 예식과 교회의 모든 고위 성직자들을 모욕하고 정통 사제들을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밀파는 현 교회가 주의 만찬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고밀 파들은 ‘빵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보통의 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밀파는 금욕주의를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물질적인 것을 창조한 것은 악마였다고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보고밀파는 양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이 가득찬 이단자들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보고밀파의 겸손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문제에 대해 문답하게 된다. 그렇지만 저들은 양을 잡아 먹는 늑대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여기 코스마스라는 불가리아 신부의 기록을 보더라도 보고밀파가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코스마스의 주장대로 본다면 보고밀파보다는 코스마스 자신이 훨씬 더 이단적 주장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118년에 세상을 떠난 저술가 ‘유티미우스’(Euthymius)는 보고밀파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이 교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계명을 지킬 것과 온순하며 자비로울 것을, 그리고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한다. 그들은 처음에 온갖 좋은 것들과 쓸만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차차 해독을 끼쳐 멸망으로 이끈다’고 기록해 놓았다.

또 다른 한편 ‘나렉’의 그레고리라는 교부(Gregory of Narek)는 보고밀에 대하여 ‘그들은 생활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과 카톨릭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난받았다’라고 기록했다.

‘이 분파는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여 이를 벗어난 긍정적 노선을 따랐고, 자신들의 조직을 성경에만 기초를 두기 위하여 성경을 찾기 시작했으며, 거기서 순수한 가르침과 도덕적 생활에 대한 건전한 지침을 찾았다.’고 피력하였다.

하여간 이들은 바울파, 톤락파(Thonraks), 불가리아파, 보고밀파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그들의 삶의 척도나 도덕성, 근면성이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도 여러 면에서 뛰어났다고 하는 점에서는 모두 다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악한 이단이라고 정죄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카톨릭교회와 황제들의 전형적인 횡포의 결과였다.

다음에는 황제가 이들을 탄압한 실례와 교황의 탄압 실례를 한가지씩 살펴보겠다.

먼저 보고밀파로서 황제에게 처형당한 ‘바실’(Basil)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바실은 의사로 일하면서 자비량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며 약 40년간(1070-1111)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 그가 너무 희생적 봉사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 대한 존경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어느 날 ‘알렉시우스’(Alexius) 황제가 바실의 고매한 인격에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바실은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황제 궁전에서 황제를 만나 교리에 관한 깊은 토론을 하였다. 바실은 황제 앞에서도 거침없는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황제와의 대담이 끝나고 보니까 바실과 황제와의 대화를 속기사가 다 기록하고 있었다. 황제는 바실을 투옥시키고 그의 한 말을 증거로 이용하여 그 교리를 포기하도록 몇 년을 종용하였다. 황제는 끝내 바실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히포드롬’(Hippdrome)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시키고 말았다(1119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들’이라 불리던 ‘보고밀파’는 제국의 관리에 의해 사냥되거나, 화형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황제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바실과 보고밀파에 대한 기록들이 제대로 정당하게 기록 될 리가 없었다.

이번에는 교황들이 보고밀파를 괴롭힌 사실을 알아보자.

보고밀파가 최대의 발전을 일으켰던 곳은 ‘보스니아’ 지방이었다. 12세기경 보고밀파는 ‘스파라토’(Spalato), ‘달마티나’(Dalmatia)지역까지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보고밀은 한때 헝가리의 국교처럼 된다. 이때 보스니아에서 뛰어난 지도자의 호칭을 ‘밴’(Ban)이라고 하였다. 보고밀파의 지도자 중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쿠린 밴’(Kulin Ban)이었다.

그런데 이들 보고밀파는 카톨릭교회이기를 거부하였다. 이들에게는 사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저들은 모든 믿는 자의 만인사제직을 믿었다. 그리고 교회 지도

자는 투표를 통해 감독(저들은 어르신네라고 불렀다)으로 선출된 여러 장로들의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전담하여 사역하는 형제들을 인도자 또는 장로라고 불렀다.

예배의 모임은 어느 집에서라도 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곳을 정해 논 공식적인 장소에는 종도 제단도 없고, 오직 한 권의 성경이 놓여질 탁자와 흰 천으로 덮은 것만 있었다. 그리고 저들이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 병들거나 가난한 신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돕는 데 쓰여졌다.

이같이 보고밀파의 신앙형태는 카톨릭과 달랐다.

이같은 보고밀파의 신앙형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교황 이노센트 3세(Innocent III)는 헝가리왕의 도움을 얻어 '보스니아'의 귀족들이 모인 가운데 교황이 보낸 사절과 보고밀파의 지도자인 쿠린 사이에 회담을 개최하였다(1203년).

여기서 교황은 보스니아 귀족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보스니아 신자들이 카톨릭 교황에게 복종할 것을 동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배 장소에는 제단과 십자가를 세우고 미사를 집전하도록 하고 고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제와 1년에 두번의 성례를 실시할 것등을 약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식일, 성일(각 성자들을 섬기는 날)을 지킬 것과 평신도는 영적인 일들에 관여하는 것을 그치고, 영적인 일의 관장자는 오직 성직자로만 국한하여 성직자의 복장은 평신도와 다른 옷을 입힘으로 평신도와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카톨릭적 요소를 보고밀파 지도자인 쿠린 밴과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위협에 의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같은 동의 후 보스니아는 어느 정도 평온하였다. 그런데 교황에게 충성을 약속한 쿠린이 죽자(1216년) 교황은 카톨릭 교회가 선정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보고밀파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선교단까지 보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고밀파 사람들을 카톨릭으로 변화시켜보려고 6년간을 노력하였으나 보스니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보고밀파 사람들이 보스니아에서 다른 지방으로(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이스트리아, 카르니올라, 슬라보니아 등) 퍼져나갔다.

보스니아를 비롯한 보고밀파 사람을 강압적인 방법 외에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깨달은 교황은 십자군 전쟁의 여세를 몰아 헝가리 왕으로 하여금 보스니아 지방의 보고밀파 사람들을 진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보스니아 사람들은

교황이 보낸 카톨릭교회 지도자를 물리치고 보고밀파 신자인 '니노슬라브'(Ninoslav)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헝가리 군대와 보스니아의 보고밀파와의 전쟁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6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니노슬라브도 카톨릭 교인이 되고 지도자의 대부분이 변절자로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보스니아 지방 사람들을 카톨릭 교인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전쟁 후에는 여전히 보스니아 사람들은 보고밀파로 견재하였다. 그리고 근면하고도 덕적인 보고밀파의 노력으로 다시 산업이 재건되고 과거와 같은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자 교황은 보스니아 지방의 보고밀파를 잔멸하고자 헝가리만 아닌 전 세계 카톨릭이 참여하는 전쟁을 일으킨다(1325년).

이 전쟁에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많은 신자들을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한 뒤 거짓 증언자의 말만 듣고 아무런 변호인의 변호 과정도 없이 곧바로 처형시켜 버렸다.

사실 1950년 6월 25일, 6·25사변 때 북한 공산당들이 남한을 침략한 후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것으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던 그 원형은 바로 카톨릭이 만든 종교재판소에서 이아디어를 모방한 것이다.

보스니아의 보고밀파 신자를 진멸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의 명령에 많은 도미니크 수도회원과 프랜시스 수도 회원들이 앞을 다투어 참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카톨릭 교황은 보스니아의 마니교도들과 아리안주의자들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보스니아의 보고밀파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결국 헝가리 왕 '시기스문드'(Sigismund)는 보스니아 군대를 무너뜨리고 보스니아 귀족 126명을 참수하거나 드보이 절벽에서 보스나 강으로 떨어뜨려 살해하였다(1408년).

보스니아의 보고밀파 사람들은 사태가 어려워짐을 느끼자 회교도 국가인 터키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터키인들은 유럽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때라 곧 보스니아와 연합하여 헝가리 공격에 나선다. 이제는 카톨릭 세력과 보스니아와 터키의 연합군간의 전쟁이 된다. 그리하여 전쟁이 계속되자 맞선 순수한 보고밀파 신자들은 보스니아를 떠나서 '헤르체고비나'(Herzegovina)로 약 4만명이 이주한다.

1453년 모하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였다. 따라서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그리스, 알바니아, 그리고 세르비아가 다 회교권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보스니아인은 다시 터키와 결별하여 자기들 신앙을 되찾으려고 한다. 이때 로마

카톨릭은 터키인이 보스니아를 쳐없애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자 터키는 1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보스니아의 70개 마을과 요새를 점령하였다(1463년). 이로 인하여 회교도가 보스니아를 점령하고 잇따라 전 유럽으로 파급되어가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렇게 시작된 보스니아는 영원히 모슬렘의 손으로 넘어갔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 신앙과 맞지 않는 보스니아의 보고밀파들을 차라리 이교도인 회교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더 낫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카톨릭의 그같은 어리석음은 회교도들이 유럽 진출을 방어하는 큰 세력인 보고밀파를 늑대에게 내어주는 행동을 하였다. 이같이 야비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서도 보스니아 보고밀파를 마니교도와 같은 이단이었다고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논 것이 카톨릭의 정체이다.

(2) 보고밀의 주장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고밀에 대한 기록은 거의가 오해투성이다. 역사의 기록(주로 카톨릭)은 아리우스파와 소아시아 바울파(전항에 소개함)에서 들어온 이원론적 기원을 가진 신마니교도였다고 하였다.

개혁자들도 카톨릭의 기록의 평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신학자들이 기록한 역사도 거의 비슷하다. 다소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타 종교와 혼합하여 그 당시 기존 교회였던 불가리아 정통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슬라브 지방의 한 분파 운동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가장 정확에 가까운 평가는 옛 보스니아 왕국이 건립되었던 그 현장을 지금도 찾아가보면 좀 더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가는 자신들의 증언이 아닌 저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한 그들의 기록에 의해 단편적으로 엿볼 수밖에 없다. 그 기록에 의하면 보고밀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는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삼가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함으로써 물질을 정복할 수 있다.
- 2) 참된 기독교인은 결혼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삼가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함으로써 물질을 정복할 수 있다.
- 3) 형식적인 의식인 세례, 성찬식, 십자가 숭배, 교회 건물을 성당이라 하여 신성시하는 것 등을 배척하고 신자는 완전한 영적 침례를 받아야 한다.
- 4) 정통교회의 조직 및 각종 다양한 사제의 계급제도를 거부한다.

5) 신약성서와 시편을 주로 사용하고 구약은 너무 율법적이라고 거부하였다.

6)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가현설을 따르는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카톨릭 저술가들이나 사가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과연 저들이 신약교회의 원리에 벗어났는가를 통해 저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카톨릭이 자기들 자체가 성경에서 떠난 이단적 집단이면서 그들의 평가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 보고밀의 영향

보고밀의 운동은 기록상으로는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 신약교회의 가르침과 성서적 모범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들이 가장 가깝게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 분파들을 보면 그들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아르메니아 교회, 프랑스의 알바이젠스(Albigenses), 또는 이태리의 왈도파(Waldenses), 그리고 보헤미아의 후스파(Hussites)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저들 모두가 다 비슷한 신앙의 공통분모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옛날 보스니아 왕국이었던 현지를 지금도 가 보면 그곳에는 그 크기가 엄청난 수많은 돌비석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비석은 보스니아 지방에만 있는 옛날 '보고밀파'의 묘비들이다. 이같은 돌비석의 수효가 15만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돌비석을 '트라모'(대리석), '스테차크'(입석), '빌레크'(경계표 혹은 표지), '고밀레'(옛 무덤 혹은 흙무덤) 등으로 부른다.

이 무덤의 비석은 한결같이 십자가도 없고 또 기독교나 기타 다른 종교(마호메트나 카톨릭)의 상징표시도 전혀 없다. 이 무덤의 대부분은 '사라예보'(Sarajevo) 근처에 있다.

그런데 보고밀파가 카톨릭과 회람 정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저항을 하였으나 터키나 마호메트교에는 쉽게 굴복하고 말았다. 현재 보스니아의 주민들 중 마호메트 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은 보스니아의 보고밀파들이 카톨릭화 될 수는 없고, 오히려 마호메트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어떤 학자는 보고밀파가 그곳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이주를 해 떠나서 현재 북 이태리와 프랑스 지역에 있는 '카타리파'(Cathari)가 그 후신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한다.

카타리는 회랍어로 '카타로이'(καθαροι), 즉 윤리적 종교적 순결이란 뜻으로 교회 역사에는 카타리파가 많이 있다. 즉, 회랍 교부들 중에도 카타리파가 있고,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또 카타리파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제 말하는 보고밀파를 또한 카타리파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보고밀의 카타리파는 11세기부터 시작하여 15세기까지 존속했다가 사라진 분파라고 말한다. 이들은 철저하게 카톨릭교회를 세상에 속한 반교회(anti-church)로 보았다.

그래서 성례전, 미사, 성일, 십자가, 성호사용, 교회건축물 숭상,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성인과 성골의 숭배 등을 쓸데없는 물질적 전례라고 모조리 배척하였다. 이것을 주장하는 카톨릭의 사제들을 위선적 죄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교리가 아무리 좋았고 그들의 삶이 아무리 순결하고 청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탈선된 무리들이 저들보다 더 강하였다. 그래서 좋은 교리와 엄격한 생활도 환경에 의해 희생되고 짓눌리고 말았다.

이들 보고밀파는 올바른 성경 진리대로 살려다가 수난만 당하고,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한 시대의 의인들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이단이요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의 억울한 호소를 신원해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4. 알비파(Albigenses)

이들에 대한 참고 자료는 Schaff의 교회사 5권 pp.507-511 Newman의 교회사 1권 p.548에 있고, 기독교대백과사전 10권 pp.1349-1350에 수록되어 있다. 또 최근에 번역된 E.H.브로우벤트의 「순례하는 교회」 pp.121-141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 알비파의 기원

알비파는 '알바넨스파'(Albanenses)라고도 하고, 또 '알비조파'(Albigenes) 또는 알바이젠스파라고도 한다.

알비파는 12세기 중엽 프랑스의 남부 '알비'(Albi) 근처의 '롬베르'(Lombers)에서 교회의회가 개최된 이후 '알비파'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알비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신앙고백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에서 경멸하는 뜻으로 '알비파'무리라고 부르게 된다.

이들의 신앙고백은 당시 기존 종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드디어 이들이 마니교도와 같다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알비파는 실제로 마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 운동에 특출한 지도자는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Pierre de Bruelys)였다. 그는 20년 동안 모든 위협에 용감하게 대처한 능력있고, 근면한 설교자였다.

그는 이름뿐인 신자들에게 습관화된 교회의식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각성을 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는 자기가 어릴 적에 카톨릭에서 몸에 배이도록 믿어온 것들에 너무나 미신적 요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 믿도록 전하였다.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우피니(Dauphiny)', '프로방스'남부 프랑스의 '랑구에독'(Languedoc), '가스코니'(Gascony) 등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 가일스'(st. Gilles)에서 화형을 당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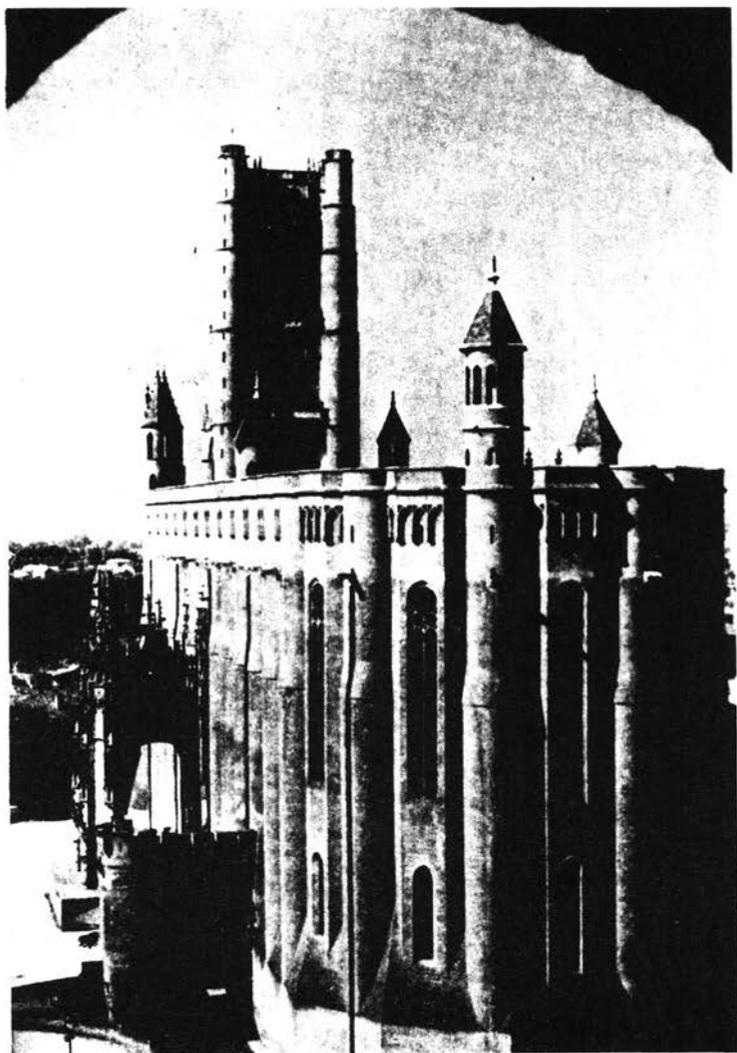
또 '클루니'(Cluny)의 한 수도사였던 '앙리'(Henri)가 있었다. 그는 뛰어난 용모와 힘있는 목소리, 수사적인 재능 등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안 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죄악을 파헤치고 사죄를 선포하는 올바른 성경주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열과 헌신 등은 많은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였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중에는 악명높은 악인들도 많이 있었다. 그의 인기와 그의 명성에서 시기가 나서 그를 반대하던 많은 성직자들도 그의 능력에 넘치는 설교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앙리'가 이렇게 위대한 영적 능력으로 그의 운동을 펼쳐가고 있을 때 당시 카톨릭에서는 앙리의 세력을 꺾기 위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소문난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를 끌어들었다. 버나드 외에는 그

누구도 앙리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버나드는 그의 모든 수사적 언어로 앙리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앙리의 운동은 그 한 개인의 운동이 아니었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남부 프랑스 알비에 있는 웅장한 교회

국민적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버나드의 공격은 일시적 처방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자 카톨릭은 앙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체포하려고 한다. 이에 앙리는 오랫동안 저들의 추적을 피하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성직자 중 배신자의 도움으로 카톨릭에 넘겨져 투옥이 된다. 거기에서 그는 옥사했거나 사형선고를 받고 죽게 된다(1147년). 이들이 죽자 역사에서는 '앙리파'(Henricians)가 이단분파였다고 기술했다.

남부 프랑스의 링구에독과 프로방스 지역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요구와 주장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같은 운동은 기타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자 교황 이노센트 3세(Innocent III)는 프로방스를 통치하고 있던 백작 레이몽 6세(Reymond VI)와 남부 프랑스의 다른 통치자와 성직자들에게 그 이단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프로방스의 통치자들은 교황의 요구에 적당히 넘어갔다. 그러자 교황은 1209년에 프로방스 지방을 타도하는 자에게는 면죄부를 하사하겠다고 선포한다.

이로 인해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성지 팔레스틴 회복을 위해 십자군 전쟁의 경험이 있던 많은 무사들은 교황이 선포하는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여 프로방스 파괴에 나선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프로방스는 이후 20여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황폐화되게 된다.

이 전쟁에서 '죄죄'(Beziere) 시민들은 항복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수십만의 시민들이 끝까지 항거하며 싸우다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또 '라 미네르브'(La Minerve)라는 곳에서는 그들의 적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 그들은 남아 140여명의 신자들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때 카톨릭의 군대 지도자 '시몬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는 커다란 장작더미를 준비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때 저들은 '우리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나 사제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저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

오, 주님 저들인들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만든 교리나 제도에 순종하기 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되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고귀한 생명들이 무참하게 사라졌나이다. 우리는 이같은 과거 역사들 보면서 내 어찌 옷깃을 여미고 내 신앙과 내 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

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뜨여져서 오늘의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로마 카톨릭 자체의 기록에도 보면 알비파는 카톨릭을 대결하고 도덕적 극단론을 주장하는 철저한 이단이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165년 '롬베르스'회의와 1184년의 '베로나'회의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식 결정했다.

그리고 1215년 제4차 '라테란'공회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들을 해산시키고자 십자군을 일으켜 저들을 진멸하도록 하였다. 그 이전 1209년에는 '베지에'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였고, 1213년에는 그레고리 9세가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알비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1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이 파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2) 알비파의 주장

알비파에 대한 기록은 거의가 카톨릭에 의한 것만 남아있다. 그들 자신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카톨릭 중에서도 이노센트 3세 교황이 알비파를 해산시키려고 설득한 문서라든가, 그레고리 9세가 종교 재판소를 열고 이 단을 파문하고 박멸하되 왜 그러했가에 대한 그의 공적을 열거하려는 기록 속에서 이들의 주장은 엿볼 수가 있다.

1) 그들 사상의 기초가 이원론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즉,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신이 따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이원론자들이라는 것이다.

2) 구원의 목적은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악마에 의해서 야기된 혼란된 상태를 종결짓는 것이다.

3) 구약과 신약의 예언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비유들로 해석했고, 그리스도는 환상적인 육체를 입은 천사들이었으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다시 부활하지도 않았다.

4) 카톨릭이 말하는 성사(사제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를 믿지 않고 연옥의 교리, 육체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

5) 모든 물질을 악하다고 믿는 그들은 도덕적으로 엄격한 극단론자들이었다.

6) 교회 내에서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보통신자(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자)와 완전한 신자(안수에 의한 침례를 받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다.

7)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이성으로써 충분히 자기를 파악하기 이전까지는 침례

를 받아서는 안 된다.

8)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진실된 예배를 받으심으로 애써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9) 십자가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것을 숭배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10)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다.

11) 기도나 선한 행실 등이 죽은 자를 더 좋게 할 수 없다.

이같은 주장들 중에는 알비파의 주장이 제대로 표현된 것이 있고, 또 어느 것은 알비파의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도 있는 것 같다.

(3) 알비파의 영향

알비파는 프랑스 남부지방 '알비'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가 14세기 말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알비파가 과연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원론자요 가현설을 따르는 이단이었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단의 어리석음을 프랑스의 많은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는가? 또, 알비파 스스로가 '완전한 자' (the Perfect)를 추구했는데 (마 19: 21) 왜 금욕주의이고 엄격한 자들이라는 평을 받아야 했던가? 이들의 신앙이나 주장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진멸해야만 될 그런 가치있는 일이었는가?

우리는 성경말씀대로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이들을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비뚤어진 자로 이단으로 평가하고 단정한 것을 보게 된다.

프랑스 남쪽에서 일어났던 이 순결한 사람들은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 놓고 조직적으로 색출하여 제거하려는 강한 세력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십자군 전쟁에서도 버티고 종교 재판에 의해 위협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발칸반도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 그리고 프로방스는 남부의 독립지역이었으나 프랑스 왕국에 합병되고 만다.

그리고 이 때를 계기로 하여 카톨릭에서는 '투울루즈'(Toulouse)회의(1229년)에서 모든 성경을 평신도들에게는 금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도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질 수 없고, 오직 라틴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영구적인 교령이 선포된다.

5. 아놀드파(Arnoldists)

아놀드파에 관한 참고 자료는 Schaff의 교회사 5권 pp.98-101, Newman의 교회사 1권 pp.563-566, 그리고 기독교 대백과사전 10권 pp.857-858 등이 있다.

(1) 아놀드파의 기원

교회 역사에 아놀드가 여러 명이 있다. 즉, 루터의 적대자 아놀드, 그리고 루터교 역사가인 아놀드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놀드는 이탈리아 브레스키아 사람인 아놀드를 말한다(Arnold of Brescia).

아놀드는 이탈리아 브레스키아에서 1100년경에 출생한 듯하다. 그는 파리에 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벨라드’(Abelard) 문하생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태리로 귀국하여 1119년경에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후에는 교회 법규위원으로 시무한 때도 있었지만 브레스키아 수도회 수도원장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아놀드가 수도원장으로 있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새로운 행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추진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큰 초점은 교회 재산이나 성직자의 재산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 재산은 치외법권으로 간섭될 수 없느냐는 문제였다.

이때 대다수의 모든 주교들은 교회 재산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아놀드만은 정부의 견해를 찬성하였다.

아놀드의 주장에 의하면 성직자들이 교회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으로 인한 현세적 세력은 성령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주교들, 사제들, 수사들은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성직자들이 전 재산을 벗어버려야 하며, 교회는 원시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아놀드의 주장은 교회 재산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카톨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적 교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박하였다. 또 신자가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은 다같이 상호 교제하는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교황이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것에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비성서적이라고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아놀드의 주장은 카톨릭으로부터 충분히 정죄받을만 했다. 그는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회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브레스카에서 추방령을 당한다. 브레스카에 추방당한 아놀드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거기서 성 베르나르투스와 논쟁을 벌이다 그곳에서도 추방되어 스위스 추리히로 간다.

그러데 아놀드가 추리히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그는 선도될 수 없는 불일치의 분열 선동자'임으로 그를 엄하게 다루라는 '베르나르투스'의 요구 때문에 추리히에서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아놀드는 다시 스위스로 떠나 보헤미아로 간다.

보헤미아에서는 그를 축출해야 한다는 추기경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그곳에서 안정하여 새 힘을 얻는다.

아놀드는 1145년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다. 여기서 그는 약 10여년 동안 전과 같은 개혁운동을 펼친다. 이때 아놀드는 로마의 집정관들과 협력하여 로마의 옛 원로원의 통치기구를 회복시킴으로 교황의 현세적 실행력을 약화시키려는 로마인들의 운동에 가담한다.

한동안 이들 로마인의 운동은 궤조를 보인다. 그래서 아놀드는 교회도 황제의 세력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개혁계획도 수립하여 나갔다.

아놀드는 독일왕 콘라드 3세에게 로마의 정부를 인수하도록 설득하나 콘라드 왕은 아놀드의 제안을 묵살한다. 독일왕 콘라드 3세의 후계자인 프리드리히 1세에게도 아놀드는 로마 정부 인수를 설득하였으나 프리드리히 1세는 아놀드를 방자하다고 거절한다.

아놀드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한 힘을 장악하려고 로마당을 조직하여 선거에 임했으나 실패하고 만다(1152년). 이 무렵 새로 교황으로 선출된 '하르리아누스' 4세는 아놀드를 로마에서 떠나도록 강요한다. 아놀드는 프리드리히 1세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가 교황의 명령으로 1155년에 처형시키고 그 몸을 불태워서 그 유골을 티베르강에 뿌려버린다.

(2) 아놀드의 주장

1) 신자가 다같은 형제(마 23:8)에 불과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2) 로마 카톨릭만이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하나의 교회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참 교회는 지상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3) 교황이 세속적인 권한까지도 행사하려는 것은 세속을 지배하려는 잘못이다.

4) 교회의 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정한 신앙관리가 유지된다.

5) 사제들의 재산 소유는 사제들의 타락을 자초하는 주 원인이 된다.

(3) 아놀드의 영향

아놀드의 주장은 모두가 옳았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고 행동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잘못되었고 또 교회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세상 군왕들의 힘을 빌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일이나 정당활동으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 한 점 등은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다소 해답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것 중에 교회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사제 역시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런데 교회는 전체 성도들이 공동으로 꾸려가는 지상의 집합체임으로 반드시 재산을 가지지 않고 영위되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제나 또는 성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볼 문제이다.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에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보다 순수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해볼 가치를 그가 제기했다고 본다.

6. 왈도파(Waldo or Waldenses)

왈도파에 대한 참고자료는 상당히 풍부하다.

Schaff의 「교회사」 5권 pp. 469-507, Newman의 교회사 1권 pp. 569-581에 있고, J.A. Wylie의 「History of the Waldenses」(1880년), G.B. Watts의 「The Waldenses in the New World」(1941년),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pp. 242-255, 「순례하는 교회」 pp. 127-141 등이 있다.

(1) 왈도파의 기원

왈도파로 불려지는 이 파의 기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왈도파라는 명칭은 1160년경 프랑스의 리용(Lyons) 사람인 피터 왈도(Peter Waldo)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운동은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아득한 역사로 소급해 올라간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호칭도 프랑스어로는 ‘발도’(Valdo) 또는 ‘발데시우스’(Valdesius)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피터 왈도(Peter Waldo)라고 해서 왈도파라고 한다. 현재는 이들을 ‘보드와’(Vaudois), ‘발렌세스’(Vallenses)라고 하

기도 한다.

그러면 이 왈도파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로마 카톨릭이 틀을 잡기 이전에도 이들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깨닫고 조용하고 험한 산 속에서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복음을 전수해 온 무리들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한다.

왜냐하면 '피에드몽'(Piedmont)의 '알파인'(Alpine) 계곡이나 타루르산맥(Taurus Mountains) 같은 깊은 산 속에서 이들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왈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들을 왈도파라고 하게 되었는가? '피터 왈도'(Peter Waldo)라는 프랑스 리용의 부자가 있었다. 왈도는 상업으로 성공하여 큰 자본가로 성공하였다. 그는 어느 날 자기집에서 베포 연회장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을 목도하고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왈도는 성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 성경의 일부분을 '로망어'(Romance dialect)로 번역하도록 하였다(1160년). 그는 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성지순례를 떠난 성 알렉시스(st. Alexius)나 성 안토니(st. Anthony)의 자서전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한 신학자에 의해서 마태복음 19:21의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는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다.

왈도는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1173년). 그리고 성경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다(1180년). 그러자 이 왈도를 가르쳐서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Poor men of Lyons)이라는 소문이 나게 된다.

왈도의 무리들은 청빈하게 살면서 동시에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에게는 비난을 하기 시작한다.

교황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가 소집한 제3차 라테란회의(Lateran Council)에서 왈도는 모든 성직자들은 청빈하게 살겠다는 서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도록 요청을 한다. 그러나 교황은 그들의 요구를 냉정히 거절한다(1179년). 뿐만 아니라 교황은 왈도가 설교하는 것을 금하도록 명령한다.

교황의 명대로 설교를 금지당한 왈도는 성경번역(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과 성인들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왈도의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리용의 대주교 '장'의 선동을 받아 교황 루키우스 3세는 왈도파를 리용에

서 추방하도록 명령한다(1184-1185년).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로 소문난 왈도파는 리용을 떠나 ‘밀라노’를 근거로 해서 수백명의 무리를 이룬다(1209년). 이 운동은 이태리 북부, 북서부, 프랑스의 스트라스버그와 바이에른,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마인츠 주변까지 확산된다(1231년).

이렇게 하여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는 ‘왈도파’의 세력이 계속 확장되는데 여기에 가담하는 세력은 주로 중산계급과 농민계급의 평신도들이 위주가 되고, 약간의 수도사들, 그리고 소수의 사제들과 지성인들도 합세한다.

이렇게 되자 왈도파에 대한 교황의 탄압이 시작된다. 1184년에 교황은 왈도파에 대해서 어떤 억압이든 해도 좋다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한다. 1194년에는 누구든지 왈도파를 은닉하여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설교를 듣는 자에게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불경죄로 고발하도록 칙령이 내려진다.

또 끈이어서 ‘왈도파’에게는 사형과 신체 절단을 제외한 어떠한 형벌이라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드디어 1197년에는 교황 ‘베트루스 2세’가 ‘왈도파’는 어디에서 붙잡히든지간에 화형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칙령에 의하여 1211년에 독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80명의 왈도파 회원들이 실제로 화형을 당하였다. 또 1214년에는 프랑스 남부 ‘마우릴렉’지방에서 7명의 왈도파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였다.

왈도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왈도파 중에는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롬 바르디아파’가 생긴다(1179년). 이들 ‘롬 바르디아파’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보헤미아,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까지 진출한다. 그래서 1315년경에는 오스트리아에서만도 추종자가 8만명이나 늘어났다.

15세기에 스위스에는 ‘후스파’(Huss)가 있었다. 이 후스파가 집단을 이루어 나중에는 ‘보헤미아 형제단’이 된다. 이들 보헤미아 형제단은 오스트리아, 모라비아, 보헤미아에 있는 왈도파 사람들을 자기들한테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왈도파인은 후스파나 보헤미안들을 다같은 형제로 인식할 뿐 그들에게 흡수되지는 않는다. 이 두 파는 서로 밀접하여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교리적 요소, 관습에 있어 보헤미아 형제단은 왈도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다음에 다룰 ‘재 침례교도’들의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바로 왈도파였다.

왈도파를 진멸하려는 원수들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 노리고 있었다. 1380년 7월 1일에는 프랑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169명이 한꺼번에 화형을 당했

다. 또 1545년에는 프랑스령인 스위스에서 군대가 왈도파들이 사는 마을 22개를 멸망시켰고, 4,000명의 왈도파 신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 비슷한 숫자의 교인들은 독일과 체코바로 도망쳤다. 1560년에는 교황 5세에 의해 스페인에서 6월중 11일 동안에 2,000명이 사형을 당했고, 1,600명이 투옥되었다.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왈도파에 대한 가혹한 핍박이 계속되자 1571년 이후에는 이탈리아의 왈도파 신자들이 과거와 같은 왈도파로 남아있지 못하고 칼빈파 중의 일부로 흡수되기도 한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온갖 살육을 계속하였다. 1686년에 루이 14세와 교황 빅토르 아마테우스 2세는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14일 이내로 국외로 떠날 것을 명령한다. 이때 프랑스 내의 왈도파 신자들이 무력으로 항거하자 3천명 이상이 전투에서 사망하고 5천명 이상이 죄수로 잡혀 유배당한다.

다른 한편 왈도파 교도와 유그노 교도들은 프랑스 '피에몽' 계곡에서 자기들보다 50배가 넘는 정부군과 끈질기게 대항을 하였다. 그래서 1690년 6월 4일에는 왈도파 교도들이 피에몽 계곡 안에서 사는 것을 허락한다.

그 뒤로도 몇 차례의 칙령번복이 있었으나 1848년 2월 17일에 황제 '찰스 알베르트'(Charles Albert)는 왈도파가 피에몽 계곡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해방 법령을 공포했다. 그래서 왈도파는 2월 17일을 해방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2) 현재의 왈도파

프랑스 피에몽 계곡은 왈도파의 본거지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왈도파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들이 있고 '발데세' 대학도 있다. 현재 8명의 교수와 100명의 대학생이 있다. 그리고 이 계곡에는 두 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고아원, 양로원과 전문학교도 있다.

20세기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 계곡을 중심해서 19명의 목사, 190명의 선생들, 4천명의 주일학교 어린이, 1,300명의 장년 신자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왈도파는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탈리아의 '투린'에다 1853년에 세운 '왈도파' 교회는 현재 2명의 목사와 700명의 신자가 있다. 또 1860년에 '피렌체'에는 왈도파 신학교가 세워졌다. 여기 피렌체 신학교에는 3명의 교수와 10명의 학생이 있다. 이 학교 과정이 끝나면 영국의 '에딘버러', 독일의 '베를린', 스위

스의 '제네바'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장학금으로 공부한다.

남부 이탈리아의 시실리에도 '팔레르나'라는 교육기관과 병원, 교아원, 수용소 등이 왈도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 왈도파는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에 5개의 교회가 있고, 아르헨티나에 2개의 교회가 있고,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도 있다.

이들 왈도파는 박애정신에 기초를 두고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함으로 왈도파 신앙을 가진 사회 사업가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3) 왈도파의 주장과 사상

왈도파는 철저한 성서중심의 신앙과 엄격한 도덕주의 생활을 두드러지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신학적 확립은 약하였다. 그래서 한 때 서로 분열되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믿는 바 신앙과 주장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들은 로마 카톨릭이 인위적 힘으로 제정한 모든 요소들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교황 '실베스터'(Sylvestor)가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교황청을 만들 때부터 교회의 변질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제도, 교회 성직자들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특혜조치를 받는 특권과 특전, 교황 이하 성경에 없는 각종 사제들의 계급과 직제, 교회 및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소유, 공의회라는 이름 아래 다수에 의해 제정된 각종 탈법적 결정, 성직자의 독신생활의 의무화, 카톨릭의 미신적 성례전 신앙 등 모든 요소들을 다 거부하였다. 그래서 1240년부터는 카톨릭이야말로 계 13: 11-15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2) 14세기부터는 카톨릭이 실시하는 종교 교육제도, 성서에 대한 신비적 해석, 그리고 카톨릭의 각종 의식들을 반대하였다.

부활절, 성탄절, 승천축일, 성령강림절, 사도들의 축일(사도들이 순교했다는 날들에 대한 기념 행사), 금식일 등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예배시에 양초를 사용하는 것, 종려나무가지,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오르간 사용, 종 사용, 라틴어로만 사용하는 예배문, 마리아상 숭배, 성자들의 성골 및 유물숭배 등 실로 카톨릭이 실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배격하였다.

3) 카톨릭의 교리적인 것도 반대하였다.

유아세례, 견진 성사, 종부성사, 연옥의 교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 등 모든 교리도 배격했다.

4) 왈도파의 특징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가난한 생활'을 강조하였다.

왈도파 회원이 되려면 세상을 포기하고 사도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사도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공식 서원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외적 상징으로 사도복이라는 특수한 옷을 입어야 했는데, 남녀가 다같이 입어야 했다. 초기에는 이렇게만 하면 회원이 되었는데 후에 '롬 바르디아' 엄격파에서는 회원이 되는 조건이 1-2년 또는 5-6년간의 수습기간이 지나도록 철저한 청빈생활을 완수한 자라야만 회원이 되었다.

5) 회원이 된 사람은 맹세를 한다.

입회식이 끝난 다음에 철저한 가난과 복음서 계율에 대한 준수,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과 사도복을 평생 착용할 것등을 맹세한다. 이들은 주로 신약성경 암기로 시간을 보낸다.

6) 회원이 된 자의 생활 처우문제

눅 10: 1대로 항상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둘씩 짝을 지어 방랑하는 설교가들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닌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위한 생계비를 버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생활은 친구나 또는 설교 후 감동자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생활품을 공급받았다.

7) 금식을 장려하였다.

이들은 금욕으로 정죄의 요소를 막기 위해 금식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1주일에 월, 수, 금 3일을 금식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8) 경건생활을 권장하였다.

경건생활을 소중히 여겨 하루에 기도를 7회씩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9) 평화를 원하였다.

모든 형태의 맹세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죽음처럼 싫어하였고, 피흘리는 전쟁, 또는 사형 등 모든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신안문제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 사회법적으로 대처하는 것 등도 반대하였다. 이들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도 원치 않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 기도와 자선의 삶을 살도록 하였다.

10) 설교하는 것을 대표적 의무로 여겼다.

왈도파는 남녀 모두가 설교하였다. 평신도가 설교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약 4: 17, 계 22: 17, 막 9: 38-39, 빌 1: 15, 민 11: 29 등을 인용하였고, 여자들도 설교자로 허가하기 위해서 딘 2: 3-4, 눅 2: 36-38의 안나의 예를 들었다. 이들의 설교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하였다.

11) 사유재산을 포기한 삶이었다.

왈도파의 사도들은 재산이나 집이나 가족 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비록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였다. 그들의 삶은 자기 부정과 고난과 위협의 삶이었다. 그들은 돈도 없고 두 벌 옷도 없이 매우 간소한 여행을 하였다.

(4) 왈도파의 영향

이들 왈도파의 신앙은 재침례교도, 모라비안, 유크노 등은 물론이고 최초로 종교개혁에 앞장선 루터 역시 왈도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종교적, 신앙적 영향은 물론이고 피에몽 계곡에서 오랜 세월 격리생활을 하는 중에 자생적으로 발달된 가내수공업의 원시 형태의 근대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 왈도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존재해 있다.

제 21 장 중세기 교회의 두 기둥

중세기 교회의 대표적 두 기둥은 수도원과 교황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황제도에 관해서는 앞서 13장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수도원 운동에 관해 살펴볼도록 하겠다. 최초의 수도원은 320년경 이집트 남방에서 설립된 것이 시초였다. 그 다음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528년에 이탈리아에서 설립되어 그 명성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에는 십자군 원정에 출정하는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나 수도원에 기증하고 떠남으로 수도원의 재산이 갈수록 늘어났다. 수도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수도원에서 가장 유명한 교황들이 배출되었고, 훌륭한 대학 교수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수도원을 지원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공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앞을 다투어 수도원에 자기 토지와 재산을 기증하였다.

910년 프랑스 마콘(Macon)에 세워진 '클루니'(Cluny) 수도원은 세 교황(그레고리 7세, 우르반 2세, 파스칼 2세)을 배출한 가장 영향력있는 수도원이었다.

클루니 수도원은 교황의 직할 하에 두어 감독이나 귀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전을 누렸다. 귀족과 왕들은 클루니 수도원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고 감독들은 유능한 수도사들을 선별하여 클루니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되자 서로가 클루니 수도원의 지원자가 되려고 하였다. 그래서 937년에 17개의 지 수도원이던 것이 994년에는 37개로 늘어났고, 1100년경에는 200개 이상으로 확산된다.

또 유명한 수도원은 프랑스의 '시터'(Citeaux) 수도원이었다. 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클루니 수도원과 달리 농부와 빈민출신의 서민 계층이었다. 이들은 수도원에서 학구적인 연구보다는 명상에 힘썼고, 금욕생활을 강조하며 농사와 노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다.

이 수도원에 ‘버나드’(1090-1150, Bernard)가 들어와서 계속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여 1151년에는 3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세워졌고, 13세기 중엽에는 1,8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세워진다.

이처럼 수도원이 많아지면서 좋은 점도 있었겠으나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수도원 생활이 지상에서의 가난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곳이며 세상은 문제가 많은 애굽생활로 비교되어졌다. 이같은 수도원의 안이함이 수도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드높아져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으로 개혁을 시도한 이가 ‘프랜시스’와 ‘도미니크’이다.

이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서 타락해가는 교회를 바로잡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프랜시스나 도미니크 두 사람은 왈도파로 낙인찍힌 ‘왈덴시안’(Waldensians)이나 ‘알비파’로 정죄된 그들도 다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이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은 프랜시스나 도미니크는 어디까지나 교황권의 지도 아래 조직권 안에서 활동을 하였고, 왈도파나 알비파는 제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려다가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다들 모두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려는 마음은 같았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라는 차이로 이들에 대한 후세평가가 너무 상반되게 전해져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프랜시스와 도미니크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자.

1. 수도원의 개혁운동

수도원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선호했다는 것은 수도원이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안정 속에 탐닉하고 있다 보면 그 세력 안에는 부패와 타락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부와 영예를 즐기고 있는 동안 수도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여기 개혁의 요구에 부응한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와 도미니크이다.

(1) 도미니크(1170-1221, Dominic de Guzman)

도미니크는 1170년에 스페인의 ‘칼라로가’(Calaroga)에서 태어났다. 그는 원래 귀족출신으로 그 가문의 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도미니크는 ‘팔렌시아’(Palencia)에서 10여년간 공부하던 중 대학과정을 마친다. 도미니크는 그 지방

의 감독 '오스마의 디에고'(Diego of Osma)에게 인정을 받아 오스마 성당의 참사원(의전사 혹은 고등신부)이 된다

도미니크는 29살 때 성 어거스틴 수도원 규칙을 따르기로 한다. 성 어거스틴 수도원 규칙이란 수도원적 공동체에 모여 살되 세속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거나 신자들을 위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203년 도미니크는 주교 디에고 감독과 함께 남부 프랑스를 방문한다. 그곳은 당시 '알비파'(Albigenes)들이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였다. 여기서 도미니크는 크게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카톨릭이 알비파를 이단으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비파가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되는 것을 본 것이다. 그러면 카톨릭이 알비파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는데도 그토록 발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당시 카톨릭이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대단히 안일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알비파들은 극단적 금욕생활로 생활 자체가 모범이 된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도미니크는 이단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무력보다 더 효과있는 방법은 청빈한 삶이라는 걸 깨닫는다.

도미니크는 알비파들을 정통 카톨릭으로 되돌리는 교화작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피레네 산맥 아래에다 여성을 위한 수도원을 창립하였다. 그리고 알비파였던 귀족출신의 여성들을 카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교화사업에 성공한다. 그가 이같은 성공의 모습을 보고 '투루우즈'(Toulouse) 대주교는 도미니크에게 수도원을 위한 건물을 하사한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도미니크는 투루우즈 대주교의 지원 아래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 이노센트 3세를 만난다. 그는 교황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수도회의 설립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도미니크는 새로운 수도회는 기존 수도회 규칙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 규율을 채용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때 교황은 이미 1210년에 설립된 프랜시스 수도단이 있으니 그 수도회에 가입하고, 서로 다른 수도원의 규칙들이 너무 다양하게 시행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투루우즈로 돌아온 도미니크는 성 어거스틴 수도회 규율을 채용하였다. 그 후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규칙들을 추가 입법 조치하였다. 그리고 공식명칭을 '설교자들의 수도회'(The Order of Preachers)라고 하였다. 이들 도미니칸 수도회의 특징은 빈곤과 구걸 혹은 탁본이라고도 하는데 알비파를 의식하여 자기들도 가난함을 자랑으로 내세웠다.

이들 도미니칸 수도회에서는 학문탐구를 대단히 강조하였다. 도미니칸들은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 빈곤을 내세웠고, 이들의 주된 목표와 목적은 설교, 교훈, 교육, 그리고 신학 탐구였다. 빈곤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1216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죽고 새로 ‘호노리우스 3세’(Honorius III)가 교황이 되었다. 이때 도미니크는 다시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수도회 설립허가를 받아낸다. 교황은 도미니크에게 **Magister Palatii**(the Office of the Palace)라는 직분까지 주어 교황청 안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지도뿐 아니라 교황의 성경해석의 자문역을 맡게 한다.



▲수도원들의 위대한 시대는 지나갔다. 이것은 북부 잉글랜드에 있는 일찍이 장엄했던 리보(Rievaulx) 수도원의 유적이다.

1217년의 도미니칸 수도회는 그 숫자가 적었다. 그러나 장래의 지도자를 위하여 단원들을 일류대학이 있는 파리, 로마, 볼로냐 등의 대학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수도회 허가를 받은 지 4년 후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불란서, 폴란드 등 전 유럽에는 수도회원들로 만연하였다.

1220년에는 교황청 안에 한 구를 도미니크에게 특별 주문처로 주어서 교황의 내정과 교황청 내 직원들의 영적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도미니크는 교황청 안에 한 구를 담당하여 영구적으로 그 직위를 계승해오고 있다.

1220년 제1회 전체 도미니크 회의가 볼로냐(Bologna)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도미니크는 결식을 통한 자신의 청빈과 설교와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의 양대원칙을 그들의 생활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또 직제로 총장은 종신직, 원장은 4년, 부장도 4년만에 선거로 선출하도록 엄격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도미니크는 북이탈리아 지방에서 결식을 하며 전도하다가 1221년 8월 6일에 볼로냐에서 숨졌다. 도미니크가 죽을 무렵 이미 도미니크 수도단을 통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 60여개의 수도원이 건립되었다.

이들은 결식과 봉사를 강조하면서도 연구를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연구하고 전도하라'(Study and preach)가 이들의 표어였다. 그래서 4년간의 철학과 신학 연구를 해야 설교면허가 주어지고 계속해서 다시 3년간 신학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수도원과 교회가 갑바도기아(터키)의 고레메(Goreme)계곡의 색다른 암석층 가운데 건축되었다. 둥근 천장과 후진(apse)과 교회당 중앙부(본당)와 측랑(aisle)을 만들기 위해 그 암석층을 파냈다. 완전한 지하 수도원들도 세워졌다.

이 수도단은 고행보다는 연구, 의식보다는 설교를 중하게 여겼다. 이와 같은 영적 훈련과 학문 연마가 온상이 되어 '알버트 마그너스'(Albert Magnus),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같은 대 신학자가 여기서 배출되었고, 또 '에크하르트'(Eckhart)나 '타울러'(Tauler)같은 신비주의자들과 '사보나롤라'(Savonarola)같은 개혁자들도 나왔다.

(2) 프랜시스(1181-1226, Giovanni Bernadone Francis)

도미니크보다 12년 후에 이탈리아의 앓시시(Assisi)에서 프랜시스(Francis)가 태어났다. 그의 모친은 프랑스인이었고, 부친 역시 프랑스와 잦은 상거래를 하는 이탈리아인이었다. 그의 부친은 앓시시 사람들이 '작은 프랑스인'이란 뜻의 '프란치스코'(Francesco)라고 불렀다.

프랜시스는 그의 부친이 출타 중에 태어나서 그의 모친은 그의 이름을 '지오반니'(Giovanni)라고 했으나 후에 그 부친이 돌아와 '프랜시스'(Francis)라고 하였다. 프랜시스는 소년시절에 그의 부친이 큰 의복상을 하는 부자였으므로 아주 호화롭게 자라났다. 그러다가 앓시시 성민이 귀족들과 투쟁을 할 때 프랜시스는 평민의 편에 가담하였다.

그 다음에 프랜시스는 '아quila'(Aquila)원정에 군인으로 참가하였다가 허약한 몸애 중병이 걸려 되돌아온다. 이때 그는 회개와 함께 그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다짐한다.

어느 날 부친이 향연석상에서 미희들에게 둘러싸여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프랜시스는 대단히 음울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놀리며 프랜시스도 결혼할 꿈을 꾸고 있다고 놀려댔다.

그랬더니 프랜시스는 말하기를 "그렇다. 나는 결혼하련다. 그러나 내가 결혼할 대상은 이곳에 앉아있는 미녀보다 고귀하고 부유하며 우미한 여성이다. 그는 곳 청빈이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프랜시스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다. 그는 곧 사교계를 떠나 병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하기 시작하였다.

지나가는 나병환자와 키스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돈을 주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별의별 일을 다하였다. 이같은 그의 행적에 대해 그 아버지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랜시스는 앓시스 성에 있는 성 다미안(St Damian)성당을 보수하려고 부친 몰래 부친의 장사 물건인 옷감을 꺼내다 팔아 성당 수리사업을

착수하였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프랜시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로부터 상속권이 없음을 들어 감독 앞에 재판을 걸었다.

이때 아들은 “지금까지는 이 어른을 아버지라고 여겼으나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함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1207년).

그 이후로는 앓시시 근처의 굴 속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그의 몸에 낭마를 걸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빈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즐기며 소일하였다. 이렇게 2~3년간을 유랑빈민의 생활로 지내면서 성당 모퉁이나 남의 집 헛간같은 곳에서 잠을 자며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성당을 수리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후 1209년에 프랜시스에 예배도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마 10:7-10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과 은을 지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자발적인 가난과 이것을 통한 기쁨 속에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가난한 중에도 설교를 통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기가 처할 곳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빈자와 병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프랜시스는 이같은 깨달음대로 은둔처를 떠나 다시 자기 고향 앓시시로 되돌아가 주민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전에 알고 있던 친구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차츰 그의 이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곁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1209년 프랜시스는 자기를 따르는 동지들을 모아 교황 이노센트 3세로부터 수도단 설립허가를 얻어낸다.

교황 이노센트는 프랜시스의 요청을 허락할 마음이 없었으나 프랜시스를 직접 만나고 나서 그의 진지함 때문에 허가를 하게 된 것이다. 프랜시스는 자기 고향 앓시시로 돌아가 새로운 수도회의 이름을 ‘앓시시의 참회단’(Penitents of Assisi)이라고 하였다가, 1216년에는 ‘소 형제단’(Minor Brethren)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프랜시스의 이름을 따라 ‘프랜시스 수도단’이라고 불렀다.

1212년에는 앓시시에서 문벌이 높은 ‘클라라’(Clare)라는 여자가 삭발을 하고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을 위한 자매 수도회가

클라라에 의해 창설되고 이들을 ‘클라리세스’(Clarisses), 혹은 ‘가난한 클라라들’(Poor Clares)이라고 부르게 된다

1219년에는 앗시시에서 의회를 열고 각 기독교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프랜시스 자신도 12인의 전도자와 함께 팔레스틴에 가서 모하메트 교도에게 전도하고 서반아까지도 전도여행을 한다.

프랜시스는 이같은 그의 수도원 운동의 성공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유혹과 종말을 가져올 것을 막기 위해 수도원의 지도권을 교황의 지도하에 있는 추기경 단에다 위임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도 1221년경에는 이 수도원의 단원이 3천명에 달하였다.

프랜시스는 교단의 외부적 발전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오직 가난과 전도봉사에 그의 할 일을 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월성신과 초목화초를 형제라 부르며 태양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전설이 있다.

프랜시스는 1220년 총회석상에서 자기가 지도자 자리를 사임하고 새 후계자가 선출되었을 때 그에게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기 위하여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프랜시스는 전도와 봉사에 과로하여 건강을 잃고 1226년 10월 3일에 45



◀앗시시의 프랜시스는 세상의 소유물에 대해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 큰 교회는 그를 기림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 교회는 앗시시의 페루기아(Perugia)에 있다.

세가 되었을 때 그가 젊은시절에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성당을 재건하였던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프랜시스가 세상을 떠난 2년 후에 교황 그레고리 9세는 프랜시스에게 성자(Saint)칭호를 주었고, 교황은 프랜시스 기념회당을 짓는 데 친히 주춧돌을 놓았다.

프랜시스는 단순하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사랑하는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갔다. 교회 역사 속에서 프랜시스만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산 사람도 많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청빈하게 복음증거의 삶을 살아간 그의 삶을 동경하여 그와 같은 삶을 따랐던 것이 고아원의 창시자 '조지 물러'(George Muller)나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라고 할 수 있다.

2. 스콜라신학(Scholasticism)

중세기 신학을 '스콜라'신학이라고 한다. 스콜라라는 말은 '학교들'(Schools) 속에서 발전된 신학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학문운동은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스콜라신학'(Scholasticism)이라고 불려졌다.

스콜라신학은 중세시대(8~15세기)를 특징짓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생겨진 서방 기독교의 대표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콜라란 말이 맨 처음에는 '구도자'또는 '학자'라는 뜻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학자를 배출하는 학교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는 교수에 의하여 형성된 학문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스콜라라고 하면 중세기를 대표하는 사상으로 통칭할 정도로 되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스콜라철학'과 '스콜라신학'은 구별되어야 한다. 스콜라철학은 이성적 직관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본 원리 위에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고, 스콜라신학은 성서와 교부들의 사상에서 기초가 되어 교회가 수용하고 권위있게 가르쳐진 교리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스콜라신학에서 한 일은 교리와 이성을 조화하는 일을 하였고, 또한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신학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스콜라신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실재론(Realism)으로 진리나 선 같은 우주적 보편적 개념은 어떤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보편적 실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재론은 삼위일체론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앗시시의 프랜시스 주의에 그의 생애의 여러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왼쪽 맨 아래 그림에서 그는 회교국 군주(Sultan)에게 설교하고 있고, 그 위의 그림에서 그는 새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명론(Nominalism)이 있다. 유명론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들이 만들어낸 기존 개념을 터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란 지적 추상에 있지 않고 개체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스콜라신학은 제4기로 구분한다.

- 제1기 : 8, 9, 10세기의 초기사상

- 제2기 : 11, 12세기의 형이상학적 논리의 결론들이 신학적 교리해명에 적용되는 시기

- 제3기 : 13세기의 스콜라신학의 전성기, 이때는 철학과 신학이 연합하여 종합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시기

- 제4기 : 14, 15세기의 신학과 철학의 연합이 깨지는 쇠퇴기로 이때는 철학과 신학의 상호의존 관계가 분리됨으로 사고의 활력을 상실하고 스콜라주의가 쇠퇴하게 된다.

이제 스콜라신학의 변천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기 (8-10세기)

이 시기에는 신앙과 이성간에 대립이 표출되면서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는 때이다. 이때 논쟁의 초점은 성만찬과 예정설 때문에 논쟁이 생긴다.

1) 성만찬 논쟁

831년에 코르비에의 대 수도원장 '파스카시우스'(Pascasius)가 철저한 화체설을 주장하였다. 즉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과 피로 변형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라트람누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신비 속에 현존하는 것이라고 해서 화체설보다는 신비로 설명하였다.

2) 예정론 논쟁

'고트살크'의 잘못된 예정론을 분쇄하기 위하여 철학 용어로 상대편 이론을 공격한다.

최초의 스콜라주의 개척자는 '에리게나'(810-877, John Scotus Erigena)이다. 에리게나는 오리겐(Origen)과 어거스틴(Augustine)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는 고도의 지적 창의성을 갖고 신앙과 이성을 동일시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철학과 신학은 다같은 정신의 표현으로 믿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철

학은 인간 이성의 표현이고, 신학의 주장은 진리의 상징적 표현들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전통적 교리들도 자유로운 철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했다.

에리게나가 쓴 「자연의 구분」(De Divisionis Naturae)이 있다. 여기서 그는 자연을 네 가지 유형의 존재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았다.

- ① 창조하고 피조되지 않는 것,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신이 있다.
- ② 피조된 것으로서 창조하는 것, 즉 이상적 원리인 'Idea'의 세계가 있다.
- ③ 피조되었으나 창조하지 못하는 것, 즉 유한한 개별적 사물들의 세계
- ④ 피조되지도 않았으며 창조하지도 못하는 것, 즉 만물의 목적과 목표로서의 신이 있다.

여기 에리게나는 절대적 완전은 오직 신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 이외의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거나 불완전한 존재이다. 신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특성들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 누구인가보다는 오히려 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에리게나는 철학과 종교는 다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전제한다. 다만 철학은 연구하고 의논하는 것이고, 종교는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룬다고 하였다.

이같은 에리게나의 주장은 범신론에 속하지만 하여간 그는 철학과 신학을 다 같은 목적으로 봄으로써 둘의 연합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2) 제2기 (11-12세기)

이 시기에는 인간적 논리의 특징들을 신학적 교의의 해명에 적용하려고 한 시기이다. 이때의 대표적 학자는 '안셀름'과 '아벨라드'이다.

1) 안셀름(1033-1109, Anselm of Canterbury)

안셀름은 이탈리아 피에드몬트(Piedmont) 아오스타(Aosta)에서 출생하였다. 그 후 프랑스 노르만디(Normandy) 백(Bec) 수도원에서 수행을 쌓았다.

안셀름이 이곳을 택한 것은 그 수도원 원장인 '랑프랑'(Lanfranc)의 명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랑프랑 원장이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로 임명되어 갔다. 그러자 안셀름이 백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

1093년에 캔터버리 대주교로 간 '랑프랑'은 자기 자리를 계승하기 위해 안셀름을 캔터버리로 부른다.

안셀름은 그 당시 교황인 '힐데브란트'는 그레고리 7세(1073-1085)라고 하여 그가 국왕들과의 마찰이 심한 때였으므로 영국에 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다.

그래서 마지못해 캔터베리 대주교로 1093년에 갔으나 영국왕 윌리엄 2세와의 충돌로 1097년에 추방을 당한다. 그래서 수년간 이탈리아에 머물러 있다가 1106년에 영국으로 다시 귀임하고 1109년에 사망한다.

안셀름은 영국에서 윌리엄과 그의 아들 헨리 1세에 의해 대부분의 여생을 캔터베리에서 유배생활로 보낸다. 이러한 유배생활 속에서 그는 신학적 문제들에 관한 명상과 집필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의 저서로는 「독백」(Monologium), 「대화」(Prosologium), 「성육신 ;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Cur Deus Homo ; Why God Human) 등을 써서 스콜라신학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게 된다.

그의 사상을 보면 대화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본체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을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그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that-than-which-on-greater-can-be-thought)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포함하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셀름은 이같은 논리의 기초 위에 '나는 믿기 위하여 안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하여 믿는다.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 내 믿음이 아니면 알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여기서 안셀름은 이미 신앙을 통하여 알려진 진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성을 적용한 것이다.

안셀름의 가장 큰 업적은 「Cur Deus Homo」(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기독교론과 속죄론을 설명한 일이다. 안셀름 이전에도 이레니우스(Irenaeus) 때에 '속죄론'(Ransom Theory)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 안셀름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안셀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출발점으로 하여 속죄론을 풀어나갔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인류는 범죄로 인하여 존재가치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상할 힘이 없어졌다.

하나님은 의이시고 또 사랑이시다. 그래서 의로우심으로 죄인을 그대로 묵과 하실 수가 없으시다. 또한 사랑이심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가 없으시다. 인간들

의 지은 죄를 인간이 속해야 하겠음으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신인(神人), 즉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속죄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였다. 이같은 안셀름의 속죄론은 '만족설'(Satisfaction theory)에 근거하여 중세신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2) 아벨라드(1079-1142, Peter Abelard)

그는 1079년 프랑스 '브리타니'(brittany)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에 여러 나라로 편력하면서 학문을 닦고 다니며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불평함으로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된다.

20세 때 파리의 '노뜨르담'(Noterdame)사원의 부속학교에서 안셀름의 제자 '챔피우'(Champeau)에게 사사를 받는다. 그런데 후에는 스승을 등지고 그의 논적이 된다. 아벨라드는 노뜨르담 사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제네바 언덕 위에 다 학교를 세우고 철학을 강의하였다. 이로써 그의 명성이 크게 드러났고, 그 문하에 수천의 학도가 따른다.

그런데 파리 성당 참사의 재능있는 조카딸 '엘로이즈'(Heloise) 교육을 맡고 그를 가르치다가 스승과 제자는 사랑에 빠져 엘로이즈는 아벨라드의 아이를 임신한다. 이에 분노한 엘로이즈 삼촌은 불량배들을 시켜 아벨라드를 거세해버린다. 이로써 아벨라드는 학교 경영에 손을 떼고 수도원에 들어가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한다.

그런데 아벨라드가 아무 제한없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많은 적들이 그를 추적하였다. 이들 적들 중에는 당시 성자라고 불리는 '클레르보의 버나드'(1090-1150, Clairvaux of Bernard)가 있었다. 버나드는 대단한 신비 작가였다.

그가 지은 많은 찬송들이 현재 우리 찬송가에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14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85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하여간 버나드와 아벨라드는 신비가와 철학자로 이단문제로 인해 싸우게 되었다.

1140sus '센스'(Sens)회의에서 아벨라드는 이단으로 정죄된다. 그가 교황에게 상소했으나 기각당하고 영구히 수도원에 금고되는 선고를 당한다. 그러다가 1142년에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망한다. 끝까지 서신왕래를 유지하던 '엘로이즈'는 그의 유체를 '클루니'로부터 그가 창립한 '파라클레트'(Paraclete)로 옮긴다.

아벨라드가 스콜라신학에 미친 공헌은 그의 저서 「Sic ET Non=Yes and

No=공정과 부정」을 통해서이다.

그는 이 저서 속에서 158개의 신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성경 및 고대의 기독교 저술들이 서로 그 해답이 일치하지 않음을 나열하였다. 이같은 그의 행동 때문에 이단이라는 의심을 받은 것 같다.

그는 성서의 영감에 대하여 보다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다. 즉 성령의 계시는 신앙과 사랑과 성례전에만 관계되고 그 외의 모든 교리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그는 그 증거로 과거 권위자라고 하는 이들이 주장한 여러 견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갖가지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예언자, 사도들을 모두 사람으로 보고)이 써 논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애로움의 표현이며,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써 죄인들에게는 도덕적 감화력을 미쳤다고 했다. 이렇게 아벨라드의 사상은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논리적인 이론전개에서 비롯되었다. 이같은 그의 사상은 근대신학에서 예수의 도덕감화설을 주창하게 되는 기초가 된 셈이다.

3) 롬바르드(Peter Lombard)

아벨라드의 제자인 롬바르드가 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스승의 회의설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유전을 근거로 하여 「4권의 교리 문장서」(Four Book of Sentence)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4부로 창조론, 구원론, 성서론, 종말론 등을 다뤄 오늘날의 조직신학과 비슷한 내용의 책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반발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교수하는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또는 롬바르드는 「집어가」(Liber Sententiarum)을 썼다. 이 책은 스콜라 학자들의 말들을 집성하고 분류하여 저작하였다. 롬바르드는 파리에서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1160년에 사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부유럽에서는 철학이 대학교에서 크게 발전되게 되었다. 그런데 초대교회때 교부들이 당면한 철학은 주로 플라톤에 의한 관념론적인 것이 교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중세기에 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적인 관념들을 주로 취급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중세기 스콜라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이 신학과 조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제 3기(13세기)—스콜라신학의 전성기

앞서 스콜라라는 말이 학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스콜라신학은 이탈리아

를 위시하여 프랑스, 영국 등에 대학들을 설립하게 된다. 그래서 독일의 '볼로냐'(Bologna)대학이 1158년에, 파리대학이 1180년에, 영국의 옥스포드(Oxford)가 1274년에, 캠브리지(Cambridge)가 1281년에 건립된다.

이같은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한 사람이 '알렉산더 할레시우스'(Alexander Halesius)란 영국인으로 파리에서 교수하다가 1245년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 제자 '보나벤투라'(1221-1274, Bonaventura)는 이탈리아인인데 프랜시스 교단의 수도사가 되었다.

이 사람이 1248년에 파리에서 신학교수로 활동하며 「성 프랜시스의 생애」, 「하나님을 향한 심려」 등을 저술하였다. 이 사람 역시 기독교 인식론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킬 때 철학을 인용한다.

또 '알베르트 마그너스'(1193-1280, Albertus Magnus)는 독일인으로 10년간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도미니칸 수도원에 들어가 도미니크 교단장이 되면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친다.

이렇게 독일에서, 파리에서, 영국에서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재발견이 큰 붐을 형성한다. 이렇게 철학과 신학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병립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그것을 최대로 집대성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스콜라신학의 전성을 보게 된다.

1)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Thomas Aquinas)의 생애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이탈리아 '칼라브리아'(Calabria)주 '로카시카'(Roccaticca)의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교황 '호노리우스'(Horus)가 대부(God Father)가 된다.

그는 다섯살 때 부모들이 종교계로 진출시키려고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사원으로 보내서 유아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는다.

그는 또 14세 때 나폴리 대학교(University of Naples)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하게 된다. 그는 1244년에 도미니칸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상태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회에 대하여 그당시 상류층과 부유층에서는 이 수도회를 무시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아버지는 이미 사망함)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음을 바꾸도록 종용하였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자 그 가족들은 토마스를 1년 이상 가족들의 성에 가두고 각종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탈출에 성공하여 도미니칸 수도회에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그의 스승인 '알베르트 마그너스'(Albertus Magnus)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철

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처음에 다른 동료들은 토마스의 천재성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는 몸집이 큰데다가 조용하였기 때문에 급우들은 그를 '멍청한 병어리 황소'(The dumb ox)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침묵을 뚫고 점차 그의 지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으며, 도미니칸 수도회에서는 그가 특별한 지적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공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

토마스는 1252년 27세 때 파리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1256년 31세 때 <유와 본질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1261년에는 교황 우르반 4세의 초빙에 의해 로마 볼로냐(Bologna), 피사(Pisa), 나폴리(Napoli)대학의 교수로 활약한다. 그는 대학 교수생활에서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술은 「이방인에 대항하여」(Summa Contra Gentiles)와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이다.

토마스는 1265년부터 시작하여 신학대전 제1권을 완성하고, 1269-1272년에 제2권을 완성하고, 1273년에 제3권을 시작했다가 병을 얻어서 50세의 일기로 1274년에 사망한다. 그의 스승인 '알베르트 마그너스'는 토마스보다 더 오래 살아 토마스의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였다.

토마스는 그 후 14세기에 교황 요한 23세가 그를 '성자'라고 봉하였고, 16세기 카톨릭에서는 그를 '교회 박사'로 칭하였다.

여기 이 신학대전은 로마 카톨릭의 사상을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구약 주석에서부터 교의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방대한 체계를 세운 공로자이다.

사실 중세신학의 골격은 이 신학대전에서 굳어졌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내기 이전까지 중세의 모든 신학교에서 신학대전은 조직신학으로 써 독보적 역할을 하였다.

흔히 '토미즘'(Thomism)으로 불리는 토마스의 사상은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그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상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① 토마스는 학문의 방법으로 철학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신학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성서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을 조화시킨 것이다. 그에 의하면 어떤 진리들은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으나 또 어떤 진리들은 이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철학은 단지 첫째 범주만을 취급하지만 신학은 어느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서도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는 철학과 신학 양쪽에서 모두 탐구될 수 있는 것들이다.

② 실재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철학에서는 제1원인 또는 절대적 실체라고 한다. 인간의 이성이 신앙을 인도할 수 있다. 인간 이성에 의한 합리적 탐구는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그는 철학(이성)이 신앙의 종이라고 보며, 철학이 교회의 종으로 봉사할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진정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③ 은혜론

인간을 회개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한다.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될 때는 인간의 본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인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 안에 치유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선행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익된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아서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선행되는 은혜 없이 인간들의 선량한 도덕적 노력은 하나님께서 보상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의 선행도 하나님의 보상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전된 것이 소위 '공로' 사상이다.

④ 죄악론

죄란 비실재(Nonentity)로 생각하고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했다. 토마스는 어거스틴에 비해 원죄의 교리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즉, 원죄는 몸의 병과 같아서 그것은 영혼의 본질 속에 붙어있는 어떤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상태의 것이 본성적으로 전승될 때 함께 전승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하였거나 전적으로 선에 무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초자연적 도움없이도 특수한 선이 시도될 수 있다고 믿었다.

⑤ 성례전

모든 성례전은 은혜의 수단이다. 각 성례전에 사용되는 질료(가시적인 물질)는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구별되어진다고 하였다.

성만찬에서 물질은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나 피와 똑같은 용적은 달리한다 할 지라도 물체의 실체는 천상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똑같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이론이 '화체설' 교리로 발전한다.

⑥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성모였기 때문에 무원죄로 태어났다는 '무원죄 회태설'에는 부정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출생하기 이전에 태 안에서 성화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를 성모라고 한다고 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도 계속 성녀였다고 주장하고 그녀는 무원죄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무원죄 잉태설'을 주장하는 교리가 나온다.

⑦ 구원론

이전에 안셀름이 대속의 방법에 의한 속죄론을 말했었으나 토마스는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속죄의 필요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이 아니라고 했다. 속죄의 근거는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겪은 고난으로 보고 신자가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일치 때문이라고 하였다.

(4) 제4기 (14-15세기)—스콜라신학의 쇠퇴기

스콜라주의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최고의 절정을 보았다. 토마스 이전까지는 철학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위험물이라는 경계의 태도를 지녀왔었으나 토마스는 철학도 신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뜨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과 신학의 병립기간도 유명론의 부활과 함께 스콜라신학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때 대표적 학자는 '존 둔스 스코투스'와 '윌리엄 옥캄'이다.

1) 존 둔스 스코투스 (1266-1308, John Duns Scotus)

스코투스는 중세기 스콜라신학 운동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는 아퀴나스에 비하여 학문적 깊이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퀴나스보다는 더 영적이며 사상의 전개와 분석능력은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코투스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예민한 통찰력과 비상한 분석력을 가지고 아퀴나스의 약점과 모순을 들춰내 비판하였다.

스코투스는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한 모든 노력들을 모조리 비판하였다. 스코투스에 의하면 계시에 근거한 신학을 떠나서 이성을 통한 어떤

지식도 참 지식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변적 방법을 배격하고 성서의 권위를 더 중요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스코투스는 아퀴나스가 세우는 모든 공든 탑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스코투스는 인간의 원죄를 '본래적 의의 상실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으며, 그런 회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스코투스는 반 펠라기우스적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단점을 발견케 된다.

2) 윌리엄 옥담 (1280-1347, William Occam)

옥담은 영국 런던 남쪽 '옥함'(Ockham)에서 출생하였다. 젊어서는 프란체스코회에서 활동을 한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1310-1315년까지 신학을 연구한 후 1315-1317년까지 동 대학에서 신학과 성서를 강의한다. 이때 옥담에서 위험한 사상이 있다는 총장 '레테렐'(J. Letterell)의 배척을 받고 영국을 떠나게 된다.

옥담은 프랑스 파리대학교에서 둔스, 스코투스 밑에 공부를 하던 중 그는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그곳에서 신학, 철학을 가르치게 된다.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의 총장 레테렐이 불순사상가로 위험인물이라고 교황 요한 22에게 고소된 상태였다. 그래서 1324년 옥담은 교황의 환문을 받고 아비뇽(Avignon)으로 갔다. 거기서 그의 작품과 성서주해를 심사받았다.

옥담은 아비뇽에서 투옥상태에서 심사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탈주하여 독일의 '루드비히 4세'에게로 도망을 간다. 이것을 안 교황은 옥담에게 파문을 선고하고(1328년)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옥담은 루드비히 4세의 협조로 뮌헨에서 공식적으로 교황을 대결하는 작업을 펼친다.

그는 교황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공박하였고, 성직자들이 청빈을 외면한 채 사치한 점들을 비판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교황권이 국가권력에 간섭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는 또 모든 지식은 개개의 사물에 대한 직관적 관찰로부터 온다고 했다. 신의 존재나 속성을 증명하려는 과거 선배들의 노력을 다 부인하고 개념은 존재할 수 있으나 오직 구체적인 개개의 사물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교회의 모든 교리를 아퀴나스는 이론적으로 다 증명해 놓았으나 옥담은 모든 교리를 회의적으로 보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옥담은 교황권에 대해서 이성적 이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싸움

은 물론이고 카톨릭의 모든 교리들도 성서적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스콜라신학은 전면 와해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같은 옥캄의 사상은 가장 독창적이고 이론을 결딴린 신학적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의 해박한 논리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를 '감당 못할 박사'(Doctor Invincibilis), 또는 '무적 박사'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옥캄의 지적 개인주의와 성경의 권위를 더 강조하고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는 사상은 스콜라신학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옥캄의 사상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많은 환영을 받게 된 것은 튀빙겐대학 교수였던 '가브리엘 비엘'(1420-1395, Gabriel Biel)의 영향 때문이었다.

비엘은 그의 제자 존 나틴(John Nathin)에게 이 사상이 전수되고 존 나틴은 '에르푸르트'(Erfurt)대학에서 마틴 루터에게 옥캄사상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여 스콜라신학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종교개혁의 전야가 서서히 태동하고 있었다.

(5) 스콜라주의의 공헌

스콜라주의는 8세기부터 시작하여 15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긴 역사 속에서 중세기의 철학, 신학은 물론이고 과학, 건축, 조각, 음악, 미술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다.

1) 학문탐구열에 많은 자극과 부흥을 가져왔다.

대학운동에서 스콜라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스콜라 운동은 대학에서의 학문탐구를 더 진지하게 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2) 희랍문학과 문화에 대한 연구의 부흥을 가져왔다.

전에는 프랑코어, 라틴어 등이 주로 사용되는 언어였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 헬라문물이 반입되어 그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신약의 원전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고, 따라서 라틴어로 베일에 싸였던 교리들이 차츰 성서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3) 초대 교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흥미를 가져왔다.

특히 신학형성에 공헌한 교부들 연구가 앞을 다투어 연구대상이 되었고 그중 대표적 교부가 어거스틴으로 부상되었다.

4) 3단논법 및 경험주의 사상을 가져왔다.

이것은 스콜라주의의 말기 사상이지만 과거의 전통을 맹신해오던 전례를 깨고

인간의 이성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6) 스콜라주의의 위험요소

1) 전통과 교황권을 강화하는 데 지적 합리화 작업으로 이용되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교회의 전통적 개념과 교황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저들은 '지성의 한계가 곧 신앙의 시작'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교리들을 좀 더 조직적 이론으로 강화함으로 교황의 통치강화의 구실을 만들게 하였다.

2) 성례전이 전보다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례전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논리는 성례전을 보다 증식시키게 되었다. 성례전이 성경에 없는 성례전 강화는 성례전의 미신화를 초래하게 된다.

3) 철학사상이나 교부들 사상이 성경보다 더 권위있게 사용되어지는 선례를 만들었다. 과거 초대 교부들은 주로 플라톤 철학을 이용함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려다가 플라톤 철학이 가진 위험으로 혼란을 가져왔었다.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철학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설명하려다가 기독교의 고상한 가치를 실재적으로 형이하학적인 유치한 개념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4) 저들은 인간의 이성이 계시와 동일 내지는 보다 분명한 것처럼 강조함으로 계시의 권위를 하락시켰다.

5) 너무 많은 경우에 잘 이해되지 않은 공리공론 때문에 말의 향연의 연속이 분명한 신학을 모호한 신학으로 바꾸어 놓았다.

6) 스콜라주의는 현대 자유주의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을 주었고, 실제로 그 디딤돌이 되었다.

이와 같이 스콜라주의가 성경에서 떠나 인간의 철학과 논리로 권위를 강화하려다가 오히려 개인이 제도나 전체보다는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유명론이 나왔고, 또 성경연구는 각 개인이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과 교황권 제도의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세기 후기에 나타나는 신비주의 운동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한다.

제 22 장 대학의 발전

오늘날뿐만 아니라 대학은 그 시대와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한 창조적 에너지가 산출되는 곳이다. 대학에서 건전한 교수와 성실한 제자에게는 그 시대 문명을 꽃피우고 후세대에 길이 남을 보람을 창출한다. 그렇지만 대학이 불건전할 때 시대정신은 병이 들고 사회는 결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산실인 대학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졌으며 대학은 어떻게 하여 발전되었는가? 여기서는 대학의 발전과정과 그것이 교회 역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학이 생기게 되는 원인

대학은 중세교회가 만들어낸 최고의 유산이다. 그러면 대학은 왜 생겨지게 되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원인이 비롯된다.

(1) 연구기능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는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더 많은 지식을 넓히려는 인간의 본능적 충동이 있다. 이같은 본능적 충동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전문연구기관인 대학을 만들게 하였다.

(2) 교수기능

인간은 전해져오는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계속해서 전승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바람이 있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의 전승을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인 대학사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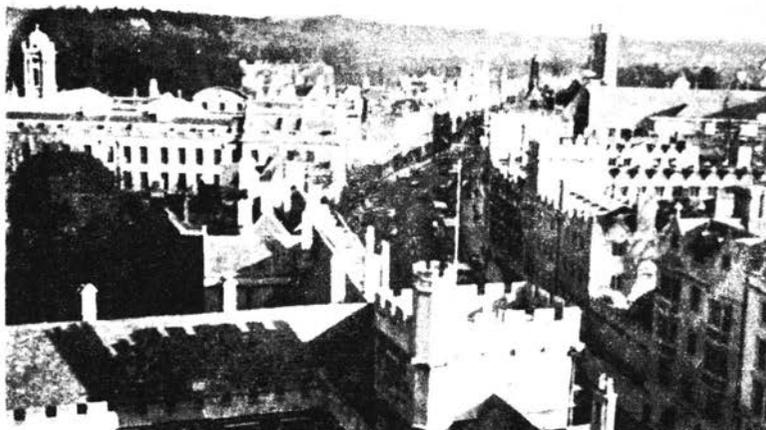
(3) 봉사기능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을 유지·발전시키려고 하면 전문적인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필요가 인정된다. 이것은 봉사의 계속된 기능의 필요성이 대학을 만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12세기 경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드'(guild)가 생긴다. 이 길드에서 전문쟁이인 쟁이들(masters)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단체란 말이 라틴어로 *Universitatis*이고, 이것을 영어로 옮긴 것이 *University*이다.

그러면 이같은 전문가 또는 쟁이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중세기 수도원에서와 도시에 있는 대성당에서 작은 시발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 가면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서 몇 년동안 수학을 하면 그와 비슷한 능력을 소유하게 됨으로 수도원은 대학 이전의 대학이 생겨지게 한 어머니같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대학들은 두 종류의 대학이 있었다. 하나는 파리대학이나 옥스포드대학처럼 수도원이나 대성당에서 직접 경영하는 학교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유명한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설학교나 또는 국가가 세운 왕립학교나 도시민이 세운 시립학교들이 있었다.



▲옥스포드 대학교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들 가운데 하나였다.

2. 최초의 대학

역사 속에서 최초로 전문가(masters)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직된 단체는 ‘볼로냐’(Bologna)대학이었다. 이 학교는 1100년경 생겼는데 이곳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세워진 법과대학이었다.

그 다음에 오늘날 University형태로 생겨진 최초의 학교는 ‘파리’(Paris)대학이 1200년경에 생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옥스포드(Oxford)대학(1200년경), 살레르노(Salerno)대학(1200년경), Montpellier대학(1180년경), 캠브리지(Cambridge)대학(1209년), 비엔나(Viena)대학(1365년경), 엘프루트(Erfurt)대학(1379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1385년경) 등이 생긴다.

이렇게 하여 15세기 말 유럽에는 80여개 대학들이 설립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유명한 Harvard는 1636년에 생겼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볼로냐’와 ‘파리’대학이었다.

볼로냐대학은 12세기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대학이다. 이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이었으나 차츰 발전하여 문과(1221년), 의과(1260년), 신과(1360년)가 증설된다. 그런데 이 대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학교 행정을 교수회에서 다루지 않고 학생회에서 관장하였다. 이 당시 학생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연령적으로 20대 청년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있었다.

이 당시는 학위보다는 인생을 즐기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 즐겼다. 그래서 이들 학생들이 학교 행정을 관장하였다. 만일 교수들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는 교수퇴진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집단적으로 옮겨갔다.

볼로냐대학에서는 학생들이 1204년에 Vicenza대학으로, 1222년에 Padua대학으로, 1321년 Siena대학으로 집단 전학한 일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의 재정관리는 여러 가지 미숙으로 인하여 운영권이 시 당국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학생들과 교수와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고 나중에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잦아졌다.

또 하나 이 학교의 특징은 여자 교수를 등용하였다. 그렇게 되자 여학생들이 늘어났고, 여학생의 증가는 갖가지 탈선과 풍기가 문란해졌다. 그래서 여자 구

역에는 남학생 출입이 금지되는 교칙을 제정하고 점차 폐쇄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하여 볼로냐대학은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분위기에 빠져 독창적이며 진취적인 교수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낙후되고 말았다.

여기 볼로냐대학과 전혀 다른 파리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왕실과 교회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수들이 운영하였다. 파리대학은 1200년 프랑스 왕 ‘필립 어거스터스’(Philip Augustus)에 의해 시정의 관할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작될 권한을 얻었으며 교황과 국왕이 직접 자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파리대학은 교회와 교황의 지원과 왕실의 지원하에서 중세기부터 종교개혁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있는 최상의 학문의 본산지로 군림하였다.

이 파리대학은 높은 권위 아래 교수들의 강의는 전 유럽의 각 나라에 정신적 물결을 주도하였다. 여기 파리대학 출신인 로라(Loyola), 또 칼빈(Calvin) 등이 종교개혁자였다는 것은 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3. 교과과정

수도원에서의 교과과정은 문법, 논리, 수사학을 가르치다가 좀 더 향상된 것이 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까지 가르쳤다. 여기서 발전된 것이 대학이었다. 그래서 최초의 대학은 3학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Trivium이라 해서 문법, 논리, 수사학을 가르치고 이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학사 학위(baccalaureus)를 주었다. 여기서 오늘날 대학을 나오면 B.A라는 학위는 Bachelor에서 왔다.

또 B.A학위를 가진 자가 4학 또는 Quadrivium을 더 공부하는데 이때의 과목은 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을 배웠다. 이 과정을 마친 자에게 석사학위(magister)를 주었다. 이것이 Master, 즉 M.A라는 학위가 나온다. 그래서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만 했다. 그 위에 계속적인 전공분야에 공부를 하면 법학, 의학, 신학 등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dominus)를 주었다.

중세기의 대학은 오늘날처럼 학문의 다양성이 없었다. 그래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입학할 수 있었고, 최초의 대학들은 학위가 없었다. 다양한 학위가 생긴 것은 후대에 서로 많은 대학들이 생기면서 서로 좋은 조건으로 학생들을 유

치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학위가 따랐다.

입학시험은 항상 구두시험이었고, 강의는 라틴어로만 하였다. 강의 끝에는 질문과 토론이 따랐다. 모든 학문은 신학이 정상의 위치에 있었고, 여타의 학문은 신학을 위하여서 존재하였다. 이것이 바로 스콜라신학과 학문과의 밀착을 의미한다.

4. 평가

중세의 대학 중에서 왕실과 교황청의 도움을 받는 학교들은 운영이 썩 잘되어 나갔다. 이같은 학교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왕실이나 교황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재정적으로 도움받는만큼 학문적으로 교황청의 제약과 예속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걸은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 같았으나 스콜라주의 예하에서 제재를 받으며 한계를 느끼고 자라야 했다. 이것은 순수학문의 연구에 미흡함을 주었다.

다른 한편 시립이나 공립, 또는 사설학교는 갖가지 의견의 대립과 이해차로 운영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사립학교는 교황청이나 왕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대로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에서 순수성을 유지하였다. 이로 후세에 많은 공헌을 남기게 된다.

제 23 장 개혁의 열망

중세기 학문은 스콜라주의로 모든 학문의 존재 의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와 성례전들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스콜라주의도 차츰 와해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토록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교황권 제도도 프랑스 아비뇽에서 70여년간 억류됨으로 교황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이 두명, 세명, 네명이 있으므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인식도 하게 되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세의 대학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는 개혁의 열망을 품게 하였다. 여기서는 종교개혁 직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갖가지 개혁의 열망들을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비주의 운동

우리는 현재 '신비주의'라고 하면 카리스마티한 열광주의 내지는 잘못 비뚤어진 부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중세기의 신비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스콜라신학이 중세기 대학을 중심하여 발전되었다면 신비주의 운동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운동이었다.

스콜라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차디찬 논리에서 얻어진 결론으로 지적 만족과 형식적인 의식위주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염원하는 영적 욕구에는 만족을 줄 수 없었다.

하나님과 개인의 영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제중심의 교회의식이나 제도 등을 통하지 않고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된 것이 곧 신비주의 운동이었다.

이같은 신비운동은 비단 중세기 때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멀리 소급해 올라가면 '몬타니스트'(Montanists) 때에도 이같은 신비운동이 있었고, 또 불란서의 버나드(Bernard) 역시 신비적 명상가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비주의 운동은 서부 독일과 화란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 여기 중세기에 일어난 신비운동에는 다른 때와 다른 특색이 있었다. 그것은 Schaff가 교회사 4권 pp. 236-243에 지적하기를

- 1)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직접적인 교제를 찾는다.
- 2) 금욕을 통한 성결보다 명상과 기도와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 성숙한 삶을 추구한다.
- 3) 성경을 애독하되 신약을 치중하였다.
- 4) 사제들을 중보자로 내세우는 대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직접적인 영교를 강조한다.
- 5) 설교나 교육은 라틴어가 아닌 각 나라 모국어로 한다.
- 6)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색으로 일어난 신비주의는 지도자에 따라 약간씩 강조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흐름은 비슷하였다.

(1) 엑카르트(1260-1327, Meister Eckhart)

엑카르트는 1260년 독일 스트라스버그에서 태어났다. 그는 15세 때 '엘푸르트'(Erfurt)에 있는 도미니칸 교단에 가입하였다. '콜론'(Cologne)으로 옮겨서 '알베르트 마그너스'(Albertus Magnus)에게서 사사받는다.

1302년경 파리대학에 가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얻는다. 1312년에는 스트라스버그에서 설교하다가 1320년에는 콜론으로 돌아와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의 저서들이 심오하여 교계의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의 사상에 이단적 경향이 있다고 콜론의 대주교 헨리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1325년).

그는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였으나 교황 요한 22세는 그가 1327년에 죽은 후인 1329년에 그에게 이단이라는 정죄를 내렸다.

엑카르트에 관해 독일 국민들은 대단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즉 중세학자 '크루엘'(Curel)은 '엑카르트는 독일 강단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상을 담은 설교가요 그는 독일교회 역사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창조적 설교가였다'고 하였다. 또 '헤겔'(Hegel)은 엑카르트가 '독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엑카르트가 죽어서까지 이단으로 정죄되었는가?

엑카르트의 설교에는 신약성경과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의 사상 역시 스콜라철학을 탈피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그러나 그는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영혼에 호소를 강조함으로 신비주의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그가 너무 사색적인 상상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 이해에 문제있는 주장을 함으로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게 된다.

교황은 그의 작품을 통해 볼 때 17가지의 이단적 요소가 드러났다고 했다. 엑카르트의 이론은 어거스틴, 디오니시우스, 아퀴나스, 그리고 던스, 스크투스 등의 사상이 함께 섞여져 있다. 이 중에서 그의 신론에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즉, 절대적 의미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과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별한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서 초월한 것이며, 무명이며 허무이며 영원의 현재이다.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언어는 정확하지 않다. 엑카르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개념으로는 신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더욱 더 높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성 속에 있는 무아의 경지로 소멸되는 신비적 명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신비적 명상추구는 드디어 범신론적으로 탈선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즉,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존재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엑카르트는 두 존재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그 연합의 매개체는 연합 속에 있는 '빛'이다. 이 빛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연합하게 된다. 성육신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영혼이 할 일은 본능적 자아가 깨어져나가고 완전한 자아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엑카르트는 신비주의라 칭하기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같은 눈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은 같은 눈이요 그래서 한 시선과 한 생각과 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그의 지나친 범신론적 주장이었다.

엑카르트는 분명히 범신론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또 종교적 체험 요소를 중하게 여기고 모든 감각적인

사랑이나 세상의 연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한 점에서 강력한 신비를 주장한 신비주의자였다.

과거 신비주의자였던 버나드나 앗시시의 프랜시스는 예수님을 역사적 인간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명상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았다. 그런데 엑카르트(St. Eckhart)는 성경적 사건들의 역사적 사건이나 지리적 장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고로 내가 예루살렘에 접해있다는 자각이 큰 만큼 나의 영혼은 그곳에 근접해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인간은 내면적 명상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아무 중재없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이 비록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한 후에 그가 소속되어 있던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된다. 그들 가운데는 '존 타올러'(John Tauler)와 '헨리 수소'(Henry Suso) 등이 있다.

(2) 타올러(1300-1361, John Tauler)

엑카르트의 제자인 타올러는 1300년경 독일 스트라스버그에서 태어나고 1315년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갔다. '콜론'에서 공부하는 도중 엑카르트의 감화를 받는다. 파리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얻을 정도로 학문연구에 열중한다. 그런데 그 당시 '자유영혼 형제단'(brethren of free spirit)이란 것이 있었다.

이 자유영혼 형제단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나 성경과 같은 중재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다. 타올러가 바로 이 단체와 가까이 하며 신비적 체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타올러의 설교는 영력과 지력을 겸비한 설교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설교의 특색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하는 학자들로는 어거스틴, 그레고리, 안셀름, 아퀴나스 등 많은 학자들을 인용함으로 지성인으로 존경받았다.

타올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가 단순한 신앙을 위한 노력으로써 무한히 겸손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웃의 잘못을 판단하여 비판하느니 차라리 피가 나도록 내 혀를 깨물으리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이웃을 비평하는 습관은 자족과 교만심을

키우는 것이 되는데 그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고 하면서 겸손한 생활에서 단순한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타올러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앙의 생활화는 노동과 직업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타올러의 사상이 다음의 루터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루터는 모든 직업을 천직의식으로 승화시켜서 성직이라는 특수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다른 신비주의 활동

신비주의는 독일 라인강의 줄기를 따라 스트라스버그를 비롯하여 플랜더스 지방과 화란까지 광범위하게 뻗어나간다. 플랜더스 지방에는 '로이스블랙의 존'(John of Ruysbroek)과 '게하르트 흐루테'(1340-1384, Gerhard Groot)가 있었다.

로이스 블랙의 신비주의는 보다 실제적이어서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직접적인 것이었다. 흐루테는 '공동생활의 형제단'(the Brother of the Common life)을 설립하여 근대적 경건사상을 확립하였다. 흐루테는 학교를 세워 바른 성직자와 사회의 지도자 양성에 힘썼다. 그래서 헤르조겐부쉬 학원에는 1,200명의 학생이, 라크학원에는 1,600명의 학생들이 수학하였다.

이들 학생들 중에 '드벤테'(Deventer)학원에서 수학하던 '토마스 아 캠퍼스'(1380-1471, Thoams A Kempis)가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유명한 경건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16세기의 유럽의 지도적 인사가 되었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루터는 인문주의에 깊은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신비주의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기성 카톨릭교회가 교황권 확장을 위해 세속 정부와 투쟁을 하다가 실패함으로 많은 권위상실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며 제도 안에서 안일에 탐하는 것을 스콜라신학은 이론적으로 저들 행위를 합리화 해 주었다. 이같은 실망감의 반작용이 신비주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신비주의는 카톨릭의 권위 도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종교회의의 운동

여기서 소위 세계적인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회 회의에서부터 8회까지는 동서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동서교회가 가히 세계적 교회 회의라고 할만큼 모든 교회들이 모였다. 그러나 제9회부터는 완전 분리하여 서 로마카톨릭만이 모이는 회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것을 도표상으로 이렇게 옮겨볼 수 있다.

- 제1회 니케아회의 (325년), 소집자 콘스탄틴 황제, 니케아신조 제정
- 제2회 콘스탄티노플회의 (381년), 소집자 데오도시우스 황제, 신인 양성
- 제3회 에베소회의 (431년), 소집자 데오도시우스 2세, 시릴과 펠라기우스

설

- 제4회 칼케돈 회의 (451년), 소집자 마크리누스 황제, 칼케돈 신조
- 제5회 콘스탄티노플 2차 (553년), 소집자 유스티니아 황제, 양성의 로고스

스

- 제6회 콘스탄티노플 3차 (680년), 소집자 콘스탄틴 6세, 양의론
- 제7회 니케아회의 (787년), 소집자 콘스탄틴 6세, 성상 예배
- 제8회 콘스탄티노플 4차 (869년), 소집자 바실, 동방교회 불참
콘스탄티노플 4차 (879년), 동서교회가 따로 모임

여기까지는 동서교회가 함께 모였다. 그러나 제9회부터는 완전히 서로마 카톨릭만 모임을 갖는다.

- 제9회 1차 라테란 회의 (1123년), 소집자 교황 칼릭시우스 2세, 임스협약
- 제10회 2차 라테란 회의 (1139년), 소집자 교황 이노센트 2세, 성직자 독

신

- 제11회 3차 라테란 회의 (1179년), 소집자 교황 알렉산더 3세, 교황 선거

법

• 제12회 4차 라테란 회의 (1215년), 소집자 교황 이노센트 3세, 십자군전쟁, 화체설, 고해의무

- 제13회 1차 리용 회의 (1245년), 소집자 교황 이노센트 4세, 십자군전쟁
- 제14회 2차 리용 회의 (1274년), 소집자 교황 그레고리 10세, 동서교회 조

화시도

- 제15회 비엔나 회의 (1311-1312년), 소집자 교황 클레멘트 5세, 무사교단

해산

- 제16회 콘스탄틴 회의 (1414-1418년), 교황 요한 23세, 그 교황은 퇴위시

키고 새 교황으로 마틴 5세 선출

- 제17회 바젤 회의(1431-1439년), 교황 마틴 5세, 유게네 4세, 니콜라스 5세, 동서교회가 합동으로 플로렌스 대회에 참석

- 제18회 5차 라테란 회의(1513-1518년), 율리우스 2세

- 제19회 트랜드 회의(1545-1563), 바오로 3세, 종교개혁에 대한 방어책과 모든 교리의 제정

- 제20회 1차 바티칸 회의(1868-1871년), 바오로 9세

- 제21회 2차 바티칸 회의(1962-1965년), 요한 23세

여기 보면 16회와 21회 때의 교황이 다같은 요한 23세이다. 그 이유는 피사 회의가 선출한 알렉산더 5세와 요한 23세는 가 교황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하지 않기 문이다.

그러면 교황은 교황인데 인정할 수 없는 교황이란 무엇이며, 이들을 선출한 피사(Pisa)회의는 왜 열리게 되었는가, 이제 그 역사의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교회의의 운동의 발전

최초의 종교회의는 4세기 때 콘스탄틴에 의해 소집되었다. 이때 종교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리우스 논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국론이 분열될 것을 막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회의는 그 후로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종교회의를 통해 해결을 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회의의 소집권자가 황제가 아닌 교황이 되면서부터는 교황의 권력이 막강해졌다. 이렇게 되자 제4차 라테란회의 때부터는 종교회의란 단지 교황청의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토록 세도가 당당하던 교황들이 '바벨론 포로'(Babylonian Captivity)의 70년간 수난이 있고부터는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때부터 괴로운 숙제가 등장한다. 즉 프랑스 '아비뇽'(Avignon)에는 클레멘트 7세라는 프랑스인 교황이 있고, 이탈리아 로마에는 우르반 6세(Urban 6세)라는 또 다른 교황이 있다.

교황은 절대무오하다고 가르쳐온 저들이 한꺼번에 두 교황이 있을 때 어느 교황을 인정해야 되느냐? 교황을 감히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많은 이들은 둘의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종교회의를 해야 한다

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때에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가 나왔다. 두 교황이 다 사퇴하고 새 교황을 뽑는 방법과 두 교황의 진비를 가려낼 교회 법정을 제정하는 일과 전체 교회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되 전체 교회회의는 교회의 보편적 회의이기 때문에 교황보다 더 우세한 권위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제안이 나왔을 때 두 교황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결국 평신도인 파리 대학장 '피터 데일리'(Peter Dailly)에 의해 전체 교회회의를 소집하지는 의견이 채택된다. 그래서 양 교황을 지지하는 대 주교들이 1418년에 '레그혼'(Leghorn)에 모여 다음 해 3월에 'Pisa'에서 교회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두 교황들이 협상하도록 하였으나 피차의 고집에 지쳐버린 추기경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2) 제1차 피사회의(The Council of Pisa)

피사회의는 1409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막상 참석해야 되는 두 교황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사에 개최된 종교회의는 추기경들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두 사람 중 누가 합법적이냐를 가리지 않고 양자 모두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 두 교황을 퇴임케 하고 제3의 인물을 교황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사회의에서는 밀란의 감독을 합법적인 교황으로 선출하고 그를 '알렉산더 5세'(Alexander V)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두 교황들은 피사의 종교회의의 결정을 부정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여전히 교황이라고 하였다. 알렉산더 5세는 유럽 주민들의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프랑스 클레멘트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우르반 6세는 영국과 독일의 지지를 배경으로 피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한꺼번에 세 명의 교황이 공존하게 되었다.

알렉산더는 교황이 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못해 사망함으로 그의 후임에 요한 23세를 선출한다(1410년). 요한 23세는 교활하고 대담하며 방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알렉산더'의 후광으로 교황이 되었다.

요한 23세는 그 당시 프랑스가 영국과 한참 100년 전쟁 중이었으므로 두 나라의 도움을 못 얻고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Sigismund)의 협력을 얻는다.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는 세를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근황을 염려하여 전체 종교회의를 다시 열도록 한다는 조건하에서 요한 23세의 신변을 보호해 준다.

(3) 제2차 콘스탄틴 회의 (1414-1418, The Council of Constance)

피사의 종교회의를 통해 군중들이 선출한 ‘알렉산더 5세’와 그의 뒤를 이은 ‘요한 23세’는 카톨릭 교황사에서 가 교황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피사 종교회의가 끝난 지 5년 후에 제2차로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콘스탄틴 회의가 열린다. 이 콘스탄틴 회의는 중세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회의였다 (1414년),

교황 요한 23세와 신성 로마제국 황제인 ‘지기스문드’(Sigismund)가 참석하였다. 이때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 교황 아래 교회의 통일을 이루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요한 23세는 황제가 자기를 지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줄 것으로 야심을 갖고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전에 종교회의는 주로 성직자 중심의 회의였다. 그런데 이번 콘스탄스 회의는 감독, 대 감독은 물론이고 종교계 지명인사와 신학자, 왕후와 그 사절 등 무려 5천여명이 모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요한 23세는 이탈리아의 감독들을 대거 참석시켜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요한 23세의 지지세력이 아닌 반대세력들은 요한 23세의 야망과 생활 태도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래서 회의는 어수선하고 긴장이 지속되었다.

회의는 교회의 대회이므로 회의의 결정에는 승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교황의 선출을 위한 투표에 앞서 교황의 비행을 폭로하는 전단과 함께 교황이 데리고 온 이탈리아 감독들의 투표권 문제가 토의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감독 단위의 투표권이 무시되고 국가단위의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여기서 교황 요한 23세는 교황직을 사임하도록 권유하여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새 교황으로 ‘마틴 5세’(Martin V)를 선출하였다.

이때 새로 선출된 교황 ‘마틴 5세’는 나머지 회의를 계속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여기서 이단들로 말썽을 일으키게 된 ‘요한 후쓰’와 ‘위글리프’를 정죄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에 관한 별다른 성과없이 회의가 끝났다.

한편 강제로 교황직을 퇴위당한 요한 23세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자 다른 곳으로 도주하여 수개월 동안 유랑생활을 하다가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콘스탄스로 송환되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낸다.

다른 한편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에 교황으로 있던 그레고리 12세는 자기가 아닌 다른 교황이 사임한다면 자기도 사임하겠다는 조건부 사임을 한다. 그런데 프랑스 아비뇽 계통의 교황인 베네딕트 13세는 한 성으로 도주하여 계속 자기가

교황이라고 고집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가 1423년에 죽자 그의 후계자는 자동적으로 끊어졌다.

이렇게 하여 길고 긴 세월 동안 두 개의 교황청에 두 곳의 교황이 지속되던 비극은 군중들의 종교회의에 의해서 강제로 종식되게 된다. 이와 같은 두 번에 걸친 종교회의의 결과 전체 종교회의는 교황의 권위보다 높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적인 권위의 소재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을 가져오는 먼 동력이 되게 된 것이다.

(4) 바젤회의 (1431-1449, The Council of Bazel)

지난번 콘스탄스 회의에서 모여든 모든 인사들은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킴은 물론이고 교회의 이단과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것을 열망하였다. 그래서 새 교황 '마틴 5세'를 선출하였고, 이단으로 '요한 후수당'과 '위클리프'를 정죄하여 저들의 유해를 불태워 화형을 시키고 그의 저서들을 불태웠다.

그렇지만 교회 내의 성직 매매, 성직 중임제, 권속 성직제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개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향후 계속적인 개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종교회의를 소집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마틴 5세는 1423년 '파비아'(Pavia)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페스트 전염병으로 장소를 '시에나'(Siena)로 옮겼더니 참석자가 불과 몇몇밖에 되지 않아 자연히 유회되었다.

다음 회의 일자가 1430년에 다가옴으로 다시 종교회의를 열어야만 하는데 마틴 5세는 종교회의를 소집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자 회의 소집을 안 할 경우 자기가 불리함을 깨닫고 뒤늦게 1431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열 것을 선포해 놓고 회의 소집 전에 사망한다.

마틴 5세의 후임자로 '유게네 4세'(Eugene)가 새 교황으로 1431년 종교회의의 선포를 철회하였다. 그러자 군중들은 회의 해산 철회선포를 한 유게네 교황을 회의에서 심판하겠다고 공격하였다. 여기서 황제 '지기스문트'가 중재에 나서서 유게네는 해산 명령을 철회하고 회의를 열게 된다.

스위스 바젤에서 유게네에 의하여 소집된 종교회의는 회의 벽두부터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교황당과 이에 맞서는 회의 주동자 당들과의 대결로 긴장이 감돌았다. 회의 주동자들은 전체 종교회의를 영속적으로 소집하여 교회와 교황을 교회회의가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교황당은 회원들이 각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독립정신은 교회 유지에 좋지 않다고 반대하

였다.

이같은 긴장이 맞서는 것을 본 교황 유니게 4세는 전체 종교회의의 의장인 '케사리니'(Cesarini)에게 서신으로 정회를 한 후 18개월 후에 다시 열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회의 주장자들은 회의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임을 주장하고 교황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었다. 이때 황제 지기스문트는 회의에 교황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황은 저들이 사탄의 집회라고 저주하며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교황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종교회의는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몇 가지의 사항을 처리한다. 여기서 주요 안건은 '요한 후스'(John Huss)를 순교시킨 이후에도 그의 뒤를 따르는 '보헤미아'(Bohemia) 지방의 후스파들 때문에 보헤미아 지방에 불안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그래서 후스당 대표 15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후스당과의 화해를 위한 긴급 조치가 대두되었다.

여기서 1433년 11월에 회의자들과 후스파들과의 4개조항이 체결된다.

① 성찬식 때 카톨릭에서는 떡만 주지만 참여하는 자가 원할 때에는 떡 이외에 포도주를 나누어줄 수 있다. 특히 보헤미아, 모라비안 이외의 신자에게는 떡만 준다.

② 성직자의 죄는 오직 성직자의 모임에서만 판단을 받는다. 전에는 국가 재판에 의한 판결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③ 설교의 권한은 감독에게만 있다. 저들은 장로, 집사 등 모든 이는 하나님 의 말씀을 진리대로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그것은 한정된 것으로 결정.

④ 성직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청지기로 사용할 것.

저들은 성직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타협안을 받아들인 '후스파'들은 그들이 그같은 조건을 수용한다면 로마 카톨릭 안에 머물 것을 수락한다. 그런데 후스파 중에서도 극단적인 '타볼'당은 이들이 카톨릭과 타협을 한 변절자라고 불복함으로 양파간에 전쟁이 벌어져 1434년 5월에 타볼당은 '레판'(Lepan)에서 패전당한다.

그리고 바젤 회의에서는 전체 종교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교황 체제의 조직을 종교회의의 체제로 바꾸어 교회의 행정의 민주화를 시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매 교구엔 매년 대회(synod)가 모이고, 대 교구에서는 매 2년마다 모여서 교권의 남용과 성직자의 타락 여부를 심의 시정

하도록 하였다.

또 전체 총회 (General Council)는 매 10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전체 교회의 당면과제를 논의키로 하였다.

그 밖에도 교황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교황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제한하였으며 성직자의 부도덕을 취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성직자의 독신생활에 오는 많은 폐단들을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수도사들의 반대로 이것은 성공치 못한다.

또 교황에게 호소하는 상소제를 제한하고 추기경의 수를 24명으로 축소하되 한 나라에서는 3명 이상의 추기경이 나올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타 교회 구내에서는 연극이나 오락을 엄금하도록 하며, 교인들은 도박이나 댄스나 나체, 미술 관람 등을 금지하였다.

다른 한편 교황 '유게나'는 전 세계 교회가 개혁을 원하는데도 그는 그같은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바로 이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동방 정교회는 터키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 비잔틴 황제와 콘스탄티노플의 총 대 주교는 만일 서방교회가 자기들을 돕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서 가까운 곳에 종교회의를 연다면 서방교회와 합류는 물론 교황의 무오성 (Papal Supremacy)을 인정하겠다고 제의해온다.

이때 서방 로마교회 대표인 유게나는 수백년에 걸친 동서방 교회의 분열이 다시 합쳐진다는 명분을 내세워 종교회의의 소집을 바젤이 아닌 '펠라라'(Ferrara)에 소집하도록 한다 (1438-1439년).

이들이 다시 펠라라의 기후를 탓하며 '플로렌스'(Florence)로 회의장소를 옮긴다. 이렇게 하여 교황이 이끄는 종교회의는 플로렌스에서 열리고 (1439년 2월) 종교회의의 주장자들은 바젤에서 따로 회의가 열렸다. 플로렌스에 종교회의를 소집해 논 유게나 교황은 플로렌스에서 미술감상에 심취하여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이에 바젤에서 회의주의자들은 유게나 교황을 '교회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분열자요 이단분자'라는 죄목으로 파면 결의를 한다 (1439년 6월 25일 34차 회의). 그리고 회의자들은 '사보이'(savoy)공인 '아마테오'(Amadeus)를 '유게나'의 후임으로 하여 '펠릭스'(Felix) 5세라고 하였다.

플로렌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유게나는 회의자들이 결의한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1447년에 죽는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니콜라스'(Nicolas) 5세가 새 교황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자 두 개의 종교회의와 두 개의 교황이 다시 생기게 된다. 즉 플로렌스에는 니콜라스 5세가 교황으로 존재하고, 또 바젤회의에서 선출한 펠릭스 5세가 역시 교황으로 있게 된다. 그리고 니콜라스 5세는 출중한 인물인 데다가 펠릭스 5세는 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회의 주동자들의 개혁의 열기는 차츰 식어지게 되었다.

바젤에서의 회의자들은 회의장소를 '로잔'(Lausanne)으로 옮긴 후(1448년) 더욱 기운에 빠지게 되는데 1449년 그들이 선출한 교황 펠릭스 5세는 스스로 교황을 포기한다. 이로 인해 1449년 4월 25일 교황을 반대하고 회의를 주장하던 회의자들은 니콜라스 5세를 합법적으로 교황으로 받아들여기로 승복하고 만다.

이렇게 하여 종교회의로 교황을 선출하던 회의주의자들의 운동은 더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교황권을 제한하려고 하던 반 교황(Anti-Pope) 운동도 중단되고 만다. 이 이후로 모든 종교회회는 영구적으로 '교황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로써 오랫동안 종교회의의 운동은 끝이 났으나 그 여파로 교황들의 전형적인 권한을 군중의 힘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준 것은 다음의 종교개혁정신에 큰 자극을 준 것이 사실이다.

(5) 종교회회의 운동의 결과

종교회회의는 전체 3회에 걸쳐 열렸었다. 1차 피사회의, 2차 콘스탄스회의, 3차 바젤회의, 그런데 회의주의자들은 전체 종교 회의의 결정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플로렌스에 교황당과 함께 모인 회의는 다소간 의의가 있었다.

즉, 앞서 말한 대로 동방교회가 터키인들로부터 위협에서 서방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종교회회의를 콘스탄티노플에서 가까운 곳에 모이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모이려고 했다가 다시 '플로렌스'로 합류 모임을 갖는다. 이 회의에 헬라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요한 6세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요셉 외에 700명의 수행원이 참석하였다.

여기서 동서방교회는 합동을 전제하고 교리적 상이점을 논의할 위원을 동서 각 교회에서 10명씩 20명이 위원을 구성하여 토의를 하였다. 여기서 주 의제 중 가장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교황의 권위를 동방교회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때 동방교회 대표들은 '로마 교황은 세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며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 교회의 머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요 교사로써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세계 교회를 먹이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합의문에 동의한다.

전체 합의문은 1439년 6월 5일 115명의 서방 대표와 33명의 동방 대표가 합의의 조인하였다. 그리고 플로렌스 대성당에서 합동 축하예배를 드린다. 이로써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고 회의 2년여만에 비잔틴 황제 요한 6세는 귀국한다.

요한 6세 황제와 요셉 총 대주교가 동방에 돌아왔을 때 여타의 다른 동방교회들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었다. 즉 저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함께 먹고 돌아온 변절자라고 외면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의 대 감독들은 콘스탄티노플 감독을 제쳐놓고 1443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다.

여기서 세 대감독들은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와 서방교회가 합동으로 모인 '플로렌스 회의'는 '강도회의'를 단정하고 콘스탄틴의 대 주교를 이단이라는 공합을 발송하였다.

이렇게 서로간의 정통 싸움에 정력을 소모하고 있을 때 얼마지 않아서 콘스탄티노플은 마호메트에게 함락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모두 다 회교도권 안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로써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방 로마교회는 유일하게 독자적 힘으로 자기 세력을 굳혀나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에 걸친 종교회의의 운동이 교황권의 횡포를 막고 새로운 교회 행정의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 일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같은 종교회의자들의 압력 때문에 타의에 의하여 동서교회가 화합을 시도했었다는 점은 다소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잘못 알고 정신없이 형제의 티만 보는 동안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역사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형제의 티가 아닌 적들의 몽둥이를 봐야 할 것이다.

3. 개혁 전의 개혁자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할 때 그 폭이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비주의 사상으로 개혁에 공헌한 엑카르트나 타올러, 토마스 아 캠퍼스가 있고, 로마교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왈도파, 알비파도 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로마교회에 직접적 영향을 준 개혁자는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직접적 영향을 준 개혁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1) 존 위클리프(1324-1384, John Wycliffe)

위클리프는 영국의 '요크셔셔'(Yorkshire)에서 1300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학에서 특대 교비 연구생으로 공부하여 1345년에 졸업을 한 후 모교에서 강의와 목회를 한다. 그는 유창한 화술과 엄격한 논리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유모어 감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여간 그의 수준높은 열정적 강의는 많은 대학생들을 매혹시켰다.

그 당시 유럽의 학풍은 유명론(唯名論)이 지배적이었으나 위클리프는 실재론(實在論)으로 맞섰다. 그는 1371년에 교수직을 떠나 처음에는 외교가로, 후에는 논쟁가로 왕실에서 봉사하였다.

그 당시 영국 왕실은 당시 교황청 아버논의 통치 및 지배를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논쟁가요 이론가인 위클리프를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위클리프는 이 당시 모든 합법적인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통치 성격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만일 피 지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통치 형태는 진정한 통치가 아니고 오히려 반역이라고 하였다.

또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의 한계를 벗어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지배형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교회에서 영적 문제를 벗어나 교회가 자체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교회의 권력도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이론은 교황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 등으로 세속권력과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으므로 영국의 세속 권력자들이 그의 이론을 기꺼이 수용하였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그같은 원리는 세속 권력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세속권력 역시 시민들에 대한 봉사, 혹은 섬김의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 때문에 그의 솔직담백한 신념은 좋으나 그의 주장에 따른 후환들로 그를 지지하던 세력이 줄어진다. 이때부터 위클리프는 개혁운동에 나서게 된다.

처음으로 위클리프가 개혁운동에 나선 것은 로마교회에 대해 실제적으로 권력 남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136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영국에 부과된 종교세가 너무 크다고 그의 잘못

을 지적하였다.

1374년에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요한'(John of Gaunt)과 함께 교황청의 횡포를 규탄하기 위해 대륙으로 갔다.

위클리프는 당시 사제들이 국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사치하고 향락하는 잘못을 공격하고 또 교황이 신령한 문제보다는 온갖 이권개입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비난하였다. 다음으로 위클리프는 문서운동을 전개하여 교황의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두드러진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었다.



▲ 존 위클리프의 초상

그의 강한 주권사상 주장은 칼빈보다 먼저였다. 위클리프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들이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용하게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허락하신 것뿐이라고 하였다.

만일에 사용자가 이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세속권이라도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같은 원리는 재산관리만 아니라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만일에 교황이 교회 정치를 잘못 할 때는 반드시 물러나야 하며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교회론에 관한 논문은 더욱 극단적이 된다.

그 당시 교황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황의 지도를 받는 유형적 카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였었다. 여기에 대해 위클리프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적 교회관을 주장하였다. 참 교회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만이 참 교회이다.

그리고 누가 과연 예정을 입은 자들인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각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교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예정된 자인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직분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마음대로 축출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황 자신도 예정함을 입지 못한 자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중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위클리프의 성경에 관한 주장 역시 독특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오직 교회의 소유이며 오직 교회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예정함을 입은 자들로 이루어진 몸이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 이같은 확신에 의하여 최초로 위클리프는 라틴어 전용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시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을 정역적으로 번역한다. 물론 그의 생전에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지 못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완결한다.

그러나 이들이 부분적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자들을 모았다. 여기 모여진 전도자들은 당시 호사한 신부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신부들'(Poor Priests), 혹은 '순행 설교자'라고 불려졌다.

이들은 당대 교회 신부들이 성자들의 얘기나 이적담이나 의식에 호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설명해주며 말씀의 참 뜻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같은 일에 저들은 두 벌 옷도 없이 순전히 나그네처럼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일류대학 출신의 지성인들이 따라나섰으나 너무 고생스러운 무전 전도여행을 견뎌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주로 가난한 젊은 사람들로 주류를 이룬다.

이들의 설교는 위클리프가 마련한 간단한 요약설교와 주기도와 십계명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렇게 위클리프의 전도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몰라드'(Lollards)라고 불렀다.

그 외에도 고해성사를 정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했다. 성자승배나 성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것도 미신행위라고 배격하였고, 성지순례를 큰 공로로 보는 것도 배격하였다.

성례에 대한 것 중 7성례를 인정하되 특히 세례와 성찬을 더 중시했다. 그가 화체설 교리에 대한 부인으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화체설 교리가 성육신에 나타난 원칙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과 연합하셨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떡 속에 임하면서 그리스도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 카톨릭에서는 사제의 축복 후 떡이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면죄부 판매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을 비난하였다. 그런데 그는 연옥의 교리는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이론들은 당시 교회의 공식적 교리에 어긋남으로 세속 당국들로부터 경원을 받게 된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옥스포드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오랫동안 휴직상태로 지낸다.

마침내 1381년, 그는 '루터워스'(Lutterworth)라는 교구로 은퇴를 한다. 이 루터워스 교구는 그가 왕실을 위해 봉사한 대가로 하사받은 구역이었다. 그는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후에 현금이 급히 필요함으로 이 교구를 팔고 다른 교구로 교환한다. 이것은 위클리프가 그토록 교회의 부패를 증오했지만 그도 역시 그 당시에 만연했던 교회 흐름에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반 로마 카톨릭적인 그의 운동을 당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1384년 위클리프가 뇌일혈로 사망할 무렵 그에 대한 보복의 불길이 타오

르기 시작하였다. 1401년에 이단대책이 의회에서 채택되고 1406년에는 위클리프 운동, 즉 '롤라드'(Lollards)운동을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1409년에는 감독 총회에서 위클리프의 교리를 정죄하고 성경번역 사업과 거리 순회 전도 운동을 금하도록 하였다. 1415년에는 콘스탄스 회의에서 위클리프를 260개 종목의 죄목을 지적하고 그를 정죄한 후 모든 저서를 불태웠다. 1428년에는 교황의 명령으로 위클리프의 유해를 파내어 불태워가지고 그 재를 '스위프트'(Swift) 강에다 뿌려졌다.

위클리프가 죽고 난 뒤에도 '롤라드'(Lollards) 운동은 근절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운동은 하류계급으로 중심이 되면서 그 성격이 극단적이 된다. 1413년 '롤라드의 음모'(Lollard Conspiracy)가 발각된다. 이 음모는 교회개혁과 아울러 정부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롤라드파 운동은 근절되지 않았다. 16세기 초 이들의 운동이 부흥되는 듯 했으나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사형에 처해진다. 결국 영국에 잔류해있던 롤라드주의자들 때문에 16세기 영국의 개혁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위클리프의 운동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한 세기 전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적인 운동이었다. 만일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여건이 성숙한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루터보다 더 먼저 종교개혁에 성공했을 것이다.

(2) 존 후쓰(1369-1415, John Huss)

후쓰는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 지방인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났다. 보헤미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로써 보헤미아 지방의 '프라하 대학교'(University of Prague)에서는 위클리프의 작품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이 당시 후쓰는 프라하대학 철학교수로 있으면서 '베들레헴'(Bethlehem) 성당의 설교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이 무렵 후쓰는 당시 종교회의주의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교회 개혁을 주장했으나 교회의 전통적 교리에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클리프의 작품이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클리프의 철학을 놓고 프라하 대학 안에서 독일인들은 위클리프 사상이 고루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고 체코인들은 그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견해 차이는 드디어 국왕이 보헤미아 편을 들므로 독일인 학생들은 '프라하'를 떠나 '라이프찌히'(Leipzig)에 자기들 대학을 설립한다.

한편 후쓰는 1402년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 자리까지 오른다. 그런데 프라하를 떠나 라이프찌히로 간 독일인들은 보헤미아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동조하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이 당시 프라하의 대 주교는 피사(Pisa)회의에서 선출된 교황들(알렉산더 5세, 요한 23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대주교는 교황으로 하여금 위클리프의 저술을 금지하고 그의 작품을 읽지 말도록 하는 교황 칙령을 받아내고 아울러 설교는 성당과 교회, 그리고 수도원 내에서만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때 후쓰는 오랜 숙고 끝에 그같은 교황의 칙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유롭게 학교에서, 강의실에서도 설교를 하였다. 그러자 교황은 1410년 후쓰가 교황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혐의로 로마로 소환 명령을 내렸다. 후쓰는 교황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자 교황은 1411년에 파문을 선포한다. 그러나 보헤미아 국왕과 국민들이 후쓰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함으로 교황의 파문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때부터 후쓰는 교황청과 보다 극단적인 입장에서 정면 대결을 전개해 나갔다. 그가 첫번째 한 일은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 나갔다. 아무리 교황이 회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교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황이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교황이 과연 교황으로서의 권위가 계속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교황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포함하는 궁극적 권위라고 주장하였다. 즉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전쟁 비용에 쓸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같은 면죄에 관한 신성한 것을 매매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후쓰의 반대 주장에 따라 많은 체코인들은 교황청의 착취행위에 대하여 공개시위를 벌였다. 이에 흥분한 요한 23세는 후쓰를 재차 파문시켰다.

이때 후쓰는 자기로 인하여 자기 조국 전체가 복잡한 신학 논쟁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보헤미아 왕의 요구도 있고 해서 프라하시와 강단을 떠나 친구의 성채에 은거하면서 「교회론」(De Ecclesia)을 저술한다. 이 논거는 주로 위클리프 사상과 비슷하다.

이 무렵 콘스탄스에서 종교대회가 소집된다. 그런데 콘스탄스 회의는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와 교황 요한 23세의 합의하에 대회가 열렸었다. 이때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는 보헤미아 왕의 제자로 보헤미아가 이단을 용납한다는 악명을 면하기 위하여 후쓰를 콘스탄스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다. 그리고 후쓰의 신변보호는지기스문트 황제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당시 콘스탄스 회의는 전 유럽에서 5천여명이나 참석하는 새 시대의 개혁을 열망하는 대대적인 회의였다. 이에 후쓰가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 대회에 참석하여 대 개혁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후쓰가 1414년 11월 3일에 콘스탄스에 도착하자마자 요한 23세는 회의와 상관없이 직접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교황의 처소로 잡혀가 이단 사상을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때 후쓰는 만약 누구든지 자기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하였다. 철저한 강요 끝에 죄수 취급을 받고 교외 저택 수도원의 독방으로 감금되면서 이단 철회를 요구당했다.

이때지기스문트 황제는 자신이 후쓰에게 신변 안전보장을 약속했으므로 교황의 행동에 항의를 한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후쓰의 사상이 별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도 이단의 지지자처럼 보이게 될 것을 알고 이 문제에 손을 떼고 만다.

드디어 수도원 독방에서 연금된 지 수개월 후 1415년 4월부터 심문을 거듭하다가 6월 5일에 종교회의의 앞에 불려져 나갔다. 이때는 후쓰를 체포했던 교황 23세도 그곳을 도주했다가 죄수의 몸으로 다시 붙잡혀 온 때였다.

이때 종교회의의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정통신학을 수호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후쓰가 종교회의에 순종과 이단사상을 철회한다고만 하면 방면해 주겠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후쓰는 회의 앞에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서 있으면서 자기가 이단 사상을 철회한다고 하면 자기가 과거에 이단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됨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회의주의자들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후쓰는 담담하게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유일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소하리라. 나는 그분의 손에 처분을 맡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 증인들이나 오류에 가득 찬 회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와 공의 위에서 모든 개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쓰는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다.

많은 이들은 후쓰를 따라가며 회의의 권위만 인정하면 방면될 것이므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7월 6일 성당으로 다시 끌려갔다.

그의 몸에 사제복을 입혔다가 관리들이 사정없이 찢어놓았다. 그리고 그 머리는 삭발시키고 그 머리에는 악마의 그림을 그린 종이를 뒤집어 씌웠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자기 저작들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시편을 낭송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들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처럼 잔인한 죽음을 아무런 불평없이 감당합니다. 부디 나의 적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후쓰는 1515년 소위 콘스탄스 종교회의의 운동자들에 의해 장작더미 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사형집행관들은 재를 모아 호수에 뿌려버림으로 이 단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몇몇 체코인들은 후쓰가 사망했던 자리의 약간의 흙을 파 가지고 체코로 돌아가 콘스탄스가 행한 죄악을 기념했다. 아울러 보헤미아 모든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콘스탄스 종교회의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452명의 보헤미아 귀족들이 모여 자기들은 후쓰의 신앙에 동조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한다.

그리고 후쓰가 주장한 대로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후쓰의 순교는 전 보헤미아 국민들을 똘똘 뭉쳐 저항케 하는 커다란 개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

보헤미아 지방은 후쓰파로 일색이 되었다. 후쓰파는 두 파가 있었다. 하나는 온건파인 ‘호렙파들’(Horebites)이 있고, 또다른 극단파인 ‘타볼파’(Taborites)가 있었다. ‘타볼파’는 프라하 남쪽 ‘타볼’(Tabor) 교원을 그들 근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타볼파라고 하였다.

이때 보헤미아 국왕 ‘원체슬라스’(Wenceslas)가 죽었다. 그의 뒤를 이은 합법적 후계자인 콘스탄스에서 후쓰를 저버렸던 독일황제 지기스문트였다.

보헤미아인들은 지기스문트에게 4개 현장으로 구성된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다. 이에 지기스문트 군대는 프라하 인근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타볼파’의 지휘자인 ‘존 지스카’(John Zizka)는 독일 군대를 대파시켰다.

두번째 전투에서 지기스문트 잔류병력은 완전히 케멸당하였다. 1년 후에 지기스문트는 10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시 보헤미아를 공격했으나 다시 패배하고 만다. 1년 후 다시 쳐들어온 군대도 물리치고 1427년 1431년에 황제와 교황의 연합군들이 보헤미아를 쳐들어갔다가 다 패하고 만다.

보헤미아인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으므로 바젤회의에서 회의주의자들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수습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바젤회의의 설명 때 이미 언급하였다. 여기 보헤미아인들은 그 후에도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이들의 정신적 유산은 종교개혁과 모라비아인 형제단으로 계승한다.

(3) 지롤라모 사보나롤라(1452-1498, Girolamo Savonarola)

사보나롤라는 1452년에 이탈리아의 ‘펠라라’(Ferrara)에서 출생하였다. 사보나롤라는 어릴 때에 침울하고 고독한 사람처럼 자라났다. 그 부모들은 그를 의사가 되게 하려고 했으나 본인은 그 뜻을 거절했다. 청년시절에는 ‘플로렌스’(Florence) 귀족의 딸과 연애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세상 허무에 관계를 끊고 ‘블로냐’(Bologna)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세상 생각을 잊고 성서와 어거스틴 연구로 그의 사상적 기초를 연마한다. 사보나롤라는 생애의 대부분을 학문연구와 명상에 바친다.

1482년에 ‘플로렌스’에 가서 설교하는 것으로 그의 대중활동은 시작한다. 그런데 그 당시 플로렌스 시민들은 사치와 허영에 심취하여 있었으므로 사보나롤라의 준엄한 설교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시골 촌 펠라라 사투리 억양 때문에 이상스럽게 거부반응을 받았다. 하지만 사보나롤라는 대중들의 불호응에도 구애받지 않고 계속하여 예언자같은 심정으로 열성을 다해 절규하였다.

그러니까 플로렌스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차츰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다. 사보나롤라는 계속적으로 도시에 만연되어 있는 폐풍들을 가차없이 공격하였다.

이 당시 플로렌스시는 부호인 ‘로렌조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가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이 메디치의 은근한 영향력 때문에 플로렌스 전 시에 대한 개혁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성 마가(St Mark)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성경강해는 곧 인기를 모았고 강연장이 교실에서 정원으로 옮겨가지고 1491년에는 플로렌스에서 가장 큰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해 당시 사회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독인으로서의 향락에 찬 사치생활 등을 비판했다. 이것이 곧 시의 유력자들에게 비위를 거슬렀다. 이때 부호인 메디치는 사보나롤라를 공격함으로 그의 세력을 꺾기 위해

공격 전문 설교가를 고용한다. 그러나 플로렌스 시민들은 메디치의 그같은 행위에 분노하고 더욱 더 열광적으로 사보나롤라를 지지한다. 그러나 고용 설교가는 사보나롤라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로마로 떠난다.

사보나롤라는 마가 수도원장으로 선출된다. 그는 수도원 재산 대부분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또 수도원 내의 생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시민들이 볼 때 수도사들의 경건과 봉사의 모습을 봄으로 수도원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켰다. 그렇게 되자 다른 수도원들도 곧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로렌조 데 메디치가 죽고 그 뒤를 계승한 '피에트로 데 메디치'(Pietro de Medici)는 플로렌스 시민들의 신망을 잃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찰스 8세는 나포리까지 그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플로렌스까지 엿보고 있었다. 찰스 8세는 플로렌스를 침략하려고 할 때 피에트로는 뇌물을 바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이에 분노한 플로렌스 시민들은 사보나롤라를 중심으로 하여 피에트로에게 항의를 하고 그를 시에서 추방시켜 버린다. 그 후 찰스 8세가 1494년에 플로렌스를 침입하였다. 이때 찰스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때에도 사보나롤라가 중재에 나서서 플로렌스가 프랑스의 동맹자가 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후로 플로렌스 시민은 사보나롤라에 대한 신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래서 플로렌스 시 정부의 형태를 사보나롤라의 자문을 받아 공화체제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시의 경제부흥에 열을 올린다. 교회들도 그들이 소유한 은금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바로 이때가 사보나롤라의 개혁운동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사보나롤라는 시정의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혁에도 앞장선다. 수도원이 전에는 사치와 허영의 수도원이었으나 이제는 근면과 절약의 수도장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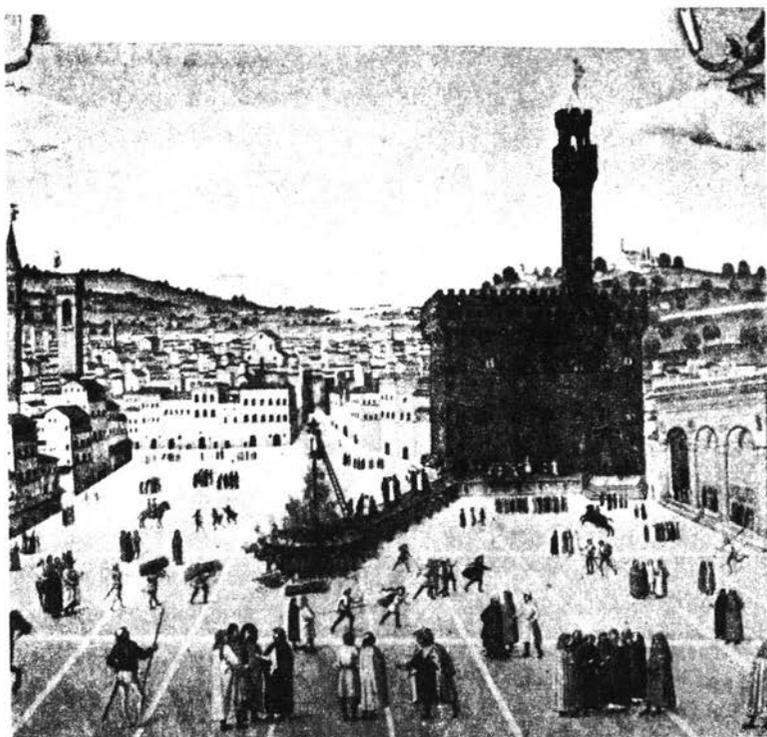
그래서 수도원에 대한 인식을 전에는 열광적이고 무지한 수도사라는 비난에서 새로운 작문 연구의 개발을 새롭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마가 수도원은 그의 지도 아래 라틴어, 헬리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갈대어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보나롤라가 창안해 낸 독특한 개혁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부유한 자들이 추구하는 사치와 향락은 허영임은 물론이고, 물질을 탐하는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허영의 화형식’(burnings of Vanities)이라는 화형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허영의 화형식은 시 중앙 광장에다 나무로 만든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그 아래에는 화약이 섞인 짚단과 장작이 쌓여진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치스러운 의복, 보석, 가발, 그리고 고가의 가구 등을 피라미드 계단 위에다 갖다버린다. 그 후에 찬양을 하며 주변을 행진한다.

이때 그 물건들을 불태우며 허영을 저주하고 소리를 외친다. 이렇게 하여 카니발 대신에 불꽃놀이를 함으로 탐욕을 화형시켜 버린다고 하였다. 이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탐욕갖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플로렌스 광장에서 사보나롤라의 화형을 보려고 모인 군중들. 미술가는 그들을 소수의 작은 집단으로 드문드문 그려왔다.

사보나롤라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몰락된다. 역사상 최악의 교황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알렉산더 6세가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해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과 동맹을 맺는다. 이렇게 되자 플로렌스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교황 측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전에 프랑스 찰스 8세와의 동맹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교황은 사보나롤라 개인과 플로렌스 도시에 대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자 플로렌스 시민들 중 특히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보나롤라가 주장하는 전의 약속을 따름에서 오는 갖가지 불이익에 반대가 일기 시작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층에서는 사보나롤라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계속 그를 지지하였다.

그런데 요행이 어떤 문제에 관한 그의 예언이 적중하였다. 그 뒤로 군중들은 그에게 계속된 예언과 기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보나롤라가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자 저들 역시 사보나롤라를 적대하게 된다.

마침내 폭도들이 성 마가 수도원에 침입하였다. 이때 사보나롤라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폭도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후에 세속 당국자들에게로 인도되었다.

세속 당국 관리자들은 은근히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 이들은 사보나롤라를 고발할 근거가 필요하였다. 며칠간의 참혹한 고문 끝에 만들어낸 것은 그에게 미래를 예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교황 역시 사보나롤라를 고문할 사절을 보냈다. 여기서 고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그가 종교회의에 호소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고백 정도였다. 그래서 저들은 혐의를 못찾자 사보나롤라와 그의 두 추종자들을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들'이라는 막연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1498년 5월 23일에 교수형에 처했다가 그 시체를 불살라 아르노(Arno) 강물에 뿌렸다. 그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유물들을 간직하고 길이 존경하며 그를 기억해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의롭게 살아갔던 깨끗한 수도사 사보나롤라도 한 시대의 정치와 교황권의 독선에 의해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로마 카톨릭교 안에서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의인 사보나롤라를 교회의 성인 반열에 모셔야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교황이 정죄한 사람을 의인의 반열에 모실 수 없다는 교황권 비호 세력 때문에 그 뜻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세기 로마 카톨릭교회의 갖가지 면에서의 한계점들을 보게 되

었다. 교황청의 지나친 권위주의에 식상하여 신비주의로 눈을 돌리는 소극적인 개혁의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황의 횡포를 전체 종교회의의 힘으로 근본적으로 꺾어보려는 종교회의 운동가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이 불태워 죽고 자기 저작들이 이단서적으로 참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죽음으로 개혁에 맞서 싸운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양상은 곧 로마 카톨릭의 독재와 독선과 독주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혁에 관한 열망이었다.

이와 같은 개혁의 열망을 안은 불화산같은 응집력들은 여기 소개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뒤끓고 있었다.

그같은 개혁의 열망이 드디어 루터로 말미암아 가시화되게 되고 그는 전 유럽의 열망을 한 데 묶어 종교개혁으로 성공하게 된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관한 전개 모습을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자.

제 24 장 문예부흥과 인문주의

중세 역사에서 근세로 옮겨지는 그 근거는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저마다 독립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족주의가 강하게 작용한 점도 종교개혁의 밑바탕이 된다.

또 사회적으로도 봉건 제후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상업의 발달 등으로 경제적 의존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종교적으로도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 교황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사치와 향락을 버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군중들의 관심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신비주의였다.

또 각 곳에서 일어난 대학들은 흑암에 뒤덮혀 있는 캄캄한 암흑의 세계로부터 눈을 뜨게 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떠져가는 것을 억지로 막아보려던 탄압정책은 개혁 전의 개혁자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힘으로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그에 대한 반사적 반항의 힘도 클 수밖에 없었다. 세계 누르던 교권주의 위력도 강력하게 튕겨오르는 용수철처럼 거센 세력 앞엔 감당을 못하게 된다.

여기서는 중세 말기에 일어난 대중들의 반사적 운동으로 뛰쳐나온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 운동과 그것이 전 유럽으로 작용한 인문주의 또는 휴머니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개혁을 열망하여 일어난 종교회의의 운동이나 개혁자들의 운동이 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한다면, 문예부흥과 인문주의는 전체 중세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난 운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예부흥(Renaissance)

흔히 문예부흥을 ‘르네상스’라고 한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어로 ‘rinascimento’, 라틴어로는 ‘renascor’, 영어로는 ‘rebirth’이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프랑스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재생, 또는 부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생되고 무엇을 부흥시킨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르네상스라는 말은 그 이전 시대가 죽어 있었다거나 또는 단절되어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느 시대가 죽어있었던 말인가? 역사를 보는 이들은 476년 로마가 멸망당한 후 약 1,000년 동안은 중세기의 암흑시대로 모든 문화 및 인류의 정신이 다 죽어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중세기’(middle Ages)이고 이 중세기 때 남은 것이라고는 야만족인 ‘고트족’의 작품인 ‘고딕식’(Gothic) 건물 정도밖에 없었다는 경멸적인 표현을 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14-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에까지 확산되었던 지적, 예술적 활동을 이름하여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문예활동은 저급하고 저질적인 것이었다는 것에서 ‘문예부흥’이라는 용어가 채용된다.

이들 14-15세기에 전 유럽에 유행하였던 문학활동의 성격은 과거 옛날과 전혀 달랐다. 이 당시에 시나 또는 문필활동으로 자기 사상을 드러낸 그 특징을 말한다면 첫째는 기존 권위에 대한 것을 저항하고 은근하게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예리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개인주의적 성격이 뚜렷하고, 셋째로 자연을 즐기고 자연에 관한 탐구가 중점적 소재가 된다는 점이다.

(1) 이탈리아에서의 문예 활동가

이 무렵에 문예 활동으로 이같은 성격을 드러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페트라카(1304-1374, Petrarch)

페트라카는 피렌체에서 추방된 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전 연구에 증진하였다. 그는 젊어서 이탈리아어로 ‘소네트’(Sonnet, 14행의 단시)를 주로 썼다. 후에는 키케로의 양식을 모방하여 라틴어로 저술하였다. 이 사람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고전문학 작품들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문학활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

2) 보카치오(1313-1375, Boccaccio)

페트라카의 친구인 보카치오는 ‘데카메론’(Decameron)이란 전기를 저작한

사람이다. 보카치오는 고대의 신화, 영웅이나 왕자들의 운명에 관해 저술활동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문법, 수사학을 강조하는 것 같았으나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사상이 연면하게 표현되었다.

페트라카와 보카치오의 작품에는 기존 중세기의 판을 치던 스콜라주의 철학을 경멸하였다. 그리고 인간과 윤리를 보다 중요시했다. 이들에게는 전의 스콜라주의자들의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이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

3) 단테 (1265-1321, Dante)

단테는 플로렌스에서 출생하였다. 소년시절에 고전문학의 영향으로 '신 생명'(Vita nuova) 등 노래를 지었다. 장년기에는 시의 정치에 입문하여 당쟁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정치의 비정함을 깨닫고 20여년간 이탈리아 각처로 유랑생활을 하다가 라벤나(Ravenna)에서 죽는다.

단테가 유랑 중에 쓴 「신곡」(Divina Commedia)는 천국, 지옥, 연옥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신곡의 전체 흐름은 역시 로마 교회를 신봉하는 그의 신앙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곡의 여러 부분에는 그 당시 교황의 무기력함을 문학 기법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교회의 모순점들을 해학적으로 웃음 속에 담긴 뼈있는 지적들을 말하고 있다.

이같은 그의 작품이 그의 시대 당장에는 큰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같은 그의 문제의식은 많은 지성인들로 하여금 다음 시대의 선도적 개척자가 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4) 로렌조 발라 (1406-1457, Lorenzo Valla)

발라는 교황의 비서였다. 그는 「이시도리안 교령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콘스탄틴의 하사」(Donation of Constantine)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교령집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AD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폴로 천도를 한다. 그런데 그때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 아내가 사용하던 '라테란' 궁을 그 당시 로마 감독인 '실베스터'(Sylvester)에게 하사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콘스탄틴 황제가 실베스터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 실베스터 교황에게 서방 전체를 다스리도록 그 권한도 하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발라가 연구해 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었다는 것이다. 즉 콘스탄틴 황제는 330년이 아닌 337년에 죽기 직전 병상에서 입상세례를 유세비우스 감독에게 받고 죽는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서방은 물론 동방까지를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지배하기를 원했지 교황에게 대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라의 결론인즉 「콘스탄틴의 하사」라는 작품은 콘스탄틴 사후 훨씬 후대에 로마교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 발라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교회가 '사도신경'(Apostles Creed)이라는 것을 12사도가 각각 한 귀절씩 맡아 제시함으로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라는 주장도 로마교회의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도 주장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이 그 당시 로마교회에 즉각적인 결과들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발라의 이같은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단지 지식인들 사이에만 연구 결과가 오갔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주장이 본격적으로 들어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2) 독일에서의 문예활동

독일에서의 새 학문의 시작은 대학사회에서 시작된다. 독일은 150년 동안에 17개의 대학이 설립된다. 보헤미아의 프라하대학은 1348년에, 비엔나대학은 1365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은 1386년에, 골론대학은 1388년에, 엘푸르트대학은 1392년에 설립된다.

그리고 15세기에 도 라이프찌히(Liepzig), 그라이프스워드(Greibsword), 프라이부르크(Freiburg), 트리어에르(Trier), 삐젤, 잉골슈타트(Ingolstat), 튀빙겐(Tübingen), 마인쯔(Mainz) 대학 등이 설립되고 윗텐베르크(Wittenburg)와 말부르크(Marburg)대학은 16세기에 생긴다.

이렇게 많은 대학사회에서 새로운 신 학문운동이 일어났다. 여기 대표자가 '데시테루스 에라스무스'(1466-1536, Desiderus Erasmus)였다. 그는 화란의 로테르담(Rotterdam)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화란의 더윈더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1498년 영국에서 유학하였다.

에라스무스는 「토마스 무어」(Thomas More)와 함께 신 학문에 심취한다. 그 후 스위스 바젤에 거주하면서 저술활동을 한다. 그가 쓴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헬라 원문의 신약전서를 편찬했다. 그 외에도 「우인의 노래」, 「대화집」 등이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당시 로마교회를 예리한 눈으로 비판하였고 그는 로마교회의 부패를 갖가지 풍자로 조롱하였다.

이같은 그의 비판은 삼시간에 전 유럽에 풍미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로마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교회가 되

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는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랑, 겸손, 순결에 있다고 했다. 이같은 그의 작품의 주장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공명되었고, 한때는 루터와 함께 개혁에 참여했다가 물러난다.

그 이유는 그의 사상이 순전히 이지적 비판에서 시작되었으나 루터는 그의 체험에 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화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루터가 그의 개혁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에라스무스의 이론에 큰 영향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3) 예술에서의 새로운 활동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문학활동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 문예부흥은 갖가지 예술활동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미술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예컨대 ‘미켈란젤로’(1475-1564, Michelangelo)는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에 그린 ‘최후의 심판’그림을 통해서 중세기적풍의 고답적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각도의 그림을 그렸다.

또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Leonardo da Vinci)는 미술, 기계공학, 보석학, 탄도학, 해부학 등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다. 그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라파엘(Raphael)은 바티칸 성당을 그림으로 장식한다. 이렇게 거의 모든 교황들이 열렬한 예술의 후원자가 되어 교회 건물 증축과 장식에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한다. 드디어 레오 10세(1513-1521, Leo10) 교황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를 완성시키려는 야망으로 무분별한 면죄부 판매를 시작한다.

이것이 결정적 약점이 되어 루터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중세 카톨릭교회는 깨져버리고 말게 된다. 우리는 르네상스가 가져다 준 결과가 종교개혁으로 연결된 것을 바라볼 수 있다.

2. 인문주의(Humanism)

휴머니즘 또는 인문주의는 14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기원하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된 철학 및 문학운동이다.

휴머니즘이란 말의 어원은 키케로와 바로의 시대에 인간의 교육을 의미하는 *humanitas*라는 말과 희랍인들이 *paideia*라는 말에서 비롯된다. 희랍인들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양적 요소들을 *paideia*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휴머니즘이 중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문예부흥 때이다. 이 때에 휴머니즘을 부르짖는 ‘휴머니스트’(humanists)들은 고전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중세시대에 잃어버린 인간정신을 재생시키려는 뜻으로 휴머니즘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과거 중세시대 때 잃어버렸다고 보는 인간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자유라고 보았다.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율성을 발견케 하려면 과거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전을 새롭게 연구함으로써 상실해버린 자질과 능력을 재생시키고 회복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를 발견케 하기 위해 자연과 역사를 접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세기의 스콜라주의를 거부하였다.

앞서 우리가 스콜라주의를 언급할 때 스콜라주의가 한 때는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윌리엄 옥컴(1280-1349, William Occam) 때에는 쇠퇴기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옥컴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absolute) 능력과 제한적(Ordered) 능력을 구분하였다. 무슨 말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선악간의 구별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므로 일을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하신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과거의 스콜라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일하시는 폭군처럼 설명하였으나 스콜라 말기에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제한된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합리주의는 휴머니스트들에 의하여 과거의 교리적, 신학적 관심을 고전을 이용하여 자연과 역사로 관심을 쏟게 하였다.

휴머니스트들의 고전학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부활은 인쇄기의 발명을 가져오게 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활자인쇄를 발명한 15세기 독일의 ‘구텐베르크’

(Gutenberg)는 1454년에 '31행 속죄장' '36행 성서' '42행 성서'등을 간행하였다.

휴머니스트들의 처음 문학활동은 고전문학을 필사해 논 필사본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인쇄술의 발달은 전체 대중에게 지식과 정보를 쉽게 보급하므로 엄청난 위력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교회당 안에 가야만 볼 수 있거나 또는 수도원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던 성경이 일반 대중에게도 성경이 보급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중세 말기의 문예부흥과 인문주의가 다음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 즉, 문학 활동가들은 작품을 통해 교황권의 부패를 조롱하고 있다. 예술가들 역시 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하였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은 과거 중세기 유산을 거부하고 고대 고전을 재생시킴으로 새 인간성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던 성경을 일반 대중에게도 보급케 하였다. 이같은 요인들이 결국에는 다음 장에서 논할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사전·주석

1.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in Volumes 15th Ed., 1982
2. Websters Sev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76
3. 기독교대사전, 대한기독교서회, 1960
4. 그리스도교대사전, 대한기독교서회, 1972
5. 성서사전, 류형기 편저, 1960
6. 기독교대백과사전 16권, 기독교문사, 1985
7. 신약성서 신학사전, 요단출판사, 1989
8. 신약주해 (이상근 저) 12권, 예장 총회교육부, 1970
9. 신약주석, 기독교서회, 14권
10. 헨드릭슨 성경주석
11. 렌스키 주석

□영어자료

1. Joseph Ayer, *A Source Book for Ancient Church History*.
 2. Jean Danielou,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Doctrine before the Council of Nicea*.
 3. Tim Dowley(ed), *Eerdmans Handbook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
 4. Robert M. Grant, *Gnosticism and Early Christianity*
 5. A. Harnack, *History of Dogma, Vol. I -V*
 6. J. N. D. Kelly, *Early Christian Creeds*
 7.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8. Kenneth S. Latourett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 =The First Five Centuries)*
 9. A.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urch, 5 Vol (1972)*
-

10. J.L.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II
11. A.H.Newman, *A Manual of Church History*, Vol. I -II
12. Philip Schaff, *Creeeds of Christendom*,Vol. I -II
13. _____,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Vol. I -VIII
14. _____,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14 Vol.
15. Gunnar Westin, *The Free Church through the Ages*.
16. *The Fathers of the Church*(A Roman Catholic Translation)

□국내자료

1. 순례하는 교회(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한 교회들의 역사), E.H.브로우드벤트저, 전도출판사역, 1990
2. 기독교회사, 김의환 저, 성광문화사, 1982
3. 교회사, 송락원 저, 부산이건사, 1981
4. 초대교회사, 곤잘레스 저, 서영일 역, 은성출판사, 1988
5. 중세교회사, 곤잘레스 저, 서영일 역, 은성출판사, 1990
6. 기독교사, 상·중·하 케니스 레토레토 저, 윤두혁 역, 생명의 말씀사, 1989(4판)
7. 세계기독교회사, 위키 저, 강근호 3명 역, 기독교서회, 1990(20판)
8. 교회사(초대편), 완드 저, 이장식 역, 기독교회사, 1989(12판)
9. 기독교회사 I, 손두환 저, 총신대학 출판부, 1990(7판)
10. 세계 기독교회사, 카이퍼 저, 김해연 역, 성광문화사, 1990
11. 기독교회사, 휴튼 저, 정중은 역, 나침반사, 1990(3판)
12. 초대교회사, 채드워크 저, 서영일 역,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9
13. 세계교회사, 김수학 저, 보문출판사, 1990(5판)
14. 최신교회사, 어드맨 편, 김해연 역, 맥밀란, 1987
15. 서양 기독교사, 얼 케인즈 저, 김기달 역, 보이스사, 1990
16. 인물중심의 교회사, 모이어 저, 광안전, 심재원 역, 기독교서회, 1990

■ 색 인 (INDEX)

(ㄱ)		그레고리 7세	187-192, 306
가난한 신부들	338	그레고리 9세	284, 303
가롯 유다	45	그레고리 11세	244
가아바	74	「그리스도를 본받아」	326
가이사 아우구스토	65	그리스도쟁이	51
가현설	140	그리스 (헬라)시대	23
갈라디아서	58	금욕주의	73, 134
갈레리우스	117	기념설	39
갈릴리 유다의 난	75	기부금제도	73
감독직	33	길드	318
감독직의 부상	149	(L)	
개교회 중심	32	나사렛 사람 복음서	85
개혁조례	240	나사렛파	143
게네시오스	270	나세네 시편	87
견진	36	네로	65, 147
결혼 (카톨릭의)	36, 261	네스토리우스	128, 178
경건운동	322	네오 플라톤주의→신 플라톤주의	
고린도전·후서	57	노바티아누스	55
고백	261	노바티안	154-156
고트족	163, 172, 185	누가복음	60
고해	36	니고데모	44
공회 (산헤드린)	26	니케아공회 (2회)	235
골로새서	61	니케아신조	79
골론대학	352	니케아회의	123, 162
공동서신	63	니콜라스 2세	188
관수 (灌水)법	37	(C)	
교황의 절대무오권 주장	189	다마스스	137
교황제도	295	다미수스 1세 174, 185	
교회성장학	53	다처주의 (이슬람의)	209
교회의식	73	단성론	131
「교회론」 (후쓰의)	341	단의론	
교훈집 (Ta logia)	56	단테	351
구원론 (아퀴나스의)	313	대 바실	160
국가와 교회의 연합시작	149	「대화」	307
궤석 성직제	245	데니스 (고린도의)	181, 185
「규율집」	137	데살로니가전서	57
그라티아누스 황제 칙령	159	데살로니가후서	57
그레고리 (나지안주스)	160, 162, 165	데시데루스 에라스무스→에라스무스	
그레고리 (닛사의)	160, 161	데키우스→데시우스	69, 100, 116, 147
그레고리 1세	86-187	데오도라 황제의 칙령	270

데오도시우스	128, 162	레오 9세	222
「데카메론」	350	레오 10세	353
도나투스	157	레오나르도 다 빈치	353
도나티스트	156-159, 171	로고스 사상	96
도마스 복음서	85	로렌조 발라	351
도마스에 의한 유년 예수의 이야기(외형)	86	롤라드	339, 340
도마스 행전	86	롬바르드	309
도미니크	296-300	롬바르드족의 침략	218
도미니크 수도원	344	롬바르디아족의 정복	235
도미티안	68, 147	롬베르스 회의	284
도미티안 형제	42	루스바누스 2세	224
도유	36	르네상스→문예부흥	
「독백」	307	(d)	
독신생활	73	마가복음	59
〈동정에 관하여〉	161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193
동체설	39	마니교	167, 265, 272
두기교	61	마니의 복음서	86
뉘올루즈회의	285	마라톤 전쟁	23
드다의 폭동	74	마리아의 겐나	86
디다케→12사도 교훈집		마리아의 복음서	86
디도서	62	마리아의 질문(외경)	86
디모데전·후서	62, 63	마카비 반란	24
디아스포라	24, 25	마카비 시대	24
디아테사론	95	마태복음	56
디오그네투스의 편지	93	마티아의 복음서	85
디오니시우스	196	마틴	266
디오니시우스의 교령집	195, 198	마틴 5세	331
디오클레티안	70, 116, 147, 157	마호메트	201-203
(e)		막시미안	117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낸 편지	86	막시밀라	151
라테란 공회(4차)	284	만물회복설	103
라테랑 대회	189	만인제사장	31
라테란 종교회의(3차)	289	만족설	308
라테랑 종교회의(4차)	193	말시온	143-145, 272
라테랑 공의회(4차)	230	말시온의 복음서	86
라트람누스	305	말시온파	143
라파엘	353	매대·바사시대	23
랩시(Lapsi)	155	메디나	202
레오 1세	185, 218	멜리토	95
		모니카	166

모라비안	294	버나드	323, 325
목사직	33	벌게이트	136, 197
목회서신	62	변증가	94
몬타너스	151	베네딕트	137
몬타니스트	150-154, 323	베네딕트 1세	186, 219
몬트펠리어 대학	319	베네딕트 11세	240
우원죄 잉태설	313	베네딕트 12세	244
우원죄 회태설	313	베네딕트 13세	247
우천년왕국 사상	174	베드로의 로마순교	181, 184
운예부흥	349-353	베드로의 묵시록	87
미사	36	베드로의 복음서	85
미켈란젤로	353	베드로의 선교 (외경)	86
밀란 칙령	117	베드로전·후서	59, 63
(b)		베드로행전	86
바나바	93	베로나회의	284
바네스	270	베스파시아누스	67, 75
바르데사네스의 복음서	86	보고밀	273-280
바리새인	25	보니페이스 8세	237
바리새적 예비온파	143	보카치오	350
바리새파	24	보헤미아 형제단	290
바벨론교회	181	복수 성직제	245
바벨론시대	23	볼로냐 대학	319
바벨론 포로기	237-245	부활절	113
바실	275	분파주의자	263, 264, 150-159
바실 1세	271	불가리아파	275
바울의 묵시록	87	브라가회의	267
바울파	269-273	비엔나대학	319, 352
바울파 (보고밀파의 이명)	275	빌라델비아교회	47
바울행전	86	빌레몬서	61
바젤회의	331	빌립보 복음서	85
반달족	192	빌립보서	61
반달족의 침입	185	(s)	
반 펠라기우스	178	사가라 (바울파의)	270
발데시우스→왈도파		사도신경	78-82
발레리안	69, 116	사도행전	61, 86
발레리우스	171	사두개인	25
발렌티니안 2세	164	사두개파	24
발렌티아누스 황제 칙령	158	사랑의 애찬	72
باط리스마	37	사모사타의 바울	124
배화교	139	사보나롤라	300

사순절	113	셈바트	270
사천의 자객	75	세베리우스	147
산헤드린	26	셀서스	101
살라미전쟁	23	셉티무스	69
살레르노대학	319	셉티무스 세베리우스	69, 97
살수(撒水)법	37	소크라테스	23
삼위일체론	79, 102, 103	소 형제단	301
삼위일체론(어거스틴의)	172	속사도	89
삼장령	130	속죄론	307
상징설	39	솔로몬의 송가	87
샤를마뉴	235	수니파	211
서기관	24-25	수도사	134
서품	36	수도원 생활	73
선재설(헬라철학의)	176	수도원 운동	134
설교자들의 수도회	297	수도원 제도	295
성례전	258	수직적 사관	20
성례전(아퀴나스의)	312	순나파→수니파	
성례전 신학	187	순환사관	20
성례주의	90	스콜라신학	303-316
성례의 발달	148	스콜라철학	303
성례회	73	스토아철학	95
성 마가 수도원	344	스토아학파	134
성만찬	39, 259	스틀스부르크 파피루스	85
성모예배	251-255	승천일	113
성상 사용의 합법화	258	시릴	128
성상 숭배의 합법성 선포	235	시모온	134
성육신	307	시모온(바울파의)	270
성자들 예배	255-257	시아파	211, 214
성직계급 거부	271	신비주의 운동	322
성직매매	245	시저	65, 117
성직 중임→복수 성직제		신곡	351
성찬식	36	신국→하나님의 도성	
성체 미사	260	신의 도성→하나님의 도성	
성화성물의 숭배	257-258	신탁집	87
쉴름겔리온	171	신포	261
세네카와 바울의 왕복서간	86	신폴라톤주의	145-146
세례	36	신폴라톤 철학	168
세례(카톨릭의)	260	신학대전	311
세례의식	38	실베스터	292, 351
세르기우스	131, 270	실재론(아퀴나스의)	312

실재론 (스콜라신학의)	303	야고보서	56, 63
12사도 교훈집→디다케		야곱의 묵시록 I	87
십자군 전쟁	223-234	야곱의 묵시록 II	87
(O)		야곱의 원 복음서	86
아그라파	84	양성론	132
아놀드파	286-288	양의론	132
아다나시우스	126	어거스틴	87, 166-179, 249, 305
아담의 묵시록	87	어거스틴 수도원 규칙	297
아데나고라스	95	어거스틴의 성서주의	311
아데나고라스	249	에드워드 1세	232
아리우스	124	에라스무스	326, 253
아리우스파	161, 164	에리게나	305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	311	에베소 교회	51
아벨라드	308-309	에베소 대회	178
아부가루스 전설 (외경)	86	에베소서	61
아비뇽 교황시대	237	에베소 회의	79, 128-129
아우구스투스	117	에비온주의	142
아틸라의 침입	218	에비온파 복음서	85
아펠레스의 복음서	86	엑카르트	323-325
아폴리나리스	95	엣세네파	26
안나스	74	엘케사이의 서	87
안드레 행전	86	에클레시아	52
안디옥 교회	43, 51, 88	엘프루트 대학	319, 352
안셀름 306-308		연옥교리 반대	272
안토니	134	연옥의 교리	293
안토니우스 피우스	69, 92	영세	36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3	영적 영웅주의	72
알렉산더	124	영적 자매	165
알렉산더 대왕	23	영적 현현설	39
알렉산더 3세	289	영지주의	98, 134, 139
알렉산드리아	23	예루살렘교회	43, 88
알렉산드리아 교회 88		예루살렘 함락	74, 77
알렉산드리아파	97	예수 그리스도의 소피아	85
알비엔스파→알비파		예수와 요한과의 대화 (외경)	86
알비파	280-285, 297	예수의 두 책	85
암브로즈 (밀란의)		예정론 논쟁	305
	162-164, 165, 169, 266	오네시모	61
앗시시의 참회단	301	오렌지 종교회의	178
애굽시대	22	오리겐	97, 99, 124, 181, 249, 305
애굽인 복음서	85	오순절	113

오프타투스	157, 158	이노센트 3세	192-194, 276, 283
옥스포드대학	319	이노센트 6세	244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85	이단	263
옥중서신	61	이데아	146
옥캄	354	이레니우스 69, 97, 148, , 151, 181	249
올림픽 경기	23	이방인에 대항하여	311
왈도파	288-294	이사야의 승천 (외경)	87
외경	84-87	이슬람의 의미	200
요셉 (바울파의)	270	이시도루스 세빌레의 교령집	196
요한의 아포크리온	85	이시도리안 교령집	31, 351
요한 1, 2, 3서	63	이원론	140
요한행전	86	인문주의	353-355
요한 22세	243	(X)	
우남 쌍담 (Unam Sanctam)	239	자연의 구분	306
우르반 5세	244	자유영혼 형제단	325
우르반 6세	245-246	자유지	101, 102
원리	100	장로	33, 34
웬스회의	189	재침례교도	294, 39, 290
위 디도의 편지	86	저스틴	148
위 이시도레 교령집	196	저스틴 마터	95
위 클레멘트문서 (외경)	86	제롬	136, 181, 185, 197, 259
윌리암 2세	227	제자양육	48
윌리암 옥캄	314	견진	260
유게네 4세		조로아스터교→배화교	
유그노	294	죽벌주의	245
유다서	63	존 나틴	315
유다의 복음서	85	존 둔스 스코투스	313
유명론 (스콜라신학의)	305	존 위클리프	336
유세비우스	181, 197	종교재판소	277, 284
유스티아누스	153, 249	종부성사	262
유아세레	40, 41, 177, 293	종속설	103, 124, 172
유아세레의 거부	272	죄악론 (아퀴나스의)	312
유전설 (어거스틴의)	176	주비아누스	122
유출설	140	주의 만찬	36, 39, 73
유티미우스	274	주현설	113
윤희적 사관	20	죽은 자를 위한 기도	293
의식의 남용	148	줄리아누스	122
은혜론 (아퀴나스의)	312	썬빙글리	52
이그나시우스→이그나티우스		지기스문트	342
이그나티우스	49, 69, 90, 112, 148, 181, 184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344

직분	33	코란	201-211
진리의 복음(외경)	85	코스마스	274
진리의 열쇠	270	코이네	24
진행사관	20	큰라드 3세	
집사직	35	콘스탄티노플	121, 225
집어가	309	콘스탄티노플 교회	221
(天)		콘스탄티노플 회의	
참회록(어거스틴의)	172		79, 126-128, 162, 184, 195
창조론(펠라기우스의)	176	콘스탄티노플 회의(2차)	130-131
천사 승배의 교리	250	콘스탄티노플 회의(3차)	131-132
천사예배	248-251	콘스탄틴	
천사의 서열	251		118-123, 133, 149, 153, 173, 292
초대교회/정치적·사회적 배경	22	콘스탄틴(바울파의)	269-270
문화적·종교적 배경	24	콘스탄틴의 기증(하사)	219, 351
총괄갱신의 교리	98	콘스탄틴 회의(2차)	330
최후의 심판	353	콘스탄티누스 6세	257
취득시효(Prescription)	105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	117, 118
700인역→벌게이트		쿠프트어 바울의 목시록	87
침례	36, 37, 96	쿠프트어 애굽인의 복음서III	86
침례에 대한 오해	148	쿠프트어 애굽인의 복음서VII	86
침례의식	38, 4073	쿠프트어 야곱의 편지	86
침례 중생설	148	크리스소스툼	164-166
(ㄱ)		클레멘트	97
카롤링 문서	235	클레멘트(로마의)	89, 181
카이로 파피루스	85	클레멘트(안디옥의)	69
카타리파	280	클레멘트(알렉산드리아의)	99
카타콤	113	클레멘트 5세	241
카테큐멘	115	클레멘트 6세	244
카파도기아인들	160-166	클레멘트 7세	246-247
칼리쿨라	65	클레르몽 회의	224
칼리프 203		키케로	166
칼케돈 신조	79, 185	키프리안	107-109, 114, 149, 184
칼케돈 회의 129-130, 185		(E)	
칼타고	166	타울러	325
칼타고 대회	175	타티안	95
칼타고 제3차 회의	87	터툴리안	104-107, 152, 181, 249,
캘빈	96	토마스 무어	352
캠브리지대학	319	토마스 아 캄피스	326
케린토스의 복음서	86	토마스 아퀴나스	259, 310-313
코넬리우스	155	토미즘	311

토리파	275	피사회의 (1차)	329
통곡의 벽	76	피아움 단편	85
트라베스 회의 266		필립	240
트리아	69	필립 3세	193
트리포와의 대화	96	(ㅎ)	
티베리우스 케사르	65	하나님의 도성	172, 188
티투스	68, 76	하드리안	69, 147, 235
(ㄷ)		하드리아누스 1세	235
파리대학	319	하드리아누스 2세	236
파르메니아누스	158	하버드대학	319
파스카시우스	305	하이델베르크대학	319, 352
파스칼리우스 1세	236	허영의 화형식	346
파스티스 소피아	85	헥사플라 (Hexapla)	100
파우스투스	178	헨리 4세	189
파코미우스	135	헬라교부들	97
파피어스	93	헬마스	91
판테이누스	99	호노리우스	131
페라클레스	23	호노리우스 3세	298
펠라기우스	174	혼합적 예비온파	143
펠라기우스 2세	219	화체설	39, 305
펠릭스	157	화체설 교리의 확정	194
페트라카	350	화체설의 발단	148
페트루스 2세	290	회당	25
폰티너스	97	황금사원 76, 231	
폰티티아누스	170	후스파	332
폴리캅	49, 69, 92, 97	훈족의 침입	185
프라하대학	352	휴머니즘→인문주의	
프란체스코 (앗시시의)	230	회랍정교회	220
프랑코죽	218	히브리서	64
프랜시스	300-303	히브리인 복음서	85
프랜시스 (앗시시의)	325	히폴리투스	97
프랜시스 수도단	297	힐데브란트→그레고리 7세	
프로렌스 대회	260		
프리드리히 1세	287		
프리드리히 2세	230		
프리스길라	151		
프리스킬리안	265-269		
프리이 로기온	85		
프슈도-이시도리안 교령집	195		
플라톤철학			

새교회사 I

1991. 6. 24. 초판발행
2002. 8. 30. 11쇄발행

지은이 정수영
펴낸이 정해석
펴낸곳 **명림출판사**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16-6

☎ (042)862-9607 / FAX 862-4510

<http://www.mhclick.com>

E-mail : [mhbest@mhclick.com](mailto:mhb主@mhclick.com)

등록 1997년 1월 17일 (제25호)

값 9,000원

© 저자와의 협약 아래 인지는 생략되었습니다.

『교회사연구의 새차원 전개』

이 책은 '신약교회사관'에 의해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추천자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에 의한 교회사연구의 새차원 전개라고 확신한다. 교회의 역사는 마땅히 이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초대교회를 본받으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선교도 기교나 세부적인 방법보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려는 '능력선교'가 큰 흐름이 되고 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정수영목사님을 택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사연구를 이끄는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극동방송사장

김장환 목사의 추천사에서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것에서 다소 진전을 하려고 노력한 유럽의

개혁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신대륙에서 마음껏자란 자유의 풍토속에서 생겨진 신학들...

오늘들 우리는 지식을 전수받고 또 그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눈을 떠야할 필요가 요청된다.

과거의 무비판적이고 무방비적인 상태에서 영향받은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음미하고 재해석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이해이다. 여기서 나의 학문이 시작되었다.』

